

CBETA電子佛典集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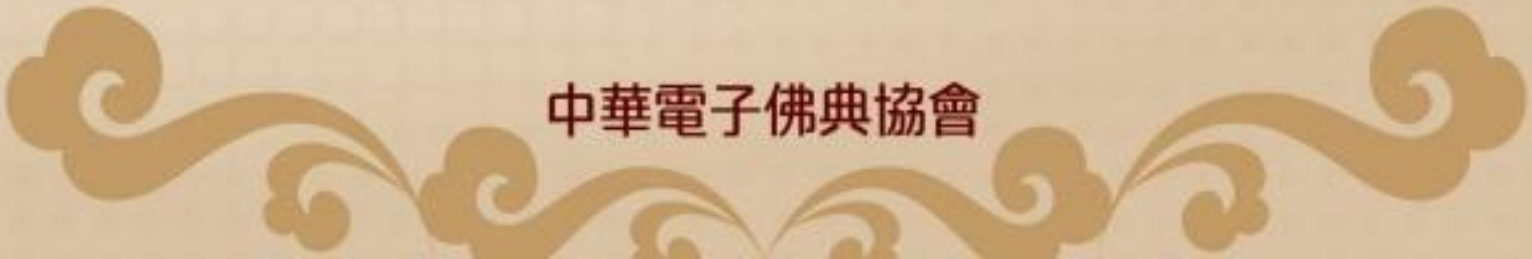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ebook

X85n1590

錦江禪燈

清 通醉輯

中華電子佛典協會



目次

- [編輯說明](#)
- [章節目次](#)
 - [四祖下第六世](#)
 - [金陵牛頭山智威法嗣](#)
 - [舒州天柱山崇慧禪師](#)
 - [五祖下第四世](#)
 - [益州無相法嗣](#)
 - [益州保唐寺無住禪師](#)
 - [大鑒下第一世](#)
 - [南嶽懷讓禪師](#)
 - [大鑒下第二世](#)
 - [南嶽讓法嗣](#)
 - [江西道一禪師](#)
 - [荷澤神會法嗣](#)
 - [西隱維平禪師](#)
 - [大鑒下第三世](#)
 - [馬祖一法嗣](#)
 - [西山亮座主](#)
 - [則川和尚](#)
 - [大鑒下第四世](#)
 - [歸宗常法嗣](#)
 - [漢南高亭和尚](#)
 - [章敬腫法嗣](#)
 - [金州操禪師](#)
 - [南泉普願法嗣](#)
 - [雲頂日子和尚](#)
 - [大鑒下第五世](#)
 - [遂州圓法嗣](#)
 - [終南山圭峰宗密禪師](#)
 - [長慶安法嗣](#)
 - [益州大隋法直禪師](#)
 - [趙州諗法嗣](#)
 - [益州西睦和尚](#)
 - [龍潭信法嗣](#)

- [鼎州德山宣鑒禪師](#)
- [藥山儼法嗣](#)
 - [秀州華亭船子德誠禪師](#)
- [臨濟玄法嗣](#)
 - [金沙和尚](#)
- [淩山祐法嗣](#)
 - [益州應天和尚](#)
- [大鑒下第六世](#)
 - [夾山會法嗣](#)
 - [嘉州白水禪師](#)
 - [香巖閑法嗣](#)
 - [益州南禪無染禪師](#)
 - [益州長平山和尚](#)
 - [益州崇福演教禪師](#)
 - [投子同法嗣](#)
 - [西川青城香山澄照禪師](#)
 - [興元府中梁山遵古禪師](#)
 - [洞山价法嗣](#)
 - [益州北院通禪師](#)
- [大鑒下第七世](#)
 - [雲蓋元法嗣](#)
 - [彭州天台燈禪師](#)
 - [洛浦安法嗣](#)
 - [嘉州洞谿戒定禪師](#)
 - [曹山寂法嗣](#)
 - [益州布水巖和尚](#)
 - [蜀川西禪和尚](#)
 - [白馬儒法嗣](#)
 - [興元府青剎山如觀禪師](#)
 - [岩頭叢法嗣](#)
 - [雲頂山玄泉彥禪師](#)
 - [龍牙遁法嗣](#)
 - [西川存禪師](#)
 - [雪峰存法嗣](#)
 - [益州普通山普明禪師](#)
 - [太原孚上座](#)
 - [福州鼓山神晏興聖國師](#)
- [大鑒下第八世](#)

- [青峰楚法嗣](#)
 - [西川霸龔禪師](#)
 - [益州淨眾寺歸信禪師](#)
- [玄泉彥法嗣](#)
 - [懷州玄泉二世和尚](#)
- [羅山閑法嗣](#)
 - [西川定慧禪師](#)
 - [灌州霸巖和尚](#)
- [芭蕉清法嗣](#)
 - [彭州承天院辭確禪師](#)
 - [興元府牛頭山精禪師](#)
 - [益州覺城院信禪師](#)
- [雲門偃法嗣](#)
 - [益州青城香林院澄遠禪師](#)
 - [饒州薦福承古禪師](#)
 - [韶州雙峰竟欽禪師](#)
 - [西川青城太面山乘禪師](#)
 - [興元府普通封禪師](#)
 - [益州鐵幢覺禪師](#)
 - [眉州福化充禪師](#)
 - [眉州黃龍贊禪師](#)
- [鹿門直法嗣](#)
 - [益州崇真禪師](#)
- [曹山霞法嗣](#)
 - [嘉州東江和尚](#)
- [雲居岳法嗣](#)
 - [梓州龍泉和尚](#)
- [含珠哲法嗣](#)
 - [洋州龍穴山和尚](#)
- [紫陵一法嗣](#)
 - [興元府太浪和尚](#)
- [大鑒下第九世](#)
 - [黃龍機法嗣](#)
 - [眉州黃龍繼達禪師](#)
 - [興元府玄都山澄禪師](#)
 - [嘉州黑水和尚](#)
 - [眉州昌福達禪師](#)
 - [太龍洪法嗣](#)

- [興元府普通院從善禪師](#)
- [護國遠法嗣](#)
 - [懷安軍雲頂德敷禪師](#)
- [石門徹法嗣](#)
 - [嘉州承天義勲禪師](#)
- [德山密法嗣](#)
 - [興元府中梁山崇禪師](#)
 - [益州東禪秀禪師](#)
- [乾明居信法嗣](#)
 - [\[郾-卑+\(\(白-日+田\)/丹\).\]縣西禪垂白禪師](#)
- [雙泉寬法嗣](#)
 - [襄州延慶宗本禪師](#)
- [香林遠法嗣](#)
 - [灌州羅漢和尚](#)
 - [灌州青城香林信禪師](#)
- [妙勝臻法嗣](#)
 - [西川雪峯欽山主](#)
- [大鑒下第十世](#)
 - [黃龍達法嗣](#)
 - [眉州黃龍禪師](#)
 - [清涼益法嗣](#)
 - [大梅慧明禪師](#)
 - [梁山緣觀法嗣](#)
 - [鼎州梁山巖禪師](#)
 - [石門遠法嗣](#)
 - [懷安軍雲頂上鑒禪師](#)
 - [果州清居山昇禪師](#)
 - [黑水環法嗣](#)
 - [峩眉黑水義欽禪師](#)
 - [智門祚法嗣](#)
 - [明州雪竇重顯禪師](#)
 - [德山遠法嗣](#)
 - [興元府大中仁辯禪師](#)
 - [益州菩提桂芳禪師](#)
- [大鑒下第十一世](#)
 - [谷隱聰法嗣](#)
 - [彭州永福院延昭禪師](#)
 - [果州永慶光普禪師](#)

- [葉縣省法嗣](#)
 - [什邡方水禪師](#)
- [太陽玄法嗣](#)
 - [惠州羅浮山顯如禪師](#)
 - [懷安軍雲頂海鵬禪師](#)
- [北塔廣法嗣](#)
 - [荊門軍玉泉承皓禪師](#)
- [雪竇顯法嗣](#)
 - [修撰曾會居士](#)
- [延慶榮法嗣](#)
 - [廬山圓通居訥祖印禪師](#)
- [梁山岩法嗣](#)
 - [鼎州梁山善冀禪師](#)
- [大鑒下第十二世](#)
 - [琅琊覺法嗣](#)
 - [江州歸宗可宣禪師](#)
 - [浮山遠法嗣](#)
 - [荊門軍玉泉諤芳禪師](#)
 - [稱心倥法嗣](#)
 - [彭州慧日堯禪師](#)
- [大鑒下第十三世](#)
 - [雙峰回法嗣](#)
 - [閬州光國文贊禪師](#)
 - [玉泉諤芳法嗣](#)
 - [安州延福智興禪師](#)
 - [芙蓉楷法嗣](#)
 - [鄧州丹霞子淳禪師](#)
 - [洪州寶峰闡提惟照禪師](#)
 - [襄州石門元易禪師](#)
 - [潼川梅山己禪師](#)
 - [長安天寧大用齊璉禪師](#)
 - [襄州鹿門法燈禪師](#)
 - [大洪恩法嗣](#)
 - [隋州大洪守遂禪師](#)
 - [蔣山泉法嗣](#)
 - [清獻公趙抃居士](#)
 - [法雲秀法嗣](#)
 - [興元府慈濟聰禪師](#)

- 黃龍南法嗣
 - 江州東林興龍寺常總照覺禪師
 - 瑞州黃檗惟勝直覺禪師
 - 南嶽福嚴慈感禪師
 - 潭州雲蓋守智禪師
 - 舒州宿松縣霧隱德滋山主
 - 景福順
- 羅漢祖印林法嗣
 - 絳州富樂智靜禪師
- 大鑑下第十四世
 - 白雲端法嗣
 - 蘄州五祖法演禪師
 - 丹霞淳法嗣
 - 直州長蘆直歇清了禪師
 - 石門易法嗣
 - 遂寧府香山尼佛通禪師
 - 大洪遂法嗣
 - 隋州大洪顯慶禪師
 - 黃龍心法嗣
 - 漢州三聖繼昌禪師
 - 東林總法嗣
 - 內翰東坡居士蘇軾
 - 寶峯文法嗣
 - 西蜀廣道
 - 隆興府泐潭湛堂文準禪師
 - 黃檗勝法嗣
 - 成都府昭覺純白紹覺禪師
 - 仰山偉法嗣
 - 襄陽谷隱顯禪師
 - 黃龍肅法嗣
 - 嘉定府月珠祖鑑禪師
 - 圓照本法嗣
 - 筠州逍遙聰禪師
 - 上藍順法嗣
 - 參政蘇轍居士
 - 佛國惟白法嗣
 - 興元府中梁山乾明永因禪師
- 大鑒下第十五世

- [天章覺法嗣](#)
 - [襄州石門清涼法真禪師](#)
- [黃龍新法嗣](#)
 - [嘉定府九頂寂惺惠泉禪師](#)
 - [嘉興府華亭性空妙普菴主](#)
- [晝原信法嗣](#)
 - [成都府正法希明禪師](#)
- [兜率悅法嗣](#)
 - [丞相張商英居士](#)
- [法雲杲法嗣](#)
 - [西蜀鑾法師](#)
- [泐潭準法嗣](#)
 - [隆興府雲巖典牛天游禪師](#)
- [太滄瑤法嗣](#)
 - [眉州中巖慧日蘊能禪師](#)
 - [懷安軍雲頂寶覺宗印禪師](#)
- [昭覺純白法嗣](#)
 - [成都府信相宗顯正覺禪師](#)
- [儼首座法嗣](#)
 - [潼川天寧則禪師](#)
- [浮山直法嗣](#)
 - [峩眉靈巖徽禪師](#)
- [信相顯法嗣](#)
 - [成都府金純文禪師](#)
- [五祖演法嗣](#)
 - [成都府昭覺寺克勤佛果禪師](#)
 - [舒州龍門清遠佛眼禪師](#)
 - [彭州大隋南堂元靜禪師](#)
 - [漢洲無為宗泰禪師](#)
 - [蘄州五祖表白禪師](#)
 - [蘄州龍華道初禪師](#)
 - [嘉州九頂清素禪師](#)
- [大鑒下第十六世](#)
 - [昭覺勤法嗣](#)
 - [潭州太滄佛性法泰禪師](#)
 - [臨安府霽隱慧遠佛海禪師](#)
 - [成都府正法建禪師](#)
 - [建安府華藏密印安民禪師](#)

- [成都府昭覺徹菴道元禪師](#)
- [眉州象耳山袁覺禪師](#)
- [眉州中巖華嚴祖覺禪師](#)
- [潭州福嚴文演禪師](#)
- [成都府昭覺道祖首座](#)
- [張魏公浚](#)
- [成都府范縣君](#)
- [太平懃法嗣](#)
 - [常德府文殊心道禪師](#)
 - [韶州南華知晏禪師](#)
- [龍門遠法嗣](#)
 - [溫州龍翔竹菴十珪禪師](#)
 - [南康軍雲居高菴善悟禪師](#)
 - [遂寧府西禪文璉禪師](#)
 - [撫州白楊法順禪師](#)
 - [南康軍歸宗直牧正賢禪師](#)
 - [世奇首座](#)
 - [給事馮楫濟川居士](#)
- [大隋靜法嗣](#)
 - [合州釣魚臺石頭白回禪師](#)
 - [潼川府護聖愚丘居靜禪師](#)
 - [簡州南巖勝禪師](#)
 - [常德府梁山廓庵師遠禪師](#)
 - [嘉州能仁默堂紹悟禪師](#)
 - [彭州上溪智陀子言庵主](#)
 - [劍門南修道](#)
 - [莫將尚書](#)
 - [龍圖王蕭居士](#)
- [大鑒下第十七世](#)
 - [育王謀法嗣](#)
 - [南劍州西巖宗回禪師](#)
 - [徑山杲法嗣](#)
 - [江州東林卞菴道顏禪師](#)
 - [劍州萬壽白護禪師](#)
 - [處州連雲道能禪師](#)
 - [臨安府霧隱最菴道印禪師](#)
 - [秦國夫人計氏法直](#)
 - [大溈泰法嗣](#)

- [漳州慧通清日禪師](#)
- [成都府正法灝禪師](#)
- [成都府昭覺辯禪師](#)
- [霽隱遠法嗣](#)
 - [慶元府東山全菴齊己禪師](#)
 - [知府葛剡居士](#)
- [華藏民法嗣](#)
 - [臨安府徑山別峰寶印禪師](#)
 - [可宣禪師](#)
- [泐潭明法嗣](#)
 - [漢州無為隨菴守緣禪師](#)
- [龍翔珪法嗣](#)
 - [南康軍雲居禪菴德昇禪師](#)
- [雲居悟法嗣](#)
 - [南康軍雲居普雲白圓禪師](#)
- [黃龍忠法嗣](#)
 - [成都府信相戒脩禪師](#)
- [西禪璉法嗣](#)
 - [遂寧府西禪第二代希秀禪師](#)
- [太滄果法嗣](#)
 - [荊門軍玉泉窮谷宗璉禪師](#)
- [石頭回法嗣](#)
 - [南康軍雲居蓬菴德會禪師](#)
- [大鑒下第十八世](#)
 - [東林顏法嗣](#)
 - [江州報恩法演禪師](#)
 - [婺州智者元菴直慈禪師](#)
 - [昭覺紹淵禪師](#)
 - [張栻字敬夫](#)
 - [西禪霈法嗣](#)
 - [南劍州劍門安分菴主](#)
 - [太滄行法嗣](#)
 - [常德府德山子涓禪師](#)
 - [育王光法嗣](#)
 - [臨安北澗居簡禪師](#)
 - [未詳法嗣](#)
 - [蜀僧方辨](#)
 - [太瘠蜀僧](#)

- [蜀中仁王欽禪師](#)
- [德普禪師](#)
- [潼川報恩道熙禪師](#)
- [范蜀公送圓悟禪師行脚](#)
- [無心廣道](#)
- [漢中沙門意忠上座](#)
- [自慶藏主](#)
- [峩眉山白長老](#)
- [大鑒下第十九世](#)
 - [天童傑法嗣](#)
 - [夔州臥龍山破菴祖先禪師](#)
 - [饒州薦福曹原生禪師](#)
- [大鑒下第二十世](#)
 - [臥龍破菴先法嗣](#)
 - [臨安府徑山無準師範禪師](#)
 - [臨安府霽隱石田法薰禪師](#)
 - [南康府雲居即菴慈覺禪師](#)
 - [淨慈仲穎法嗣](#)
 - [溫州江心一山了萬禪師](#)
- [大鑒下第二十一世](#)
 - [無準範法嗣](#)
 - [明州天童別山祖智禪師](#)
 - [金山開法嗣](#)
 - [臨安府徑山石溪心月禪師](#)
- [大鑒下第二十二世](#)
 - [無用寬法嗣](#)
 - [重慶府縉雲山如海直禪師](#)
- [大鑒下第二十五世](#)
 - [少林裕法嗣](#)
 - [昭覺仲慶禪師](#)
 - [後菴照法嗣](#)
 - [卮邠進禪師](#)
- [大鑒下第二十六世](#)
 - [古拙俊法嗣](#)
 - [普州東林無際悟禪師](#)
- [大鑒下第二十七世](#)
 - [東林悟法嗣](#)
 - [簡州天成寺楚山紹琦禪師](#)

- [無礙鑑禪師](#)
- [太平府八峰山廣善寶月潭禪師](#)
- [重慶府西禪雪峰瑞禪師](#)
- [少室淳拙才法嗣](#)
 - [益都亮禪師](#)
- [大鑒下第二十八世](#)
 - [東明昂法嗣](#)
 - [湖州東明海舟永慈禪師](#)
 - [唐安湛淵齋禪師](#)
 - [天成琦法嗣](#)
 - [古淪濟川洪禪師](#)
 - [石經海珠祖意禪師](#)
 - [長松大心直源禪師](#)
 - [嵩潘大悲寺崇善一天智中國師](#)
 - [石經豁堂祖裕禪師](#)
 - [三池月光常慧禪師](#)
 - [天成古音韶禪師](#)
 - [西禪瑞法嗣](#)
 - [寶文洪印禪師](#)
 - [八峰聞法嗣](#)
 - [昭覺無礙通禪師](#)
- [大鑒下第二十九世](#)
 - [古溪澄法嗣](#)
 - [成都西宗祐禪師](#)
 - [了禪能法嗣](#)
 - [成都昭覺寶藏通禪師](#)
- [大鑒下第三十世](#)
 - [天目進法嗣](#)
 - [齊安白雲寶明鑒禪師](#)
- [大鑒下第三十一世](#)
 - [石門海法嗣](#)
 - [隋州七尖峰大休宗隆禪師](#)
- [大鑒下第三十二世](#)
 - [不二際法嗣](#)
 - [達州白馬寺儀峰方彖禪師](#)
 - [燕京大千佛寺徧融直圓禪師](#)
 - [休塵法嗣](#)
 - [灌陽鑑隨和尚](#)

- 大鑒下第三十三世
 - 鑑隨法嗣
 - 彭州寶池禪師
 - 邛州了凡剛禪師
- 大鑒下第三十五世
 - 天童悟法嗣
 - 萬峰破山明禪師
 - 林野奇禪師
 - 法璽禪師
- 大鑒下第三十六世
 - 破山明法嗣
 - 象崖斑禪師
 - 含璞燦禪師
 - 靈筏昌禪師
 - 太慈無漏涵禪師
 - 體宗寧禪師
 - 離指示禪師
 - 雪臂巒禪師
 - 敏樹相禪師
 - 大隨澹竹密禪師
 - 武岡州雲天山燕居申禪師
 - 昭覺丈雪醉禪師
 - 荊南蓮月正禪師
 - 靈隱文禪師
 - 慧覺衣禪師
 - 林木綬禪師
 - 雲幻宸禪師
 - 寂光豁禪師
 - 易菴師禪師
 - 渝州華岩聖可和尚
 - 快雪國禪師
 - 合州石幢壽禪師
 - 成都然燈百城著禪師
 - 瀘州四峰山雲慶寺遺聞幻禪師
 - 遵義松丘兩生從禪師
 - 蓬溪六岫奎禪師
 - 瀘州雲谿禦木章禪師
 - 劍州智積院耕雲鑑禪師

- [雙桂雲嶠水禪師](#)
- [雲頂竺意傳禪師](#)
- [不會法禪師](#)
- [嘯宗密禪師](#)
- [東川呂大器](#)
- [密行忍禪師](#)
- [無私元禪師](#)
- [弘覺忞法嗣](#)
 - [寧波府天童山曉哲禪師](#)
- [浮石賢法嗣](#)
 - [帽樵\[汁*\(十/甲/寸\).\]禪師](#)
 - [湖州府演教寺退岩泐禪師](#)
- [林野奇法嗣](#)
 - [自閒覺禪師](#)
 - [華亭二隱謐禪師](#)
 - [風穴雲峩喜禪師](#)
- [大鑒下第三十七世](#)
 - [象崖斑法嗣](#)
 - [石谷慧禪師](#)
 - [貴陽雲腹智禪師](#)
 - [曲靖府東山余山瑞禪師](#)
 - [靈筏昌法嗣](#)
 - [紫芝藏禪師](#)
 - [雪臂巒法嗣](#)
 - [桂陽語嵩裔禪師](#)
 - [敏樹相法嗣](#)
 - [南浦天圓寺耳毒泰禪師](#)
 - [天隱崇禪師](#)
 - [聖壽空谷澄禪師](#)
 - [黔靈赤松嶺禪師](#)
 - [夔州府開元寺繼初尚禪師](#)
 - [澹竹密法嗣](#)
 - [萬壽曉元濟禪師](#)
 - [紫微自徹琛禪師](#)
 - [艸堂吼一等禪師](#)
 - [充裕印禪師](#)
 - [寶光從谷習禪師](#)
 - [博山來法嗣](#)

- [獨峰竹山道巖禪師](#)
- [青龍百愚法嗣](#)
 - [京兆薦福紫谷禪師](#)
- [丈雪醉法嗣](#)
 - [溪聲圓禪師](#)
 - [安龍府月幢了禪師](#)
 - [長松端鼻萬禪師](#)
 - [懶牛昇禪師](#)
 - [昆明香國大憨我禪師](#)
 - [大慈懶石聆禪師](#)
 - [彝陵洪山憨月聞禪師](#)
 - [佛窰綱禪師](#)
 - [雲南半牛襄禪師](#)
 - [闍中艸堂癯雲實禪師](#)
 - [遵義府禹門寺半月涵禪師](#)
 - [問潮嶼禪師](#)
 - [青城竹浪牛禪師](#)
 - [月莖字禪師](#)
 - [雅安東山佛明清禪師](#)
 - [竹鏡嵩禪師](#)
 - [不二貴禪師](#)
 - [松齋中禪師](#)
 - [玉泉其白富禪師](#)
 - [玉螺山希聲徹詠禪師](#)
 - [鹿門徹岩彭居士](#)
 - [節度使坤育張居士](#)
 - [尚書幻菴胡居士](#)
 - [海岸趙居士](#)
 - [超斯](#)
 - [心齋徹魯道人](#)
- [密行忍法嗣](#)
 - [中興嗣燈胤禪師](#)
 - [晝先一禪師](#)
- [燕居申法嗣](#)
 - [石琴聞禪師](#)
- [靈隱文法嗣](#)
 - [師林育禪師](#)
 - [密印傳禪師](#)

- 慧覺衣法嗣
 - 嘉定州龍驤寺破峰重禪師
 - 渝州香國佛語御禪師
- 大吼傳法嗣
 - 豁靈順禪師
 - 雨春智禪師
 - 三峰半水元禪師
- 易菴師法嗣
 - 涇陽林我鑑禪師
- 聖可玉法嗣
 - 還初佛禪師
 - 南芝靜禪師
 - 漢州龍興寺子鐘洪禪師
 - 法空證禪師
 - 犍為龍巖浮石演禪師
 - 慈雲价南仙禪師
 - 上乘啟禪師
 - 不惑興禪師
 - 指雲孝禪師
 - 嘉石亮禪師
 - 圓通惟識典禪師
 - 三淵惺禪師
 - 大器成禪師
 - 碧露夢禪師
 - 提刑翫暎高居士
 - 雲谿明府帝臣王居士
- 體宗寧法嗣
 - 湛一清禪師
- 兩牛從法嗣
 - 藏天宣禪師
 - 鐵機常禪師
- 含光直法嗣
 - 瀘陽天竺寺佛先啟禪師
- 嘯宗密法嗣
 - 峩雪慧禪師
 - 昌昌慧禪師
- 二隱謐法嗣
 - 襄陽梓舟船禪師

- [牧雨霖禪師](#)
- [白閒賢法嗣](#)
 - [霍山憨余暹禪師](#)
- [雲峩喜法嗣](#)
 - [斌雅禪師](#)
 - [憨休乾禪師](#)
- [宕山法法嗣](#)
 - [孤月朗禪師](#)
 - [古宿尊禪師](#)
- [大雄峰法嗣](#)
 - [藪菴願禪師](#)
- [響谷法嗣](#)
 - [金純寺眉雪宗禪師](#)
- [凝直法嗣](#)
 - [南隆西平寺天然慧禪師](#)
- [快雪國法嗣](#)
 - [蓮池聞禪師](#)
- [雲嶠水法嗣](#)
 - [蒼谷桂禪師](#)
- [大鑒下第三十八世](#)
 - [石谷慧法嗣](#)
 - [羅漢雲林地禪師](#)
 - [淨居月日初禪師](#)
 - [蒼桐華禪師](#)
 - [紫芝藏法嗣](#)
 - [\[郛-卑+\(\(白-日+田\)/升\)\].簡護國寺天然貴禪師](#)
 - [錦宮萬福寺瓊日溫禪師](#)
 - [語嵩裔法嗣](#)
 - [嵩耳住禪師](#)
 - [書雲昂法嗣](#)
 - [舌響訥禪師](#)
 - [麗眉采禪師](#)
 - [太冶法嗣](#)
 - [舒光照禪師](#)
 - [耳毒泰法嗣](#)
 - [射洪會靈寺幻住明禪師](#)
 - [純備德禪師](#)
 - [佛語御法嗣](#)

- [重慶府香國寺窠堂秀禪師](#)
- [吼一等法嗣](#)
 - [唐安曇雲寺文壁福禪師](#)
- [瑞林蓮法嗣](#)
 - [玉諾昌禪師](#)
- [曉元濟法嗣](#)
 - [大坦宗禪師](#)
- [佛窠綱法嗣](#)
 - [嘉州九頂子開乾禪師](#)
 - [天湛熾禪師](#)
 - [籌室燦禪師](#)
- [竹浪生法嗣](#)
 - [翼雲鵬禪師](#)
 - [義喆純禪師](#)
 - [義奇一禪師](#)
- [懶石聆法嗣](#)
 - [非指明禪師](#)
- [耨雲實法嗣](#)
 - [古湟印心寺佛敏訥禪師](#)
- [竹鏡嵩法嗣](#)
 - [眉州燈壁寺文衡權禪師](#)
- [其白富法嗣](#)
 - [融徹頂禪師](#)
- [指雲孝法嗣](#)
 - [勤正進禪師](#)
- [浮石演法嗣](#)
 - [嵩雲秀禪師](#)
- [大器成法嗣](#)
 - [濟得正禪師](#)
- [法空證法嗣](#)
 - [素如珮禪師](#)
- [赤松嶺法嗣](#)
 - [乾御源禪師](#)
- [嗣燈胤法嗣](#)
 - [隱南庵禪師](#)
- [大鑒下第三十九世](#)
 - [舌響訥法嗣](#)
 - [圓通大朗璽禪師](#)

- [祖鼻法嗣](#)
 - [滄溪月禪師](#)
- [純備德法嗣](#)
 - [法幢遠禪師](#)
- [跋](#)
- [附高僧神僧傳](#)
 - [道因](#)
 - [靖邁](#)
 - [神清](#)
 - [靈著](#)
 - [神會](#)
 - [南印](#)
 - [有緣](#)
 - [鑑源](#)
 - [知玄](#)
 - [無相大師](#)
 - [待駕](#)
 - [惟忠](#)
 - [處寂](#)
 - [太川](#)
 - [梵僧難陀](#)
 - [懷空](#)
 - [定光](#)
 - [智廣](#)
 - [圓相](#)
 - [法融](#)
 - [貫休](#)
 - [永安](#)
 - [亡名](#)
 - [法江](#)
 - [羅僧](#)
 - [行遵](#)
 - [僧緘](#)
 - [點點師](#)
 - [定蘭](#)
 - [洪正](#)
 - [雄俊](#)
 - [漬虐](#)

- [漢州開化寺亡名](#)
- [成都費長房](#)
- [慧詔](#)
- [寶淵](#)
- [寶象](#)
- [寶海](#)
- [智方](#)
- [玄續](#)
- [道基](#)
- [靈容](#)
- [僧副](#)
- [曇詢](#)
- [僧淵](#)
- [法進](#)
- [慧熙](#)
- [世瑜](#)
- [惠寬](#)
- [智誥](#)
- [智炫](#)
- [道會](#)
- [植相](#)
- [僧林](#)
- [道仙](#)
- [香闍黎](#)
- [益州多寶寺猷禪師](#)
- [僧度](#)
- [衛元嵩](#)
- [尚圓](#)
- [涪州想思寺無相禪師](#)
- [童進](#)
- [富上](#)
- [德山](#)
- [慧琳](#)
- [慧聰](#)
- [智隱](#)
- [法凝](#)
- [僧崖](#)
- [紹闍黎](#)

- [法建](#)
- [慧恭](#)
- [法泰](#)
- [寶瓊](#)
- [明達](#)
- [僧昇](#)
- [智通](#)
- [悟詮](#)
- [僧稠](#)
- [僧羣](#)
- [沙門邵碩](#)
- [惠主](#)
- [慧璿](#)
- [道昭](#)
- [嘉州僧常羅漢](#)
- [道汪](#)
- [惠持法師](#)
- [慧叟](#)
- [瀘州羅貫山和尚](#)
- [希夷陳先生](#)
- [嘉興府楞嚴寺達觀法師](#)
- [德昇](#)
- [犍為陳道人](#)
- [瓦屋山角端](#)
- [開元寺張三丰](#)
- [嘉州凌雲寺](#)
- [古寺楊關主悟空洪仁禪師](#)
- [峩眉道](#)
- [賢護](#)
- [法緒](#)
- [法成](#)
- [法期](#)
- [道法](#)
- [普恒](#)
- [法淋](#)
- [僧慶](#)
- [僧生](#)
- [顯嵩](#)

- [禪惠](#)
- [寶崖](#)
- [石巖崑法師](#)
- [唐阿世多尊者](#)
- [道慧](#)
- [明采](#)
- [明本](#)
- [空菴](#)
- [德愛](#)
- [萬竹講師](#)
- [妙琴](#)
- [雪菴樂靜禪師](#)
- [無遐](#)
- [直容](#)
- [實相](#)
- [曉宗](#)
- [知慧菩薩](#)
- [孤舟禪師](#)
- [福湛](#)
- [了用](#)
- [玄暢](#)
- [普岸](#)
- [慧永](#)
- [懷州靈燦](#)
- [楚琦](#)
- [牟羅漢](#)
- [印滿](#)
- [壽聖院僧冲](#)
- [法師承遠](#)
- [裴氏鸚鵡](#)
- [成都有僧誦法華經](#)
- [沙門海通](#)
- [梵僧西天三藏益怕羅](#)
- [成都沙門光遠](#)
- [明鑿表](#)
- [通天禪師](#)
- [得心律師](#)
- [渝州木棟可尊古法師](#)

- [澄江宗主](#)
- [輔慈沙門高原号蓬溪人](#)
- [長壽東山寺無為律師](#)
- [鈞天](#)
- [昭覺惟一直常禪師](#)
- [遼陽](#)
- [導義禹門策眉禪師](#)
- [諱號雷同傳](#)
- [攀高傳](#)
- [後跋](#)
- [卷目次](#)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贊助資訊](#)

編輯說明

- 本電子書以「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 Q1」為資料來源。
- 漢字呈現以 Uni code 3.0 為基礎，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
-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
-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
- 若有發現任何問題，歡迎來函 service@cbeta.org 回報。
- 版權所有，歡迎自由流通，但禁止營利使用。

昭覺丈雪 通醉 輯

紹興幻菴 胡昇猷 訂

四祖下第六世(旁出)

金陵牛頭山智威法嗣

舒州天柱山崇慧禪師

彭州陳氏子。唐乾元初。往舒州天柱山創寺。永泰元年賜額。僧問。如何是天柱境。師曰。主簿山高難見日。玉鏡峰前易曉人。問達磨未來此土時。還有佛法也無。師曰。未來且置。即今事作麼生。曰某甲不會。乞師指示。師曰。萬古長空。一朝風月。僧無語。師復曰。闍黎會麼。曰不會。師曰。自己分上作麼生。干他達磨來與未來作麼。他家來大似賣卜漢。見汝不會。為汝錐破卦文。纔生吉凶。盡在汝分上。一切自看。僧曰。如何是解卜底人。師曰。汝纔出門時。便不中也。問如何是天柱家風。師曰。時有白雲來閉戶。更無風月四山流。問亡僧遷化向甚麼處去也。師曰。灞嶽峰高長積翠。舒江明月色光暉。問如何是大通智勝佛。師曰。曠大劫來未曾壅滯。不是大通智勝佛是甚麼。曰為甚麼佛法不現前。師曰。只為汝不會。所以成不現前。汝若會去。亦無佛可成。問如何是道。師曰。白雲覆青嶂。蜂蝶戀庭華。問從上諸聖有何言說。師曰。汝今見吾有何言說。問宗門中事請師舉唱。師曰。石牛長吼真空外。木馬嘶時月隱山。問如何是和尚利人處。師曰。一雨普滋。千山秀色。問如何是天柱山中人。師曰。獨步千峰頂。優游九曲泉。問如何是西來意。師曰。白猿抱子來青嶂。蜂蝶銜華綠藥間。大曆十四年歸寂。塔于山之北。

五祖下第四世

益州無相法嗣

益州保唐寺無住禪師

初得法於無相大師。乃居南陽白崖山。專務宴寂。經累歲。學者漸至。勤請不已。自此垂誨。雖廣演言教。而唯以無念為宗。唐相國杜鴻漸。出撫坤維。聞師名。思一瞻禮。遣使到山延請。時節度使崔寧。亦命諸寺僧徒。遠出迎引。至空慧寺。時杜公與戎帥。召三學碩德。俱會寺中。致禮訖。公問曰。弟子聞。和尚說無憶無念莫妄三句法門。是否。師曰然。公曰。此三句是一是三。師曰。無憶名戒。無念名定。莫妄名慧。一心不生。具戒定慧。非一非三也。公曰。後句妄字。莫是從心之忘乎。曰從妄者是也。公曰。有據否。師曰。法句經云。若起精進心。是妄非精進。若能心不妄。精進無有涯。公聞疑情盪然。公又問。師還以三句示人否。師曰。初心學人還令息念。澄停識浪。水清影現。悟無念體。寂滅現前。無念亦不立也。于時庭樹鷓鴣鳴。公問。師聞否。師曰聞。鷓鴣去已又問。師聞否。師曰聞。公曰。鷓鴣去無聲。云何言聞。師乃普告大眾曰。佛世難值。正法難聞。各各諦聽。聞無有聞。非關聞性。本來不生。何曾有滅。有聲之時。是聲塵自生。無聲之時。是聲塵自滅。而此聞性不隨聲生。不隨聲滅。悟此聞性。則免聲塵之所轉。當知聞無生滅。聞無去來。公與僚屬大眾稽首又問。何名第一義。第一義者從何次第得入。師曰。第一義無有次第。亦無出入。世諦一切有。第一義即無。諸法無性性。說名第一義。佛言。有法名俗諦。無性第一義。公曰。如師開示。實不可思議。公又曰。弟子性識微淺。昔因公暇。撰得起信論章疏兩卷。可得稱佛法否。師曰。夫造章疏。皆用識心思量分別。有為有作。起心動念。然可造成。據論文云。當知一切法。從本以來。離言說相。離名字相。離心緣相。畢竟平等無有變異。唯有一心。故名真如。今相公著言說相。著名字相。著心緣相。既著種種相。云何是佛法。公起作禮曰。弟子亦曾問諸供奉大德。皆贊弟子不可思議。當知彼等但徇人情。師今從理解說。合心地法。實是真理不可思議。公又問。云何不生。云何不滅。如何得解脫。師曰。見境心不起名不生。不生即不滅。既無生滅。即不被前塵所縛。當處解脫。不生名無念。無念即無滅。無念即無縛。無念即無脫。舉要而言。識心即離念。見性即解脫。離識心見性外。更有法門識無上菩提者。無有是處。公曰。何名識心見性。師曰。一切學道人。隨念流浪。蓋為不識真心。真心者。念生亦不順生。念滅亦不依寂。不來不去。不定不亂。不取不捨。不沈不浮。無為無相。活鱗鱗。平常自在。此心體畢竟不可得。無可知覺。觸目皆如。無非見性也。公與大眾作禮稱贊。踊躍而去。師後居保唐寺而終。

大鑒下第一世

南嶽懷讓禪師

金州杜氏子。於唐儀鳳二年四月八日降誕。感白氣應於玄像。在安康之分。太史瞻見。奏聞高宗皇帝。帝乃問。是何祥瑞。太史對曰。國之法器。不染世榮。帝傳勅金州太守韓偓。親往存慰其家。家有三子。唯師最小。炳然殊異。性唯恩讓。父乃安名懷讓。年十歲。唯樂佛書。時有三藏玄靜過舍。告其父母曰。此子若出家。必獲上乘。廣度眾生。至垂拱三年。方十五歲。辭親往荊州玉泉寺。依弘景律師出家。通天二年受戒。後習毗尼藏。一日自歎曰。夫出家者。為無為法。天上人間無有勝者。時同學坦然。知師志氣高邁。勸師謁嵩山安和尚。安啟發之。乃直指詣曹谿。參六祖。祖問。甚麼處來。曰嵩山來。祖曰。甚麼物恁麼來。師無語。遂經八載。忽然有省。乃白祖曰。某甲有個會處。祖曰。作麼生。師曰。說似一物即不中。祖曰。還假修證否。師曰。修證則不無。污染即不得。祖曰。祇此不污染。諸佛之所護念。汝既如是。吾亦如是。西天般若多羅識汝。足下出一馬駒。踏殺天下人。病在汝心。不須速說。師執侍左右一十五年。先天二年。住衡嶽居般若寺。開元中。有沙門道一。在衡嶽山。常習坐禪。師知是法器。往問曰。大德坐禪圖甚麼。一曰。圖作佛。師乃取一甌。於彼菴前石上磨。一曰。磨作甚麼。師曰。磨作鏡。一曰。磨甌豈得成鏡邪。師曰。磨甌既不成鏡。坐禪豈得作佛。一曰。如何即是。師曰。如牛駕車。車若不行。打車即是。打牛即是。一無對。師又曰。汝學坐禪。為學坐佛。若學坐禪。禪非坐臥。若學坐佛。佛非定相。於無住法不應取捨。汝若坐佛。即是殺佛。若執坐相。非達其理。一聞示誨。如飲醍醐。禮拜問曰。如何用心即合無相三昧。師曰。汝學心地法門。如下種子。我說法要。譬彼天澤。汝緣合故當見其道。又問。道非色相。云何能見。師曰。心地法眼能見乎道。無相三昧亦復然矣。一曰。有成壞否。師曰。若以成壞聚散而見道者。非見道也。聽吾偈曰。心地含諸種。遇澤悉皆萌。三昧華無相。何壞復何成。一蒙開悟。心意超然。侍奉十秋。日益玄奧。入室弟子總有六人。師各印可曰。汝等六人同證吾身。各契其一。一人得吾眉。善威儀。一人得吾眼。善顧盼。一人得吾耳。善聽理。一人得吾鼻。善知氣。一人得吾舌。善談說。一人得吾心。善古今。曰一切法皆從心生。心無所生。法無所住。若達心地。所作無礙。非遇上根。宜慎辭哉。天寶三年八月十一日。圓寂於衡嶽。諡大慧禪師。最勝輪之塔。

大鑒下第二世

南嶽讓法嗣

江西道一禪師

漢州什邡縣馬氏子。本邑羅漢寺出家。容貌奇異。牛行虎視。引舌過鼻。足下有二輪文。幼歲依資州唐和尚落髮。受具於渝州圓律師。唐開元中。習禪定於衡嶽山中。遇讓和尚。同參六人。唯師密受心印。始自建陽佛迹嶺。遷至臨川。次至南康龔公山。大曆中。隸名於鍾陵開元寺。時連帥路嗣恭。聆風景慕。親受宗旨。由是四方學者雲集座下。一日謂眾曰。汝等諸人。各信自心是佛。此心即是佛心。達磨大師從南天竺國。來至中華。傳上乘一心之法。令汝等開悟。又引楞伽經文。以印眾生心地。恐汝顛倒不自信。此一心之法各各有之。故楞伽經以佛語心為宗。無門為法門。夫求法者。應無所求。心外無別佛。佛外無別心。不取善不捨惡。淨穢兩邊俱不依怙。達罪性空。念念不可得。無自性故。故三界唯心。森羅萬象。一法之所印。凡所見色皆是見心。心不自心。因色故有。汝但隨言說。即事即理。都無所礙。菩提道果亦復如是。於心所生。即名為色。知色空故。生即不生。若了此意。乃可隨時著衣喫飯。長養聖胎。任運過時。更有何事。汝受吾教。聽吾偈曰。心地隨時說。菩提亦祇寧。事理俱無礙。當生即不生。僧問。和尚為甚麼說即心即佛。師曰。為止小兒啼。曰啼止時如何。師曰。非心非佛。曰除此二種人來。如何指示。師曰。向伊道不是物。曰忽遇其中人來時如何。師曰。且教伊體會大道。問如何是西來意。師曰。即今是甚麼意。龐居士問。不昧本來人。請師高著眼。師直下覷。士曰。一等沒絃琴。唯師彈得妙。師直上覷。士禮拜。師歸方丈。居士隨後曰。適來弄巧成拙。又問。如水無筋骨。能勝萬斛舟。此理如何。師曰。者裏無水亦無舟。說甚麼筋骨。一夕西堂百丈南泉隨侍翫月次。師問。正恁麼時如何。堂曰。正好供養。丈曰。正好修行。泉拂袖便行。師曰。經入藏。禪歸海。唯有普願獨超物外。百丈問。如何是佛法旨趣。師曰。正是汝放身命處。師問百丈。汝以何法示人。丈豎起拂子。師曰。祇者個。為當別有。丈拋下拂子。僧問。如何得合道。師曰。吾早不合道。問如何是西來意。師便打曰。吾若不打汝。諸方笑吾也。有小師耽源行脚回。於師前畫個圓相。就上拜了立。師曰。汝莫欲作佛否。曰某甲不解捏目。師曰。吾不如汝。小師不對。鄧隱峯辭師。師曰。甚麼處去。曰石頭去。師曰。石頭路滑。曰竿木隨身。逢場作戲。便去。纔到石頭。即繞禪牀一匝。振錫一聲。問是何宗旨。石頭曰。蒼天蒼天。峰無語。却回舉似師。師曰。汝更去問。待他有答。汝便噓兩聲。峯又去依

前問。石頭乃噓兩聲。峯又無語。回舉似師。師曰。向汝道石頭路滑。有僧於師前作四畫。上一畫長。下三畫短。曰不得道一畫長三畫短。離此四字外。請和尚答。師乃畫地一畫曰。不得道長短。答汝了也。有講僧來問曰。未審禪宗傳持何法。師却問曰。座主傳持何法。主曰。忝講得經論二十餘本。師曰。莫是師子兒否。主曰不敢。師作噓噓聲。主曰。此是法。師曰。是甚麼法。主曰。師子出窟法。師乃默然。主曰。此亦是法。師曰。是甚麼法。主曰。師子在窟法。師曰。出不入。是甚麼法。主無對。遂辭出門。師召曰座主。主回首。師曰。是甚麼。主亦無對。師曰。者鈍根阿師。洪州廉使問曰。喫酒肉即是。不喫即是。師曰。若喫是中丞祿。不喫是中丞福。師入室弟子一百三十九人。各為一方宗主。轉化無窮。師於真元四年正月中。登建昌石門山。於林中經行。見洞壑平坦。謂侍者曰。吾之朽質。當於來月歸茲地矣。言訖而回。既而示疾。院主問。和尚近日尊候如何。師曰。日面佛月面佛。二月一日。沐浴跏趺入滅。元和中謚大寂禪師。塔曰大莊嚴。

荷澤神會法嗣

西隱進平禪師

京兆吳氏子。出家於永安山明福院。風表端雅。諸經大論皆所研尋。銷文鍊注令人樂聞。末思禪觀。於洛下遇荷澤會師了悟。且曰。甚矣不自外知者所知難乎哉。後至唐州。遂居西隱山。刺史鄭文簡。請入城闡揚宗旨。示滅年八十一。大曆十四年三月。塔於雲頂。

大鑒下第三世

馬祖一法嗣

西山亮座主

蜀人也。頗講經論。因參馬祖。祖問。見說座主大講得經論。是否。師曰不敢。祖曰。將甚麼講。師曰。將心講。祖曰。心如工伎兒。意如和伎者。爭解講得。師抗聲曰。心既講不得。虛空莫講得麼。祖曰。却是虛空講得。師不肯便出。將下堦。祖召曰座主。師回首。祖曰。是甚麼。師豁然大悟。便禮拜。祖曰。者鈍根阿師。

禮拜作麼。師曰。某甲所講經論。將謂無人及得。今日被大師一問。平生功業一時冰釋。禮謝而退。乃隱于洪州西山。更無消息。

則川和尚

蜀人也。龐居士相看次。師曰。還記得見石頭時道理否。士曰。猶得阿師重舉在。師曰。情知久參事慢。士曰。阿師老耄。不啻龐公。師曰。二彼同時。又爭幾許。士曰。龐公鮮健。且勝阿師。師曰。不是勝我。祇欠汝個幞頭。士拈下幞頭曰。恰與師相似。師大笑而已。師摘茶次。士曰。法界不容身。師還見我否。師曰。不是老師。洎答公話。士曰。有問有答蓋是尋常。師乃摘茶不聽。士曰。莫怪適來容易借問。師亦不顧。士喝曰。者無禮儀老漢。待我一舉向明眼人。師乃拋却茶籃。便歸方丈。

大鑒下第四世

歸宗常法嗣

漢南高亭和尚

有僧自夾山來禮拜。師便打。僧曰。特來禮拜。何得打某甲。僧再禮拜。師又打趂。僧回舉似夾山。山曰。汝會也無。曰不會。山曰。賴汝不會。若會。即夾山口瘥。

章敬暉法嗣

金州操禪師

請米和尚齋。不排坐位。米到展坐具禮拜。師下禪牀。米乃坐師位。師却席地而坐。齋訖。米便去。侍者曰。和尚受一切人欽仰。今日坐位被人奪却。師曰。三日後若來。即受救在。米三日後果來。曰前日遭賊。

南泉普願法嗣

雲頂日子和尚

亞谿來參。師作起勢。谿曰。者老山鬼。猶見某甲在。師曰。罪過罪過。適來失祇對。谿欲進語。師乃叱之。谿曰。大陣前不妨難禦。師曰是是。谿曰。是不是。趙州云。可憐兩個漢。不識轉身句。

大鑒下第五世(旁出)

遂州圓法嗣

終南山圭峰宗密禪師

果州西充何氏子。家本豪盛。髫鬣通儒書。冠歲探釋典。唐元和二年。將赴貢舉。偶造圓和尚法席。欣然契會。遂求披剃。當年進具。一日隨眾僧。齋于府吏任灌家。居下位。以次受經。得圓覺十二章。覽未終軸。感悟流涕。歸以所悟之旨告于圓。圓撫之曰。汝當大弘圓頓之教。此諸佛授汝耳。行矣。無自滯于一隅也。師涕泣奉命禮辭而去。因謁荊南忠禪師。忠曰。傳教人也。當宣導於帝都。復見洛陽照禪師。照曰。菩薩人也。誰能識之。尋抵襄漢。因病僧付華嚴疏。即上都澄觀大師之所撰也。師未嘗聽習。一覽而講。自欣所遇曰。向者諸師述作。罕窮厥旨。未若此疏辭源流暢。幽蹟煥然。吾禪遇南宗。教逢圓覺。一言之下心地開通。一軸之中義天朗耀。今復偶茲絕筆。罄竭于懷。暨講終思見疏主。時屬門人泰恭斷臂酬恩。師先齎書上疏主。遙敘師資。往復慶慰。尋泰恭痊損。方隨侍至上都。執弟子之禮。觀曰。毗盧華藏。能隨我遊者。其汝乎。師預觀之室。惟日新其德。而認筌執象之患永亡矣。北遊清涼山。四住鄆縣草堂寺。未幾復入終南圭峰蘭若。大和中。徵入內賜紫衣。帝累問法要。朝士歸慕。唯相國裴公休。深入堂奧。受教為外護。師以禪教學者。互相非毀。遂著禪源諸詮。為錄諸家所述。詮表禪門根源道理文字句偈。集為一藏。以貽後代。其都序略云。禪是天竺之語。具云禪那。此云思惟修。亦云靜慮。皆定慧之通稱也。源者是一切眾生本覺真性。亦名佛性。亦名心地。悟之名慧。修之名定。定慧通名為禪。此性是禪之本源。故云禪源。亦名禪那。理行者。此之本源是禪理。忘情契之是禪行。故云理行。然今所集諸家述作。多譚禪理。少說禪行。故且以禪源題之。今時有人。但目真性為禪者。是不達理行之旨。又不辨華竺之音也。然非離真性別有禪體。但眾生迷真合塵。即名散亂。背塵合真。方名禪定。若直論本性。即非真非妄。無背無合。無定無亂。誰言禪乎。況此真性。非唯是禪門之源。亦是萬法之源。故名法性。亦是眾生

迷悟之源。故名如來藏藏識。亦是諸佛萬德之源。故名佛性。亦是菩薩萬行之源。故名心地。萬行不出六波羅蜜。禪者但是六中之一。當其第五。豈可都曰真性。為一禪行哉。

長慶安法嗣

益州大隨法真禪師

梓州王氏子。妙齡夙悟。決志尋師。於慧義寺出家。圓具後南遊。初見藥山道吾雲巖洞山。次至嶺外。大滄會下數載。食不至充。臥不求暖。清苦鍊行。操履不羣。滄深器之。一日問曰。闍黎在老僧此間。不曾問一轉話。師曰。教某甲向甚麼處下口。滄曰。何不道如何是佛。師便作手勢掩滄口。滄歎曰。子真得其髓。從此名傳四海。爾後還蜀。寄錫天彭壩口山龍懷寺。於路旁煎茶。普施三年。因往後山。見一古院號大隨。羣峰矗秀。澗水清冷。中有一樹圍四丈餘。南開一門。中空無礙。不假斧斤。自然一菴。顏曰木禪。師乃居之。十餘載影不出山。聲聞于外。四方玄學千里趨風。蜀主欽尚。遣使屢徵。師皆辭以老病。署神照大師。上堂。此性本來清淨。具足萬德。但以染淨二緣。而有差別。故諸聖悟之。一向淨用而成覺道。凡夫迷之。一向染用沒溺輪迴。其體不二。故般若云。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僧問。劫火洞然大千俱壞。未審者個壞不壞。師曰壞。曰恁麼則隨他去也。師曰。隨他去。僧不肯。後到投子舉前話。子遂裝香遙禮曰。西川古佛出世。謂其僧曰。汝速回去懺悔。僧回大隨。師已歿。僧再至投子。子亦遷化。問如何是大人相。師曰。肚上不貼榜。問僧。甚處去。曰西山住菴去。師曰。我向東山頭喚汝。汝便來得麼。曰不然。師曰。汝住菴未得。問生死到來時如何。師曰。遇茶喫茶。遇飯喫飯。曰誰受供養。師曰。合取鉢盂。菴側有一龜。僧問。一切眾生皮裹骨。者個眾生為甚骨裹皮。師拈草履覆龜背上。僧無語。問如何是諸佛法要。師舉拂子曰。會麼。曰不會。師曰。塵尾拂子。問如何是學人自己。師曰。是我自己。曰為甚麼却是和尚自己。師曰。是汝自己。問如何是大隨一面事。師曰。東西南北。問佛法徧在一切處。教學人向甚麼處駐足。師曰。大海從魚躍。長空任鳥飛。問父子至親。岐路各別時如何。師曰。為有父子。問如何是無縫塔。師曰。高五尺。曰學人不會。師曰。鶻崙輒。問和尚百年後。法付何人。師曰。露柱火爐。曰還受也無。師曰。火爐露柱。問僧。甚處去。曰峩眉禮普賢去。師舉拂子曰。文殊普賢總在者裏。僧作圓相拋向後乃禮拜。師喚侍者。取一貼茶與者僧。眾僧參次。師以口作患風勢曰。還有人醫得

吾口麼。眾僧競送藥以至。俗士聞之。亦多送藥。師並不受。七日後師自擱口令正。乃曰。如許多時鼓者兩片皮。至今無人醫得。即端坐而逝。

趙州諗法嗣

益州西睦和尚

上堂。有俗士舉手曰。和尚便是一頭驢。師曰。老僧被汝騎。士無語。去後三日再來白言。某甲三日前著賊。師拈杖趨出。師有時驀喚侍者。者應諾。師曰。更深夜靜。共伊商量。

龍潭信法嗣

鼎州德山宣鑒禪師

簡州周氏子。廿歲出家依年受具。精究律藏。於性相諸經貫通旨趣。常講金剛般若。時謂之周金剛。忽謂同學曰。一毛吞海。海性無虧。纖芥投鋒。鋒利不動。學與無學。唯我知焉。後聞南方禪席頗盛。師氣不平。乃曰。出家兒千劫學佛威儀。萬劫學佛細行。不得成佛。南方魔子敢言。直指人心見性成佛。我當搜其窟穴。滅其種類。以報佛恩。遂擔青龍疏鈔出蜀。至澧陽路上。見一婆子賣餅。因息肩買餅點心。婆指擔曰。者個是甚麼文字。師曰。青龍疏鈔。婆曰。講何經。師曰。金剛經。婆曰。我有一問。你若答得。施與點心。若答不得。且別處去。金剛經道。過去心不可得。現在心不可得。未來心不可得。未審上座點那個心。師無語。遂往龍潭。至法堂曰。久嚮龍潭。及乎到來。潭又不見。龍又不現。潭引身曰。子親到龍潭。師無語。遂棲止焉。一夕侍立次。潭曰。更深何不下去。師珍重便出。却回曰。外面黑。潭點紙燭度與師。師擬接。潭復吹滅。師於此大悟。便禮拜。潭曰。子見個甚麼。師曰。從今向去。更不疑天下老和尚舌頭也。至來日。龍潭陞座謂眾曰。可中有一漢。牙如劍樹。口似血盆。一棒打不回頭。他時向孤峰頂上。立吾道去在。師將疏鈔。堆法堂前。舉火炬曰。窮諸玄辯。若一毫置於太虛。竭世樞機。似一滴投於巨壑。遂焚之。於是禮辭。直抵瀉山。挾複子上法堂。從西過東。從東過西。顧視方丈曰。有麼有麼。山坐次殊不顧盼。師曰無無。便出。至門首乃曰。雖然如此。也不得草草。遂具威儀再入相見。纔跨門提起坐具曰。和尚。山擬取拂子。師便喝。拂袖而出。瀉山至晚問首座。今日新到在

否。座曰。當時背却法堂著草鞋出去也。山曰。此子已後向孤峰頂上。盤結草菴。呵佛罵祖去在。師住澧陽三十年。屬唐武宗廢教。避難於獨浮山之石室。大中初。武陵太守薛廷望。再崇德山精舍。號古德禪院。將訪求哲匠住持。聆師道行。屢請不下山。廷望乃設詭計。遣吏以茶鹽誣之。言犯禁法。取師入州。瞻禮堅請。居之大闡宗風。上堂。若也於已無事。則勿妄求。妄求而得。亦非得也。汝但無事於心。無心於事。則虛而靈。空而妙。若毛端許言之本末者。皆為自欺。何故。毫釐繫念。三塗業因。瞥爾情生。萬劫羈鎖。聖名凡號盡是虛聲。殊相劣形皆為幻色。汝欲求之。得無累乎。及其厭之。又成大患。終而無益。小參示眾曰。今夜不答話。問話者三十棒。時有僧出禮拜。師便打。僧曰。某甲話也未問。和尚因甚麼打某甲。師曰。汝是甚麼處人。曰新羅人。師曰。未跨船舷。好與三十棒。僧參。師問維那。今日幾人新到。曰八人。師曰。喚來一時生按著。龍牙問。學人仗鎧鎗劍。擬取師頭時如何。師引頸近前曰因。牙曰。頭落也。師呵呵大笑。牙後到洞山舉前話。山曰。德山道甚麼。牙曰。德山無語。洞曰。莫道無語。且將德山落底頭。呈似老僧看。牙方省便懺謝。有僧舉似師。師曰。洞山老人不識好惡。者漢死來多少時。救得有甚麼用處。僧問。如何是菩提。師打曰出去。莫向者裏廝。問如何是佛。師曰。佛是西天老比丘。雪峰問。從上宗乘。學人還有分也無。師打一棒曰。道甚麼。曰不會。至明日請益。師曰。我宗無語句。實無一法與人。峰因此有省。巖頭聞之曰。德山老人一條脊梁骨。硬似鉄。拗不折。然雖如此。於唱教門中。猶較些子。曰道得也三十棒。道不得也三十棒。臨濟聞得。謂洛浦曰。汝去問他。道得為甚麼也三十棒。待伊打。汝接住棒送一送。看伊作麼生。浦如教而問。師便打。浦接住送一送。師便歸方丈。浦回舉似臨濟。濟曰。我從來疑著者漢。雖然如是。你還識德山麼。浦擬議。濟便打。上堂。問即有過。不問猶乖。有僧出禮拜。師便打。僧曰。某甲始禮拜。為甚麼便打。師曰。待汝開口。堪作甚麼。師令侍者喚義存。存上來。師曰。我自喚義存。汝又來作甚麼。存無對。上堂。我先祖見處即不然。者裏無祖無佛。達磨是老臊胡。釋迦老子是乾屎橛。文殊普賢是擔屎漢。等覺妙覺是破執凡夫。菩提涅槃是繫驢橛。十二分教是鬼神簿。拭瘡疣紙。四果三賢初心十地。是守古塚鬼。自救不了。有僧相看。乃近前作相撲勢。師曰。與麼無禮。合喫山僧手裏棒。僧拂袖便行。師曰。饒汝如是。也祇得一半。僧轉身便喝。師打曰。須是我打你始得。曰諸方有明眼人在。師曰。天然有眼。僧擘開眼曰貓。便出。師曰。黃河三千年一度清。師見僧來。乃閉門。其僧敲門。師曰阿誰。曰師子兒。師乃開門。僧禮拜。師騎僧項曰。者畜

生甚處去來。雪峰問。南泉斬猫兒意旨如何。師乃打趂。却喚曰會麼。峰曰不會。師曰。我恁麼老婆心也不會。僧問。凡聖相去多少。師便喝。師因疾。僧問。還有不病者也無。師曰有。曰如何是不病者。師曰。阿唧阿唧。師復告眾曰。捫空追響。勞汝心神。夢覺覺非。竟有何事。言訖安坐而化。即唐咸通六年十二月三日也。諡見性禪師。

錦江禪燈卷第一

昭覺丈雪 通醉 輯

紹興幻菴 胡昇猷 訂

大鑒下第五世

藥山儼法嗣

秀州華亭船子德誠禪師

節操高邈。度量不羣。自印心於藥山。與道吾雲巖為同道交。泊離藥山。乃謂二同志曰。公等應各據一方。建立藥山宗旨。予率性疎野。唯好山水。樂情自遣。無所能也。他後知我所止之處。若遇霧利座主。指一人來。或堪雕琢。將授生平所得。以報先師之恩。遂分攜。至秀州華亭。泛一小舟。隨緣度日。以接四方往來之者。時人莫知其高蹈。因號船子和尚。一日泊船岸邊閑坐。有官人問。如何是和尚日用事。師豎橈子曰。會麼。官人曰不會。師曰。櫂撥清波。金鱗罕遇。師有偈曰。三十年來坐釣臺。鉤頭往往得黃能。金鱗不遇空勞力。收取絲綸歸去來。千尺絲綸直下垂。一波纔動萬波隨。夜靜水寒魚不餌。滿船空載月明歸。三十年來海上遊。水清魚現不吞鉤。釣竿斫盡重栽竹。不計功程得便休。有一魚兮偉莫裁。混融包納信奇哉。能變化吐風雷。下線何曾釣得來。別人祇看採芙蓉。香氣長粘遶指風。兩岸映一船紅。何曾解染得虛空。問我生涯祇是船。子孫各自賭機緣。不由地不由天。除却蓑衣無可傳。道吾後到京口。遇夾山上堂。僧問如何是法身。山曰法身無相。曰如何是法眼。山曰法眼無瑕。道吾不覺失笑。山便下座請問道吾。某甲適來祇對者僧話。必有不是。致令上座失笑。望上座不吝慈悲。吾曰。和尚一等是出世。未有師在。山曰。某甲甚處不是。望為說破。吾曰。某甲終不說。請和尚却往華亭船子處去。山曰。此人如何。吾曰。此人上無片瓦。下無卓錫。和尚若去。須易服而往。山乃散眾。束裝直造華亭。船子纔見便問。大德住甚麼寺。山曰。寺即不住。住即不似。師曰。不似似箇甚麼。山曰。不是目前法。師曰。甚處學得來。山曰。非耳目之所到。師曰。一句合頭語。萬劫繫驢橛。師又問。垂絲千尺。意在深潭。離鉤三寸。子何不道。山擬開口。師一橈打落水中。山纔上船。師又曰道道。山擬開口。師又打。山豁然大悟。乃點頭三下。師曰。竿頭絲線從君弄。不犯清

波意自殊。山遂問。拋綸擲釣。師意如何。師曰。絲懸淥水。浮定有無之意。山曰。語帶玄而無路。舌頭談而不談。師曰。釣盡江波。金鱗始遇。山乃掩耳。師曰。如是如是。遂囑曰。汝向去直須藏身處沒蹤迹。沒蹤迹處莫藏身。吾三十年在藥山。祇明斯事。汝今已得。他後莫住城隍聚落。但向深山裏鑊頭邊。覓取一箇半箇。接續無令斷絕。山乃辭行。頻頻回顧。師遂喚闍黎。山乃回首。師豎起橈子曰。汝將謂別有。乃覆船入水而逝。

臨濟玄法嗣

金沙和尚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聽。曰恁麼則大眾側聆。師曰。十萬八千。

瀕山祐法嗣

益州應天和尚

僧問。人人盡有佛性。如何是和尚佛性。師曰。汝喚甚麼作佛性。曰恁麼則和尚無佛性也。師乃叫快活快活。

大鑒下第六世

夾山會法嗣

嘉州白水禪師

僧問。如何是西來意。師曰。四溟無窟宅。一滴潤乾坤。問曹溪一路合談何事。師曰。澗松千載鶴來聚。月中香桂鳳凰歸。問如何是此經。師曰。拋梭石女遼空響。海底泥牛夜叫頻。

香巖閑法嗣

益州南禪無染禪師

僧問。無句之句。師還答也無。師曰。從來祇明恁麼事。曰畢竟如何。師曰。且問看。

益州長平山和尚

僧問。視瞬不及處如何。師曰。我眨眼也沒工夫。僧問。如何是祖師意。師曰。西天來唐土去。

益州崇福演教禪師

僧問。如何是寬廓之言。師曰。無口道得。問如何是西來意。師曰。今日明日。

投子同法嗣

西川青城香山澄照禪師

僧問。諸佛有難。向火燄裏藏身。未審衲僧有難。向甚麼處藏身。師曰。水精甕裏著波斯。問如何是初生月。師曰。太半人不見。

興元府中梁山遵古禪師

僧問。空劫無人能問法。即今有問法何安。師曰。大悲菩薩甕裏坐。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道士擔漏卮。

洞山价法嗣

益州北院通禪師

初參夾山。問曰。目前無法。意在目前。不是目前法。非耳目之所到。豈不是和尚語。山曰是。師乃掀倒禪牀叉手而立。山起來打一拄杖。師便下去。次參洞山。山上堂曰。坐斷主人公。不落第二見。師出眾曰。須知有一人不合伴。山曰。猶是第二見。師便掀倒禪牀。山曰。老兄作麼生。師曰。待某甲舌頭爛。即向和尚道。後辭洞山擬入嶺。山曰。善為。飛猿嶺峻好看。師良久。山召道闍黎。師應諾。山曰。何不入嶺去。師因有省。更不入嶺。住後上堂。諸上座。有甚麼事。出來論量取。若上上根機。不假如斯若是。中下之流。直須剗削門頭戶底。教索索地。莫教入泥水。第一

速須省事。直須無心去。學得千般萬般。祇成知解。與衲僧門下。有甚麼交涉。僧問。直須無心學時如何。師曰。不管繫。問如何是佛。師曰。峭壁本無苔。灑墨圖斑駁。問二龍爭珠。誰是得者。師曰。得者失。曰不得者如何。師曰。還我珠來。問如何是清淨法身。師曰。無點汙。問轉不得時如何。師曰。功不到。問如何是大富貴底人。師曰。如輪王寶藏。曰如何是赤窮底人。師曰。如酒店腰帶。問水灑不著時如何。師曰。乾剝剝地。問一槌便成時如何。師曰。不是偶然。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壁上畫枯松。遊蜂競採藥。滅後證真禪師。

大鑒下第七世

雲蓋元法嗣

彭州天台燈禪師

僧問。古佛向甚麼處去也。師曰。中央甲第高。歲歲出霧苗。問古鏡未磨時如何。師曰。不施功。曰磨後如何。師曰。不照燭。問如何是佛。師曰。紅蓮座上不覩天冠。

洛浦安法嗣

嘉州洞谿戒定禪師

初問洛浦。月樹無枝長覆蔭。請師直指妙玄微。浦曰。森羅秀處事不相依。淶水千波孤峯自異。師於是領旨。住後僧問。蛇師為甚麼被蛇吞。師曰。幾度扣門招不出。將身直入裏頭看。有官人問。既是清淨伽藍。為甚打魚鼓。師曰。直須打出青霄外。免見龍門點額人。

曹山寂法嗣

益州布水巖和尚

僧問。如何是西來意。師曰。一回思著一傷心。問寶劍未磨時如何。師曰。用不得。曰磨後如何。師曰。觸不得。

蜀川西禪和尚

僧問。佛是摩耶降生。未審和尚是誰家子。師曰。水上卓紅旗。問三十六路。阿那一路最妙。師曰。不出第一手。曰忽遇出時如何。師曰。脊著地也不難。

白馬儒法嗣

興元府青剎山如觀禪師

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曰。無底籃子拾生菜。問如何是青剎境。師曰。三冬華木秀。九夏雪霜飛。

岩頭巖法嗣

雲頂山玄泉彥禪師

僧問。如何是道中人。師曰。日落投孤店。問如何是佛。師曰。張家三箇兒。曰學人不會。師曰。孟仲季也不會。問如何是聲前一句。師曰。咤。曰轉後如何。師曰。是甚麼。

龍牙遁法嗣

西川存禪師

僧問。學人解問誦訛句。請師舉起訝人機。師曰。巢父不牽牛。許由不洗耳。問具足底人來。師還接否。師便打。

雪峰存法嗣

益州普通山普明禪師

僧問。如何是佛性。師曰。汝無佛性。曰蠢動含靈皆有佛性。學人為何却無。師曰。為汝向外求。問如何是玄玄之珠。師曰。者箇不是。曰如何是玄玄珠。師曰。失却也。

太原孚上座

初在揚州光孝寺。講涅槃經。有禪者阻雪。因往聽講。至三日因佛性三德法身。廣談法身妙理。禪者失笑。師講罷。請禪者喫茶。白曰。某甲素志狹劣。依文解義。適蒙見笑。且望見教。禪者曰。實笑座主不識法身。師曰。如此解脫。何處不是。曰請座主更說一遍。師曰。法身之理。猶若太虛。豎窮三際。橫亘十方。彌綸八極。包括二儀。隨緣赴感靡不周徧。曰不道座主說不是。祇是說得法身量邊事。實未識法身在。師曰。既然如是。禪德當為我說。曰座主還信否。師曰。焉敢不信。曰若如是。座主輟講旬日。於室內端然靜慮。收心攝念。善惡諸緣一時放却。師一依所教。從初夜至五更。聞鼓角聲。忽然契悟。便去扣門。禪者曰阿誰。師曰某甲。禪者咄曰。教汝傳持大教。代佛說法。夜來為甚麼醉酒臥街。師曰。禪德。自來講經。將生身父母鼻孔扭捏。從今已去。更不敢如是。禪者曰。且去來日相見。師遂罷講。徧歷諸方。名聞宇內。嘗遊浙中。登徑山法會。一日於大佛殿前有僧問。上座曾到五臺否。師曰曾到。曰還見文殊麼。師曰見。曰甚麼處見。師曰。徑山佛殿前見。其僧後適閩川。舉似雪峰。峰曰。何不教伊人嶺來。師聞乃趣裝而邁。初至雪峰。廨院憩錫。因分柑子與僧。長慶問。甚麼處將來。師曰。嶺外將來。曰遠涉不易擔負得來。師曰。柑子柑子。次日上山。雪峰聞乃集眾。師到法堂。上顧視雪峰。便下看知事。明日却上禮拜曰。某甲昨日觸忤和尚。峰曰。知是般事便休。峰一日見師。乃指日示之。師搖手而出。峰曰。汝不肯我那。師曰。和尚搖頭。某甲擺尾。甚麼處是不肯。峰曰。到處也須諱却。一日眾僧晚參。峰在中庭臥。師曰。五州管內。祇有者老和尚較些子。峰便起去。峰嘗問師。見說臨濟有三句是否。師曰是。曰作麼生是第一句。師舉目視之。峰曰。此猶是第二句。如何是第一句。師叉手而退。自此雪峰深器之。室中印解。師資道契。更不他遊。而掌浴焉。一日玄沙上問訊雪峰。峰曰。此間有箇老鼠子。今在浴室裏。沙曰。待與和尚勘過。言訖到浴室。遇師打水。沙曰。相看上座。師曰。已相見了。沙曰。甚麼劫中曾相見。師曰。瞌睡作麼。沙却入方丈白雪峰曰。已勘破了。峰曰。作麼生勘伊。沙舉前話。峰曰。汝著賊也。鼓山問師。父母未生時鼻孔在甚麼處。師曰。老兄先道。山曰。如今生也。汝道在甚麼處。師不肯。山却問。作麼生。師曰。將手中扇子來。山與扇子再徵前話。師搖扇不對。山罔測。乃毆師一拳。鼓山赴大王請。雪峰門送。回至法堂。乃曰。一隻聖箭。直射九重城裏去也。師曰。是伊未在。峰曰。渠是徹底人。師曰。若不信。待某甲去勘過。遂趲至中路便問。師兄向甚麼處去。山曰。九重城裏去。師曰。忽遇三軍圍繞時如何。山曰。他家自有通霄路。師曰。恁麼則離宮失殿去也。山曰。何處不稱尊。

師拂袖便回。峰問如何。師曰。好隻聖箭。中路折却了也。遂舉前話。峰乃曰。奴渠語在。師曰。者老凍膿。猶有鄉情在。師在庫前立。有僧問。如何是觸目菩提。師踢狗子作聲走。僧無對。師曰。小狗子不消一踢。保福簽瓜次。師至。福曰。道得與汝瓜喫。師曰。把將來。福度與一片。師接得便去。師不出世。諸方目為太原孚上座。後歸維揚。陳尚書留在宅供養。一日謂尚書曰。來日講一遍大涅槃經。報答尚書。書致齋茶畢。師遂陞座良久揮尺一下曰。如是我聞。乃召尚書。書應諾。師曰。一時拂在。便乃脫去。

福州鼓山神晏興聖國師

大梁李氏子。幼惡葷羶。樂聞鐘梵。年十二造雪嶺。朗然符契。一日參雪峰。峰知其緣熟。忽起搗住曰。是甚麼。師釋然了悟。亦忘其了心。唯舉手搖曳而已。峰曰。子作道理邪。師曰。何道理之有。峰審其懸解。撫而印之。後閩帥常詢法要。創鼓山禪苑。請舉揚宗旨。上堂。良久曰。南泉在日。亦有人舉。要且不識南泉。即今莫有識南泉者麼。試出來對眾驗看。時有僧出。禮拜纔起。師曰。作麼生。僧近前曰。咨和尚。師曰。不才請退。乃曰。經有經師。論有論師。律有律師。各有人傳持。且佛法是建立教。禪道乃止啼之說。他諸聖出興。蓋為人心不等。巧開方便。遂有多門。受病不同。處方還異。在有破有。居空叱空。二患既除。中道須遣。鼓山所以道。句不當機。言非展事。承言者喪。滯句者迷。不唱言前。寧談句後。直至釋迦掩室。淨名杜口。大士梁時童子。當日一問二問三問。盡有人了也。諸仁者。合作麼生。時有僧出禮拜。師曰。高聲問。曰學人咨和尚。師喝曰出去。曰己事未明。以何為驗。師抗聲曰。你未聞那。其僧再問。師曰。一點隨流食咸不重。問如何是包盡乾坤底句。師曰。近前來。僧近前。師曰。鈍置殺人。

大鑒下第八世

青峰楚法嗣

西川霧龕禪師

僧問。如何是諸佛出身處。師曰。出處非干佛。春來艸自青。問碌碌地時如何。師曰。試進一步看。

益州淨眾寺歸信禪師

僧問。蓮華未出水時如何。師曰。菡萏滿池流。曰出水後如何。師曰。葉落不知秋。問不假浮囊便登巨海時如何。師曰。紅鷺飛超三界外。綠毛也解道煎茶。問如何是自在底人。師曰。劍樹霜林去便行。曰如何是不自在底人。師曰。釋迦在闍黎後。

玄泉彥法嗣

懷州玄泉二世和尚

僧問。辭窮理盡時如何。師曰。不入理豈同盡。問妙有玄珠。如何取得。師曰。不似摩尼絕影豔。碧眼胡人豈能見。曰有口道不得時如何。師曰。三寸不能齊鼓韻。瘡人解唱木人歌。

羅山閑法嗣

西川定慧禪師

初參羅山。山問。甚麼處來。師曰。遠離西蜀。近發開元。却近前問。即今事作麼生。山揖曰。喫茶去。師擬議。山曰。秋氣稍熱去。師出至法堂歎曰。我在西蜀。峩眉山脚下。拾得一隻蓬蒿箭。擬撥亂天下。今日打羅山寨。弓折箭盡也休休。乃下參眾。山來日上堂。師出問。豁開戶牖。當軒者誰。山便喝。師無語。山曰。毛羽未備。且去。師因而捫衣。久承印記。後謁台州勝光。光坐次。師直入身邊叉手而立。光問。甚麼處來。師曰。猶待答話在。便出。光拈拂子趨至僧堂前見師。乃提起拂子曰。闍黎喚者箇作甚麼。師曰。敢死喘氣。光低頭歸方丈。

灌州霧巖和尚

僧問。如何是道中寶。師曰。地傾東南。天高西北。曰學人不曾。師曰。落照機前異。師頌石鞏接三平曰。解擘當霄箭。因何祇半人。為從途路曉。所以不全身。

芭蕉清法嗣

彭州承天院辭確禪師

僧問。學人有一隻箭。射即是不射即是。師曰。作麼生是闍黎箭。僧便喝。師曰。者箇是草箭子。曰如何是和尚箭。師曰。禁忘須屈指。禱祈便扣牙。問心隨萬境轉。阿那箇是轉萬境底心。師曰。嘉州大像古人攜。問眾罪如霜露。慧日能消除時如何。師曰。亭臺深夜雨。樓閣靜時鐘。曰為甚麼因緣會遇時。果報還自受。師曰。管筆能書。片舌解語。開堂日示眾。正令提綱。猶是捏窠造偽。佛法祇對。特地謾罵上流。問著即參差。答著即交互。大德擬向甚麼處下口。然則如是。事無一向。權柄在手。縱奪臨機。有疑請問。僧問。如何是第一義。師曰。羣峰穿海去。滴水下巖來。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師曰。道頭會尾。舉意知心。

興元府牛頭山精禪師

僧問。如何是古佛心。師曰。東海浮漚。曰如何領會。師曰。秤錘落井。問不居凡聖。是甚麼人。師曰。梁朝傅大士。曰此理如何。師曰。楚國孟嘗君。

益州覺城院信禪師

僧問。如何是出身一路。師曰。三門前。曰如何領會。師曰。緊峭草鞋。

雲門偃法嗣

益州青城香林院澄遠禪師

漢州綿竹人。師初時在眾日。普請鉏草次。有一僧曰。看俗家失火。師曰。那裏火。曰不見那。師曰不見。曰者瞎漢。是時一眾皆言遠上座敗闕。後明教寬聞舉歎曰。須是我遠兄始得。住後僧問。美味醍醐。為甚麼變成毒藥。師曰。導江紙貴。問見色便見心時如何。師曰。適來甚麼處去來。曰心境俱忘時如何。師曰。開眼坐睡。問北斗裏藏身意旨如何。師曰。月似彎弓。少雨多風。問如何是諸佛心。師曰。清則始終清。曰如何領會。師曰。莫受人謾好。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踏步者誰。問如何是和尚妙藥。師曰。不離眾味。曰喫者如何。師曰。啜啗看。問如何是室內一盞燈。師曰。三人證龜成鼈。問如何是衲衣下事。師曰。臘月火燒

山。問大眾雲集。請師施設。師曰。三不待兩。問如何是學人時中事。師曰恰恰。問如何是玄。師曰。今日來明日去。曰如何是玄中玄。師曰。長連牀上。問如何是香林一脈泉。師曰。念無間斷。曰飲者如何。師曰。隨方斗秤。問如何是衲僧正眼。師曰。不分別。曰照用事如何。師曰。行路人失脚。問萬機俱泯迹。方識本來人時如何。師曰。清機自顯。曰恁麼則不別人。師曰。方見本來人。問魚遊陸地時如何。師曰。發言必有後救。曰却下碧潭時如何。師曰。頭重尾輕。問但有言句盡是賓。如何是主。師曰。長安城裏。曰如何領會。師曰。千家萬戶。問如何是西來的的意。師曰。坐久成勞。曰便回轉時如何。師曰。墮落深坑。問如何是無縫塢。師曰。合掌當胸。曰如何是塢中人。師曰露也。問教法未來時如何。師曰。閻羅天子。曰來後如何。師曰。大宋國裏。問一子出家九族解脫。目連為甚麼母入地獄。師曰確。問如何是平常心。師曰。早朝不審。晚後珍重。上堂。是汝諸人。盡是擔鉢囊向外行脚。還識得性也未。若識得。試出來道看。若識不得。祇是被人熱謾將去。且問汝諸人。是汝參學日久用心。掃地煎茶遊山翫水。汝且訂訂。喚甚麼作自性。諸人且道。始終不變不異。無高無下。無好無醜。不生不滅。究竟歸於何處。諸人還知得下落所在也未。若於者裏知得所在。是諸佛解脫法門。悟道見性。始終不疑不慮。一任橫行。一切人不奈汝何。出言吐氣實有來處。如人買田。須是收得元本契書。若不得他元本契書。終是不穩。遮莫經官判狀。亦是不得。其奈不收得元本契書。終是被人奪却。汝等諸人參禪學道亦復如是。還有人收得元本契書麼。試拈出看。汝且喚甚麼作元本契書。諸人試道看。若是靈利底。纔聞與麼說著。便知去處。若不知去處。向外邊學得千般巧妙記持解會。口似傾河。終不究竟。與汝自己天地差殊。且去衣鉢下體當尋覓看。若有箇見處。上來者裏道看。老僧與汝證明。若覓不得。且依行隊去。將示寂。辭知府宋公瑄曰。老僧行脚去。通判曰。者僧風狂。八十歲行脚去那裏。宋曰。大善知識去住自由。師謂眾曰。老僧四十年。方打成一片。言訖而逝。塢于本山。

饒州薦福承古禪師

操行高潔。稟性虛明。參大光敬玄禪師。乃曰。祇是箇艸裏漢。遂參福嚴雅和尚。又曰。祇是箇脫灑衲僧。由是終日默然。深究先德洪規。一日覽雲門語。忽然發悟。自此韜藏不求名聞。棲止雲居弘覺禪師塢所。四方學者奔湊。因稱古塢主也。景祐四年。范公仲淹出守鄱陽。聞師道德。請居薦福。開闡宗風。僧問。大善知識將何

為人。師曰莫。曰恁麼則有問有答去也。師曰莫。問青青翠竹盡是真如。鬱鬱黃花無非般若。如何是般若。師曰。黃泉無老少。曰春來草自青。師曰。聲名不朽。曰若然者。碧眼胡僧也皺眉。師曰。退後三步。僧曰苦。師乃吽吽。問臨濟舉拂。學人舉拳。是同是別。師曰。訛言亂眾。曰恁麼則依令而行也。師曰。天涯海角。問一喝分賓主。照用一時行。此意如何。師曰。乾柴溼茱。僧便喝。師曰。紅燄炎天。上堂。夫出家者。為無為法。無為法中。無利益無功德。近來出家人。貪著福慧。與道全乖。若為福慧。須至明心。若要達道。無汝用心處。所以常勸諸人。莫學佛法。但自休心。利根者晝時解脫。鈍根者或三五年。遠不過十年。若不悟去。老僧與你入拔舌地獄。參。

韶州雙峰竟欽禪師

益州人也。開堂日。雲門和尚躬臨證明。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日出方知天下朗。無油那點佛前燈。問如何是雙峰境。師曰。夜聽水流庵後竹。晝看雲起面前山。問如何是和尚為人一句。師曰。因風吹火。上堂。進一步則迷理。退一步則失事。饒你一向兀然去。又同無情。僧問。如何是不同無情去。師曰。動轉施為。曰如何得不迷理失事去。師曰。進一步退一步。僧作禮。師曰。向來有人恁麼會。老僧不肯伊。曰請師直指。師便打出。問如何是正法眼。師曰。山河大地。問如何是法王劍。師曰。鉛刀徒逞。不若龍泉。曰用者如何。師曰。藏鋒猶不許。露刃更何堪。問賓頭盧應供四天下。還得徧也無。師曰。如月入水。問如何是用而不雜。師曰。明月臺前垂玉露。水晶殿裏璨真珠。有行者問。某甲遇賊來時。若殺即違佛教。不殺又違王敕。未審師意如何。師曰。官不容針。私通車馬。廣主嘗親問法要。錫慧真廣悟號。將示寂。告門人曰。吾不久去世。汝可就山頂預修墳塋。泊工畢以聞。師曰。後日子時行矣。及期。會雲門爽和尚等七人夜話。侍者報三更也。師索香焚之。合掌而逝。

西川青城大面山乘禪師

僧問。如何是相輪峰。師曰。直聳煙嵐際。曰向上事如何。師曰。入地三尺五。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興義門前鼕鼕鼓。曰學人不會。師曰。朝打三千。暮打八百。

錦江禪燈卷第二

錦江禪燈卷第三

昭覺丈雪 通醉 輯

紹興幻菴 胡昇猷 訂

大鑒下第八世
雲門偃法嗣

興元府普通封禪師

僧問。今日一會何似靈山。師曰。震動乾坤。問如何是普通境。師曰。庭前有竹三冬秀。戶內無燈午夜明。

益州鐵幢覺禪師

僧問。十二時中如何履踐。師曰。光剃頭淨洗鉢。問如何是道。師曰踏著。曰如何是道中人。師曰。退後三步。問諸佛出世當為何事。師曰。截耳臥街。

眉州福化充禪師

僧問。如何是大人相。師曰。山僧者裏不曾容易對闍黎。曰如何得相承去。師曰。白雲雖有影。綠竹且無陰。問天皇也恁麼道。龍潭也恁麼道。未審和尚作麼生道。師曰。汝試道看。曰比來請益。豈無方便。師曰。將謂是海東舶主。元來是北地番人。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十字路頭華表柱。曰學人不會。乞師再指。師曰。君自行東我向西。

眉州黃龍贊禪師

僧問。如何是和尚關楨子。師曰。少人踏得著。曰忽踏得著時如何。師曰。汝試進前看。僧便喝。師便打。問僧。近離甚處。曰香林。師曰。在彼多少時。曰六年。師曰。世尊在雪山六年。證無上菩提。汝在香林六年。成得個甚麼。僧無語。師曰。移廚喫飯漢。

鹿門真法嗣

益州崇真禪師

僧問。如何是禪。師曰。澄潭釣玉兔。曰如何是道。師曰。拍手笑清風。問如何是大人相。師曰。泥捏三官土地堂。

曹山霞法嗣

嘉州東汀和尚

僧問。如何是向去底人。師曰。石女紡麻縷。曰如何是却來底人。師曰。扇車關捩斷。問徧界是佛身。教某甲甚麼處立。師曰。孤峯頂上木人叫。紅焰輝中石馬嘶。

雲居岳法嗣

梓州龍泉和尚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不在闍黎分上。問學人欲跳萬丈洪崖時如何。師曰。撲殺。

含珠哲法嗣

洋州龍穴山和尚

僧問。如何是西來意。師曰。騎虎唱巴歌。問既是善知識。為甚麼却與土地燒錢。師曰。彼上人者難為酬對。

紫陵一法嗣

興元府大浪和尚

僧問。既是活河神。為甚麼被水推却。師曰。隨流始得妙。住岸却成迷。

大鑒下第九世

黃龍機法嗣

眉州黃龍繼達禪師

僧問。如何是衲。師曰。針去線不回。曰如何是帔。師曰。橫鋪四世界。豎蓋一乾坤。曰道滿到來時如何。師曰。要羹與羹。要飯與飯。問黃龍出世。金翅鳥滿空飛時如何。師曰。問汝金翅鳥。還得飽也無。

興元府玄都山澄禪師

僧問。喜得趨方丈。家風事若何。師曰。西風開曉露。明月正當天。曰如何拯濟。師曰。金鷄樓上一下鼓。問如何是沙門行。師曰。一切不如。

嘉州黑水和尚

初參黃龍。便問。雪覆蘆花時如何。龍便打。師於此有省。即便禮拜。

眉州昌福達禪師

僧問。學人來問師則對。不問時師意如何。師曰。謝師兄指示。問本來則不問。如何是今日事。師曰。師兄者問大好。曰學人不會時如何。師曰。謾得即得。問國有寶刀。誰人得見。師曰。師兄遠來不易。曰此刀作何形狀。師曰。要也道。不要也道。曰請師道。師曰。難逢難遇。問石牛水上臥時如何。師曰。異中還有異。妄計不浮沉。曰便怎麼去時如何。師曰。翹天日落。把土成金。

大龍洪法嗣

興元府普通院從善禪師

僧問。法輪再轉時如何。師曰。助上座喜。曰合譚何事。師曰。異人掩耳。曰便怎麼領會時如何。師曰錯。問佩劍叩松關時如何。師曰。莫亂作。曰誰不知有。師曰出。

護國遠法嗣

懷安軍雲頂德敷禪師

初參護國。問曰。直截根源佛所印。摘葉尋枝我不能時如何。國曰。罷攀雲樹三秋果。休弄碧潭孤月輪。師乃頓釋所疑。住後。成都帥請就衙陞座。有樂營將。出禮拜起。回顧下馬臺曰。一口吸盡西江水即不問。請師吞却堦前下馬臺。師展兩手唱曰。細抹將來。營將猛省。

石門徹法嗣

嘉州承天義懃禪師

僧問。如何是承天境。師曰。兩江夾却青盲漢。一帶山藏赤脚蠻。問如何是諦實之言。師曰。措大巾子黑。

德山密法嗣

興元府中梁山崇禪師

僧問。垂絲千尺。意在深潭時如何。師曰。紅鱗掌上躍。

益州東禪秀禪師

僧問。既是善神。為甚麼却被雷打。師曰。世亂奴欺主。年衰鬼弄人。問如何是一代時教。師曰。多年故紙。

乾明居信法嗣

[郫-卑+((白-日+田)/升)]縣西禪垂白禪師

僧問。香煙纔起大眾雲臻。祖意西來請師垂示。師云。心光自照。僧云。恁麼則一句於師親領得。永鎮[郫-卑+((白-日+田)/升)]城萬古傳。師云。是人分。

雙泉寬法嗣

襄州延慶宗本禪師

僧問。魚未跳龍門時如何。師曰。擺手入長安。曰跳過後如何。師曰。長安雖樂。不可久留。

香林遠法嗣

灌州羅漢和尚

僧問。如何是佛。師曰。牛頭阿旁。曰如何是法。師曰。劍樹刀山。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井中紅焰。日裏浮漚。曰如何領會。師曰。遙指扶桑日那邊。問如何是本來心。師曰。蹉過了也。

灌州青城香林信禪師

僧問。覲面相呈時如何。師曰。築著鼻孔。

妙勝臻法嗣

西川雪峯欽山主

上堂。昨日一。今日二。不用思量。快須瞥地。不瞥地。蹉過平生沒巴鼻。咄。

大鑒下第十世

黃龍達法嗣

眉州黃龍禪師

僧問。如何是密室。師曰。斫不開。曰如何是密室中人。師曰。非男女相。問國內按劍者是誰。師曰昌福。曰忽遇尊貴時如何。師曰不遺。

清涼益法嗣

大梅慧明禪師

參法眼得心印。初菴於大梅。有禪者來參。師問。近離甚處。曰成都。曰上座離成都到此山。則成都少上座。此間剩上座。剩則心外有法。少則心法不周。說得道理即住。不會即去。僧無對。

梁山緣觀法嗣

鼎州梁山巖禪師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新羅附子。蜀地當歸。

石門遠法嗣

懷安軍雲頂上鑒禪師

僧問。雪點紅爐。請師驗的。師曰。王婆煮餿。曰爭奈即今何。師曰。猶嫌少在。

果州清居山昇禪師

僧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師曰。金雞啼石戶。得意逐波清。曰未審是誰之子。師曰。謝汝就門罵詈。

黑水璟法嗣

峩眉黑水義欽禪師

上堂。僧出禮拜。師曰。大地百雜碎。便下座。

智門祚法嗣

明州雪竇重顯禪師

遂寧府李氏子。依普安院仁銑上人出家。受具之後橫經講席。究理窮玄。詰問鋒馳。機辯無敵。咸知法器。僉指南遊。首造智門。即伸問曰。不起一念。云何有過。門召師近前。師纔近前。門以拂子驀口打。師擬開口。門又打。師豁然開悟。出住翠峰。後遷雪竇。開堂日。於法座前顧視大眾曰。若論本分相見。不必高陞法座。遂以手畫一畫曰。諸人隨山僧手看。無量諸佛國土一時現前。各各子細觀瞻。其或涯際未知。不免拖泥帶水。便陞座。上首白椎罷。有僧方出。師約住曰。如來正法眼藏委在今日。放行則瓦礫生光。把住則真金失色。權柄在手。殺活臨時。其有作者。共相證據。僧出

問。遠離翠峰祖席。已臨雪竇道場。未審是一是二。師曰。馬無千里謾追風。曰恁麼則雲散家家月。師曰。龍頭蛇尾漢。問德山臨濟棒喝已彰。和尚如何為人。師曰。放過一著。僧擬議。師便喝。僧曰。未審祇恁麼。別有在。師曰。射虎不真。徒勞沒羽。問吹大法螺。擊大法鼓。朝宰臨筵。如何即是。師曰。清風來未休。曰恁麼則得遇於師也。師曰。一言已出。駟馬難追。僧禮拜。師曰。放過一著。乃普觀大眾曰。人天普集。合發明個甚麼事。焉可互分賓主。馳騁問答。便當宗乘去。廣大門風。威德自在。輝騰今古。把定乾坤。千聖祇言自知。五乘莫能建立。所以聲前悟旨。猶迷顧鑒之端。言下知宗。尚昧識情之表。諸人要知真實相為麼。但以上無攀仰。下絕已躬。自然常光現前。個個壁立千仞。還辯明得也無。未辯辯取。未明明取。既辯明得。能截生死流。同據佛祖位。妙圓超悟。正在此時。堪報不報之恩。以助無為之化。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祥雲五色。曰學人不會。師曰。頭上漫漫。問達磨未來時如何。師曰。猿啼古木。曰來後如何。師曰。鶴唳青霄。曰即今事作麼生。師曰。一不成二不是。問和尚未見智門時如何。師曰。爾鼻孔在我手裏。曰見後如何。師曰。穿過髑髏。有僧出禮拜起曰。請師答話。師便棒。僧曰。豈無方便。師曰。罪不重科。復有一僧出禮拜起曰。請師答話。師曰。兩重公案。曰請師不答話。師亦棒。問古人道北斗裏藏身。意旨如何。師曰。千聞不如一見。曰此話大行。師曰。老鼠銜鉄。問古人道皎皎地絕一絲頭。祇如山河大地。又且如何。師曰。面赤不如語直。曰學人未曉。師曰。徧問諸方。問如何是學人自己。師曰。乘槎斫額。曰莫祇者便是。師曰。浪死虛生。問如何是緣生義。師曰。金剛鑄鉄券。曰學人不會。師曰。鬧市裏牌。曰恁麼則行到水窮處。坐看雲起時。師曰。列下。問四十九年說不盡底。請師說。師曰。爭之不足。曰謝師答話。師曰。鉄棒自看。問如何是把定乾坤眼。師曰。拈却鼻孔。曰學人不會。師曰。一喜一悲。僧擬議。師曰。苦。問如何是脫珍御服。著弊垢衣。師曰。垂手不垂手。曰乞師方便。師曰。左眼挑筋。右眼抉肉。問龍門爭進舉。那個登科。師曰。重遭點額。曰學人不會。師曰。退水藏鱗。問寂寂忘言。誰是得者。師曰。卸帽穿雲去。曰如何領會。師曰。披簑帶雨歸。曰三十年後此話大行。師曰。一場酸澀。問坐斷毗盧底人。師還接否。師曰。殷勤送別瀟湘岸。曰恁麼則學人罪過。師曰。天寬地窄太愁人。僧禮拜。師曰。苦屈之詞。不妨難吐。問生死到來。如何回避。師曰。定花板上。曰莫便是他安身立命處也無。師曰。符到奉行。上堂。僧問。如何是吹毛劍。師曰。苦。曰還許學人用也無。師噓一噓。乃曰。大眾前共相酬唱。也須是個漢始得。若也未有奔流度刃底眼。不勞拈出。

所以道。如大火聚。近著即燎却面門。亦如按太阿寶劍。衝前即喪身失命。乃曰。太阿橫按祖堂寒。千里應須息萬端。莫待冷光輕閃爍。復云看看。便下座。上堂。僧問。如何是維摩一默。師曰。寒山訪拾得。曰。恁麼則入不二之門。師噓一噓。復曰。維摩大士去何從。千古令人望莫窮。不二法門休更問。夜來明月上孤峯。乃曰。七月七日復相見耳。至期。盥沐攝衣。北首而逝。塔全身於寺之西塢。賜明覺大師。

德山遠法嗣

興元府大中仁辯禪師

僧問。如何是焦崖境。師云。庭前寒柏老。祖意不西來。僧云。如何是境中人。師云。胡僧深碧眼。跣足躡階行。

益州菩提桂芳禪師

僧問。諸佛出世。梵王前引。帝釋後隨。和尚出世。有何祥瑞。師曰。三春萬象妍。僧云。學人未曉。師曰。溪花紅似錦。岸柳綠如藍。僧云。便恁麼去時如何。師曰。未曾騎竹馬。切忌跨金龍。

大鑒下第十一世

谷隱聰法嗣

彭州永福院延照禪師

僧問。如何是彭州境。師曰。人馬合雜。僧以手作拽弓勢。師拈棒。僧擬議。師便打。

果州永慶光普禪師

初問谷隱。古人道。來日大悲院裏有齋。意旨如何。曰。日出隈陽坐。天寒不舉頭。師入室次。隱曰。適來因緣。汝作麼生會。師曰。會則途中受用。不會則世諦流布。曰。未在更道。師拂袖便出。住後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蜀地用鑛鍊。

葉縣省法嗣

阡那方水禪師

示眾云。方水潭中鼈鼻蛇。擬心相向便掄擲。何人拔得蛇頭出。(請續後句)二百年後。大隋元靖長老著語云。方水潭中鼈鼻蛇。圓悟勤著語云。雲門餬餅趙州茶。瞎堂遠云。摩呢嚩哩吽嚩吒。丈雪醉著語云。咲指庭前一樹花。

大陽玄法嗣

惠州羅浮山顯如禪師

初到大陽。陽問。汝是甚處人。曰益州。陽曰。此去幾里。曰五千里。陽曰。你與麼來。還曾踏著麼。曰不曾踏著。陽曰。汝解騰空那。曰不解騰空。陽曰。爭得到者裏。曰步步不迷方。通身無辨處。陽曰。汝得超方三昧邪。曰聖心不可得。三昧豈彰名。陽曰。如是如是。汝應信此。即本體全彰。理事不二。善自護持。住後僧問。如何是羅浮境。師曰。突兀侵天際。巍峩鎮海涯。曰如何是境中人。師曰。頂上白雲散。足下黑煙生。

懷安軍雲頂海鵬禪師

僧問。如何是大疑底人。師曰。畢鉢巖中。面面相覷。曰如何是不疑底人。師曰。如是我聞。須彌粉碎。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曰。達磨逢梁武。摩騰遇漢明。

北塔廣法嗣

荊門軍玉泉承皓禪師

眉州丹稜王氏子。依大力院出家。登具後遊方。參北塔。發明心要。得自在三昧。製犢鼻褌。書歷代祖師名字。乃曰。唯有文殊普賢較些子。且書於帶上。故叢林目為皓布褌。元豐間。首眾於襄陽谷隱。有鄉僧亦効之。師見而詬曰。汝具何道理。敢以為戲事耶。嘔血無及耳。尋於鹿門如所言而逝。張無盡奉使京西南路。就謁之。致開法於郢州大陽。時谷隱主者。私為之喜。師受請陞座曰。某在谷隱十年。不曾飲谷隱一滴水。嚼谷隱一粒米。汝若不會。來大陽。為汝說破。携拄杖下座。傲然而去。尋遷玉泉。有示眾曰。一夜雨霽烹。打倒葡萄棚。知事頭首行者人力。拄底拄。撐底撐。

撐撐拄拄到天明。依舊可憐生。自贊。粥稀後坐。牀窄先臥。耳聾愛高聲。眼昏宜字大。冬至示眾曰。晷運推移。布衲赫赤。莫怪不洗。無來換替。僧入室次。狗子在室中。師叱一聲。狗便出去。師曰。狗却會。你却不會。師示寂。門人圍繞。師笑曰。吾年八十一。老死昇屍出。兒郎齊著力。一年三百六十日。言畢而逝。

雪竇顯法嗣

修撰曾會居士

幼與明覺同舍。及冠異途。天禧間。公守池州。一日會于景德寺。公遂引中庸大學。參以楞嚴符宗門語句。質明覺。覺曰。者個尚不與教乘合。況中庸大學邪。學士要徑捷理會此事。乃彈指一下曰。但恁麼薦取。公于言下領旨。天聖初。公守四明。以書幣迎師補雪竇。既至。公曰。某近與清長老。商量趙州勘婆子話。未審端的有勘破處也無。覺曰。清長老道個甚麼。公曰。又與麼去也。覺曰。清長老且放過一著。學士還知天下衲僧出者婆子圈襪不得麼。公曰。者裏別有個道處。趙州若不勘破婆子。一生受屈。覺曰。勘破了也。公大笑。

延慶榮法嗣

廬山圓通居訥祖印禪師

梓州蹇氏子。生而英特。讀書過目成誦。十一出家。十七試法華得度。受具後肄業講肆。耆年多下之。會禪者南遊回。力勉其行。于是徧參荆楚間。迄無所得。至襄州洞山。留止十年。因讀華嚴論有省。後遊廬山。道價日起。由歸宗而遷圓通。仁廟聞其名。皇祐初。詔住十方淨因禪院。師稱目疾不能奉詔。有旨令舉自代。遂舉大覺璉應詔。及引對。問佛法大意。稱旨。天下賢師知人也。僧問。祖刹重興時如何。師曰。人在破頭山。曰一朝權在手。師便打。

梁山岩法嗣

鼎州梁山善冀禪師

僧問。撥塵見佛時如何。師曰。莫眼華。問和尚幾時成佛。師曰。且莫壓良為賤。曰為甚麼不肯承當。師曰。好事不如無。師頌魯祖面壁曰。魯祖三昧最省力。纔見僧來便面壁。若是知心達道人。不在揚眉便相悉。

大鑒下第十二世

琅琊覺法嗣

江州歸宗可宣禪師

漢州人。壯為僧。即出峽依琅琊。一語忽投。羣疑頓息。琅琊可之。未幾令分座。淨空居士郭功甫。過門問道。與厚。及師領歸宗時。功甫任南昌尉。俄郡守恚師不為禮。窘甚。遂作書寄功甫曰。某世緣尚有六年。奈州主抑逼。當棄餘喘。託生公家。願無見阻。功甫閱書驚喜。且領之。中夜其妻夢間。見師入其寢。失聲曰。此不是和尚來處。功甫撼而問之。妻詳以告。呼燈取書示之。相笑不已。遂孕。及生乃名宣老。期年記問如昔。至三歲。白雲端禪師抵其家。始見之曰。吾姪來也。雲曰。與和尚相別幾年。宣倒指曰。四年矣。雲曰。甚處相別。曰白蓮莊上。雲曰。以何為驗。曰爹爹媽媽明日請和尚齋。忽聞推車聲。雲問。門外是甚麼聲。宣以手作推車勢。雲曰。過後如何。曰平地兩條渠。果六周無疾而逝。

浮山遠法嗣

荊門軍玉泉調芳禪師

僧問。從上諸聖。以何法示人。師拈起拄杖。僧曰。學人不會。師曰。兩手分付。僧擬議。師便打。

稱心徬法嗣

彭州慧日堯禪師

僧問。古者道。我有一句。待無舌人解語。却向汝道。未審意旨如何。師曰。無影樹下好商量。僧禮拜。師曰。瓦解冰消。

大鑒下第十三世

雙峰回法嗣

閩州光國文贊禪師

僧問。不二之法。請師速道。師曰領。曰恁麼則人人有分也。師曰了。曰錦屏天下少。光國世間稀。師曰退。

玉泉調芳法嗣

安州延福智興禪師

西川人。出家受具後。即造玉泉芳禪師法席。發明心地。初住漸源。次遷黃梅龍華。晚住延福。師語不談玄。行不修潔。身不稟儀。眾不喜見。逝後靈異不測。報應如響。緇素追仰遺體。殯。祈禱尤盛。

芙蓉楷法嗣

鄧州丹霞子淳禪師

劍州賈氏子。弱冠為僧。徹證於芙蓉之室。上堂。乾坤之內。宇宙之間。中有一寶。秘在形山。肇法師恁麼道。祇解指蹤話跡。且不能拈示於人。丹霞今日擘開宇宙。打破形山。為諸人拈出。具眼者辨取。以拄杖卓一下曰。還見麼。鷺鷥立雪非同色。明月蘆花不似他。上堂。舉德山示眾曰。我宗無語句。實無一法與人。德山恁麼說話。可謂是祇知入艸求人。不覺通身泥水。子細觀來。祇具一隻眼。若是丹霞則不然。我宗有語句。金刀剪不開。深深玄妙旨。玉女夜懷胎。上堂。亭亭日午猶虧半。寂寂三更尚未圓。六戶不曾知暖意。往來常在月明前。上堂。寶月流輝。澄潭布影。水無蘸月之意。月無分照之心。水月兩忘。方可稱斷。所以道。昇天底事直須颺却。十成底事直須去却。擲地金聲。不須回顧。若能如是。始解向異類中行。諸人到者裏。還相委悉麼。良久曰。常行不舉人間步。披毛戴角混塵泥。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曰。金菊乍開蜂競採。曰見後如何。師曰。苗枯花謝了無依。宣和己亥春示寂。塔全身於洪山之南。

洪州寶峰闡提惟照禪師

簡州李氏子。幼超邁而惡俗。一日授書。至性相近也。習相遠也。遽曰。凡聖本一體。以習故差別。我知之矣。即趨成都。師鹿苑清泰處。年十九剃染登具。泰令聽起信於大慈。師輒歸臥。泰詰之。師曰。既稱正信大乘。豈言說所能了。乃虔心游方。謁芙蓉於大洪。嘗夜坐閣道。適風雪震薄。聞警盜者傳呼過之。隨有所得辭去。大觀中。芙蓉嬰難。師自三吳欲趨沂水。僕夫迷道。師舉杖擊之。忽大悟。嘆曰。是地非鰲山也邪。比至沂。芙蓉望而喜曰。紹隆吾宗。必子數輩矣。因留躬耕湖上累年。智證成就。出領招提。遷甘露三祖。宣知壬寅。詔補圓通。棄去。復居泐潭。上堂。古佛道。我初成正覺。親見大地眾生悉皆成正覺。又道。深固幽遠。無人能到。因。沒見識漢。好龍頭蛇尾。便下座。上堂。過去諸佛已入涅槃了也。汝等諸人不應追念。未來諸佛未出於世。汝等諸人不要妄想。正當今日。你何人。參。上堂。伯夷隘。柳下惠不恭。君子不由也。二邊不立。中道不安時作麼生。拈拄杖曰。鴛鴦繡出從君看。不把金針度與人。上堂。大陽門下妙唱彌高。明月堂前知音蓋寡。不免舟橫江渚。櫂舉清波。唱慶堯年。和清平樂。如斯告報。普請承當。擬議之間。白雲萬里。上堂。本自不生。今亦無滅。是死不得底樣子。當處出生。隨處滅盡。是活生受底規模。大丈夫漢。直須處生死流。臥荊棘林。俯仰屈伸。隨機施設。能如是也。無量方便。莊嚴三昧。大解脫門。蕩然頓開。其或未然。無量煩惱。一切塵勞。嶽立面前。塞却古路。上堂。古人道。憊肢體。黜聰明。離形去智。同于大通。正當恁麼時。且道是甚麼人。刪詩書。定禮樂。還委悉麼。禮云禮云。玉帛云乎哉。樂云樂云。鐘鼓云乎哉。問承師有言。雲黯黯處獨秀峰挺出。月朦朧裏泐潭水光生。豈不是寶峰境。師曰。若是寶峰境。憑君子細看。曰如何是境中人。師曰。看取令行時。曰祇如承言須會宗。勿自立規矩。如何是和尚宗。師曰。須知雲外千峰上。別有靈松帶露寒。值雪。僧問。祖師西來即不問。時節因緣事若何。師曰。一片兩片三四片。落在眼中猶不薦。建炎二年正月七日示寂。闡維得設利如珠琲。舌齒不壞。塔于寺之西峯。

錦江禪燈卷第三

大鑒下第十三世
芙蓉楷法嗣

襄州石門元易禪師

潼川稅氏子。上堂。十方同聚會。箇箇學無為。此是選佛場。心空及第歸。大眾。祇如聞見覺知。未嘗有間。作麼生說箇心空底道理。莫是見而不見。聞而不聞。為之心空邪。錯。莫是忘機息慮。萬法俱捐。銷能所以入玄宗。泯性相而歸法界。為之心空邪。錯。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未審畢竟作麼生。還會麼。良久曰。若實無為無不為。天堂地獄長相隨。三尺杖子攪黃河。八臂那吒冷眼窺。無限魚龍盡奔走。捉得循河三脚龜。脫取殼。鍤錐錐。吉凶之兆便分輝。借問東村白頭老。吉凶未兆若何為。休休休。古往今來春復秋。白日騰騰隨分過。更嫌何處不風流。咄。上堂。皓月當空。澄潭無影。紫微轉處夕陽輝。彩鳳歸時天欲曉。碧霄雲外石筍橫空。綠水波中泥牛駕浪。懷胎玉兔曉過西岑。抱子金雞夜棲東嶺。於斯明得。始知夜明簾外別是家風。空王殿中聖凡絕跡。且道。作麼生是夜明簾外事。還委悉麼。正值秋風來入戶。一聲砧杵落誰家。僧問。古鏡未磨時如何。師曰。精靈皺眉。曰磨後如何。師曰。波斯彈指。曰為甚麼如此。師曰。好事不出門。紹興丁丑七月二十五日坐寂。火後收設利。塔于學射山。

潼川梅山己禪師

僧問。如何是法身邊事。師曰。枯木糝花不犯春。曰如何是法身向上事。師曰。石女不粧眉。

長安天寧大用齊璉禪師

潼川牟氏子。上堂。清虛之理。佛祖同歸。畢竟無身。聖凡一體。理則如是。滿目森羅事作麼生。纖塵絕際。渠儂有眼。豈有旁窺。官不容針。私通車馬。若到恁麼田地。始可隨機受用。信手拈來。

妙應無方。當風玄路。直得金針線縫。縫脚不彰。玉殿寶階。珠簾未卷。正當此時。且道是甚麼人境界。古渡秋風寒颯颯。蘆花紅蓼滿江灣。

襄州鹿門法燈禪師

成都劉氏子。依大慈寶範為僧。俾聽華嚴。得其要。棄謁芙蓉。蓉問曰。如何是空劫已前自己。師於言下心跡泯然。從容進曰。靈然一句超羣象。迥出三乘不假修。蓉撫而印之。開法鹿門。僧問。虛玄不犯寶鑑光寒時如何。師曰。掘地深埋。問如何是逍遙物外底人。師曰。徧身紅爛不可扶持。

大洪恩法嗣

隨州大洪守遂禪師

遂寧章氏子。上堂。召大眾。一拳拳倒黃鶴樓。一踏踏翻鸚鵡洲。慣向高樓驟玉馬。曾於急水打金毬。然雖恁麼。爭奈有五色絲條繫手脚。三鑄金鎖鎖咽喉。直饒鎚碎金鎖割斷絲條。須知更有一重礙汝在。且道如何是那一重。還會麼。善吉維摩談不到。目連鶩子看如盲。上堂。舉李刺史問藥山何姓。山曰正是時。李罔測。乃問院主。某甲適來問長老何姓。答道正是時。的當真姓甚麼。主曰。祇是姓韓。山聞曰。若六月對他。便道姓熱也。又巖頭問講僧。見說大德會教是否。曰不敢。巖頭舉拳曰。是甚麼教。曰是權教。頭曰苦哉。我若展脚問你。不可道是脚教也。師曰。奇怪二老宿。有殺人刀。有活人劍。一轉語似石上栽花。一轉語似空中挂劍。當時若無後語。達磨一宗掃土而盡。諸人要見二老宿麼。寧可截舌。不犯國諱。

蔣山泉法嗣

清獻公趙抃居士

字悅道。年四十餘。擯去聲色。係心宗教。會佛慧來居衢之南禪。公日親之。慧未嘗容措一詞。後典青州。政事之餘多宴坐。忽大雷震驚。即契悟。作偈曰。默坐公堂虛隱几。心源不動湛如水。一聲霹靂頂門開。喚起從前自家底。慧聞笑曰。趙悅道撞彩耳。富鄭公初於宗門未有所趣。公勉之書曰。伏惟執事。富貴如是之極。道德

如是之盛。福壽康寧如是之備。退休閒逸如是之高。其所未甚留意者。如來一大事因緣而已。能專誠求所證悟。則他日為門下賀也。公年七十有二。以太子少保致仕而歸。親舊里民遇之如故。作高齋以自適。題偈見意曰。腰佩黃金已退藏。箇中消息也尋常。世人欲識高齋老。祇是柯村趙四郎。復曰。切忌錯認。臨薨。遺佛慧書曰。非師平日警誨。至此必不得力矣。慧悼以偈曰。仕也邦為瑞。歸歟世作程。人間金粟去。天上玉樓成。慧劍無纖缺。冰壺徹底清。春風灤水路。孤月炤雲明。

法雲秀法嗣

興元府慈濟聰禪師

僧問。如何是道。師曰。此去長安三十程。曰如何是道中人。師曰。撞頭磕額。問不是風動。不是幡動。未審是甚麼動。師曰。低聲低聲。問如何是隨色摩尼珠。師曰。青青翠竹。鬱鬱黃花。曰如何是正色。師曰。退後退後。問釋迦已滅。彌勒未生。未審誰為導首。師曰。鍤牛也須汗出。曰莫便是為人處也無。師曰。細看前話。問如何是超佛越祖之談。師曰。陝府鍤牛。上堂。三乘教典不是真詮。直指本心未為極則。若是通方上士。脫灑高流。出來相見。乃顧視大眾曰。休。上堂。終日孜孜相為。恰似牽牛上壁。大眾何故如此。貪生逐日區區去。喚不回頭爭奈何。上堂。一即一。二即二。把定要津。何處出氣。拈拄杖曰。彼自無瘡。勿傷之也。卓一下下座。

黃龍南法嗣

江州東林興龍寺常總照覺禪師

劍州施氏子。久依黃龍。密授大法厥旨。出住泐潭。次遷東林。皆符讖記。僧問。乾坤之內宇宙之間。中有一寶秘在形山。如何是寶。師曰。白月現黑月隱。曰非但聞名。今日親見。師曰。且道寶在甚麼處。曰古殿戶開光燦爛。白蓮池畔社中人。師曰。別寶還他碧眼胡。又僧出眾提起坐具曰。請師答話。師曰。放下著。僧又作展勢。師曰收。曰昔年尋劍客。今朝遇作家。師曰。者裏是甚麼所在。僧便喝。師曰。喝老僧那。僧又喝。師曰。放過又爭得。便打。上堂。乾坤大地常演圓音。日月星辰每談實相。翻憶先黃龍道。秋雨淋漓。連宵徹曙。點點無私。不落別處。復云。滴穿汝眼。

睛。浸爛汝鼻孔。東林則不然。終歸大海作波濤。擊禪牀下座。上堂。老盧不識字。頓明佛意。佛意離文墨故。白兆不識書。圓悟宗乘。宗乘非言詮故。如此老婆心。分明入泥水。今時人猶尚抱橋柱澡洗。把纜放船。良久曰。爭怪得老僧。

瑞州黃檗惟勝真覺禪師

潼川羅氏子。居講聚時。偶以扇勒窗櫺有聲。忽憶教中道。十方共擊鼓。十處一時聞。因大悟。白本講。講令參問。師徑往黃龍。後因瑞州太守委龍遊。選黃檗主人。龍集眾垂語曰。鐘樓上念贊。牀脚下種菜。若人道得。乃往住持。師出答曰。猛虎當路坐。龍大悅。遂令師往。由是諸方宗仰之。上堂。臨濟喝。德山棒。留與禪人作榜樣。歸宗磨。雪峰毬。此箇門庭接上流。若是黃檗。即不然也。無喝也無棒。亦不推磨。亦不輓毬。前面是案山。背後是主山。塞却你眼睛。拶破你面門。于此見得。得不退轉地。盡未來際不向他求。若見不得。醍醐上味。翻成毒藥。上堂。寂兮寥兮。蟾蜍皎皎下空谷。寬兮廓兮。曦光赫赫流四海。曹溪路上勦絕人行。多子塔前駢闐如市。直饒者裏薦得個儻分明。未是衲僧活計。大丈夫漢。須是向黑暗獄中敲枷打鎖。餓鬼隊裏放火奪漿。推倒慈氏樓拆却空王殿。霧苗瑞艸和根拔。滿地從教荊棘生。

南嶽福嚴慈感禪師

潼川杜氏子。上堂。古佛心祇如今。若不會苦沈吟。秋雨微微。秋風颯颯。乍此乍彼。若為酌答。沙岸蘆花青黃交雜。禪者何依。良久曰。筍。

潭州雲蓋守智禪師

劍州陳氏子。遊方至豫章大寧。時法昌遇禪師。韜藏西山。師聞其飽參即之。昌問曰。汝何所來。師曰大寧。又問。三門夜來倒。汝知麼。師愕然曰不知。昌曰。吳中石佛。大有人不曾得見。師惘然。即展拜。昌使謁翠巖真禪師。雖久無省。且不舍寸陰。及謁黃龍于積翠。始盡所疑。後首眾石霜。遂開法道吾。徙雲蓋。僧問。有一無絃琴。不是世間木。今朝負上來。請師彈一曲。師拊膝一下。僧曰。金風颯颯和清韻。請師方便再垂音。師曰。陝府出鍬牛。上堂。緊峭離水靴。踏破湖湘月。手把鍬蒺藜。打破龍虎穴。翻身倒上樹。始見無生滅。却笑老瞿曇。彈指超彌勒。上堂。昨日

高山看釣魚。步行騎馬失却驢。有人拾得駱駝去。重賞千金一也無。若向者裏薦得不著。還艸鞋錢。上堂。舉趙州問僧。向甚麼處去。曰摘茶去。州曰閑。師曰。道著不著。何處摸索。背後龍鱗。面前驢脚。翻身筋斗。孤雲野鶴。阿呵呵。示眾。不離當處常湛然。覓即知君不可見。雖然先聖恁麼道。且作箇模子搭却。若也出不得。祇抱得古人底。若也出得。方有少分相應。雲蓋則不然。騎駿馬繞須彌。過山尋蟻跡。能有幾人知。師居院之東堂。

舒州宿松縣霧隱德滋山主

蜀人。住院二十年。每日獨自上堂。朝朝相似。日日一殿。只者便是。更莫外求。元豐六年十月四日。陞堂集眾。良久云。會麼。眾無語。儼然而逝。

景福順

西蜀人。得法慧南。然緣薄。所居皆遠方小剎。學者過其門。莫能容。順亦超然自樂。視世境如飛埃過目。壽八十餘。坐脫于香城山。

羅漢祖印林法嗣

絳州富樂智靜禪師

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曰。六耳不同謀。僧云。意旨如何。師曰。逢人但恁麼舉。

大鑑下第十四世

白雲端法嗣

蘄州五祖法演禪師

絳州鄧氏子。三十五始棄家祝髮。受具。往成都習唯識百法論。因聞菩薩入見道時。智與理冥。境與神會。不分能證所證。西天外道嘗難比丘曰。既不分能證所證。却以何為證。無能對者。外道貶之。令不鳴鐘鼓。反披袈裟。三藏法師至彼。救此義曰。如人飲水冷暖自知。乃通其難。師曰。冷暖則可知矣。作麼生是自知底

事。遂質本講曰。不知自知之理如何。講莫疏其問。但誘曰。汝欲明此。當往南方。扣傳佛心宗者。師即負笈出關。所見尊宿。無不以此咨決。所疑終不破。洎謁圓照本禪師。古今因緣會盡。唯不會僧問興化。四方八面來時如何。化云打中間底。僧作禮。化云。我昨日赴箇村齋。中途遇一陣卒風暴雨。却向古廟裏避得過。請益本。本云。此是臨濟下因緣。須是問他家兒孫始得。師遂謁浮山遠禪師。請益前話。遠云。我有個譬喻說似你。你一似個三家村裏賣柴漢子。把個匾擔。向十字街頭立地問人。中書堂今日商量甚麼事。師默計云。若如此。大故未在。遠一日語師曰。吾老矣。恐虛度子光陰。可往依白雲。此老雖後生。吾未識面。但見其頌臨濟三頓棒話。有過人處。必能了子大事。師濟然禮辭。至白雲。遂舉僧問南泉摩尼珠話請問。雲叱之。師領悟。獻投機偈曰。山前一片閒田地。叉手叮嚀問祖翁。幾度賣來還自買。為憐松竹引清風。雲特印可。令掌磨事。未幾雲至語師曰。有數禪客。自廬山來。皆有悟入處。教伊說亦說得有來由。舉因緣問伊亦明得。教伊下語亦下得。祇是未在。師于是大疑。私自計曰。既悟了。說亦說得。明亦明得。如何却未在。遂參究累日。忽然省悟。從前寶惜一時放下。走見白雲。雲為手舞足蹈。師亦一笑而已。師後曰。吾因茲出一身白汗。便明得下載清風。雲一日示眾曰。古人道。如鏡鑄像。像成後。鏡在甚麼處。眾下語不契。舉以問師。師近前問訊曰。也不較多。雲笑曰。須是道者始得。乃命分座開示方來。初住四面。遷白雲。晚居東山。僧問。攜筇領眾。祖令當行。坐斷要津。師意如何。師曰。秋風吹渭水。落葉滿長安。曰四面無門山嶽秀。今朝且得主人歸。師曰。你道路頭在甚麼處。曰為甚麼對面不相識。師曰。且喜到來。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曰。人貧智短。馬瘦毛長。問如何是白雲為人親切處。師曰。捩轉鼻孔。曰便恁麼去時如何。師曰。不知痛癢漢。問達磨面壁意旨如何。師曰。計較未成。曰二祖立雪時如何。師曰。將錯就錯。曰祇如斷臂安心又作麼生。師曰。煬帝開汴河。問百尺竿頭如何進步。師曰。快走始得。問如何是臨濟下事。師曰。五逆聞雷。曰如何是雲門下事。師曰。紅旗閃爍。曰如何是曹洞下事。師曰。馳書不到家。曰如何是沩仰下事。師曰。斷碑橫古路。僧禮拜。師曰。何不問法眼下事。曰留與和尚。師曰。巡人犯夜。問如何是白雲一滴水。師曰。打碓打磨。曰飲者如何。師曰。教你無著面處。問天下人舌頭。盡被白雲坐斷。白雲舌頭甚麼人坐斷。師曰。東村王大翁。師乃曰。適來思量得一則因緣。而今早忘了也。却是拄杖子記得。乃拈拄杖曰。拄杖子也忘了。遂卓一下曰。同坑無異土。咄。上堂。幸然無一事。行脚要參禪。却被禪相惱。不透祖師關。如何是祖師關。把火入牛

欄。上堂。恁麼恁麼。蝦跳不出斗。不恁麼不恁麼。弄巧成拙。軟似鍊硬如泥。金剛眼睛十二兩。衲僧手裏秤頭低。有價數沒商量。無鼻孔底將甚麼聞香。上堂。難難。幾何般。易易。沒巴鼻。好好催人老。默默從此得。過者四重關了。泗州人見大聖。參。

丹霞淳法嗣

真州長蘆真歇清了禪師

左縣雍氏子。襁褓入寺見佛。喜動眉睫。咸異之。年十八。試法華得度。往成都大慈習經論。領大意。出蜀至沔漢。扣丹霞之室。霞問。如何是空劫已前自己。師擬對。霞曰。你鬧在且去。一日登鉢孟峯。豁然契悟。徑歸侍立。霞掌曰。將謂你知有。師欣然拜之。翌日霞上堂曰。日照孤峯翠。月臨溪水寒。祖師玄妙訣。莫向寸心安。便下座。師直前曰。今日陞座。更瞞某不得也。霞曰。你試舉我今日陞座看。師良久。霞曰。將謂你瞞地。師便出。後游五臺。之京師。浮汴直抵長蘆。謁祖照。一語契投。命為侍者。踰年分座。未幾照稱疾退閒。命師繼席。學者如歸。建炎末。游四明。主補陀。台之天封。閩之雪峰。詔住育王。徙溫州龍翔。杭之徑山。慈寧皇太后命開山臯亭崇先。上堂。我于先師一掌下。伎倆俱盡。覓個開口處不可得。如今還有恁麼快活不徹底漢麼。若無銜鍊負鞍。各自著便。上堂。久默斯要。不務速說。釋迦老子。待要欸曲賣弄。爭奈未出母胎。已被人覷破。且道覷破個甚麼。瞞雪峯不得。上堂。上孤峯頂。過獨木橋。驀直恁麼行。猶是時人脚高脚低處。若見得徹。不出戶身徧十方。未入門常在屋裏。其或未然。趁涼搬取一轉柴。上堂。道得第一句。不被拄杖子瞞。識得拄杖子。猶是途路中事。作麼生是到地頭一句。上堂。處處覓不得。祇有一處不覓自得。且道是那一處。良久曰。賊身已露。上堂。口邊白醜去。始得入門。通身紅爛去。方知有門裏事。更須知有不出門底。乃曰。喚甚麼作門。僧問。三世諸佛向火焰裏轉大法輪。還端的也無。師大笑曰。我却疑著。曰和尚為甚麼却疑著。師曰。野花香滿路。幽鳥不知春。問不落風彩。還許轉身也無。師曰。石人行處不同功。曰向上事作麼生。師曰。妙在一漚前。豈容千聖眼。僧禮拜。師曰。祇恐不恁麼。師一日入廚。看煮麪次。忽桶底脫。眾皆失聲曰可惜許。師曰。桶底脫自合歡喜。因甚麼却煩惱。僧曰。和尚即得。師曰。灼然可惜許一桶麪。問僧。你死後燒作灰撒却了。向甚麼處去。僧便喝。師曰。好一喝。祇是不得翻欸。僧又喝。師曰。公案未圓。更喝始得。僧無語。師打曰。者死漢。上堂。苔封

古徑。不墮虛凝。霧鎖寒林。肯彰風要。鉤針穩密。孰云漁父棲巢。祇麼承當。自是平常快活。還有具透關眼底麼。良久曰。直饒聞早便歸去。爭似從來不出門。上堂。乍雨乍晴。乍寒乍熱。山僧底個山僧自知。諸人底個諸以自說。且道雪峰口。除喫飯外。要作甚麼。問僧。琉璃殿上玉女攏梭。明甚麼邊事。曰回互不當機。師曰。還有斷續也無。曰古今不曾問。師曰。正當不曾問時如何。僧珍重便出。上堂。撼拄杖曰。看看三千大千世界。一時搖動。雲門大師即得。雪峰則不然。卓拄杖曰。三千大千世界。向甚麼處去。還會麼。不得重梅雨。秧苗爭見青。上堂。幻化空身即法身。遂作舞云。見麼見麼。恁麼見得。過橋村酒美。又作舞云。見麼見麼。恁麼不見。隔岸野花香。上堂。還有不被玄妙汙染底麼。良久曰。者一點。傾四海水。已洗脫不下。僧問。如何是空劫已前自己。師曰。白馬入蘆花。上堂。窮微喪本。體妙失宗。一句截流。淵玄及盡。是以金針密處不露光銑。玉線通時潛舒異彩。雖然如是。猶是交互雙明。且道巧拙不到。作麼生相委。良久曰。雲蘿秀處青陰合。巖樹高低翠鎖深。上堂。轉功就位。是向去底人。玉韞荊山貴。轉位就功。是却來底人。紅爐片雪春。功位俱轉。通身不滯。撒手亡依。石女夜登機。密室無人掃。正恁麼時。絕氣息一句。作麼生相委。良久曰。歸根風墮葉。照盡月潭空。師終于臯亭崇先。塔于寺西華桐島。諡悟空禪師。

石門易法嗣

遂寧府香山尼佛通禪師

因誦蓮經有省。往見石門。乃曰。成都喫不得也。遂寧喫不得也。門拈拄杖打出。通忽悟曰。榮者自榮。謝者自謝。秋露春風。好不著便。門拂袖歸方丈。師亦不顧而出。由此道俗景從。得法者眾。

大洪遂法嗣

隨州大洪顯慶禪師

廣安楊氏子。僧問。須菩提岩中晏坐。帝釋雨花。和尚新處洪峰。有何祥瑞。師曰。鋤牛耕破扶桑國。迸出金烏照海門。曰未審是何宗旨。師曰。熨斗煎茶餉不同。

黃龍心法嗣

漢州三聖繼昌禪師

彭州黎氏子。上堂。木佛不度火。甘露臺前逢達磨。惆悵洛陽人未來。面壁九年空冷坐。金佛不度爐。坐歎勞生走道途。不向華山圖上看。豈知潘閬倒騎驢。泥佛不度水。一道靄光照天地。堪羨玄沙老古錫。不要南山要鼈鼻。上堂。舉趙州訪二菴主。師曰。五陵公子爭誇富。百衲高僧不厭貧。近來世俗多顛倒。祇重衣衫不重人。

東林總法嗣

內翰東坡居士蘇軾

字子瞻。因宿東林。與照覺論無情話有省。黎明獻偈曰。溪聲便是廣長舌。山色豈非清淨身。夜來八萬四千偈。他日如何舉似人。未幾抵荊南。聞玉泉皓禪師機鋒不可觸。公擬抑之。即微服求見。泉問。尊官高姓。公曰。姓秤。乃秤天下長老底秤。泉喝曰。且道者一喝重多少。公無對。于是尊禮之。後過金山。有寫公照容者。公戲題曰。心似已灰之木。身如不繫之舟。問汝平生功業。黃州惠州瓊州。

寶峯文法嗣

西蜀廣道者

住筠陽九峯。為雲菴真淨之嗣。天資純至。脫略世故。有頌趙州勘婆話曰。指路婆婆在五臺。禪人到此盡癡呆。一拳打破扶桑國。杲日當空炤九垓。一日有戒上座者。善于醫術。分衛而歸。命廣說法。戒出問曰。如何是九峯境。答曰。滔滔雙澗水。落落九重山。進曰。如何是境中人。答曰。長者自長。短者自短。進曰。人境已蒙師指示。向上宗乘事若何。答曰。喫棒得也未。戒作禮。廣問侍者曰。陞座為何事。侍者曰。戒藥王請。廣曰。金毛師子子。出窟便咆哮。且道金毛師子子是阿誰。良久云。即是今晨戒藥王。便下座。

隆興府泐潭湛堂文準禪師

興元府梁氏子。初謁真淨。淨問。近離甚處。師曰大仰。淨曰。夏在甚處。師曰大湊。淨曰。甚處人。師曰。興元府。淨展手曰。我

手何似佛手。師罔措。淨曰。適來祇對一一霧明。一一天真。及乎道個我手何似佛手。便成窒礙。且道病在甚處。師曰。某甲不會。淨曰。一切見成。更教誰會。師當下釋然。服勤十載。所往必隨。紹聖三年。真淨移石門。眾益盛。凡衲僧扣問。但瞑目危坐無所示。見來學。則往治蔬圃。率以為常。師謂同行恭上座曰。老漢無意于法道乎。一日舉杖決渠水濺衣。忽大悟。淨詬曰。此乃敢爾囂茸邪。自此迹愈晦而名益著。顯謨李公景直守豫章。請開法雲巖。未幾移居泐潭。僧問。教意即且置。未審如何是祖意。師曰。煙村三月裏。別是一家春。問寒食因悲郭外春。墅田無處不傷神。林間壘壘添新塚。半是去年來哭人。者事且拈放一邊。如何是道。師曰。蒼天蒼天。曰學人特伸請問。師曰。十字街頭吹尺八。村酸冷酒兩三巡。問一法若有。毗盧墮在凡夫。萬法若無。普賢失却境界。去此二途。請師一決。師曰。大黃甘艸。曰此猶是學人疑處。師曰。放待冷來看。問向上一路千聖不傳。未審如何是向上一路。師曰。行到水窮處。坐看雲起時。曰為甚不傳。師曰。家家有路透長安。曰祇如衲僧門下。畢竟作麼生。師曰。放你三十棒。

黃檗勝法嗣

成都府昭覺純白紹覺禪師

上堂。寒便向火。熱即搖扇。饑時喫飯。困來打眠。所以趙州庭前柏。香巖嶺後松。栽來無別用。祇要引清風。且道。畢竟事作麼生。甲子乙丑海中金。丙寅丁卯鑪中火。

仰山偉法嗣

襄陽谷隱顯禪師

生于西蜀安樞密之別業田丁家。南遊參仰山偉公。因致問。如何是佛向上事。偉對以日出東方夜落西。顯復進語。東方向上更望指示。語未竟。偉便打。于是有省。及住谷隱。以仰山忌日。對霧拈香云。仰面不見天。低頭不見地。不知大仰來不來。一炷旃檀表勤意。顯為人誠至。道學純正。安公常攜家屬致拜。且語人曰。不意有一佛出吾家地上。遂奏淨覺禪師號。以伸敬焉。蓋取其蘊。略其所出。可謂道在一介。則一介重也。

黃龍肅法嗣

嘉定府月珠祖鑑禪師

僧請筆師語要。師曰。達磨西來單傳心印。曹谿六祖不識一字。今日諸方出世。語句如山。重增繩索。乃拍禪牀曰。于斯薦得。猶是鈍根。若也未然。白雲深處從君臥。切忌寒猿中夜啼。

圓照本法嗣

筠州逍遙聰禪師

綿州鹽泉王氏子。幼投劍門慈雲海亮禪師出家。年二十三。誦經得度。遂遊成都講肆。捨之南遊。徧參尊宿。末後見圓照本于淨慈。久而不悟。一日為僧伽作禮。忽洒然。即上方丈具陳所得。本曰。汝知之矣。吾昔夢汝吞一世界一鬚刀。今汝所悟云然。知汝自今始出家也。即為陞座告眾。師服勤久之。後遊江西。延住真如開善聖壽三剎焉。

上藍順法嗣

參政蘇轍居士

字子由。元豐三年。以睢陽從事。左遷瑞州榷筦之任。是時洪州上藍順禪師。與其父文安先生有契。因往訪焉。相得歡甚。公咨以心法。順示搐鼻因緣。已而有省。作偈呈曰。中年聞道覺前非。邂逅相逢老順師。搐鼻徑參真面目。掉頭不受別鉗鎚。枯藤破衲公何事。白酒青鹽我是誰。慚愧東軒殘月上。一杯甘露滑如飴。

佛國惟白法嗣

興元府中梁山乾明永因禪師

初住法濟。僧問。改律為禪。非無所以。學人上來。乞師便道。師云。分明一句作者猶迷。僧云。漢水祇應流到海。月輪直上最高峰。師云。且得領話。
錦江禪燈卷第四

昭覺丈雪 通醉 輯

紹興幻菴 胡昇猷 訂

大鑒下第十五世

天童覺法嗣

襄州石門清涼法真禪師

劍門人。上堂。柳色含煙。春光迥秀。一峰孤峻。萬卉爭芳。白雲淡泞已無心。滿目青山元不動。漁翁垂釣。一溪寒雪未曾消。野渡無人。萬古碧潭清似鏡。賓中有主。拄杖橫挑日月輪。主中有賓。踏破艸鞋赤脚走。直得賓主互顯。殺活自由。理事渾融。正偏不滯。入荒田不揀。信手拈來艸。且道如何委悉。塵中雖有隱身術。爭似全身入帝鄉。

黃龍新法嗣

嘉定府九頂寂惺惠泉禪師

僧問。心迷法華轉。心悟轉法華。未審意旨如何。師曰。風暖鳥聲碎。日高花影重。上堂。昔日雲門有三句。謂函蓋乾坤句。截斷眾流句。隨波逐浪句。九頂今日亦有三句。所謂饑來喫飯句。寒來向火句。困來打睡句。若以佛法而論。則九頂望雲門。直立下風。若以世諦而論。則雲門望九頂。直立下風。二語相違。且如何是九頂為人處。

嘉興府華亭性空妙普菴主

漢州人。久依死心獲證。乃抵秀水。追船子遺風。結茅青龍之野。吹簫笛以自娛。多賦詠。得之者必珍藏。其山居曰。心法雙忘猶隔妄。色空不二尚餘塵。百鳥不來春又過。不知誰是住菴人。又警眾曰。學道猶如守禁城。晝防六賊夜惺惺。中軍主將能行令。不動干戈治太平。又曰。不耕而食不蠶衣。物外清閒適聖時。未透祖師關

振子。也須存意著便宜。又曰。十二時中莫住工。窮來窮去到無窮。直須洞徹無窮底。踏倒須彌第一峰。建炎初。徐明叛。道經烏鎮。肆殺戮。民多逃亡。師獨荷策而往。賊見其偉異。疑必詭伏者。問其來。師曰。吾禪者。欲抵密印寺。賊怒欲斬之。師曰。大丈夫。要頭便斫取。奚以怒為。吾死必矣。願得一飯以為送終。賊奉肉食。師如常齋出生畢。乃曰。孰當為我文之以祭。賊笑而不答。師索筆大書曰。嗚呼惟霧。勞我以生。則大塊之過。役我以壽。則陰陽之失。乏我以貧。則五行不正。困我以命。則時日不吉。吁哉至哉。賴有出塵之道。悟我之性。與其妙心。與其妙心。孰與為隣。上同諸佛之真化。下合凡夫之無明。纖塵不動。本自圓成。妙矣哉妙矣哉。日月未足以為明。乾坤未足以為大。磊磊落落。無罣無礙。六十餘年。和風混俗。四十二臘。逍遙自在。逢人則喜。見佛不拜。笑矣乎笑矣乎。可惜少年郎。風流太光彩。坦然歸去付春風。體似虛空終不壞。尚饗。遂舉箸飫餐。賊徒大笑。食罷復曰。劫數既遭離亂。我是快活烈漢。如今正好乘時。便請一刀兩段。乃大呼斬斬。賊方駭異。稽首謝過。令衛而出。烏鎮之廬舍免焚。實師之惠也。道俗聞之愈敬。有僧睹師見佛不拜歌。逆問曰。既見佛。為甚麼不拜。師掌之曰。會麼。曰不會。師又掌曰。家無二主。紹興庚申冬。造大盆。穴而塞之。修書寄雪竇持禪師曰。吾將水葬矣。壬戌歲。持至。見其尚存。作偈嘲之曰。咄哉老性空。剛要餒魚鼈。去不索性去。祇管向人說。師閱偈笑曰。待兄來證明耳。令徧告四眾。眾集。師為說法要。乃說偈曰。坐脫立亡。不若水堊。一省柴燒。二省開壙。撒手便行。不妨快暢。誰是知音。船子和尚。高風難繼百千年。一曲漁歌少人唱。遂盤坐盆中。順潮而下。眾皆隨至海濱。望欲斷目。師取塞岸水而回。眾擁觀。水無所入。復乘流而往唱曰。船子當年返故鄉。沒蹤跡處妙難量。真風徧寄知音者。鍤笛橫吹作散場。其笛聲嗚咽。頃于蒼茫間。見以笛擲空而沒。眾號慕。圖像事之。後三日。于沙上趺坐如生。道俗爭往迎歸。留五日闍維。設利大如菽者莫計。二鶴徘徊空中。火盡始去。眾奉設利霧骨。建塔于青龍。

青原信法嗣

成都府正法希明禪師

漢州人。解制上堂。林葉紛紛落。乾坤報早秋。分明西祖意。何用更馳求。若恁麼會得。始信佛祖之道本自平夷。大解脫門。元無關鑰。彌綸宇宙。徧塞虛空。量不可窮。智不能測。若也未明此旨。

不達其源。任是百劫熏功。千生煉行。徒自疲苦。了無交涉。若深明此旨。洞達其源。乃知動靜施為。經行坐臥。頭頭合道。念念朝宗。祖不云乎。迷生寂亂。悟無好惡。得失是非。一時放却。如是則誰迷誰悟。誰是誰非。自是諸人獨生異見。觀大觀小。執有執無。已霧獨耀。不肯承當。心月孤圓。自生違背。何異家中捨父。衣內忘珠。致使菩提路上。荊棘成林。解脫空中。迷雲蔽日。山僧今日幸值眾僧自恣。化主還山。諸上善人得得光訪。不可緘默。隨分葛藤。曲為今時。少開方便。也須是諸人著眼各自諦觀。若更擬議尋思。白雲萬里。遂拈拄杖曰。于斯明得。霧山一會儼在目前。其或未然。更待來晨分付。

兜率悅法嗣

丞相張商英居士

字天覺。號無盡。年十九應舉入京。道由向氏家。向預夢神人報曰。明日接相公。凌晨公至。向異之。勞問勤腆。乃曰。秀才未娶。當以女奉灑掃。公謙辭再三。向曰。此行若不了當。吾亦不爽前約。後果及第。乃娶之。初任主簿。因入僧寺。見藏經梵夾金字齊整。乃怫然曰。吾孔聖之書。不如胡人之教。人所仰重。夜坐書院中。研墨吮筆。憑紙長吟。中夜不眠。向氏呼曰。官人夜深。何不睡去。公以前意白之。正此著無佛論。向應聲曰。既是無佛。何論之有。當須著有佛論始得。公疑其言遂已之。後訪一同列。見佛龕前經卷。乃問曰。此何書也。同列曰。維摩詰所說經。公信手開卷閱。到此病非地大亦不離地大處。歎曰。胡人之語。亦能爾耶。問此經幾卷。曰三卷。乃借歸閱次。向氏問。看何書。公曰。維摩詰所說經。向曰。可熟讀此經。然後著無佛論。公悚然異其言。由是深信佛乘。留心祖道。元祐六年。為江西漕。首謁東林照覺總禪師。覺詰其所見處。與已符合。乃印可。覺曰。吾有得法弟子住玉谿。乃慈古鏡也。亦可與語。公復因按部過分寧。諸禪逐之。公到。先致敬玉谿慈。最後問兜率悅禪師。悅為人短小。聞龔德莊嘗言。悅聰明。乃曰。聞公善文章。悅大笑曰。運使失却一隻眼了也。從悅臨濟九世孫。對運使論文章。政如運使對從悅論禪也。公不然其語。乃強屈指曰。是九世也。問玉谿去此多少。曰三十里。曰兜率。曰五里。公乃過兜率。先是說夢手搏日輪。覺與首座曰。日輪運轉之象。聞張運使過此。吾當深錐痛箠。若肯回頭。則吾門幸事。座曰。今之士大夫。受人取奉。慣恐其惡發別生事也。悅曰。正使煩惱。祇退得我院。也別無事。公與悅語次。稱賞東

林。悅未肯其說。公乃題寺後擬瀑軒詩。其略曰。不向廬山尋落處。象王鼻孔謾遼天。意譏其不可東林也。公與悅語至更深。論及宗門事。悅曰。東林既印可運使。運使于佛祖言教。有少疑否。公曰有。悅曰。疑何等語。公曰。疑香巖獨脚頌。德山托鉢話。悅曰。既于此有疑。其餘安得無耶。祇如巖頭言末後句。是有耶是無耶。公曰有。悅大笑。便歸方丈閉却門。公一夜睡不穩。至五更下牀。觸翻溺器。乃大徹猛省前話。遂有頌曰。鼓寂鐘沉托鉢回。巖頭一拶語如雷。果然祇得三年活。莫是遭他授記來。遂扣方丈門曰。某已捉得賊也。悅曰。賊在甚處。公無語。悅曰。都運且去。來日相見。翌日公遂舉前頌。悅乃謂曰。參禪祇為命根不斷。依語生解。如是之說。公已深悟。然至極微細處。使人不覺不知。墮在區宇。乃作頌證之曰。等閑行處。步步皆如。雖居聲色。寧滯有無。一心靡異。萬法非殊。休分體用。莫擇精麤。臨機不礙。應物無拘。是非情盡。凡聖皆除。誰得誰失。何親何疎。拈頭作尾。指實為虛。翻身魔界。轉脚邪塗。了無逆順。不犯工夫。公邀悅至建昌。途中一一伺察。有十頌敘其事。悅亦有十頌酬之。時元祐八年八月也。

法雲杲法嗣

西蜀鑾法師

通大小乘。佛照謝事居景德。師問照曰。禪家言多不根何也。照曰。汝習何經論。曰諸經麤知。頗通百法。照曰。祇如昨日雨今日晴。是甚麼法中收。師懵然。照舉癢和子擊曰。莫道禪家所言不根好。師憤曰。昨日雨今日晴。畢竟是甚麼法中收。照曰。第二十四時分不相應法中收。師恍悟。即禮謝。後歸蜀居講會。以直道示徒。不泥名相。而眾多引去。遂說偈罷講曰。眾賣花兮獨賣松。青青顏色不如紅。算來終不與時合。歸去來兮翠靄中。由是隱居二十年。道俗追慕。復命演法。笑答偈曰。遯跡隱高峰。高峰又不容。不如歸錦里。依舊賣青松。眾列拜悔過。兩川講者爭依之。

泐潭準法嗣

隆興府雲巖典牛天遊禪師

成都鄭氏子。初試郡庠。復往梓州試。二處皆與貢籍。師不敢承。竄名出關。適會山谷道人西還。因見其風骨不凡。議論超卓。乃同

舟而下。竟往廬山。投師剃髮。不改舊名。首參死心不契。遂依湛堂于泐潭。一日潭普說曰。諸人苦苦就準上座覓佛法。遂拊膝曰。會麼。雪上加霜。又拊膝曰。若也不會。豈不見乾峰示眾曰。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二。師聞脫然穎悟。出世雲蓋。次遷雲巖。嘗和忠道者牧牛頌曰。兩角指天。四足踏地。拽斷鼻繩。牧甚屎屁。張無盡見之甚擊節。後退雲巖。過廬山棲賢。主翁意不欲納。乃曰。老老大大。正是質庫中典牛也。師聞之述一偈而去。曰質庫何曾解典牛。祇緣價重實難酬。想君本領無多子。畢竟難禁者一頭。因菴于武寧。扁曰典牛。終身不出。塗毒見之。已九十三矣。上堂。卓拄杖曰。久雨不晴筍。金烏飛在鐘樓角。又卓一下曰。猶在殼。復卓曰。一任衲僧名邈。上堂。馬祖一喚。百丈蹉過。臨濟小廝兒。向糞掃堆頭。拾得一隻破艸鞋。胡喝亂喝。師震聲喝曰。喚作胡喝亂喝得麼。上堂。象骨輓毬能已盡。玄沙斫牌伎亦窮。還知麼。火星入袴口。事出急家門。上堂。三百五百。銅頭鍬額。木笛橫吹。誰家接拍。時有僧出。師曰。也是賊過後張弓。上堂。寶峰有一訣。對眾分明說。昨夜三更前。烏龜吞却鼈。至節上堂。晷運推移。日南長至。布褐不洗。無來換贊。大小玉泉。無風浪起。雲巖路見不平。直下一鎚粉碎。遂高聲曰。看脚下。

大滄瑤法嗣

眉州中巖慧目蘊能禪師

本郡呂氏子。年二十二。于村落一富室為校書。偶遊山寺。見禪冊閱之。似有得。即裂冠圓具。一鉢遊方。首參寶勝澄甫禪師。所趣頗異。至荊湖。謁永安喜。真如喆。德山繪。造詣益高。迨抵大滄。滄問。上座桑梓何處。師曰西川。曰我聞西川有普賢菩薩示現。是否。師曰。今日得瞻慈相。曰白象何在。師曰。爪牙已具。曰還會轉身麼。師提坐具繞禪牀一帀。滄曰。不是者個道理。師趨出。一日滄為眾入室。問僧。黃巢過後。還有人收得劍麼。僧豎起拳。滄曰。菜刀子。僧曰。爭奈受用不盡。滄喝出。次問師。黃巢過後。還有人收得劍麼。師亦豎起拳。滄曰。也祇是菜刀子。師曰。殺得人即休。遂近前攔胸築之。滄曰。三十年弄馬騎。今日被驢子撲。後還蜀。菴子舊址。應四眾之請。出住報恩。上堂。龍濟道。萬法是心光。諸緣唯性曉。本無迷悟人。祇要今日了。師曰。既無迷悟。了個甚麼。咄。上堂。舉雪峰一日普請搬柴。中路見一僧。遂擲下一段柴曰。一大藏教祇說者個。後來真如喆道。一大藏教不說者個。據此二尊宿說話。是同是別。山僧則不然。豎起拂子

曰。提起則如是我聞。放下則信受奉行。室中問崇真氈頭。如何是你空劫已前父母。真領悟曰。和尚且低聲。遂獻投機頌曰。萬年倉裏曾饑饉。大海中住儘長渴。當初尋時尋不見。如今避時避不得。師為印可。一日與黃提刑奕棋次。黃問。數局之中。無一局同。千著萬著則故是。如何是那一著。師提起棋子示之。黃佇思。師曰。不見道。從前十九路。迷殺幾多人。師住持三十餘載。凡說法。不許錄其語。臨終書偈趺坐而化。闍維時暴風忽起。煙所至處。皆雨設利。道俗斷其地皆得之。心舌不壞。塔于本山。

懷安軍雲頂寶覺宗印禪師

上堂。古者道。識得凳子。周币有餘。又道。識得凳子。天地懸殊。山僧總不恁麼。識得凳子。是甚麼閒家具。一日普說罷。師曰。諸子莫要散去。更聽一頌。乃曰。四十九年。一場熱閏。八十七春。老漢獨弄。誰少誰多。一般作夢。歸去來兮。梅梢雪重。言訖下座。倚杖而逝。

昭覺純白法嗣

成都府信相宗顯正覺禪師

潼川王氏子。少為進士有聲。嘗畫掬溪水為戲。至夜思之。遂見水冷然盈室。欲汲之不可。而塵境自空。曰吾世網裂矣。往依昭覺得度。具滿分戒。後隨眾咨參。覺一日問師。高高峰頂立。深深海底行。汝作麼生會。師于言下頓悟曰。釘殺脚跟也。覺拈起拂子曰。者個又作麼生。師一笑而出。服勤七祀。南遊至京師。歷淮浙。晚見五祖演和尚于海會。出問。未知關捩子。誰過趙州橋。趙州橋即不問。如何是關捩子。祖曰。汝且在門外立。師進步一踏而退。祖曰。許多時茶飯。元來也有人知滋味。明日入室。祖曰。你便是昨日問話底僧否。我固知你見處。祇是未過得白雲關在。師珍重便出。時圓悟為侍者。師以白雲關意扣之。悟曰。你但直下會取。師笑曰。我不是不會。祇是未諳。待見者老漢。共伊理會一上。明日祖往舒城。師與悟繼往。適會于興化。祖問師。記得曾在郡裏相見來。師曰。全火祇候。祖顧悟曰。者漢饒舌。自是機緣相契。遊廬阜回。師以高高峰頂立深深海底行所得之語告五祖。祖曰。吾嘗以此事詰先師。先師云。我曾問遠和尚。遠曰。猫有歃血之功。虎有起屍之德。非素達本源。不能到也。師給侍之久。祖鍾愛之。後辭西歸。為小參。復以頌送曰。離鄉四十餘年。一時忘却蜀語。禪人

回到成都。切須記取魯語。時覺尚無恙。師再侍之。名聲藹著。遂出住長松。遷保福信相。僧問。三世諸佛六代祖師。總出者圈續不得。如何是者圈續。師曰。井欄臂。上堂。舉仰山問中邑。如何是佛性義。邑曰。我與你說個譬喻。汝便會也。譬如一室有六牕。內有一獼猴。外有獼猴。從東邊喚猩猩。獼猴即應。如是六牕俱喚俱應。仰乃禮拜。適蒙和尚指示。某有個疑處。邑曰。你有甚麼疑。仰曰。祇如內獼猴睡著時。外獼猴欲與相見。又作麼生。邑下禪牀執仰山手曰。猩猩與你相見了。師曰。諸人要見二老麼。我也與你說個譬喻。中邑大似個金師。仰山將一塊金來。使金師酬價。金師亦盡價相酬。臨成交易。賣金底更與貼秤。金師雖然聞喜。心中未免偷疑。何故。若非細作。定是賊賊。便下座。

儼首座法嗣

潼川天寧則禪師

早業儒。詞章婉縟。既從釋。得法于儼首座。而為黃檗勝之孫。有牧牛頌。寄以滿庭芳調曰。咄者牛兒。身強力健。幾人能解牽騎。為貪原上綠艸嫩離離。只管尋芳逐翠奔馳。後不顧傾危。爭知道山遙水遠。回首到家遲。牧童今有智。長繩牢把。短杖高提。入泥入水。終是不生疲。直待心調步穩。青松下孤笛橫吹當歸去。人牛不見。正是月明時。世以禪語為詞。意句圓美。無出此右。或譏其徒以不正之聲。混傷宗教。然有樂于謳吟。則因而見道。亦不失為善巧方便隨機設化之一端耳。

浮山真法嗣

峩眉靈巖徽禪師

僧問。文殊是七佛之師。未審誰是文殊之師。師曰。金沙灘頭馬郎婦。

信相顯法嗣

成都府金純文禪師

僧問。如何是大道之源。師曰。黃河九曲。曰如何是不犯之令。師曰。銕蛇鑽不入。僧擬議。師便打。

五祖演法嗣

成都府昭覺寺克勤佛果禪師

彭州駱氏子。世宗儒。師兒時。日記千言。偶遊妙寂寺。見佛書三復。悵然如獲舊物。即去家。依自省祝髮。從文照通講訓。又從敏行授楞嚴。俄得病瀕死。嘆曰。諸佛涅槃正路。不在文句中。吾欲以聲求色見。宜其無以死也。遂棄去。至真覺勝禪師之席。勝方創臂出血指示師曰。此曹溪一滴也。師矍然良久曰。道固如是乎。即徙步出蜀。首謁玉泉皓。次依金鑾信。大瀉喆。黃龍心。東林度。僉指為法器。而晦堂稱。他日臨濟一脈屬子矣。最後見五祖。盡其機用。祖皆不諾。乃謂祖強移換人。出不遜語。忿然而去。祖曰。待你著一頓熱病打時。方思量我在。師到金山。染傷寒困極。以平日見處試之。無得力者。追繹五祖之言。乃自誓曰。我病稍間。即歸五祖。病痊尋歸。祖一見而喜。令即參堂。便入侍者寮。方半月。會部使解印還蜀。詣祖問道。祖曰。提刑少年曾讀小艷詩否。有兩句頗相近。頻呼小玉元無事。祇要檀那認得聲。提刑應喏喏。祖曰。且子細。師適歸侍立次。問曰。聞和尚舉小艷詩。提刑會否。祖曰。他祇認得聲。師曰。祇要檀郎認得聲。他既認得聲。為甚麼却不是。祖曰。如何是祖師西來意。庭前柏樹子。師忽有省。遽出見雞飛上闌干鼓翅而鳴。復自謂曰。此豈不是聲。遂袖香入室通所得。呈偈曰。金鴨香銷錦繡幃。笙歌叢裏醉扶歸。少年一段風流事。祇許佳人獨自知。祖曰。佛祖大事。非小根劣器所能造詣。吾助汝喜。祖徧謂山中耆舊曰。我侍者參得禪也。由此所至推為上首。崇寧中。還里省親。四眾趺拜。成都帥翰林郭公之章。請開法六祖。更昭覺。政和間。謝事復出峽南遊。時張無盡寓荊南。以道學自居。少見推許。師艤舟謁之。劇談華嚴旨要曰。華嚴現量境界。理事全真。初無假法。所以即一而萬。了萬為一。一復一。萬復萬。浩然莫窮。心佛眾生三無差別。卷舒自在。無礙圓融。此雖極則。終是無風雨之波。公于是不覺促榻。師遂問曰。到此與祖師西來意。為同為別。公曰同矣。師曰。且得沒交涉。公色為之慍。師曰。不見雲門道。山河大地無絲毫過患。猶是轉句。直得不見一色。始是半提。更須知有向上全提時節。彼德山臨濟。豈非全提乎。公乃首肯。翌日復舉事法界理法界。至理事無礙法界。師又問。此可說禪乎。公曰。正好說禪也。師笑曰不然。正是法界量裏在。蓋法界量未滅。若到事事無礙法界。法界量滅。始好說禪。如何是佛。乾屎橛。如何是佛。麻三斤。是故真淨偈曰。事事無礙。如意自在。手把豬頭。口誦淨戒。趁出姪坊。未還酒債。十字街

頭。解開布袋。公曰。美哉之論。豈易得聞乎。于是以師禮。留居碧巖。復徙道林。樞密鄧公子常。奏賜紫服師號。詔住金陵蔣山。學者無地以容。勅補天寧萬壽。上召見褒寵甚渥。建炎初。又遷金山。適駕幸維揚。入對。賜圓悟禪師。改雲居。久之復領昭覺。僧問。雲門道須彌山。意旨如何。師曰。推不向前。約不退後。曰未審還有過也無。師曰。坐却舌頭。問法不孤起。仗境方生。提坐具曰。者個是境。那個是法。師曰。却被闍黎奪却鎗。問古人道。柳栗橫擔不顧人。直入千峰萬峰去。未審那裏是他住處。師曰。騰蛇纏足。路布繞身。曰朝看雲片片。暮聽水潺潺。師曰。却須截斷始得。曰此回不是夢。真個到廬山。師曰。高著眼。問猿抱子歸青嶂後。鳥啼花落碧巖前。此是和尚舊時安身立命處。如何是道林境。師曰。寺門高開洞庭野。殿脚插入赤沙湖。曰如何是境中人。師曰。僧寶人人滄海珠。曰此是杜工部底。作麼生是和尚底。師曰。且莫亂道。問有句無句如藤倚樹。如何得透脫。師曰。倚天長劍逼人寒。曰祇如樹倒藤枯。為山為甚麼呵呵大笑。師曰。愛他底著他底。曰忽被學人掀倒禪牀拗折拄杖。又作個甚麼伎倆。師曰。也是賊過後張弓。問明歷歷露堂堂。因甚麼乾坤收不得。師曰。金剛手裏八稜棒。曰忽然一喚便回。還當得活也無。師曰。鶯子目連無奈何。曰不落照不落用。如何商量。師曰。放下雲頭。曰忽遇其中人時如何。師曰。騎佛殿出山門。曰萬象不來渠獨語。教誰招手上高峰。師曰。錯下名言。上堂。通身是眼見不及。通身是耳聞不徹。通身是口說不著。通身是心鑒不出。直饒盡大地明得。無絲毫透漏。猶在半途。據令全提。且道如何展演。域中日月縱橫挂。一亘晴空萬古春。紹興五年八月示微恙。趺坐書偈遺眾。投筆而逝。茶毗舌齒不壞。設利五色無數。塔于昭覺寺之側。諡真覺禪師。

舒州龍門清遠佛眼禪師

臨邛李氏子。嚴正寡言。十四圓具。後因讀法華經。至是法非思量分別之所能解。持以問講師。講師莫能答。師歎曰。義學名相。非所以了生死大事。遂卷衣南遊。造舒州太平演禪師法席。因丐于廬州。偶仆地煩懣間。聞二人交相惡罵。諫者曰。你猶是煩惱在。師于言下有省。及歸。凡有所問。演即曰。我不如你。你自會得好。或曰。我不會。我不如你。師愈疑。遂咨決于元禮首座。禮乃以手引師之耳。繞爐數匝。且行且語曰。你自會得好。師曰。有冀開發。乃爾相戲耶。禮曰。你他後悟去。方知今日曲折耳。太平將遷海會。師慨然曰。我持鉢方歸。復參隨往一荒院。安能究決己事耶。遂作偈告辭。之蔣山坐夏。邂逅霧源禪師。日益厚善。從容言

話間。師曰。比見都下一尊宿。語句似有緣。霧源曰。演公天下第一等宗師。何故捨而事遠遊。所謂有緣者。蓋知解之師。與公初心相應耳。師從所勉。徑趨海會。後命典謁。適寒夜孤坐。撥爐見火一豆許。恍然自喜曰。深深撥有些子。平生事只如此。遽起閱几上傳燈錄。至破竈墮因緣。忽大悟。作偈曰。刀刀林鳥啼。披衣終夜坐。撥火悟平生。窮神歸破墮。事咬人自迷。曲淡誰能和。念之永不忘。門開少人過。圓悟因詣其寮。舉青林搬土話驗之。且謂古今無人出得。你如何會。師曰。有甚難。悟曰。祇如他道。鍊輪天子寰中旨。意作麼生。師曰。我道帝釋宮中放赦書。悟退語人曰。且喜遠兄便有活人句也。自是隱居四面大中菴。屬天下一新崇寧萬壽寺。舒守王公渙之。命師開法。次補龍門。道望尤振。後遷和之褒禪。樞密鄧公洵武。奏賜師號紫衣。上堂。臺山路上過客全稀。破竈堂前感恩無地。雪埋庭柏。冰鎖偃溪。雖在南方火爐頭。不入他家齏麤裏。看看。臘月三十日。便是孟春猶寒。你等諸人各須努力向前。切忌自生退屈。

錦江禪燈卷第五

昭覺丈雪 通醉 輯

紹興幻菴 胡昇猷 訂

大鑒下第十五世
五祖演法嗣

彭州大隨南堂元靜禪師

閬之玉山大儒趙公約仲之子。十歲病甚。每禱之感異夢。捨令出家。師於成都大慈寶生院宗裔。元祐三年。通經得度。留講聚有年。而南下。首參永安恩禪師。于臨濟三頓棒話發明。次依諸名宿。無有當意者。聞五祖機峻欲抑之。遂謁祖。祖乃曰。我此間不比諸方。凡于室中。不要汝進前退後。豎指擎拳。繞禪牀。作女人拜。提起坐具。千般伎倆。祇要你一言諦當。便是汝見處。師茫然。退參三載。一日入室罷。祖謂曰。子所下語。已得十分。試更與我說看。師即剖而陳之。祖曰。說亦說得十分。更與我斷看。師隨所問而判之。祖曰。好即好。祇是未曾得老僧說話在。齋後可來祖師塔所。與汝一一按過始得。及至。祖便以即心即佛。非心非佛。睦州擔板漢。南泉斬猫兒。趙州狗子無佛性有佛性之語。編辟之。其所對了無凝滯。至子。胡狗話。祖遽轉面曰不是。師曰。不是却如何。祖曰。此不是。則和前面皆不是。師曰。望和尚慈悲指示。祖曰。看他道。子胡有一狗。上取人頭。中取人腰。下取人脚。入門者好看。纔見僧入門。便道看狗。向子胡道看狗處。下一轉語。教子胡結舌。老僧鈴口。便是你了當處。次日入室。師默啟其說。祖笑曰。不道你不是千了百當底人。此語祇似先師下底語。師曰。某何人得似端和尚。祖曰。不然。老僧雖承嗣他。謂他語拙。蓋祇用遠錄公手段接人故也。如老僧共遠錄公。便與百丈黃檗南泉趙州輩。把手共行。纔見語拙。即不堪。師以為不然。乃曳杖渡江。適大水泛漲。因留四祖。儕輩挽其歸。又二年。祖方許可。嘗商略古今次。執師手曰。得汝說須是我舉。得汝舉須是我說。而今而後。佛祖秘要。諸方關鍵。無逃子掌握矣。遂創南堂以居之。于是名冠寰海。成都帥席公旦。請開法嘉祐。未幾徙昭覺。遷能仁。及大隨。上堂。君王了了。將帥惺惺。一回得勝。六國平寧。上堂。舉臨濟參黃檗之語。白雲端和尚頌云。一拳拳倒黃鶴樓。一趯趯翻鸚鵡洲。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也風流。師曰。大隨即

不然。行年七十老躑躅。眼目精明耳不聾。忽地有人欺負我。一拳打倒過關東。上堂。問答已乃曰。有祖已來。時人錯會。祇將言句以為禪道。殊不知。道本無體。因體而得名。道本無名。因名而立號。祇如適來上座。纔恁麼出來。便恁麼歸眾。且道具眼不具眼。若道具眼。纔恁麼出來。眼在恁麼處。若道不具眼。爭合便恁麼去。諸仁者。于此見得個儻分明。則知二祖禮拜依位而立。真得其髓。祇者些子。是三世諸佛命根。六代祖師命脈。天下老和尚安身立命處。雖然如是。須是親到始得。

漢洲無為宗泰禪師

涪城人。自出關。徧遊叢社。至五祖。告香曰。祖舉趙州洗鉢盂話俾參。泊入室。舉此話問師。你道趙州向伊道甚麼。者僧便悟去。師曰。洗鉢盂去。祖曰。你祇知路上事。不知路上滋味。師曰。既知路上事。路上有甚滋味。祖曰。你不知耶。又問。你曾遊浙否。師曰未也。祖曰。你未悟在。師自此凡五年不能對。祖一日陞堂顧眾曰。八十翁翁輓繡毬。便下座。師欣然出眾曰。和尚試輓一輓看。祖以手作打仗鼓勢。操蜀音唱縣州巴歌曰。豆子山打瓦鼓。楊平山撒百雨。白雨下取龍女。織得絹二丈五。一半屬羅江。一半屬玄武。師聞大悟。掩祖口曰。祇消唱到者裏。祖大笑而歸。師後還蜀。四眾請開法無為。遷正法。上堂。此一大事因緣。自從世尊拈花迦葉微笑。世尊曰。吾有正法眼藏。分付摩訶大迦葉。以後燈燈相續。祖祖相傳。迄至于今。縣縣不墜。直得徧地生花。故號涅槃妙心。亦曰本心。亦曰本性。亦曰本來面目。亦曰第一義諦。亦曰爍迦羅眼。亦曰摩訶大般若。在男曰男。在女曰女。汝等諸仁。但自悟去。者般盡是閑言語。遂拈起拂子曰。會了喚作禪。未悟果然難難難。目前隔個須彌山。悟了易易易。信口道來無不是。僧問。如何是佛。師曰。阿誰教你恁麼問。僧擬議。師曰了。

蘄州五祖表自禪師

懷安人。初依祖最久。未有省。時圓悟為座元。師往請益。悟曰。兄有疑處試語我。師遂舉德山小參不答話。問話者三十棒。悟曰。禮拜著。我作得你師。舉話尚不會。師作禮竟。悟令再舉前話。師曰。德山小參不答話。悟掩其口曰。但恁麼看。師出揚聲曰。屈屈。豈有公案祇教人看一句底道理。有僧謂師曰。兄不可如此說。首座須有方便。因靜坐體究及旬。頓釋所疑。詣悟禮謝。悟曰。兄始知吾不汝欺。又詣方丈。祖迎笑。自爾日深玄奧。祖將歸寂。遺

言郡守。守命嗣其席。衲子四至不可遏。師榜侍者門曰。東山有三句。若人道得即挂搭。衲子皆披靡。一日有僧。攜坐具徑造丈室。謂師曰。某甲道不得。祇要挂搭。師大喜。呼維那。于明牕下安排。上堂。世尊拈花。迦葉微笑。時人祇知拈花微笑。要且不識世尊。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荊棘林中舞柘枝。曰如何是佛。師曰。新生孩子擲金盆。

蘄州龍華道初禪師

梓州馬氏子。為祖侍者有年。住龍華曰。上堂曰。雞見便鬪。犬見便咬。殿上鴟吻終日相對。為甚麼却不瞋。便下座。師機辯峻捷。門人罔知造詣。一日謂眾曰。昨日離城市。白雲空往還。松風清耳目。端的勝人間。召眾曰。此是先師末後句。有頃脫然而逝。

嘉州九頂清素禪師

本郡郭氏子。于乾明寺剃染。徧扣禪局。晚謁五祖。聞舉首山答西來意語。倏然契悟。述偈曰。顛倒顛顛倒顛。新婦騎驢阿家牽。便恁麼太無端。回頭不覺布衫穿。祖見乃問。百丈野狐話又作麼生。師曰。來說是非者。便是是非人。祖大悅。久之辭歸住清溪。次遷九頂。太守呂公。來瞻大像。問曰。既是大像。因甚麼肩負兩楹。師曰。船上無散工。至閣下睹觀音像。又問。彌勒化境。觀音何來。師曰。家富小兒嬌。守乃禮敬。勤老宿至。師問。舞劍當咽時如何。曰伏惟尚饗。師詬曰。老賊死去。你問我。勤理前話問之。師叉手揖曰。曳破。紹興乙卯四月二十四日。得微疾。書偈遺眾曰。木人備舟。鍤人備馬。丙丁童子穩穩登。喝散白雲歸去也。竟爾趨寂。

大鑒下第十六世

昭覺勤法嗣

潭州大溈佛性法泰禪師

漢州李氏子。僧問。理隨事變。該萬有而一片虛凝。事逐理融。等千差而咸歸實際。如何是理法界。師曰。山河大地。曰如何是事法界。師曰。萬象森羅。曰如何是理事無礙法界。師曰。東西南北。曰如何是事事無礙法界。師曰。上下四維。上堂。推真真無有相。

窮妄妄無有形。真妄兩無所有。廓然露出眼睛。眼睛既露。見個甚麼。曉日爍開巖畔雪。朔風吹綻臘梅花。上堂。寶劍拈來使用。豈有遲疑。眉毛剔起便行。更無回互。一切處騰今煥古。一切處截斷羅籠。不犯鋒鋦。亦非顧鑒。獨超物外則且置。萬機喪盡時如何。八月秋何處熱。上堂。涅槃無異路。方便有多門。拈起拄杖曰。看看。山僧拄杖子。一口吸盡西江水。東海鯉魚[跳-兆+孛]跳上三十三天。帝釋忿怒。把須彌山一搥粉碎。堅牢地神合掌贊歎曰。諦觀法王法。法王法如是。以拄杖擊禪牀下座。上堂。達得人空法空。未稱祖佛家風。體得全用全照。亦非衲僧要妙。直須打破牢關。識取向上一竅。如何是向上一竅。春寒料峭。凍殺年少。上堂。今朝正月已半。是處燈火繚亂。滿城羅綺駢闐。交互往來遊翫。文殊走入鬧籃中。普賢端坐高樓看。且道觀音在甚麼處。震天椎畫鼓。聒地奏笙歌。上堂。渺渺邈邈。十方該括。坦坦蕩蕩。絕形絕相。目欲眛而睛枯。口欲談而詞喪。文殊普賢全無伎倆。臨濟德山不妨提唱。龜吞陝府鍬牛。蛇咬嘉州大像。嚇得東海鯉魚。直至如今肚脹噉。

臨安府霽隱慧遠佛海禪師

眉山彭氏子。年十三。從藥師院宗辯為僧。詣大慈聽習。棄依靈巖徽禪師。微有省。會圓悟復領昭覺。師即之。聞悟普說。舉龐居士問馬祖。不與萬法為侶因緣。師忽頓悟。仆于眾。眾掖之。師乃曰。吾夢覺矣。至夜小參。師出問曰。淨裸裸空無一物。赤骨力貧無一錢。戶破家亡。乞師賑濟。悟曰。七珍八寶一時拏。師曰。禍不入慎家之門。悟曰。機不離位。墮在毒海。師隨聲便喝。悟以拄杖擊禪牀云。喫得杖也未。師又喝。悟連喝兩喝。師便禮拜。自此機鋒峻發。無所抵牾。圓悟順寂。師即東下。屢遷名剎。由虎丘奉詔住臯亭。先復被旨補靈隱。孝廟召對。賜佛海禪師。上堂。新歲有來由。烹茶上酒樓。一雙為兩脚。半個有三頭。突出禪難辨。相逢鬼見愁。倒吹無孔笛。促拍舞涼州。咄。

成都府正法建禪師

上堂。兔馬有角。牛羊無角。絕毫絕釐。如山如嶽。針鋒上師子翻身。藕竅中大鵬展翼。等閑突過北俱盧。日月星辰一時黑。

建安府華藏密印安民禪師

嘉定府朱氏子。初講楞嚴于成都。為義學所歸。時圓悟居昭覺。師與勝禪師為友。因造焉。聞悟小參。舉國師三喚侍者因緣。趙州拈云。如人暗中書字。字雖不成。文彩已彰。那裏是文彩已彰處。師心疑之。告香入室。悟問。座主講何經。師曰楞嚴。悟曰。楞嚴有七處徵心。八還辯見。畢竟心在甚麼處。師多呈藝解。悟皆不肯。師復請益。悟令一切處作文彩已彰會。偶僧請益十玄談。方舉問君心印作何顏。悟厲聲曰。文彩已彰。師聞而有省。遂求印證。悟示以本色鉗鎚。師則罔措。一日白悟曰。和尚休舉話。待某說看。悟諾。師曰。尋常拈槌豎拂。豈不是經中道一切世界諸所有相。皆即菩提妙明真心。悟笑曰。你元來在者裏作活計。師又曰。下喝敲牀時。豈不是返聞聞自性。性成無上道。悟曰。你豈不見經中道。妙性圓明離諸名相。師于言下釋然。悟出蜀居夾山。師罷講侍行。悟為眾夜參。舉古帆未挂因緣。師聞未領。遂求決。悟曰。你問我。師舉前話。悟曰。庭前柏樹子。師即洞明。謂悟曰。古人道。如一滴投于巨壑。殊不知大海投于一滴。悟笑曰。奈者漢何。未幾令分座。

成都府昭覺徹菴道元禪師

緜州鄧氏子幼于。降寂寺圓具。東遊謁大別道禪師。因看廓然無聖之語。忽爾失笑曰。達磨元來在者裏。道譽之。往參佛鑑佛眼。蒙賞職。依圓悟于金山。以所見告。悟弗之許。悟被詔住雲居。師從之。雖有信入。終以鯁胸之物未去為疑。會悟問參徒。生死到來時如何。僧曰。香臺子笑和尚。次問師。汝作麼生。師曰。艸賊大敗。悟曰。有人問你時如何。師擬答。悟憑陵曰。艸賊大敗。師即徹證。圓悟以拳擊之。師拊掌大笑。悟曰。汝見甚麼便如此。師曰。毒拳未報。永劫不忘。悟歸昭覺。命首眾。悟將順世。以師繼席焉。

眉州象耳山袁覺禪師

郡之袁氏子。出家傳燈。試經得度。本名圓覺。郡守填祠牒。誤作袁字。疑師慊然。戲謂之曰。一字名可乎。師笑曰。一字已多。郡守異之。既受具。出蜀徧謁有道尊宿。後往大瀋。依佛性。頃之入室。陳所見。性曰。汝忒殺遠在。然知其為法器。俾充侍者。掌賓客。師每侍性。性必舉法華開示悟入四字令下語。又曰。直待我豎點頭時。汝方是也。偶不職被斥。制中無依。寓俗士家。一日誦法華。至亦復不知何者是火何者為舍。乃豁然。制罷歸省。性見首肯

之。圓悟再得旨住雲居。師至彼。以所得白悟。悟呵云。本是淨地。屙屎作麼。師所疑頓釋。紹興丁巳。眉之象耳盧席。郡守謂。此道場久為蝨螻囊橐。非名流勝士。莫能起廢。諸禪舉師應聘。嘗語客曰。東坡云。我持此石歸。袖中有東海。山谷云。惠宗煙雨蘆雁。坐我瀟湘洞庭。欲喚扁舟歸去。傍人謂是丹青。此禪髓也。又曰。我敲牀豎拂時。釋迦老子孔夫子。都齊立在下風。有舉此語。似佛海遠禪師。遠曰。此覺老語也。我此間即不恁麼。

眉州中巖華嚴祖覺禪師

嘉州楊氏子。幼聰慧。書史過目成誦。著書排釋氏。惡境忽現。悔過出家。依慧日能禪師。未幾疽發膝上。五年醫莫愈。因書華嚴合論。畢夜感異夢。旦即捨杖步趨。一日誦至現相品曰。佛身無有生。而能示出生。法性如虛空。諸佛于中住。無住亦無去。處處皆是佛。遂悟華嚴宗旨。泊登僧籍。府師請講于千部堂。詞辯宏放。眾所歎服。適南堂靜禪師過門。謂師曰。觀公講說。獨步西南。惜未解離文字相耳。儻問道方外。即今之周金剛也。師欣然罷講。南遊。依圓悟于鍾阜。一日入室。悟舉羅山道。有言時踞虎頭收虎尾。第一句下明宗旨。無言時覲露機鋒。如同電拂。作麼生會。師莫能對。夙夜參究。忽然有省。作偈呈悟曰。家住孤峯頂。長年半掩門。自嗟身已老。活計付兒孫。悟見許可。次日入室。悟又問。昨日公案作麼生。麼擬對。悟便喝曰。佛法不是者個道理。師復留五年。愈更迷悶。後于廬山棲賢。閱浮山遠禪師削執論云。若道悟有親疎。豈有旃檀林中却生臭艸。豁然契悟。作偈寄圓悟曰。出林依舊入蓬蒿。天網恢恢不可逃。誰信業緣無避處。歸來不怕語聲高。悟大喜。持以示眾曰。覺華嚴徹矣。住後僧問。最初威音王。末後樓至佛。未審參見甚麼人。師曰。家住大梁城。更問長安路。曰只如德山擔疏鈔行脚。意在甚麼處。師曰。拶破你眼睛。曰與和尚悟華嚴宗旨。相去幾何。師曰。同途不同轍。曰昔日德山。今朝和尚。師曰。夕陽西去水東流。

潭州福嚴文演禪師

成都府楊氏子。僧問。如何是定林正主。師曰。坐斷天下人舌頭。曰未審如何親近。師曰。覷著則瞎。上堂。當陽坐斷。凡聖跡絕。隨手放開。天回地轉。直得日月交互。虎嘯龍吟。頭頭物物。耳聞目眎。安立諦上是甚麼。還委悉麼。阿斯吒。咄。

成都府昭覺道祖首座

初見圓悟。于即心是佛語下發明。久之悟命分座。一日為眾入室。餘二十許人。師忽問曰。生死到來如何迴避。僧無對。師擲下拂子。奄然而逝。眾皆愕眙。亟以聞悟。悟至召曰祖首座。師張目眎之。悟曰。抖擻精神透關去。師點頭竟爾趨寂。

張魏公浚

字德遠。南軒之父。官右僕射。兼知樞密院事。嘗問道于圓悟。悟曰。巖頭云。却物為上。逐物為下。若能于物上轉得疾。一切立在下風。復示偈曰。收光攝彩信天真。事事圓成物物新。內若有心還有物。何能移步出通津。浚伏膺投偈曰。教外單傳佛祖機。本來無悟亦無迷。浮雲散盡青天在。日出東方夜落西。

成都府范縣君

嫠居歲久。常坐不臥。聞圓悟住昭覺。往禮拜。請示入道因緣。悟令看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個甚麼。久無所契。范泣告悟。曰和尚有何方便。令某易會。悟曰。却有個方便。遂令祇看是個甚麼。後有省。曰元來恁麼地近那。

太平懃法嗣

常德府文殊心道禪師

眉州徐氏子。年三十得度。詣成都習唯識。自以為至。同舍詰之曰。三界唯心。萬法唯識。今目前萬象樅然。心識安在。師茫然不知對。遂出關。周流江淮。既抵舒之太平。聞佛鑑禪師夜參。舉趙州柏樹子話。至覺鋏背云先師無此語莫謗先師好。因大疑。提撕既久。一夕豁然。即趨丈室擬敘所悟。鑑見來便閉門。師曰。和尚莫謾某甲。鑑云。十方無壁落。何不入門來。師以拳擲破牕紙。鑑即開門搗住云。道道。師以兩手捧鑑頭作口啐而出。遂呈偈曰。趙州有個柏樹話。禪客相傳徧天下。多是摘葉與尋枝。不能直向根源會。覺公說道無此語。正是惡言當面罵禪人若具通方眼。好向此中辨真假。鑑深然之。每對客稱賞。後命分座。襄守請開法天寧。未幾擢大別文殊。上堂曰。師子嘯呻。象王哮吼。雲門北斗裏藏身。白雲因何喚作手。三世諸佛不能知。狸奴白牯却知有。且道作麼生

是他知有底事。雨打梨花蛺蝶飛。風吹柳絮毛毬走。上堂。拈拄杖直上指曰。恁麼時刺破僑尸迦脚跟。卓一下曰。恁麼時卓破閻羅王頂骨。乃指東畔曰。恁麼時穿過東海鯉魚眼睛。指西畔曰。恁麼時塞却西王母鼻孔。且道總不恁麼時如何。今年雨水多。合宜頻晒眼。宣和改元。下詔改僧為德士。上堂。祖意西來事。今朝特地新。昔為比丘相。今作老君形。鶴氅披銀褐。頭包蕉葉巾。林泉無事客。兩度受君恩。所以道。欲識佛性義。當觀時節因緣。且道。即今是甚麼時節。毗盧遮那頂戴寶冠。為顯真中有俗。文殊老叟身披鶴氅。且要俯順時宜。一人既爾。眾人亦然。大家成立叢林。喜得羣仙聚會。共酌迷仙酎。同唱步虛詞。或看靈寶度人經。或說長生不死藥。琴彈月下。指端發大古之音。棋布軒前。妙著出神機之外。進一步。便到大羅天上。退一步。却入九幽城中。祇如不進不退一句。又作麼生道。直饒羽化三清路。終是輪迴一幻身。二年九月復僧。上堂。不挂田衣著羽衣。老君形相頗相宜。一年半內閑思想。大底興衰各有時。我佛如來預識法之有難。教中明載無不委知。較量年代。正在于茲。魔得其便。惑亂正宗。僧改俗形。佛更名字。妄生邪解。刪削經文。鑄鉞停音。鉢盂添足。多般矯詐。欺罔聖君。賴我皇帝陛下。聖德聖明。不忘付囑。不廢其教。特賜宸章頒行天下。仍許僧尼重新披削。實謂寒灰再焰。枯木重榮。不離俗形而作僧形。不出魔界而入佛界。重鳴法鼓。再整頽綱。迷仙酎變為甘露瓊漿。步虛詞翻作還鄉曲子。放下銀木簡。拈起尼師壇。昨朝稽首擎拳。今日和南不審。祇改舊時相。不改舊時人。敢問大眾。舊時人是一個是兩個。良久曰。秋風也解嫌狼籍。吹盡當年道教灰。建炎三年春示眾。舉臨濟入滅囑三聖因緣。師曰。正法眼藏瞎驢滅。臨濟何曾有是說。今古時人皆妄傳。不信但看後三月。至閏三月。賊鍾相叛。其徒欲舉師南奔。師曰。學道所以了生死。何避之有。賊至。師曰。速見殺以快汝心。賊即舉槊殘之。血皆白乳。賊駭引席覆之而去。

韶州南華知覺禪師

蜀之永康人。上堂。此事最希奇。不礙當頭說。東鄰田舍翁。隨例得一橛。非唯貫聲色。亦乃應時節。若問是何宗。八字不著[必-心]。擊禪牀下座。上堂。日日說時時舉。似地擎山爭幾許。隴西鸚鵡得人憐。大都祇為能言語。休思惟。帶伴侶。智者聊聞猛提取。更有一般也大奇。貓兒偏解捉老鼠。上堂。以拄杖向空中攪曰。攪長河為酥酪。蟹蝦猶白眼搭眇。卓一下曰。變大地作黃金。窮漢依前赤骨立。為復自家無分。為復不肯承當。可中有個漢。荷

負得行。多少人失錢遭罪。再卓一下曰。還會麼。寶山到也須開眼。勿使忙忙空手回。

龍門遠法嗣

溫州龍翔竹菴士珪禪師

成都史氏子。初依大慈宗雅。心醉楞嚴。逾五秋。南遊謁諸尊宿。始登龍門。即以平時所得白佛眼。眼曰。汝解心已極。但歉著力開眼耳。遂俾職堂司。一日侍立次。問云。絕對待時如何。眼曰。如汝僧堂中白椎相似。師罔措。眼至晚抵堂。師理前話。眼曰。閑言語。師于言下大悟。政和末。出世和之天寧。屢遷名剎。詔興間。奉詔開山雁蕩能仁。時真歇居江心。聞師至。恐緣法未熟。特過江迎歸方丈。大展九拜。以誘溫人。由是翕然歸敬。未視篆。其徒懼行規法。深夜放火。鞠為瓦礫之墟。師竟就樹縛屋。陞座示眾云。愛閑不打鼓山鼓。投老來看雁蕩山。傑閣危樓渾不見。溪邊茅屋兩三間。還有共相出手者麼。喝一喝下座。聽法檀施。併力營建。未幾復成寶坊。次補江心。上堂曰。萬年一念。一念萬年。和衣泥裏輓。洗脚上牀眠。歷劫來事祇在如今。大海波濤湧。小人方寸深。拈起拄杖曰。汝等諸人。未得個人頭。須得個人頭。既得個人頭。須有出身一路始得。大眾。且作麼生是出身一路。良久曰。雪壓難摧澗底松。風吹不動天邊月。卓拄杖下座。上堂。萬機不到。眼見色耳聞聲。一句堂堂。頭戴天脚踏地。你諸人祇知今日是五月初一。殊不知金烏半夜忙忙去。玉兔天明上海東。以拂子擊禪牀下座。上堂。明明無悟。有法即迷。諸人向者裏立不得。諸人向者裏住不得。若立則危。若住則瞎。直須意不停玄。句不停意。用不停機。此三者既明。一切處不須管帶。自然現前。不須照顧。自然明白。雖然如是。更須知有向上事。久雨不晴。咄。

南康軍雲居高菴善悟禪師

洋州李氏子。年十一去家。業經得度。有夙慧。聞冲禪師舉武帝問達磨因緣。如獲舊物。遽曰。我既廓然。何聖之有。冲異其語。勉之南詢。蒙授記于龍門。一日有僧。被蛇傷足。佛眼問曰。既是龍門。為甚麼却破蛇咬。師即應曰。果然現大人相。眼益器之。後傳此語到昭覺。圓悟云。龍門有此僧耶。東山法道未寂寥爾。住後上堂。少林面壁。懷藏東土西天。歐阜陞堂。充塞四維上下。致使山巍巍而砥掌平。水昏昏而常自清。花非艷而結空果。風不搖而片葉

零。人無法而得咨問。佛無心而更可成。野蔬淡飯延時日。任運隨緣道自靈。畢竟如何。日午打三更。

遂寧府西禪文璉禪師

郡之張氏子。上堂。一向恁麼去。直得凡聖路絕。水泄不通。鍊蛇鑽不入。鍊鎚打不破。至于千里萬里鳥飛不度。一向恁麼來。未免灰頭土面。帶水拖泥。唱九作十。指鹿為馬。非唯辜負先聖。亦仍理沒己靈。敢問大眾。且道恁麼去底是。恁麼來底是。芍藥花開菩薩面。櫻櫚葉散夜叉頭。上堂。諸方浩浩談玄。每日撞鐘打鼓。西禪無法可說。勘破燈籠露柱。門前不置下馬臺。免被傍人來借路。若借路須照顧脚下。若參差。邯鄲學唐步。上堂。心生種種法生。森羅萬象縱橫。信手拈來使用。日輪午後三更。心滅種種法滅。四句百非路絕。直饒達磨出頭。也是眼中著屑。心生心滅是誰。木人攜手同歸。歸到故鄉田地。猶遭頂上一鎚。上堂。正月孟春猶寒。直下言端語端。拈起衲僧鼻孔。穿開佛祖心肝。知有者。達磨不來東土。二祖不往西天。不知有者。誰知當面蹉過。迢迢十萬八千。山僧為你重說偈言。大眾莫教辜負。孟春猶寒。僧問。師子未出窟時如何。師曰。爪牙已露。曰出窟後如何。師曰。龍頭蛇尾。曰出與未出時如何。師曰。正好喫棒。問以一重去一重即不問。不以一重去一重時如何。師曰。闍黎有許多工夫。

撫州白楊法順禪師

絳州文氏子。依止佛眼。聞普說舉傳大士心王銘云。水中鹽味。色裏膠青。決定是有。不見其形。師于言下有省。後觀寶藏迅轉。頓明大法。趨丈室作禮呈偈曰。頂有異峰雲冉冉。源無別派水泠泠。遊山未到山窮處。終被青山礙眼睛。住後上堂。好事堆堆疊疊來。不須造作與安排。落林黃葉水推去。橫谷白雲風卷回。寒雁一聲情念斷。霜鐘纔動我山摧。白楊更有過人處。盡夜寒爐撥死灰。忽有個衲僧出來道。長老少賣弄。得恁麼窮乞相。山僧祇向他道。却被你道著。上堂。我手何似佛手。天上南星北斗。我脚何似驢脚。往事都來忘却。人人盡有生緣。個個足方頂圓。大愚灘頭立處。孤月影射深灣。會不得見還難。一曲漁歌過遠灘。示眾。染緣易就。道業難成。不了目前。萬緣差別。祇見境風浩浩。凋殘功德之林。心火炎炎。燒盡菩提之種。道念若同情念。成佛多時。為眾如為己身。彼此事辦。不見他非我是。自然上敬下恭。佛法時時現前。煩惱塵塵解脫。上堂。雞啼曉月。狗吠枯椿。只可默會。難入思量。

看不見處動地放光。說不到處天地玄黃。撫城尺六狀紙。元來出在
清江。大眾。分明話出人難見。昨夜三更月到牕。
錦江禪燈卷第六

昭覺丈雪 通醉 輯

紹興幻菴 胡昇猷 訂

大鑒下第十六世
龍門遠法嗣

南康軍歸宗真牧正賢禪師

潼川陳氏子。世為名儒。幼從三聖海澄為苾芻。具滿分戒。遊成都。依大慈秀公習經論。凡典籍過目成誦。義亦頓曉。秀稱為經藏子。出蜀謁諸尊宿。後扣佛眼。一日入室。眼舉殷勤抱得旃檀樹語。聲未絕。師頓悟。眼曰。經藏子漏逗了也。自是與師商確淵奧。亶亶無盡。眼稱善。因手書真牧二字授之。紹興己巳。歸宗虛席。郡侯以禮請。堅臥不應。寶文李公懋。嘗問道於師。同屬官強之。乃就。上堂。且第一句如何道。汝等若向世界未成時。父母未生時。佛未出世時。祖師未西來時道得。已第二句。且第一句如何道。直饒你十成道得。未免左之右之。卓拄杖下座。上堂。良久召大眾曰。作麼生。若也擬議。賢上座謾你諸人去也。打地和尚。瞋他秘魔巖主。擎箇叉兒。胡說亂道。遂將一搥成齏粉。散在十方世界。還知麼。舉拂子曰。而今却在拂子頭上。說一切智智清淨。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還聞麼。閻老子知得。乃曰。賢上座你若相當去。不妨奇特。或不相當。總在我手裏。祇向他道。閻老子。你也退步摸索鼻孔看。擊禪牀下座。僧問。久默斯要。已泄真機。學人上來。請師開示。師曰。耳朵在甚麼處。曰一句分明該萬象。師曰。分明底事作麼生。曰台星照臨。枯木回春。師曰。換却你眼睛。

世奇首座

成都人。徧參講席。晚造龍門。一日燕坐瞌睡間。羣蛙忽鳴。誤聽為淨髮版響。亟趨往。有曉之者曰。蛙鳴非版也。師恍然。詣方丈剖露。佛眼曰。豈不見羅[目*候]羅。師遽止曰。和尚不必。舉待去自看。未幾有省。乃占偈曰。夢中聞版響。覺後蝦蟇啼。蝦蟇與版響。山嶽一時齊。由是益加參究。洞臻玄奧。眼命分座。師固辭曰。此非細事。也如金針刺眼。毫髮若差。睛則破矣願生生居學

地。而自煅煉。眼因以偈美之曰。有道只因頻退步。謙和元自慣回光。不知已在青雲上。猶更將身入眾藏。暮年學者力請不容辭。後因說偈曰。諸法空故我心空。我心空故諸法同。諸法我心無別體。祇在而今一念中。且道。是那一念。眾罔措。師喝一喝而終。

給事馮楫濟川居士

自壯扣諸名宿。最後居龍門。從佛眼遠禪師再歲。一日同遠經行法堂。偶童子趨庭吟曰。萬象之中獨露身。遠拊公背曰。好聲。公於是契入。紹興丁巳。除給事。會大慧禪師。就明慶開堂。慧下座。公挽之曰。和尚每言於士大夫前曰。此生決不作者蟲豸。今日因甚却納敗缺。慧曰。盡大地是箇杲上座。你向甚處見他。公擬對。慧便掌。公曰。是我招得。越月特丐祠坐夏徑山。榜其室曰不動軒。

大隨靜法嗣

合州釣魚臺石頭自回禪師

本郡人也。世為石工。雖不識字。志慕空宗每求人口授法華。能誦之。棄家投大隨供掃灑。寺中令取崕石。師手不釋鎚鑿。而誦經不輟。隨見而語曰。今日磴磕。明日磴磕。死生到來。作麼折合。師愕然。釋其器設禮。願聞究竟。隨令且罷誦經。看趙州勘婆因緣。師念念不去心。久之因鑿石稍堅。盡力一鎚。瞥見火光。忽然省徹。走至方丈。禮拜呈頌曰。用盡工夫。渾無巴鼻。火光迸散。元在者裏。隨忻然曰。子徹也。復獻趙州勘婆頌曰。三軍不動旗閃爍。老婆正是魔王脚。趙州無柄鋏掃帚。掃蕩烟塵空索索。隨可之。遂授以僧服。因擊石而悟故。有回石頭之稱也。上堂。參禪學道。大似井底叫渴相似。殊不知塞耳塞眼。回避不及。且如十二時中行住坐臥。動轉施為。是甚麼人使作。眼見耳聞。何處不是路頭。若識得路頭。便是大解脫路。方知老漢與你證盟。山河大地與你證盟。所以道。十方薄伽梵。一路涅槃門。諸仁者。大凡有一物當途。要見一物之根源。一物無處。要見一物之根源。見得根源。源無所源。所源既非。何處不圓。諸禪德。你看老漢有甚麼勝你處。諸人有甚麼不如老漢處。還會麼。太湖三萬六千頃。月在波心說向誰。

潼川府護聖愚丘居靜禪師

成都楊氏子。年十四。禮白馬安慧為師。聞南堂道望。遂往依焉。堂舉香巖枯木裏龍吟話。往返酬詰。師於言下大悟。一日堂問曰。莫守寒巖異草青。坐却白雲宗不妙。汝作麼生。師曰。直須揮劍。若不揮劍。漁父棲巢。堂矍然曰。者小廝兒。師珍重便行。出住東巖。上堂。月生一。東巖乍住增愁寂。紅塵世路有多端。米麪倉儲無顆粒。崖為伴泉為匹。颯颯清風來入室。山王土地暗中忙。雲版鐘魚偷淚滴。世人莫道守空巖。亦有東籬打西壁。

簡州南巖勝禪師

上堂。召大眾曰。護生須是殺。殺盡始安居。會得箇中意。分明在半途。且道。到家一句又作麼生。釋迦彌勒沒量大。看來猶祇是他奴。僧問。放行五位即不問。把定三關事若何。師曰。橫按鎚鋤全正令。曰把定三關蒙指示。放行五位事如何。師曰。太平寰宇斬癡頑。曰恁麼則南巖門下土曠人稀。師曰。霧利衲僧。祇消一點。曰自古自今同生同死時如何。師曰。家賊難防。曰今日學人小出大遇去也。師便打曰。須是老僧打你始得。僧禮拜。師曰。切忌詐明頭。

常德府梁山廓庵師遠禪師

合州魯氏子。上堂。舉楊岐三脚驢子話。乃召大眾曰。揚其湯者。莫若撲其火。壅其流者。莫若杜其源。此乃智人之明鑒。佛法之至論。正在斯焉。者因緣。如今叢林中。提唱者甚多。商量者不少。有般底祇道。宗師家無固必。凡有所問。隨口便答。似則也似。是即未是。若恁麼。祇作箇乾無事會。不見楊岐用處。乃至祖師千差萬別方便門庭。如何消遣。又有般底。祇向佛邊會。却與自己沒交涉。古人道。凡有言句。須是一一消歸自己。又作麼生。又有般底。一向祇作自己會。棄却古人用處。唯知道明自己事。古人方便却如何消遣。既消遣不下。却似抱橋柱澡洗。要且放手不得。此亦是一病。又有般底。却去脚多少處會。若恁麼會。此病最難醫也。所以他語有巧妙處。參學人卒難摸索。纔擬心則差了也。前輩謂之楊岐宗旨。須是他屋裏人。到恁麼田地。方堪傳授。若不然者。則守死善道之謂也。者公案。直須還他透頂徹底漢。方能了得。此非止禪和子會不得。而今天下叢林中。出世為人底。會得亦少。若要會去。直須向威音那畔空劫已前。輕輕覷著。提起便行。捺著便轉。却向萬仞峰前進一步。可以籠罩古今。坐斷天下人舌頭。如今還有恁麼者麼。有則出來道看。如無。更聽一頌。三脚驢子弄蹄

行。直透威音萬丈坑。雲在嶺頭閒不徹。水流澗下太忙生。湖南長老誰解會。行人更在青山外。

嘉州能仁默堂紹悟禪師

結夏上堂。最初一步。十方世界現全身。末後一言。一微塵中深鎖斷。有時提起。如倚天長劍。光耀乾坤。有時放下。似紅爐點雪。虛含萬象。得到恁麼田地。天魔外道拱手歸降。三世諸佛一時稽首。便可以大圓覺為我伽藍。於一毫端現寶王刹。如是則朝往西天。暮歸東土。亦是禁足。百華叢裏坐。姪坊酒肆行。亦是禁足。雖然如是。不曾動著者裏一步。恁麼則九旬無虛棄之功。百劫有今時之用。堪報不報之恩。以助無為之化。此即是涅槃妙心。金剛王寶劍。敢問大眾。作麼生得到者田地去。如人上山。各自努力。上堂。舉趙州訪二庵主公案。頌曰。一重山盡一重山。坐斷孤峰子細看。霧捲雲收山嶽靜。楚天空濶一輪寒。

彭州上溪智陀子言庵主

緜州人。初至大隨。聞舉石頭和尚示眾偈。倏然領旨。歸隱土溪。懸崖絕壑間有石。若蹲異獸。師鑿以為室。中發異泉無涸溢。四眾訝之。居三十年。化風盛播。室成日。作偈曰。一擊石菴全。縱橫得自然。清涼無暑氣。涓潔有甘泉。寬廓含沙界。寂寥絕眾緣。箇中無限意。風月一牀眠。

劍門南修道者

淳厚之士也。自大隨一語契投。服勤不怠。歸謁崇化贊禪師。坐次。贊以宗門三印問之。南曰。印空印泥印水。平地寒濤競起。假饒去就十分。也是霧龜曳尾。

莫將尚書

字少虛。家世豫章分寧。因官西蜀。謁南堂靜禪師。咨決心要。堂使其向好處提撕。適如廁。俄聞穢氣。急以手掩鼻。遂有省。即呈以偈曰。從來姿韻愛風流。幾笑時人向外求。萬別千差無覓處。得來元在鼻尖頭。南堂答曰。一法纔通法法周。縱橫妙用更何求。青蛇出匣魔軍伏。碧眼胡僧笑點頭。

龍圖王蕭居士

字觀復。留昭覺日。聞開靜板聲有省。問南堂曰。某有箇見處。纔被人問却。開口不得。未審過在甚處。堂曰。過在有箇見處。堂却問。朝旆幾時到任。公曰。去年八月四日。堂曰。自按察幾時離衙。公曰。前月二十。堂曰。為甚麼道開口不得。公乃契悟。

大鑒下第十七世

育王湛法嗣

南劍州西巖宗回禪師

婺州人。久聆示誨。深得法忍。因寺僧以茶禁聞有司。吏捕知事。師謂眾曰。此事不直之。則罪坐於我。若自直。彼復得罪。不忍為也。令擊鼓陞座。說偈曰。縣吏追呼不暫停。爭如長往事分明。從前有箇無生曲。且喜今朝調_己成。言訖而逝。

徑山杲法嗣

江州東林_已菴道顏禪師

潼川人。族鮮于氏。久參圓悟。微有省發。洎悟還蜀。囑依妙喜。仍以書致喜曰。顏川彩繪_已畢。但欠點眼耳。他日嗣其後。未可量也。喜居雲門及洋嶼。師皆在焉。朝夕質疑。方大悟。住後上堂。一葉落天下秋。一塵起大地收。鳥窠吹布毛。便有人悟去。今時學者。為甚麼却不識自_己。良久曰。莫錯怪人好。上堂。欲識諸佛心。但向眾生心行中識取。欲識常住不凋性。但向萬物遷變處會取。還識得麼。欲得不招無間業。莫謗如來正法輪。上堂。諸人知處良遂總知。良遂知處諸人不知。作麼生是良遂知處。乃曰。鷓鴣語鶴。上堂。仲冬嚴寒。三界無安。富者快樂。貧者飢寒。不識玄旨。錯認定盤。何也。牛頭安尾上。北斗面南看。上堂。一滴滴水。一滴滴凍。天寒人寒。風動幡動。雲門扇子[跳-兆+孛]跳上三十天。築著帝釋鼻孔。東海鯉魚打一棒。雨似盆傾。不出諸人十二時中尋常受用。上堂。圓通門戶。八字打開。若是從門入得。不堪共語。須是入得無門之門。方可坐登堂奧。所以道。過去諸如來。斯門_已成就。現在諸菩薩。今各入圓明。未來參學人。當依如是法。從上諸聖。幸有如此廣大門風。不能繼紹。甘自鄙棄。穿窬

牆壁。好不丈夫。敢問大眾。無門之門作麼生入。良久云。非唯觀世音。我亦從中證。

劍州萬壽自護禪師

上堂。古者道。若是識得心。大地無寸土。萬壽即不然。若人識得心。未是究竟處。且那裏是究竟處。拈拄杖卓一下曰。甜瓜徹蒂甜。苦瓠連根苦。

處州連雲道能禪師

漢州何氏子。僧問。鏡清六刮意旨如何。師曰。穿却你鼻孔。曰學人有鼻孔即穿。無鼻孔又穿箇甚麼。師曰。抱賊叫屈。曰如何是就毛刮塵。師曰。筠袁虔吉。頭上插筆。曰如何是就皮刮毛。師曰。石城虔化。說話廝罵。曰如何是就肉刮皮。師曰。嘉眉果聞。懷裏有狀。曰如何是就骨刮肉。師曰。漳泉福建。頭匾如扇。曰如何是就髓刮骨。師曰。洋瀾左蠡。無風浪起。曰髓又如何刮。師曰。十八十九。癡人夜走。曰六刮已蒙師指示。一言直截意如何。師曰。結舌有分。

臨安府霧隱最菴道印禪師

漢州人。上堂。大雄山下虎。南山鼉鼻蛇。等閒撞著。抱賞歸家。若也不惜好手。便與拔出重牙。有麼有麼。上堂。五五二十五。擊碎虛空鼓。大地不容針。十方無寸土。春生夏長復何云。甜者甜兮苦者苦。中秋上堂。舉馬大師與西堂百丈南泉翫月公案。師云。馬大師垂絲千尺。意在深潭。西堂振鬣。百丈擺尾。雖則衝波激浪。未免上他鉤線。南泉自謂躍過禹門。誰知依前落在巨網。即今莫有絕羅籠出窠臼底麼。也好出來露箇消息。貴知華藏門下不致寂寥。其或未然。此夜一輪滿。清光何處無。

秦國夫人計氏法真

自寡處。屏去紛華。常蔬食。習有為法。因大慧遣謙禪者。致問其子魏公。公留謙。以祖道誘之。真一日問謙曰。徑山和尚尋常如何為人。謙曰。和尚祇教人看狗子無佛性。及竹篋子話。祇是不得下語。不得思量。不得向舉起處會。不得向開口處承當。狗子還有佛性也無。無。祇恁麼教人看。真遂諦信。於是夜坐力究前話。忽爾

洞然無滯。謙辭歸。真親書入道槩略。作數偈呈慧。其後曰。逐日看經文。如逢舊識人。莫言頻有礙。一舉一回新。

大滄泰法嗣

漳州慧通清旦禪師

蓬州嚴氏子。初出關。至德山。值泰上堂。舉趙州曰。臺山婆子已為汝勘破了也。且道意在甚麼處。良久曰。就地撮將黃葉去。入山推出白雲來。師聞釋然。翌日入室。山問。前百丈不落因果。因甚麼墮野狐。後百丈不昧因果。因甚麼脫野狐。師曰。好與一坑埋却。住後上堂。說佛說祖。正如好肉剜瘡。舉古舉今。猶若殘羹餽飯。一聞便悟。已落第二頭。一舉便行。早是不著便。須知箇事如天普蓋。似地普擎。師子遊行不求伴侶。壯士展臂不借他力。佛祖拈掇不起。衲僧願見無門。迷悟雙忘。聖凡路絕。且道從上諸聖。以何法示人。喝一喝曰。莫妄想。佛性和尚忌日上堂。三脚驢子弄蹄行。步步相隨不相到。樹頭驚起雙雙魚。拈來一老一不老。為憐松竹引清風。其奈出門便是草。因喚檀郎識得渠。大機大用都推倒。燒香勘證見根源。糞埽堆頭拾得寶。叢林浩浩漫商量。勸君莫謗先師好。

成都府正法灝禪師

上堂。舉永嘉到曹谿因緣。乃曰。要識永嘉麼。掀翻海嶽求知己。要識祖師麼。撥動乾坤建太平。二老不知何處去。卓拄杖曰。宗風千古播嘉聲。

成都府昭覺辯禪師

上堂。毫釐有差。天地懸隔。隔江人唱鷓鴣詞。錯認胡茄十八拍。要會麼。欲得現前。莫存順逆。五湖煙浪有誰爭。自是不歸歸便得。

霧隱遠法嗣

慶元府東山全菴齊己禪師

邛州謝氏子。上堂。舉修山主偈曰。是柱不見柱。非柱不見柱。是非已去了。是非裏薦取。召大眾曰。薦得是。移華兼蝶至。薦得非。擔泉帶月歸。是也好。鄭州黎勝青州棗。非也好。象山路入蓬萊島。是亦沒交涉。踏著秤錘硬似鍊。非亦沒交涉。金剛寶劍當頭截。阿呵呵。會也麼。知事少時煩惱少。識人多處是非多。

知府葛剡居士

字謙問。號信齋。少擢上第。翫意禪悅。首謁無菴全禪師求指南。菴令究即心即佛。久無所契。請曰。師有何方便。使某得入。菴曰。居士太無厭生。已而佛海來居劍池。公因從遊。乃舉無菴所示之語。請為眾普說。海發揮之曰。即心即佛眉拖地。非心非佛雙眼橫。蝴蝶夢中家萬里。子規枝上月三更。留旬日而後返。一日舉不是心不是佛不是物。豁然頓明。頌曰。非心非佛亦非物。五鳳樓前山突兀。艷陽影裏倒翻身。野狐跳入金毛窟。無菴肯之。即遣書頌呈佛海。海報曰。此事非紙筆可既。居士能過我。當有所聞矣。遂復至虎丘。海迎之曰。居士見處。止可入佛境界。入魔境界猶未得在。公加禮不已。海正容曰。何不道金毛跳入野狐窟。公乃痛領。

華藏民法嗣

臨安府徑山別峰寶印禪師

嘉州李氏子。自幼通六經。而厭俗務。乃從德山清素得度。具戒後。聽華嚴起信。既盡其說。棄依密印於中峰。一日印舉。僧問巖頭。起滅不停時如何。巖叱曰。是誰起滅。師啟悟即首肯。會圓悟歸昭覺。印遣師往省。因隨眾入室。悟問。從上諸聖以何接人。師豎拳。悟曰。此是老僧用底。作麼生是從上諸聖用底。師以拳揮之。悟亦舉拳相交。大笑而止。後至徑山謁大慧。慧問甚處來。師曰西川。慧曰。未出劍門關。與汝三十棒了也。師曰。不合起動和尚。慧忻然掃室延之。慧南遷。師乃西還。連主數刹。後再出峽。住保寧金山雪竇徑山。開堂陞座曰。世尊初成正覺。於鹿野苑中。轉四諦法輪。憍陳如比丘最初悟道。後來真淨禪師。初住洞山。拈云。今日新豐洞裏。祇轉箇拄杖子。遂拈拄杖著左邊云。還有最初悟道者麼。若無。丈夫自有衝天志。莫向如來行處行。遂喝一喝下座。若是印上座則不然。今日向鳳凰山裏。初無工夫轉四諦法輪。亦無氣力轉拄杖子。祇教諸人行須緩步。語要低聲。何故。欲得不招無間業。莫謗如來正法輪。

可宣禪師

嘉定許氏子。出家受具。參安民悟旨訣。嘉定庚午。詔住徑山。遠近輻輳。宣悲夫重趼而來者。窮其日力。食息無所。又於雙溪之上。築室百間。為接待菴。濟其所不及。宋寧宗嘗錫化城二大字。賜號佛日。

泐潭明法嗣

漢州無為隨菴守緣禪師

本郡史氏子。年十三病目。去依棲禪慧日能禪師圓具。出峽至寶峰。值峰上堂。舉永嘉曰。一月普現一切水。一切水月一月攝。師聞釋然領悟。住後上堂曰。以一統萬。一月普現一切水。會萬歸一。一切水月一月攝。展則彌綸法界。收則毫髮不存。雖然收展殊途。此事本無異致。但能於根本上。著得一隻眼去。方見三世諸佛歷代祖師。盡從此中示現。三藏十二部一切脩多羅。盡從此中流出。天地日月萬象森羅。盡從此中建立。三界九地七趣四生。盡從此中出沒。百千法門無量妙義。乃至世間工巧伎藝。盡現行此事。所以世尊拈華。迦葉便乃微笑。達磨面壁。二祖於是安心。桃花盛開。霧雲疑情盡淨。擊竹作響。香嚴頓忘所知。以至盤山於肉案頭悟道。彌勒向魚市裏接人。誠謂造次顛沛必於是。經行坐臥在其中。既有如是奇特。更有如是光輝。既有如是廣大。又有如是周徧。你輩諸人。因甚麼却有迷有悟。要知麼。幸無偏照處。剛有不明時。

龍翔珪法嗣

南康軍雲居頑菴德昇禪師

漢州何氏子。二十得度。習講。久而棄之。謁文殊道禪師。問佛法省要。殊示偈曰。契丹打破波斯寨。奪得寶珠村裏賣。十字街頭窮乞兒。腰間挂箇風流袋。師擬對。殊曰莫錯。師退參三年。方得旨趣。往見佛性。機不投。入閩至鼓山禮覲。便問。國師不跨石門句。意旨如何。竹菴應聲喝曰。閑言語。師即領悟。住後僧問。應真不借。三界高超即不問。如何是無位真人。師曰。聞時富貴。見後貧窮。曰擡頭須掩耳。側掌便翻身。師曰。無位真人在甚麼處。曰老大宗師。話頭也不識。師曰。放你三十棒。

雲居悟法嗣

南康軍雲居普雲白圓禪師

絳州雍氏子。年十九。試經得度。留教苑五祀。出關南下。歷扣諸大尊宿。始詣龍門。一日於廊廡間。覩繪胡人有省。夜白高菴。菴舉法眼偈曰。頭戴貂鼠帽。腰懸羊角錐。語不令人會。須得人譯之。復策火示之曰。我為汝譯了也。於是大法明了。呈偈曰。外國言音不可窮。起雲亭下一時通。口門廣大無邊際。吞盡楊岐栗棘蓬。菴遣師依佛眼。眼謂曰。吾道東矣。上堂。舉僧問雲門。如何是透法身句。門曰北斗裏藏身。師曰。南北東西萬萬千。乾坤上下兩無邊。相逢相見呵呵笑。屈指擡頭月半天。

黃龍忠法嗣

成都府信相戒脩禪師

上堂。舉馬祖不安公案。乃曰。兩輪舉處煙塵起。電急星馳擬何止。目前不礙往來機。正令全旋無表裏。丈夫意氣自衝天。我是我兮你是你。

西禪璉法嗣

遂寧府西禪第二代希秀禪師

上堂曰。秋光將半。暑氣漸消。鴻雁橫空點破。碧天似水。猿猱挂樹撼翻。玉露如珠。直饒對此明機。未免認龜作鼈。且道應時應節一句。作麼生道。野色併來三島月。溪光分破五湖秋。

大滄果法嗣

荊門軍玉泉窮谷宗璉禪師

合州董氏子。開堂曰。問答已乃曰。衲僧向人天眾前。一問一答。一擒一縱。一卷一舒。一挨一拶。須是具金剛眼睛始得。若是念話之流。君向西秦。我之東魯。於宗門中殊無所益。者一段事。不在有言。不在無言。不礙有言。不礙無言。古人垂一言半句。正知國

家兵器。不得已而用之。橫說豎說。祇要控人入處。其實不在言句上。今時人不能一徑徹證根源。祇以語言文字而為至道。一句來一句去。喚作禪道。喚作向上向下。謂之菩提涅槃。謂之祖師巴鼻。正似鄭州出曹門。從上宗師會中。往往真箇以行脚為事底。纔有疑處。便對眾決擇。祇一句下見諦明白。造佛祖直指不傳之宗。與諸有情。盡未來際同得同證。猶未是泊頭處。豈是空開脣皮。胡言漢語。

石頭回法嗣

南康軍雲居蓬菴德會禪師

重慶府何氏子。上堂。舉教中道。若見諸相非相。即見如來。作麼生是非相底道理。佯走詐羞偷眼覷。竹門斜掩半枝花。
錦江禪燈卷第七

昭覺丈雪 通醉 輯

紹興幻菴 胡昇猷 訂

大鑒下第十八世

東林顏法嗣

汀州報恩法演禪師

果州人。上堂。舉俱胝豎指因緣。師曰。佳人睡起懶梳頭。把得金釵插便休。大抵還他肌骨好。不塗紅粉也風流。

婺州智者元菴真慈禪師

潼川李氏子。初依成都正法寺出家。具戒後遊講肆。聽講圓覺。至四大各離。今者妄身當在何處。畢竟無體實同幻化。因而有省。作頌曰。一顆明珠。在我者裏。撥著動著。放光動地。以呈諸講師。無能曉之者。歸以呈其師。遂舉狗子無佛性話詰之。師曰。雖百千萬億公案。不出此頌也。其師以為不遜。乃叱出。師因南遊。至廬山圓通挂搭。時元菴為西堂。為眾入室。舉僧問雲門。撥塵見佛時如何。門云佛亦是塵。師隨聲便喝。以手指胷曰。佛亦是塵。師復頌曰。撥塵見佛。佛亦是塵。問了答了。直下翻身。勸君更盡一杯酒。西出陽關無故人。又頌塵塵三昧曰。鉢裏飯桶裏水。別寶崑崙坐潭底。一塵塵上走須彌。明眼波斯笑彈指。笑彈指。珊瑚枝上清風起。元菴深肯之。

昭覺紹淵禪師

上堂。舉僧問雲門。樹凋葉落時如何。門曰體露金風。師曰。要明陷虎之機。須是本色衲子始得。雲門大師具逸羣三昧。擊節扣關。於閃電光中。出一隻手。與人解黏去縛。拔楔抽釘。不妨好手。子細檢點將來。大似與賊過梯。昭覺則不然。忽有僧問。樹凋葉落時如何。只答他道。落霞與孤鶩齊飛。秋水共長天一色。且道。與雲門是同是別。復曰。止止不須說。我法妙難思。上堂。鎔瓶盤釵釧作一金。攪酥酪醞醅成一味。如是賓主道台。內外安和。五位君臣

齊透。四種料揀一串。放行則細雨濛濛。秋風颯颯。把住則空空如也。誰敢正眼覷著。且道。放行為人好。把住為人好。復曰。等閑一似秋風至。無意涼人人自涼。

張栻字敬夫

累官吏部侍郎。嘗問道於道顏曰。見即便見。擬思即差。又作麼生。顏曰。還問不知有。栻曰。政當知有時如何。顏曰。聞聲見色只如常。栻豁然有省。乃留偈曰。聞聲見色只如常。熟察精羈理自彰。脫似虛空藏碧落。曾無少剩一毫芒。顏然之。後方疾革。定叟求教。栻曰。蟬蛻人欲之私。春融天理之妙。語訖而逝。栻平生潛心經史。動以古聖賢自期。所著有論孟太極諸書。學者稱為南軒先生。

西禪需法嗣

南劍州劍門安分菴主

少與木菴同隸業安國。後依懶菴。未有深證。辭謁徑山大慧。行次江干。仰瞻宮闕。聞街司喝侍郎來。釋然大悟。作偈曰。幾年箇事挂胷懷。問盡諸方眼不開。肝胆此時俱裂破。一聲江上侍郎來。遂徑回西禪。懶菴迎之。付以伽梨。自爾不規所寓。後菴居劍門。化被嶺表。學者從之。所作偈頌走手而成。凡千餘首。盛行於世。

大滄行法嗣

常德府德山子涓禪師

潼川人。上堂。見見之時。見非是見。見猶離見。見不能及。遂喝曰。鯨吞海水盡。露出珊瑚枝。眾中忽有箇衲僧出來道。長老休寐語。却許伊具一隻眼。上堂。橫按拄杖曰。一二三四五六七。七六五四三二一。循環逆順數將來。數到未來無盡日。因七見一。因一亡七。踏破太虛空。鍤牛也汗出。絕氣息無踪跡。擲拄杖曰。更須放下者箇。始是參學事畢。上堂。拈拄杖曰。有時奪人不奪境。拄杖子七縱八橫。有時奪境不奪人。山僧七顛八倒。有時人境兩俱奪。拄杖子與山僧削迹吞聲。有時人境俱不奪。卓拄杖曰。伴我行千里。攜君過萬山。忽然撞著臨濟大師時如何。喝曰。未明心地印。難透祖師關。

育王光法嗣

臨安北澗居簡禪師

潼州龍氏子。依邑之廣福院得度。參別峰塗毒。沉默白究。一日閱已菴語有省。再參佛照機契。自是往來其門者五十年。走江西。訪仲溫於羅湖。與師議論。大奇之。遂以大慧居洋嶼菴竹篋付之。師異焉。久之出世台之報恩。晚遷淨慈。上堂。識得一。萬事畢。了事衲僧。一字不識。直饒恁麼。未稱全提。禹力不到處。河聲流向西。上堂。舉密師伯與洞山在餅店。密於地上畫一圓相。謂洞山曰。把將去。山曰。拈將來。後來保寧勇和尚曰。非但二人提不起。盡大地人亦提不起。北澗敢道。保寧計窮力盡。上堂。舉趙州入僧堂曰。有賊有賊。見一僧便捉曰。賊在者裏。僧曰。不是某甲。州托開曰。是即是。不肯承當。師曰。趙州收處太寬。放去太急。淨慈則不然。家賊難防。家財必喪。卓拄杖曰。只可錯捉。不可錯放。淳祐丙午春示寂。書偈曰。四月一日珍重六字。至期假寐而逝。

未詳法嗣

蜀僧方辨

謁六祖。曰善塑。祖正色曰。試塑看。辨不領旨。乃塑祖。可高七尺。曲盡其妙。祖觀之曰。汝善塑佛性否。曰不善佛性。礪以衣物。辨禮謝而去。

太瘤蜀僧

居眾。嘗歎佛法混濫。異見蜂起。乃曰。我參禪若得真正知見。當不惜口業。遂發願禮馬祖塢。長年不輟。忽一日塢放光。感而有悟。後徧至叢林。勘驗老宿。過雪竇山前云。者老漢。口裏水漉漉地。竇聞其語。意似不平。及太見。竇云。你不肯老僧那。太云。老漢果然水漉漉地。遂撼一坐具便出。直歲不甘。中路令人毆打。損太一足。太云。此是雪竇使之。他日須折一足償我。後果如其言。

蜀中仁王欽禪師

僧問。如何是佛。師曰。聞名不如見面。曰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鬧市裏弄獼猴。曰如何是道。曰大蟲看水磨。

德普禪師

絳州蒲氏子。得度受具。解唯識起信論。兩川無敢詰難。號為義虎。時惟勝還自江西。呂大防出鎮成都。執弟子禮。日夕造室。普竊聽其議。一不能曉歸臥看屋梁曰。勝昔嘗業講有聲。呂公世稱賢者。相與敬信如此。吾乃不信可乎。乃出蜀至荊州金鑾。夜與一衲俱。普問。經論何負禪宗。而長老多譏訶之耶。曰以其是識情義理思想邊量。非能發聖得道。脫有得道發聖者。皆藉之以為緣耳。倘不因自悟。惟經論是仗。則能讀能知能見解者。皆證聖成道去矣。惟以死語是所知障故。祖師西來也。如經言。一切眾生本來成佛。汝信之乎。曰世尊之語。豈敢不信。曰既信矣。遠來何為。曰聞禪宗有別傳法故來耳。衲笑曰。是則未信。非能信也。今積翠南禪師出世久。子見之不宜後。普即日遂行。熙寧元年至黃龍。問阿難問迦葉。世尊傳金襴外。別傳何法。迦葉呼阿難。難應諾。迦葉曰。倒却門前剎竿著。意旨如何。南曰。上人出蜀。曾到玉泉否。曰曾到。又問。曾挂搭否。曰一夕便發。南曰。智者道場。關將軍打供與結緣幾時何妨。普默然理前問。南俛首。普趨出大驚曰。兩川義虎。不消此老一唾。

潼川報恩道熙禪師

曾與寶福送書。往泉州王太尉處。尉問。漳南和尚。近日還為人也無。師云。若道為人。即屈著和尚。若道不為人。又屈太尉。尉云。道取一句。待鋏牛能嚙草。木馬解含煙。師云。某甲惜口喫飯。尉良久又問。驢來馬來。師云。驢馬不同途。尉云。爭得到者裏。師云。謝太尉領話。

范蜀公送圓悟禪師行脚

觀水莫觀污池水。污池之水魚鱉卑。登山莫登迤邐山。迤邐之山草木稀。觀水須觀滄溟廣。登山須登泰山上。所得不淺所見高。工夫用盡非徒勞。南方幸有選佛地。好向其中窮妙旨。他年成器整頽綱。不負男兒出家志。大丈夫休擬議。豈為虛名滅身計。百年隨分覺無多。莫被光陰暗添歲。成都況是繁華國。打住只因花酒惑。吾師幸是出家兒。肯隨齷齪同埋沒。吾師幸有虹蜺志。何事躊躇溺泥

水。豈不見。吞舟之魚不隱卑流。合抱之木不生丹丘。大鵬一展九萬里。豈同春岸飛沙鷗。何如急駕千里驥。莫學鷓鴣戀一枝。直饒講得千經論。也落禪家第二機。白雲長是戀高臺。暮罩朝籠不暫開。為慰蒼生霖雨望。等閑依舊出山來。又不見。荊山有玉名璫瑤。良工未遇居縫蒿。當時若不離荊楚。爭得連城價倍高。

無心廣道者

梓州人。初遊方。問雲蓋智和尚。興化打維那意旨如何。智下禪牀展兩手吐舌示之。廣打一坐具。智云。此是風力所轉。又問石霜琳和上。琳云。你意作麼生。廣亦打一坐具。琳云。好一坐具。祇是你不知落處。又問真淨。淨云。你意作麼生。廣亦打一坐具。淨云。他打你亦打。廣於此大悟。淨因作頌曰。丈夫當斷不自斷。興化為人徹底漢。已後從他眼自開。棒了罰錢趲出院。

漢中沙門意忠上座

尋師訪道。選佛參禪。干木隨身。逢場作戲。然其場也戲乎一時。以其功也利益千古。於是革其舊制。郢人猶迷。狗器投機。變通在我。豈以繩墨拘其大猷。而為規矩之所限哉。是謂有子不可教。其可教者語言糟粕也。非心之至妙。其至妙之心在我。不在文字語言也。縱有明師密授。不如心之自得。故曰得之於心。應之於手。皆翳然心法之妙用也。故有以破麥也即為其磑。欲變米也即為其碾。欲取麪也即為其羅。欲去糠也即為其扇。而規模法則。總有關捩。消息既通。皆不撥而自轉。以其水也。一波纔動。前波後波。波波應而無盡。以其磑也。一輪纔舉。大輪小輪。輪輪運而無窮。由是上下相應。高低共作。其妙用也。出乎自然。故不假人力之所能為。而奇絕可觀。玄之又玄。然後左旋右轉。豎去橫來。更相擊觸。出大法音。皆演苦空無常無我諸波羅密。而聞者聞其心。見者見其性。以至嗅嘗知覺。盡獲法喜禪悅之樂。又何即米麪諸所須物。供香積厨而為二膳。飽禪者輩。往來選佛者歟。

自慶藏主

蜀人。叢林知名。徧參真如晦堂普覺諸大老。游廬阜。入都城。見法雲圓通禪師。與秀大師偕行。到法雲。秀得參堂。以慶藏主之名達圓通。通曰。且令別處挂搭。俟此間單位空。即令參堂。慶在智海偶臥病。秀欲詣問所苦。而山門無假。乃潛出智海見慶。慶以書

白圓通。道秀越規矩出入。圓通得書知之。夜參大罵。此真小人。彼以道義故。[拚-厶+去]出院來訊汝疾。返以此告訐。豈端人正士所為。慶聞之遂掩息。叢林盡謂。慶遭圓通一詬而卒。

峩眉山白長老

嘗云。鄉人雪竇有頌百餘首。其詞意不甚出人。何乃浪得大名於世。遂作頌千首。以多十倍為勝。自編成集。妄意他日名壓雪竇。到處求人賞音。有大和山主。徧見當代有道尊宿。得法於法昌遇禪師。出世住大和。稱山主。氣吞諸方。不妄許可。白攜其頌往謁之。求一言之鑒。取信後學。大和見乃唾云。此頌如人患鵝臭。當風立地。其氣不可聞。自是白不敢出似人。後黃魯直聞之。到成都大慈寺。大書於壁云。峩眉白長老。千頌自成集。大和曾有言。鵝臭當風立。無師自悟之流。費盡心血。將謂取勝於人。及見智者。一場熱鬧。只為貢高墮此窟穴。參學人。切莫萌此遺臭諸方。

大鑒下第十九世

天童傑法嗣

夔州臥龍山破菴祖先禪師

廣安州王氏子。初參密菴。聞上堂語有省。後菴住霧隱。命師分座。有道者請益曰。胡孫捉不住時如何。師曰。用捉他作甚麼。如風吹水。自然成紋。住後上堂。不是心不是佛不是物。忍俊不禁。為諸人作箇撇脫。拈拄杖卓一下曰。流水暗消溪畔石。勸人除却是非難。

饒州薦福曹原生禪師

南劍人。詠霧雲石曰。雲去雲來非有意。雲來雲去亦無心。有無截斷霧何在。突兀一峰青到今。

大鑒下第二十世

臥龍破菴先法嗣

臨安府徑山無準師範禪師

劍州雍氏子。九歲出家。請益老宿坐禪之法。宿曰。禪是何物。坐底是誰。師晝夜體究。一日如廁。提前話有省。謁育王佛炤。炤問。何處人。師曰劍州。炤曰。帶得劍來麼。師隨聲便喝。炤笑曰。者烏頭子。也亂做。至霧隱。時破菴為第一座。同遊石筍菴。有道者請益胡孫子話。師於旁大悟。初住明州清源。後受詔住徑山。上堂。霧山指月。曹溪話月。遞代相傳。證龜成鼈。範上座尋常有一張口。挂在壁上。未曾動著。今日無端入者行戶。事到如今。只得東簸西簸。未免拈起多年曆日。於中點出些子悞賺處。說似諸人。且要郭大李二鄧四張三。知得江南兩浙春寒秋熱。雖然如是。黃河三千年一度清。上堂。若論箇事。直是省要易會。多是諸人自作艱難。自作障礙。所以有時東廊西廊。見諸人和南問訊。山僧便乃低頭相接。其實無他。只要諸人識得長老是西川隆慶府人氏。若識得去。便與諸人打些鄉談。說些鄉話。如今且未說。你識得長老。且各自知得。自家鄉貫也得。還知麼。明州六縣。奉化八鄉。上堂。名不得。狀不得。取不得。捨不得。只麼得。且道得箇甚麼。三人證龜成鼈。理宗召入脩政殿。奏對詳明。賜金襴僧伽衣。又宣詔慈明殿。陞座說法。帝垂簾而聽。賜號佛鑑。淳祐己酉三月旦日疾作。遂陞座謂眾曰。山僧既老且病。無力與諸人東語西話。今勉強出來。將從前說不到的。盡情向諸人抖擻去也。遂起身抖衣曰。是多少。便歸方丈。十五日集眾遺囑。至夜書偈曰。來時空索索。去也赤條條。更要問端的。天台有石橋。擲筆而逝。塏全身於圓照菴。

臨安府霧隱石田法薰禪師

眉山彭氏子。初遊石霜。禮雷遷塏。述偈曰。一念慈容元不隔。何須特地賜乖張。平高就下婆心切。惱得雷公一夜忙。師名因是大著。聞穹窿破菴道望。遂往依焉。室中舉世尊拈華迦葉微笑。師曰。焦磚打著連底凍。赤眼撞著火柴頭。菴陰奇之。初住蘇之高峰。遷楓橋鍾山淨慈霧隱。示眾。但得本。莫愁末。喚甚麼作本。喚甚麼作末。松栢千年青。不入時人意。牡丹一日紅。滿城公子醉。山僧恁麼道。若有不肯底。是我同參。弟子師俊。繪師像求贊。有曰。末後一句分付廚山。眾領訝之。明日忽示疾。退歸保壽。趣辦終焉計。窆全身於院之後山。

南康府雲居即菴慈覺禪師

蜀人。舉僧問葉縣。如何是學人密用心處。縣曰鬧市鞦韆子。曰意旨如何。縣曰普請眾人看。師頌曰。鞦韆鬧市眾人看。一陣清風吹面寒。定亂不須雙刀劍。活人何必九還丹。師始登雲居時。先一夕宿瑤田庄。夢伽藍安樂公謂曰。汝與北山。祇有一粥緣。明日午後至寺。晚參罷。會同袍二僧鬪狠。聞於司。凡新到例遭斥逐。師深切疑訝。後數年。蜀士有宦達於朝。以雲居虛席。請師補處。師欣然承命。且復徵往夢。竟至瑤田庄而寂。

淨慈仲穎法嗣

溫州江心一山了萬禪師

族臨川金氏。貌瘠而弱。年十五。業程文有聲。然素志出家莫奪去。從金溪常樂院思仁祝髮。俄有霽芝產戶樞。占者曰。吉徵也。及遊方。謁偃溪聞公。荊叟珏公。簡翁敬公。皆相語合。東叟領南屏。擇師掌記。師偶經神祠。見紙灰隨風旋起。師脫然忘所證。亟以白叟。詰之終無凝滯。遂蒙印可。未幾江淮總統。以開先迎居之。師蒞事。叢林鼎新。又十年升住江心。少不適意。輒棄去。寺眾數百懇留。隨至馮公嶺。不從。泣別散去。師恬然如脫桎梏焉。

大鑒下第二十一世

無準範法嗣

明州天童別山祖智禪師

蜀之順慶楊氏子。十四得度。聞僧誦六巖語悅之。時巖住蘇之穹窿。亟往從焉。因閱華嚴經。彌勒樓閣入已還閉之語。恍如夢覺。遂頌霧雲見桃花曰。萬緣叢中紅一點。幾人歡喜幾人嗔。巖頷之。最後見無準於雪竇。準知是法器。待之彌峻。時或棒喝交下。一語不少貸。師擬對。輒噤不能發。由是知解都喪。久之作而言曰。吾生平伎倆皆死法。今見此翁。始行活路。既而準移徑山。命師分座。寶祐丙辰。被旨住天童。一囊一鉢。縛茅以居。庚辰九月旦示眾曰。雲淡月華新。木脫山骨露。有天有地來。幾箇眼睛活。有省問者。師曰。不及相見。各自努力。越十日。夜分呼侍者。囑後事。珍重大眾。叉手而寂。

金山開法嗣

臨安府徑山石溪心月禪師

眉州人。僧問。如何是佛。師曰。矮子看戲。

大鑒下第二十二世

無用寬法嗣

重慶府縉雲山如海真禪師

碧峰參。師於地上畫一圓相。峰以袖拂之。師復畫一圓相。峰於中增一畫。又拂之。師再畫如前。峰又增一畫成十字。又拂之。師復畫如前。峰於十字加四隅成卍文。又拂之。師乃總畫二十圓相。峰一一具答。師曰。汝今方知佛法宏勝如此。宜往朔方。其道大行。

大鑒下第二十五世

少林裕法嗣

昭覺仲慶禪師

上堂。喫鹽添得渴。下座。僧問。喫鹽添得渴豈如何。師曰。齧影猗子無屎喫。

後菴照法嗣

阡邠進禪師

僧問。逢橋折橋豈如何。師曰。那討者般人。進云。師意如何。師曰。從來好手不彰名。

大鑒下第二十六世

古拙俊法嗣

普州東林無際悟禪師

二十出纏。縛竹為菴。研勵無懈。四指大書帖亦不看。只是拍盲做鈍工夫。後得大徹大悟。師有偈曰。無念即著空。有念即著執。有無兩相忘。非空亦非執。又曰。寂照無上下。光明處處通。本來無皂白。何處不含容。楚山參。師問。數年來住在何處。山曰。我所住廓然無定在。師曰。汝有何所得。山曰。本自無失。何得之有。師曰。莫不是學得來底。山曰。一法不有。學自何來。師曰。汝落空耶。山曰。我尚非我。誰落誰空。師曰。畢竟如何。山曰。水淺石出。雨霽雲收。師曰。莫亂道。只如佛祖來也不許。你若縱橫吞得一大藏教。現百千神通。到者裏更是不許。山曰。和尚雖是把斷要津。其奈勞神不易。師拍膝一下曰。會麼。山便喝。師笑曰。克家須是破家兒。恁麼幹蠱也省力。山掩耳而出。授法偈曰。我無法可付。汝無心可受。無付無受心。何人不成就。

大鑒下第二十七世

東林悟法嗣

簡州天成寺楚山紹琦禪師

唐安雷氏子。八歲入鄉校。授經成誦。九歲失怙。詣玄極通禪師。學出世法。後謁無際。示以無字公案。偶聞開靜板鳴。礙膺冰泮。往見際。際曰。還我無字意來。師曰。者僧問處偏多事。趙老何曾涉所思。信口一言都吐露。翻成特地使人疑。曰如何是汝不疑處。師曰。青山綠水。燕語鶯啼。歷歷分明。更疑何事。曰未在更道。師曰。頭頂虚空。腳踏實地。際曰。亦未在。師乃禮拜。際曰。如是如是。後居天柱。僧問。如何是天柱境。師曰。澗濶雲歸晚。山高日出遲。曰如何是境中人。師曰。額下眉遮眼。腮邊耳搭肩。曰如何是天柱家風。師曰。雲甌炊松粉。冰鑑煮月團。曰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海神撒出夜明珠。曰學人不會。師曰。文殊失却玻璃盞。曰如何是佛。師曰。生鋏秤錘。曰如何是法。師曰。石頭土塊。曰如何是僧。師曰。黑漆拄杖。曰不涉寒暑者。是甚麼人。師曰。為汝道了也。汝還識否。僧擬對。師咄曰。擬心即乖。開口便錯。眨得眼來。錯過去也。曰原來恁地近那。師曰。汝見箇甚麼道理。曰面目分明。當機不露。師震聲一喝。僧當下豁然。景泰五年。住投子。僧問。遠離皖山。來據投子。海眾臨筵。請師祝聖。師曰。鼎內長生篆。峰頭不老松。曰祝聖已蒙師的旨。投子家風事若何。師曰。提瓶穿市過。不是賣油翁。曰只如祖師道。不許夜行。投明須到。還端的也無。師曰。雖然眼裏有筋。爭奈舌頭無

骨。曰趙州道。我早侯白。更有侯黑。意作麼生。師曰。不因弓矢盡。未肯豎降旗。問今日和尚陞座說法。未審有何祥瑞。師曰。麒麟步驟丹霄外。優鉢花開烈火中。曰如何是祖師西來意。師曰。雪消山頂露。風過樹頭搖。

無礙鑑禪師

閬中人。法嗣於無際悟。嘗作牧牛頌以示人。自序曰。夫有相有因。故立牧牛規矩。無面無狀。了無從處安名。廣開法施醫方。量擬病根瘳痼。逾城雖異。入室皆同。不妨信手招來。也是一場懨懨。自無始劫來。牧頭水牯。掣斷鼻繩。犇競馳走。歷遍郊坰。無處揣摩。孜孜忖度籌量。數數推窮大事。欲拯迷途。須循捷徑。罔辭勞苦。而步水登山。峭緊芒鞋。而描踪捕跡。蓋由迷頭認影。眷戀芳叢。背覺合塵。貪愛自弊。坑坎堆阜窈窕。幾番退屈狐疑。煙霞浩渺幽深。憤志豈容疎慢。深加勇猛精進。一心惟覓唾痕。蹉然因地逢伊。觸碎銀山鍊壁。安居折脚鐺下。柴門谷口雲深。蕭蕭玉鑑涵秋。炯炯冰壺浸月。梁山慣愛揚家醜。始信南泉喚作牛。明初塢於閬之圓覺菴。

太平府八峰山廣善寶月潭禪師

大慧參。師問。如何是祖師西來意。慧曰。東嶺上有雲。師曰。有雨雲無雨雲。慧曰。雨淋淋地。師曰。下後如何。慧曰。白浪滔天。師曰。如何是萬法歸一。慧曰。人間寒暑不能侵。師曰。如何是青州布衫。慧曰。賴遇良工手。師曰。杲日當空無所不照。因甚麼被片雲遮却。慧曰。船去船來岸不移。師曰。人人有箇影子。因甚麼踏不著。慧曰。昨日有人從廣東來。師曰。盡大地是火坑。得何三昧不被燒却。慧曰。東海鯉魚吞却日。師曰。如是如是。付以偈曰。乾坤雖大不能藏。日月雖明難逾光。紹續慧燈常不滅。流傳千古繼諸方。閩維。塢於中川報恩寺。

重慶府西禪雪峰瑞禪師

天奇參。師問。無奇乃移時方覺。答曰。澗底頑冰吞宇宙。性湖明月匝天寒。師大喝曰。汝還有嫌凡愛聖底心。掃妄求真底見。奇曰是。師曰。你若嫌凡愛聖。斷般若之善根。你若掃妄求真。絕諸佛之命脈。震聲又喝。真又是誰。妄又是誰。凡又是誰。聖又是誰。奇心中豁然。

少室淳拙才法嗣

益都亮禪師

問僧。何處來。僧曰。東西南北來。師打曰。無主孤魂。僧曰。瞎棒不得亂打。師曰。瞎棒且喜有箇瞎漢喫在。僧云瞎瞎。師曰。瞎了八萬四千毛孔。也未在。

錦江禪燈卷第八

昭覺丈雪 通醉 輯

紹興幻菴 胡昇猷 訂

大鑒下第二十八世

東明岳法嗣

湖州東明海舟永慈禪師

成都余氏子。生於洪武甲戌。齠齔時。見僧喜。聞說生死事大。遂發志棄俗。趨大隋。禮獨照月禪師削染。居八載。始行脚。首謁太初和尚。初問。父母未生前。那箇是你本來面目。師即從東過西叉手而立。初曰。未在更道。師曰。兩眼相對。有甚相瞞。初大悅。復至東普無際和尚處。舉似做工夫。際追問不遜。於宣德二年。出峽參霧谷雪峰和尚。深契。請師充首座。造武林受具。詣古道山。參見東明老和尚。一見相契。問曰。無相福田衣。甚麼人得披。明下座擱一掌。師曰。四大本空。五蘊非有。和上作麼生。明又一掌。師曰。一掌不作一掌用。速道。明又一掌。師神色不變。曰老和尚名不虛播。復展具三拜。明曰。我居古道山三十載。今日只見得者僧。留住數日。欲付袈裟。師曰。某不為衣來。自此聲譽叢席。至天界隱居。於正統二年。太監袁誠。欽師道德。備供請禮部筭住持翼善禪寺。開山說法。衲子雲集。復於正統五年六月二十八日。東明示寂。遺囑白菴住持曰。吾有衣法二物。送至金陵東山海舟和尚。囑曰。字付慈海舟。訪我我無酬。明年之明日。西風笑點頭。至來年期日示寂。白菴長老不違遺囑。請首座法廣。於景泰二年八月二十三日。持衣齋至東山。師陞座祝香而受。嗣法門人寶峰瑄等。所作頌古歌偈。行於世。七十四載為僧。中間多少誦訛。一見東明消殞。以拂子打○曰。釋迦至我六十二世。有不可數老和尚。又打○曰。多向者裏安身。咄。投筆而逝。塋於東明山左(同時常熟縣普慈者誤為永慈矣)。

唐安湛淵齋禪師

上堂。楚山大似逆鱗徑尺。不可觸犯。唐安偏向毒蛇頭上抓。會他絕響無音還有說。直至而今拄杖談。眾中有聞得的當者麼。若的

當。且道他說個甚麼。良久卓拄杖曰。蒼天蒼天。

天成琦法嗣

古渝濟川洪禪師

問楚山曰。蟪蛄蟲吸乾滄海。魚龍蝦蟇向何處安身立命。山曰。子之識海若空。魚龍自有變化。師曰。未審蟪蛄蟲即今何在。山曰。在汝眉毛下。師曰。水母飛上色究竟天。入摩醯眼裏作舞。因甚不見。山曰。多少人向者不見處打失鼻孔。師曰。未審如何是摩醯正眼。山喝曰。會麼。師曰不會。山曰。面門兩眼渾無事。頂中一點耀乾坤。師曰。蓮湖橋為人直指。因甚明眼人落井。山曰。高山無險路。平地有深坑。師曰。如何是直指的事。山曰。玉闌干上石獅子。紅藕花間白鷺鷥。師曰。謝師答話。山曰。切忌隨語生解。師禮拜。

石經海珠祖意禪師

掩關次。楚山撫關門一下曰。請關中主相見。師斂手鞠躬而立。山曰。日用事作麼生。師曰。看取趙州無字。山曰。如何是無字意。師曰。無孔鋏錘當面擲。山曰。趙州意作麼生。師曰。只為婆心切。肝膽向人傾。山曰。不涉有無。如何體會。師曰。某甲到者裏。則無用心處。山曰。早是用心了也。師作禮。山拈拄杖曰。待出關來。與汝一頓。師曰。某甲即今亦不在關內。山以手拍關門一下曰。者箇響。師一喝。山曰。未在更道。師曰。靈機無隔礙。牆壁絕周遮。山却與一喝。師近前問訊曰。謝師指教。山曰。天時酷暑。善加保愛。

長松大心真源禪師

三池張氏子。參楚山。問從上佛祖言不及處。行不到處。請師直指。山拈拄杖曰。響。師便喝。山便打。師又喝。山又打。師乃捉住拄杖曰。打甚麼。山與一喝。師作禮。山曰。與甚麼人同途。師曰。野鶴獨翔雲漢表。清蟾孤照宇寰中。山曰。途中忽遇猛虎時。如何迴避。師曰。虎在甚麼處。山便作虎聲。師作怕勢。山曰。恁麼。子親見虎來耶。師却作虎聲。山呵呵大笑。師曰。某甲罪過。山曰。向上還有事也無。師曰。晴宵月曬梅花冷。寒夜霜敲木葉疎。山曰。只此是。別更有。師曰。古木枝頭飛赤鳥。山曰。父母

未生前。試道一句看。師曰道不得。山曰。因甚道不得。師曰。他沒口。山曰。又道沒口。師曰。謝師答話。山曰。末後一句始到牢關。把斷要津不通凡聖。子作麼生領會。師曰。泥牛走入海。吞却老龍珠。山曰。未在。師進前叉手默然而立。山曰。如是如是。

嵩潘大悲寺崇善一天智中國師

彭縣人。生有異相。年十二。即禮月光為師。後代惠心住松潘。時番夷叛復不常。師居邊撫化。番夷莫不投伏。天順間。累封國師。楚山過訪。師呈悟繇。山曰。如何是無字意。師曰。出匣吹毛劍。寒光射斗牛。山曰。趙州因甚道無。師曰。波斯嚼冰雪。不覺齒牙寒。山曰。拈過有無。如何湊泊。師曰。夜深誰把手。同共御街遊。山曰。向上還有奇特事也無。師曰。秋夜家家月。春來處處花。一雙明白眼。何處撒塵沙。山曰。善哉。

石經豁堂祖裕禪師

成都巨氏子。從楚山學出世法。山閱般若經。師詣前問曰。師所閱者。乃文字般若爾。只如離了文字。未審如何是真般若。山乃舉起經曰。會麼。師曰不會。山曰。喚作文字得麼。師曰。不喚作文字得麼。山曰。般若真空。固非文字。且亦不離文字。何以故。蓋文字性空。與夫般若之體。則無二也。師曰。此不二空中。還著得此般若文字之名言乎。山曰。不二空中。本絕名言。亦無真偽。先佛世尊。假名言說。所謂不壞名言。成就般若智。不捨一法。證滿分菩提。此文殊之境界。非二乘之見也。師曰。恁麼則名相性離。說亦無說耶。山曰。只此無相無名。無得無說。即真般若也。師却拈起經曰。且道者箇又是甚麼。山與一喝曰。你道是甚麼。師亦喝。山乃奪過經復舉起曰。百千三昧無量妙義。皆從此一卷經流出。子還知此經出處麼。師彈指一下。

三池月光常慧禪師

簡州李氏子。謁楚山。山曰。子一向在甚麼處住。師曰。某甲性空無我故。不住有相。不住無相。山曰。有無俱遣時如何。師曰。不離當處。即是覺性妙場。山曰。當處即不問。除却語言動靜。又作麼生。師曰。和尚雖是把斷要津。截斷舌頭。怎奈全身顯露。山曰。莫亂道。師曰。當人不讓。豈敢私意搏量。山曰。子二六時中。莫不空度耶。師曰。曾做無字工夫。山曰。如何是無字。師

曰。適來上山恁麼發困。山曰。意旨如何。師曰。風吹秋月冷。雪壓老梅寒。師頷曰。無無無處亦非無。雲散長空月正孤。亙古亙今渾不昧。要將名列祖師圖。

天成古音韶禪師

掩關次。楚山以拄杖扣門三下曰。關主在麼。師曰。他不曾有出入。誰云在不在。即開門觸禮一拜。山曰。此猶是奴兒婢子之事。請關中主相見。師乃叉手默然。山曰。此則沈寂默去也。師曰。適來問甚麼。山曰。問汝關中主。師曰。喚作寂默得麼。遂呈偈曰。只此寂默非寂默。非寂默中非亦絕。渠儂面目已呈師。動靜何曾有區別。

西禪瑞法嗣

寶文洪印禪師

棠城張氏子。禮楚山。值定王薨世三周除禪。請山陞座。師出問。雷音動地。選佛場開。一會靈山儼然未散。未審皇恩佛恩如何補報。山曰。蕩蕩堯風清六合。明明佛日照三千。師曰。祝贊已聞師的旨。拈花微笑意如何。山曰。機前有語難容舌。獨許頭陀一笑傳。師曰。玉梅破雪。紅葉凋霜。適官家除禪之辰。乃鶴駕仙遊之日。未審定王主人金容。即今何在。山豎拂曰。已成等正覺。放大光明。與三世如來共轉法輪。汝還見麼。師曰。與麼則徧界絕遮藏也。山曰。要且有眼覩不見。師曰。只者覩不見處。不隔纖毫。山曰。未是妙。師曰。未審如何是妙。山曰。二邊俱抹過。始見劫前人。師曰。蒙師點出金剛眼。死去生來更不疑。師曰。却闍黎道著。

八峰聞法嗣

昭覺無礙通禪師

謁八峰。峰誨以有句無句話。參究旬日有省。住後雲水四至。上堂。魯祖當年面壁。秘魔終日擎杈。臨機不解通變。驢年未許到家。

大鑒下第二十九世

古溪澄法嗣

成都西宗祐禪師

上堂。橫按拄杖曰。父母未生前。也只明者箇。父母既生後。也只明者箇。豎拄杖云。大眾看看。者箇是甚麼熱碗鳴聲。遂擲下歸方丈。

了禪能法嗣

成都昭覺寶藏通禪師

示眾。舉月圓缺因緣。頌曰。圓缺持來問作家。秋光醉得眼眯[序-予+(林/目)]。白蘋江上紅波湧。錯認蘆花作雪花。

大鑒下第三十世

天目進法嗣

齊安白雲寶明鑒禪師

蜀人。參壽堂天目進禪師得法。出峽徧遊湘湖。正德間。卓錫黃岡白雲山有年。僧問。如何是學人自己。師曰。有佛處不得住。無佛處急走過。曰學人不會。師曰。一箇巴掌。五箇指頭。問如何是白雲山中人。師曰。納結三條篋。縱橫一字關。

大鑒下第三十一世

石門海法嗣

隨州七尖峰大休宗隆禪師

益都賈氏子。依郡之石佛薙髮。寓成都北寺為典座。出街挑水。忽地忘行。頭撞墜壁有省。作偈曰。大地山河體性空。那分南北與西東。偶然撞著無私句。萬水千山總一同。就河南乾明寺無盡室中盤桓。針芥相投。印以偈曰。道高不假修。德重事理周。一枝正法眼。付與隆大休。住後。架瓜次。僧問。如何是西來意。師指茄

曰。王瓜茄子。僧不契下山。別參一尊宿。宿曰。你從何處來。僧曰。尖峰來。曰大休有何言句。僧舉前話。尊宿合掌曰。真大慈悲。嘉靖二十一年十一月八日。集眾書偈曰。三際握來為拄杖。十方原是舊袈裟。泥牛石虎知消息。踏破虛空便到家。置筆端坐而逝。

大鑒下第三十二世

不二際法嗣

達州白馬寺儀峰方彖禪師

本州羅氏子。參金佛山雲菴。令看如何是鬼神覷不破之機。三年有省。出峽徧謁知識。結茅雙溪。一日午炊。聞甑中作聲。忽大悟。頌曰。三玄三要沒來由。用盡機思無處求。窻前移步竈前去。白雪青峰齊點頭。齊點頭。南嶽天台共一籌。又曰。二八女子嫁新郎。績麻捻線一如常。稱家豐儉隨時過。懶插堂前者炷香。無幻聞之曰。此人曾作細密工夫來。萬曆壬辰秋。歸達州白馬。僧問。如何是西來意。師曰。兩頭燒火一頭烟。手中常執一鼗鼓。一面書轟字。一面書犇字。凡答話多舉而搖之。示寂。塔于龍神山。

燕京大千佛寺徧融真圓禪師

西蜀營山綫氏子。家世業儒。書史過目不忘。宗親曰。振吾族者必此子耶。至壯齡三十有二。一旦天機頓發。功名之心灰冷。遂托衲眉之遊。望然有天下之志。宗親遮留弗止。顧謂曰。大丈夫縱不能建功名于天下。宜悟道于方今。肯能自棄同艸木乎。于是至北京。隆慶中。道高魔勝。障難忽生。小人誣罔。有司擬師辟罪。謂眾曰。爾等速[遄-而+王]。有患難。吾自當之。不可苟免。刑部獄中。苦逼萬端。師處之晏然。同刑者視之悚然。驚其異操。師曰。無他術也。心存中正。雖處患難。而不知有患難也。未幾太岳張公上章。明師無罪。幸脫者百餘人。宮中陳李二國母。響師道範。願見未能。命皇親李公送輓布萬疋。師儼坐室中。若未聞見。非慢也。不以節禮貌當世之人。五臺陸公見訪問曰。如何是文殊智。師曰。不隨心外境。又問。如何是普賢行。師曰。調理一切心。又問。如何是毗盧法界。師曰。事事無礙。陸聞誨如坐春風。師一日謂門人曰。丁今之時。與吾遊華嚴轡宗門者。舍子而誰耶。言訖而逝。壽八十三。

休塵法嗣

灌陽鑑隨和尚

渝州嚴氏子。法嗣燕京休塵和尚。得無礙自在定。隱于西山白雲洞。四十稔不下山。常受蜀藩隆供。開示偈語。不許紀錄。後漢璞密記數則。付刮劓氏。名曰白雲深意。世壽七十二。于崇禎甲申二月圓寂。塔于太安寺之左。

大鑒下第三十三世

鑑隨法嗣

彭州寶池禪師

西鄉縣人。幼工講席。長伏禪宗。後參白雲鑑和尚。言下脫灑。隱西禪二十餘稔。待羽客冠儒巾欸秀才著鶴氅。見衲子。以手搔首作髯髻狀云。會麼。衲子稍遲疑。便亂棒打出。因闖賊犯蜀。師出不遜語。寇怒。師震威一喝。小卒背手加刃焉。通名鍊和尚也。

邛州了凡剛禪師

東普人。幼為掾吏。因科稅不贓。落髮參白雲洞鑑和尚。暗機契合。囑住上方洞居。無何徙邛州白巖。慕雞足勝槩。遊楚雄。未幾復省白雲。過仁懷縣。酷暑飲水。不移刻而示寂于寅子寺。世壽六十三。夏臘十七。

大鑒下第三十五世

天童悟法嗣

萬峰破山明禪師

大竹蹇氏子。卅歲出家。神挺天縱。燕頤虎鬚。剛毅猛利。氣燄逼人。初參博山語風。收拾不住。後上金粟密雲悟處。見而印可。開法禾之福城。次歸梁山。大振馬駒之道。廿有餘稔。上堂。爆竹一聲。蒼天兩字。草木昆蟲。全彰意氣。柳眼拖不價之金。梅梢吐不

瑕之玉。龍兒鳳子。齊歌舜德堯仁。癩狗泥猪。同和祖風佛日。導羣情而越死超生。普萬有而豐衣足食。當恁麼時。還有不威而嚴。無為而化者麼。良久云。東風吹出林間去。惹得遊蜂嚷舊新。喝一喝。上堂。今朝正月十五。處處敲鑼搥鼓。將謂移苦為樂。誰知翻樂為苦。一念此界他方。却被風隔雨阻。放出鍊鵲流星。打出街頭石虎。引得彌勒呵呵。笑到日輪當午。大眾且道。笑箇甚麼。皆生大歡喜。自知作佛祖。薙髮上堂。金鋤削盡千峰雪。露出天涯星月孤。照得世間人廓徹。都來依樣畫葫蘆。大眾。未審還有依樣畫得者麼。有則不妨好手手中呈好手。紅心心裏射紅心。其或未然。且待山僧自畫去也。以杖打圓相于中擲地云。層落落影團團。千古萬古與人看。佛誕上堂。問底也問四月八。答底也答四月八。兩兩三三沒偈[仁-二+(天/韭)]。都盧只逞口頭滑。引得釋迦老子一時惡發。指天指地獨尊己大。却被雲門一棒要打殺。撞著琅琊。道箇將此身心奉塵刹。今日山僧不解暗裏抽橫骨。明中墮舌頭。只好輕輕道箇活驚殺活笑殺。大眾且道。驚箇甚麼。笑箇甚麼。檢點得出。強中更有強中手。惡人自有惡人磨。甲乙以來。獻寇陷蜀。玉石俱焦。唯道自怡。以德化物。逢寇罵詈。嬰七難懲。諸劫難稍平。再拓高梁之福國。迨丙午三月十六亥時。指燭而滅。世壽七十。夏四十有八。塔全身于雙桂堂之麓。

林野奇禪師

合州蔡氏子。幼時沉默。不喜言笑。髫年薙染。習諸典籍。宛如夙諳。雖居梓里。惟以參訪為懷。偶閱密和尚語錄。疑情頓發。遂躬詣天童。深徹棒喝之旨。自此機用軼格。莫之敢撓。因蒙授受。初開法于通玄寺。凡五住大刹。上堂。昔日吾佛誕生。却向金盤澡洗。便乃指天指地。大似不知羞耻。更道惟吾獨尊。山僧未敢相許。且道。山僧有甚長處。便乃開許大口。以杖卓一卓云。當門不用栽荊棘。後代兒孫惹著衣。上堂。去冬結制。囊裏十虛。今春解制。廓通萬象。然雖結解不同。箇裏曾無背向。所謂歷歷明明絕覆藏。勸君不必苦思量。倦頓不妨勤打睡。自然無夢到諸方。上堂。僧問。陽春初放。萬木舒光。格外之機請師道。師云。昨夜雨霽。進云。恁麼則通身顯露。處處圓明。師云。如何是你圓明處。進云。禮拜和尚去也。師云。脚跟下失却。乃云。連日山僧掩室自若。既請登壇。當為直說。喫飯濟飢。飲水定渴。二六時中莫亂斟酌。何故。春風初解凍。萬象便舒容。師初示微恙。即遷居新菴。杜絕酬應。時壬辰三月廿九。日輪當午。有出冶從天台同。師瞪目眎之。曰汝來也。冶云。承蒙記莧。求和尚更名。師云。行果圓

成。安祥而逝。僧臘四十有一。世壽五十有八。全身塔於玲瓏巖之左。

法璽禪師

同安法璽印禪師。蜀人。乃憨山大師之法孫。久依□□和尚而印可焉。康熙壬寅冬。開法豫章建昌縣鳳棲山同安禪寺。結制上堂。諸方十月十五結。同安却比諸方別。試問其中事若何。因緣相值此時節。時節且置。祇如今日開爐。明甚麼邊事。良久云。滿爐添炭猶嫌冷。路上行人空守寒。佛成道上堂。六載雪山勤苦行。無端夜半覩明星。眼中早已重添屑。召大眾云。祇如釋迦老子。悟箇甚麼。若定當得出。方許了明向上宗乘。頓悟金剛心地。其或未然。不免與諸人道破。以拄杖擊案云。甜瓜徹蒂甜。苦瓜連根苦。一喝下座。上堂。同安今日解制。且喜燈王出世。驀然觸破紗籠。笑殺街頭李四。前途有問如何。切莫當陽辜負。一卓。

大鑒下第三十六世

破山明法嗣

象崖珽禪師

閩之福清人。幼與費和尚。同參金粟悟老人。後參東塔明和尚。職西堂。始印可。偕明和尚入蜀。開法梁山之玉屏。易號黃檗。上堂。舉保壽開堂。三聖推出一僧。壽便打。聖云。恁麼為人。瞎却鎮州一城人眼去在。壽擲下拄杖歸方丈。師拈云。三聖坐籌帷幄。退已讓人。者僧身挨白刃。皮下無血。保壽據令而行。龍頭蛇尾。三人雖縱奪可觀。未免有得有失。且道。山僧今日開堂。若有推出一僧。亦劈脊便打。他若云恁麼為人瞎却西蜀人眼去在。直打棒折也未放手。何故。要救天下人眼去在。臘八上堂。獨坐少人知。自憐雙眼碧。夜半覩明星。無端瞎一隻。三七思惟沒奈何。樹下經行虐歎息。騰今耀古累兒孫。箇箇扶籬與摸壁。唯有龍蟠鍊柳栗。撐天拄地無窮極。因齋慶贊釋迦文。當陽對眾亂拋擲。木童火裏笑嘻嘻。石女溪邊吹鬢栗。告報諸人聞不聞。頭上金烏似箭急。今年臘八在東山。明歲何嘗離本際。薦取瞿曇悟底時。摩訶般若波羅密。因避秦西陽大西禪林。于辛卯七月望日示微恙。說偈。來亦無所從。去亦無所至。來去本無踪。無是無不是。擲筆趨寂。世壽五十三。僧臘三十一。

含璞燦禪師

秋林人。幼經講肆。長習坐禪。淵默穆然。善書手筆。一見萬峰提唱。所蘊脫洒。後住阡邠夫子院。易額為雪門。上堂。洋子江心。湧出萬丈甘泉。蒙山頂上。吐開千層雀舌。瀛洲碧海。飛潛換骨魚龍。名山大川。振翮衝霄鸞鳳。且道衲僧家。十方海會。四眾雲臻。畢竟有何奇特。良久豎拂子云。此是諸佛出身處文殊普賢向者裏拱手聽命。釋迦彌勒向者裏藏牙伏爪。三世諸佛稽首稱揚。歷代祖師潛踪泯跡。若人檢點得出。許你具隻眼。上堂。問內不放出。外不放入。正恁麼時。以何為界。師云。明明古道通霄壤。一任禪流自去留。乃云。上上根機。直下承當。中下之士。覲面錯過。所以低頭擬議。鷄過新羅。吐氣揚眉。頓成雙楸。雪門恁麼語話。大似因齋慶贊。卓拄杖云。滿堂雲水任飽餐。沒餡饅頭齊抖搜。上堂。問衲僧行履處即不問。睡夢時如何作主。師云。夜半窻明。隣家有火。進云。此是甚麼消息。師云。開眼也著。合眼也著。乃云。人人赤灑灑。撥雲霧而覩青天。箇箇圓陀陀。穿垢衣而登淨地。正恁麼時。龍蛇溷雜。凡聖交參。[妳-女+口]。上堂。踏轉石梁橋。歸家清涼處。秋水浴金鵝。覺花開鍊樹。笑殺九鍊山中古天門。幾箇惺惺幾箇悟。咄。示眾。有一物。頭拄天。脚踏地。無足善行。無眼善視。無手善拳。無舌談義。道無翼而長飛。性無根而永固。若有會得。不妨與他結箇同參。喝一喝。當代講學。一時雲透雨注。知劫運將至示微恙。塔于九鍊坪。

靈筏昌禪師

內江吳氏子。童幼俊敏。骨力瑋瓌。性稟溫良。志猛強記。卅齡落髮。瓢笠江南。當代師匠咸名金剛鑽也。末後見明和尚于東塔。箬矢魚貫。徵訓無忒。因以吐血。推倒杌子。打破家囊。明付鉢袋焉。住萬壽上堂。蓑頭帶得南山霧。月裏移來北岸舟。深沉巨浪生涯快。躍網金鱗當下收。且道。還有透網者麼。試飛騰看。乃云。金剛寶劍纔拈。羣魔膽落。三玄戈甲初展。千聖眉攢。直得塵塵剝剝露面。頭頭物物橫身。以一為萬。毛頭盡演無量妙義。以萬為一。森羅俱闡格外玄風。到者裏。月無不立。殺活俱行。獨超物表。縱奪互換。正恁麼時。且不犯鋒鋦一句。作麼生道。鷗弓高挂狼烟息。永祝皇圖億萬年。離指和尚設齋。上堂。問世尊拈花即不問。今朝陞座事如何。師云。前看後看。進云。看箇甚麼。師一喝。乃云。權佛祖柄。觸處咽喉坐斷。秉殺活劍。頭頭雪刃光寒。任是銅頭鍊額。孰敢衝鋒。從教河目海口。那容啟齒。直得峭巍

巍。虛空逼塞。孤迢迢。八面玲瓏。有時呼鷄作鳳。有時指鹿為馬。具如是韜略。有如是手段。開解脫門。炊無米飯。一任箇箇飽齟齬地。如龍若虎。正恁麼時。還委悉麼。欲識此中真妙旨。問我法兄離和尚。上堂。半捲珠簾月一鉤。時開酒瓮在高樓。于中一滴親嘗得。一任風流賣不休。卓拄杖云。還知此一滴麼。于是薦得。酒熟任從君自飲。其或未然。分明惟識隔簾香。上堂。要津把斷。水洩不通。布袋解開。光彌萬里。直得春藹乾坤。百花競放。無文心印。七縱八橫。那畔玄音。鳩鳴鶯囀。心智湊泊莫以到。文言詮表莫以及。崩巖喝下不許停機。烈焰光中那容住脚。正恁麼時。如何是轉身一句。明月橫挑兔角杖。水雲踏破艸鞋頭。

太慈無漏涵禪師

新繁安氏子。性稟謙讓。初參漢月和尚不契。後見明和尚打徹。呈偈云。九年鍊就一吹毛。武藝全提不用操。出匣獨能平宇宙。當場不讓始稱豪。住丹崖上堂。食息居士詣前拈香云。爇向爐中。為光明雲。徧滿法界。供養我堂頭長老。于此雲中紫柏座上。擘開面門。放出頂相。與諸人描邈。師云作家。又問。覲面相呈時如何。師云。雲從洞口出。士擬開口。師云。水向石邊來。乃云。雨細細霧漫漫。陣陣朔風透膽寒。只為諸人寒未徹。遠勞檀越過彭關。上堂。者事從來沒泊棲。電光石火豈容思。無踪跡斷消息。波斯叫苦石人泣。偶示微恙。端坐而逝。塋于金相寺之右。

體宗寧禪師

瀘陽李氏子。儉溫恭直。于世淡然。幼秉毗尼。兼攝三藏。遂參萬峰明和尚。職監院十稔。遂而印可。秉拂上堂。事存函蓋合。理應箭鋒拄。去此二重關。佛眼覷不著。惟有拄杖子。全身能擔荷。以拄杖卓一卓。喝一喝云。今日錯下註脚。住雲峰上堂。問拖拖搭搭。穿衣喫飯的是誰。師云。難道汝自己也不識。僧禮拜。乃云。十月十五聖制。方來衲子齊立。雲峰本無一法。看來物物瞥地。且道。盞子落地。碟子成七片。汝等諸人作麼生會。一僧喝。一僧走出法堂。師云。可憐不是當家子。孤負蒼蒼兩道眉。小參。囊括今古。道達羣芳。亭毒蒼生。疎而不漏。如是則安禪結制。無繩自縛。見性成佛。好肉剜瘡。若有箇靈利衲僧來問。老漢在者裏作甚麼。呵呵大笑云。不在打艸。只要驚蛇。世壽七十二。臘三十七。塋于本山之獅鈴峰。

離指示禪師

壁山陳氏子。志謹傲骨。氣硬心孤。以本分鉗鎚接方來。人或難之。受明和尚記莛。居嘉陵艸堂寺。見諸方汎汎接人。遂作濫觴偈以嘲之。常辯泰西教為邪說。而天主拉徒眾隱去。午日觀競渡。作偈曰。忽聞江鼓震。率爾引中和。信步觀飛櫂。倚藤聽唱歌。丘隅少止鳥。水國多遊鼃。回首天將晚。悠悠從市過。後徙新繁之河西。無恙而終。門人遵遺命。闍維粉骨為餅。施水族焉。

雪臂巒禪師

武昌人。于黃龍寺削染。名印巒。寓天童。職巡照。忽聞鐘聲有省。辛巳秋入蜀。參萬峰明和尚。于烽烟燹火中。臥薪嘗膽。以身先之。偕明和尚嬰七難。師無難色。或冀以代受。相依二十餘稔。嘗頌拄杖云。通身黑又通身節。展大用兮發大機。始信昂頭撐宇宙。管教佛祖也攢眉。迨庚子夏。蜀難漸平。拂衣北邁。住大名府潭淵普照寺。上堂。真佛無形。真道無體。真法無相。于中會得。三即一。如或不會。一即三。驀拈拄杖卓一卓云。大眾會麼。復卓云。三段不同。收歸上科。後遷磁州滹沱二祖塋院。上堂。二祖塋前有一物。上拄天。下拄地。傍無邊表。中亦不立。取之不逢。捨之不離。向之不親。背之則契。三世諸佛從此證。歷代祖師從此悟。在天名風雲雷雨。在地名鳥獸艸木。在五常名仁義禮智信。在五行名金木水火土。乃智乃愚。若僧若俗。蜎飛蠕動歧行之類。孰不由此而發生。豎拂子召眾云。還薦得者一物麼。良久拂一拂云。去去西方路。迢迢十萬程。後三處閱藏。共九年。微恙而逝。

敏樹相禪師

隣水人。參萬峰明和尚嗣法焉。住墊江百丈山。月旦上堂。昨夜一聲獅子吼。窟中抖擻金毛走。天明滿地是麒麟。吩咐明州布袋守。向道渠儂不等閑。逢人切莫揚家醜。上堂。學道休參鹵莽禪。逢人要識此根源。當機覲面還相委。脫骨換肌是契先。出鑛純金重煅鍊。離山美玉用鑽研。看來至寶非容易。不是依倚了目前。住楚江萬壽。上堂。撥轉萬物維新之際。底漢正好向一人納慶之辰。入此選佛場中。開單展鉢。弄筯拈匙。徹見元初本體。獲大真實受用。上堂。參禪一著了生死。頓悟圓明徹自己。覺得早知燈是火。于今飯熟多時矣。龍門寺上堂。不到龍門院裏。焉知浪暖桃花。既知浪暖桃花。深入龍門院裏。此猶是化門邊事。且龍門堂上奇特一句。

作麼生道。五色雲中觀彩鳳。九重天上看飛龍。舉世尊拈花。靈山拈出紫金花。錯過人天百萬家。迦葉破顏方有意。涅槃流布眼無邪。金襴委付阿難侶。雞足猶披彌勒袈。勿謂兒孫多意氣。禹門不待化龍蛇。仙苑告成。傀儡場中作禍坑。無端平地賺憍陳。誰知線斷麼羅手。滿面慚惶笑殺人。後旋南浦。示微恙。塔于慈雲菴之右。世壽七十。

錦江禪燈卷第九

昭覺丈雪 通醉 輯

紹興幻菴 胡昇猷 訂

大鑒下第三十六世
破山明法嗣

大隋澹竹密禪師

內江姚氏子。生而穎異。剛毅不羣。好面折徵難。因見木魚墮地。忽打脫底蘊。寓天童八載。如鱗在淵。歉燒尾耳。遂作偈辭天童云。翛然直入千峯去。一任時流把自欺。折脚鐺安亂石裏。頻煨黃獨且隨宜。眾聆不喜。乘夜出山。回蜀見明和尚于佛恩。賓主互換。拳踢相應。故有處處逢人打一場之句。嘉州水蓮菴。元旦上堂。桃未紅李正白。梅梢猶帶三冬雪。許多遊子尚迷歸。處處春江明夜月。與麼與麼。好肉剜瘡。不與麼不與麼。虛空釘櫪。諸禪相伴水蓮菴。惟者些兒無別說。者些且置。應時及節一句。作麼生道。以拄杖卓一卓云。拄杖輕拈出。掀翻佛祖機。上堂。數間茅屋傍江濱。雲水雍容絕調情。若問埜夫為別計。棒頭直指本來人。四來滿座。銀燭交輝。是本來人麼。料掉沒交涉。喝一喝。拳一拳。是本來人麼。料掉沒交涉。穿衣喫飯。坐臥經行。是本來人麼。料掉沒交涉。屙屎放尿。寒則向火。熱則乘涼。是本來人麼。料掉沒交涉。依依楊柳日垂金。月照江邨春水明。是本來人麼。料掉沒交涉。既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畢竟如何委悉。鴛鴦綉出從君看。不把金針度與人。見劫運漸平。重闢大隋白鹿寺。府尹冀公諱應熊。嚮其德風。躬往迎入錦官。重建艸堂。丁未二月廿九日。示微恙。塔全身于大隋之青龍岡。世壽五十九。夏三十。冀公譔塔銘。號無忍焉。

武岡州雲天山燕居申禪師

忠南李氏子。參徧諸方。末後受萬峰明和尚授囑。住貴筑大興善寺。上堂。僧問。人人上梯子聽說法。即今法在何處。師云。上梯子上梯子。乃云。五里亭十里舖。夜則明行晝暗度。任是銅頭鍬額來。頂門一擊全身露。上堂。或時冷或時熱。剔起眉毛看時節。大興堂上打驢腰。火神廟裏出鮮血。一場好事要人知。其奈人之信不

及。眾中還有信得及者麼。上堂。欲賞蟠桃會。殷勤上苑遊。方朔偷不去。留滯在枝頭。信手拈來慶和盤。從教億萬秋。上堂。方丈裏出來。法堂上坐起。學力如此。見處如此。大眾還我一句來。眾默然。師云。然則盡皆如此就。沒有些閒神野鬼。住楚江楞嚴寺。上堂。決于南嶽行。誰知尚萍梗。連路少盤纏。出賣大佛頂。其價亦不增。售者亦不損。賣與眾位們。祇要還我本。差了一絲毫。彼此皆不肯。大眾。且向絲毫不差處。道一句。眾著語。師云。冬日固是寒。下雨覺更冷。上堂。臨流終日不拋鉤。志在雙鯨得便休。珍重漁人休放手。再拋香餌釣鯨龍。有麼有麼。請出相見高真觀。示眾云。古佛不揚眉。高真解拱手。烏龜撞著虵。欄腰齧一口。痛殺呂純陽。三丰脚後腫。帶累僧綱司。向外揚家醜。山僧拄杖過人頭。打起金毛特地吼。壽七十二。無病而終。塋于雲天山。

昭覺丈雪醉禪師

中川李氏子。少孺矜持。長以和讓。情性沉厚。意氣淡冲。初參明和尚于萬峰。因鞋倒套不上有省。遂造天童。聞榔聲大徹。單丁佯抑。一衲飄然。後回萬峰。見而印可。開法牛山禹門。漢中靜明。保寧艸堂。整頓頽綱。說法如截。鉗鎚倜儻。毫髮無容。政烽烟滾滾中。於秦蜀說法。七鎮叢林。正令全施。霜輪雲委。上堂。久雨偶晴。人境紛紜。金烏投東嶺。滴露艸橋橫。衲子分中明甚麼邊事。若也分疎得。也是烏龜鑽破壁。上堂。法不孤起。仗境方生。境既弗存。法從何立。豎拂子云。此是境。如何是法。擲下云。從茲拋在冀掃堆頭。雨洒風吹去。誕日上堂。吾年四十二。作事多顛躓。佛祖生冤家。怒罵轟天地。兔角杖龍蛇。龜毛繩虎兕。一條鍊脊梁。勿遭岐路使。絲毫尚弗容。死生安將繼。上堂。凜凜寒霜。洗出乾坤正氣。娟娟皓月。印還天地公心。遐邇關河。淳承至化。西來曲調。仗底流通。作無窟^龍之塋箴。韻和不齊之金石。擬側雙聰聽。風吹別調中。追嚴上堂。朝朝睡到日紅東。不會人前撞木鐘。以拄杖敲香几云。天堂地獄。被山僧一擊。七花八裂了也。惟有目犍連尊者。揚聲大叫云。快活快活。大眾且道。此老快活。從威神力而得耶。從山僧拄杖頭而得耶。試甄別看。如辨別得出。六出祁山非猛士。七擒孟獲始稱豪。上堂。還有衝鋒慣戰者麼。一僧出。師打。僧云。恁麼則泥牛哂太虛去也。師云。將頭不猛。帶累三軍。僧作掙鎗勢。師云。善哉善哉。僧擬議。師云。艸賊大敗。劫風稍息。重關昭覺。時年七十有六。掃劫灰得諸方殘篇。縫為錦江禪燈。康熙癸酉秋。命門人竹浪徹生。負稿嘉禾。剗剗流通。

荊南蓮月正禪師

岳池姜氏子。岸谷淵弘。三學備練。因侍明和尚赴齋。途中喫跌。機語相叩。而嗣法焉。後開法于牂牁東印。次徙保壽。再遷荊南栢子菴。上堂。辨魔揀異。須是頂門具眼。訶佛罵祖。還他腦後見腮。若是全提正令。佛來魔來。總與三十棒。何故。放過即不可。上堂。神頭鬼面。突出難辨。魔口佛心。回看益深。直須兩眼雙明。不被境緣轉換。萬別千差。當陽勘破。方受得人天供養。上堂。消息暗通。尚挂脣齒。靈機互換。猶犯鋒鋦。掀倒禪牀。拂袖便行。疾入膏肓。山僧恁麼告報。眾中忽有箇負血性底。出來道。老漢因甚壓良為賤。只對他道。雪後始知松栢操。事難方見丈夫心。上堂。欲識佛性義。當觀時節因緣。時節若至。其理自彰。即今鶯嬌柳媚。蠶婦採桑。水流花發。農夫插秧。會得原是天真受用。不會未免業識茫茫。

靈隱文禪師

高梁王氏子。初侍巾瓶于象巖和尚。後參萬峰老人印可。開法黔南之紫竹院。上堂。紫竹風生入翠嬌。橫斜弄影半窻搖。今朝唱和無生曲。幸有知音同共敲。同共敲。節令不相饒。三春已度過。九夏正芳新。柳綠開眉眼。桃紅契本心。所以道。不離寶華殿。不越菩提場。重重華藏交參。一一珠網圓瑩。且道承誰恩力。橫按鎢錐全正令。太平寰宇斬癡頑。因雪上堂。徹骨寒威正寂寥。紅爐燄上六花飄。捲簾薦取西來意。無限瓊枝拂柳條。上堂。心非是性。認性乖宗。性非是心。立心失旨。性本無為。心亦無形。于無為無形處。辨得端的。一切諸形盡是心。一切有為都是性。放則乾坤冲塞。收則風行艸偃。且收放一句。作麼生道。竿頭絲線從君弄。不犯清波意自殊。

慧覺衣禪師

綦江熊氏子。卅歲失怙。年三十。悟身世苦空。依華銀山常白師落髮。後參雙桂老人。方蒙印證。歸住渝城治平寺。上堂。六年冷地苦辛勤。一點明星刺眼睛。剛道瞿曇成正覺。依前日午打三更。上堂。父子情同。渾無彼此。君臣道合。杳絕親疎。治國齊家。上呼下應。入則如藤倚樹。出則似箭離弦。不惟貫革九重。而且萬機直透。有時弓矢雙收。鋒鋦墮地。且道利害在什麼處。王令已行天下徧。將軍塞外絕烟塵。

林木綬禪師

鄧陵蔣氏子。參雙桂明和尚。總院事。始印證焉。志喜玩遊。聞吳越水山之秀。一艇飄然。有不預遊人之句。後回錦官昭覺。法兄醉和尚請上堂。憐新念舊逢佳節。萬里河山鋪錦色。稅少年豐荷聖恩。獅林豹變成英傑。且道英傑者何。天得一似清。地得一以寧。君王得一萬國來臣。公卿得一鹽梅調羹。士民得一孝子賢孫。衲僧得一柱石宗門。敢問大眾。如何是一。雙桂飄香遠。昭覺靄慈雲。末歸南浦大佛寺。以優老焉。

雲幻宸禪師

蜀東忠州萬氏子。每有出塵之志。十六出家。廿歲稟戒于象崖禪師。巾瓶三稔。參破山和尚。服膺數載。記莚之。應巴州中峰禪寺之請。入院上堂。一門超出。彈指了達無為。兩眼豁開。宛然頓證妙果。心本是佛。何必尋劍刻舟。念乃即空。豈得離波覓水。千江月映。處處百億化身。萬樹春回。在在隨緣應感。姪房酒肆。即是彌勒道場。虎穴魔宮。原來釋迦寶所。舉一明三。坐斷人天異路。知十答百。不落凡聖階梯。堪報不報之恩。用作無為之化。堯天舜日以增輝。金車法輪而常轉。正恁麼時。祝國利生一句。作麼生道。四海狼烟都息盡。萬邦只教樂昇平。

寂光豁禪師

南充楊氏子。中歲落髮。參[言*口]雙桂明和尚印可。住龍印山佛子禪寺。上堂。大冶初開。鉗錘燥辣。熱鍊冷砧。要且下下。不落別處。如此說話。木上座未肯全許在。以拄杖卓一卓云。會麼。乃佛乃祖情與無情。盡在山僧拄杖頭邊。縱奪殺活去也。眾中還有覷得及者麼。聽取一偈。權衡殺活勝英豪。旗鼓開時膽氣高。大將拈弓能幾幾。巧施一箭落雙鷗。喝一喝。

易菴師禪師

資陽廖氏子。因讀圓覺。念世無常。年三十三。方始披剃。聞明和尚宗風大振躬詣參究。更名印師。遂蒙記莚。後住西安大興善寺。上堂。玄機獨運。今古一如。時節難饒。寒暑遞換。雲門木馬嘶風。羣陰剝盡。雪嶺泥牛吼月。一陽復逢。煥寒光于十地。煦和氣于九重。普天率土。咸荷生成。林下道人合作麼生。唯將靈鷲拈花

事。佐贊皇圖億萬春。上堂。玉骨冰肌梅正賒。長空星月結霜花。
明明道出箇中意。何事海邊更算沙。

渝州華岩聖可和尚

營山王氏子。侏儒淵默。于世邈焉。常聽金剛經云。胎卵溼化。咸證金剛不壞之身。稍有疑駭。遂捨家。投遼陽師落髮。法名德玉。凡行住坐臥。便疑此身乃膿血所成。猶如聚沫。那箇是我金剛不壞底。因參破山明和尚。以前語詰之。服膺數稔。始印證焉。以狂猿未控。走半天下。後歸華岩古洞。遐邇聆之。歸者如市。眾請上堂。雞鳴犬吠。鵲噪鴉啼。觀音菩薩來也。墻壁瓦礫。大地山河。普賢願王在焉。聲色裏求人。聞見中垂手。則不無。掀翻聲色。踢脫見聞一句。作麼生道。數聲清磬是非外。一箇閒人天地間。住瀘州方山。佛誕。太守陳公入山挂旛彩。請上堂。問君恩如山何以報。師云。鎮夜瀟瀟雨。進云。親恩似海何以酬。師云。電後一聲雷。進云。酬恩報德蒙師指。即今陳護法入山。作麼生欸待。師云。甦斯蕉扇正維夏。快我秧針適麥秋。進云。恁麼則不二門中無檢擇。人情佛法兩周全。師云。也要闍黎親薦得。乃云。達磨達現宰官身。魔外雲門詎可侵。去歲金身長丈六。今朝丈六實迦文。驀拈拂子召眾云。還識迦文麼。臣報君恩子報親。擊拂子兩下。寓遵義府綏陽嘉瑞寺。結夏上堂。舉虎丘隆祖因僧問。九旬禁足此意如何。祖云。理長則就。進云。只如六根不具底。還禁得也無。祖云。穿却鼻孔。進云。學人小出大遇去也。祖云。降將不斬。進云。恁麼則放某甲逐便。祖云。停囚長智。師云。隆祖恁麼白足調心。高打墻籬。深掘隍壟。密固靈根。可謂有本。只是太區區生。今日德玉不爾。設有問九旬禁足此意如何。有條攀條。無條攀例。六根不具底還禁得也無。姪房多畫姓。酒肆有詩名。學人小出大遇去也。萬水千山裡。猶是草鞋塵。頌云。無住之心那個知。電光石火較猶遲。且將法界為牀座。入理之門有子規。

快雪國禪師

宕渠王氏子。神疎氣爽。逸韻軒然。入明和尚之室。後住南隆東禪菴。上堂。問如何是山中境。師云。綠水滔滔穿洞口。飄飄黃葉樹頭飛。乃云。吾從成褫來。劈開箇門戶。搗又搗不起。扶又扶不住。深山曠野中。左右無依怙。免強自支持。刀耕為活路。糧收三五石。衣裾頗充足。晝夜不歇心。脊梁生鋏鑄。打起老精神。蓄養

中心樹。數年不出山。無榮亦無辱。撞著無情漢。將我強推出。禪道尚不知。人情又不熟。山夫自愧百無能。終日如癡恰似兀。

合州石幢壽禪師

嘉陵姚氏子。初寓禹門丈和尚堂中。參隨甚久。遂之雙桂印可。住濮陽龍游。一榻蕭然。別無長物。有回石頭之風。僧問。和尚未見破老人時如何。師云。眼光爍破四天下。進云。見後如何。師云。瞎。進云。學人不然。師云。試道看。進云。學人未見和尚時瞎。見後眼光爍破四天下。師豎拂子見麼。進云見。師便打。上堂。六戶虛通。萬象烏能逃影。一門超出。諸境自是潛踪。以一門而含六戶。千差共轍。將六戶而歸一門。萬別同源。無內無外。耀騰今古。非暗非明。于斯薦得。越格超宗。上堂。龍游無法說。縱橫活鱗鱗。拈起鰲鼻蛇。露出冲霄鶴。放去周寰宇。收來隨折合。不滯有無機。寧分月小大。覲體總恁麼。阿誰能卜度。上堂。入道依何住。束心自爾俱。不從斯履歷。何處起規模。性海珠光燦。情源愛水枯。頭頭歸實際。物物證真如。定林寺上堂。一句全提。截斷千差岐路。兩鏡相照。洞明格外機關。事有多途。理無異致。悟徹法源。自知限量。透頂透底。還他聖智遐通。淺見淺聞。自是愚迷劣智。上堂。蘆管灰飛後。一陽天下周。牧兒慵放犢。漁父怯垂鉤。露冷山容瘦。霜寒水國幽。嶺梅多意氣。鬪雪暗香浮。

成都然燈百城著禪師

夔州沈氏子。嗣法于破山明和上。董益州請住準提閣。上堂。身居塵中。心超塵外。雖居黃堂。夙因尚在。馳筇三請飛錫倚賴。箇事如何一語擔代。且擔代甚麼事。良久云。魚遊春水花翻浪。鳥入瓊林弄彩枝。上堂。幾年抱拙臥烟霞。茲日塵居事事賒。非是貪富貴。只緣雨露落山家。所以蘇學士留玉帶以鎮山門。裴相國遺簡笏以光祖席。今古手眼不同。大都鼻孔則一。驀豎拂子云。昔日鷲峰為上首。今朝法會作金湯。

瀘州四峰山雲慶寺遺聞幻禪師

蜀南嘉州三榮楊氏子。誕于明萬曆甲午。生而岐嶷。貌有瑞相。髫年詣峩山祝髮。嘗習法華楞嚴。至十九歲。登座講經。不下萬指圍遶。後徧參諸方名宿。因機緣遲鈍。仍買舟還蜀。于江安塔山寺。講法華經。值破老人開法蟠龍。直造其席。仍不契機。就廣福寺掩

關三載。訖于雲慶寺住靜有年。壬辰秋。破老人以手筭召下雙桂。遂出源流記荊。本州士庶。請開法于雲慶。上堂。撾鼓陞堂。栽龜毛于火內。出眾捲蓆。輪磨盤于空中。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何故。彼自無瘡。勿傷之也。萬法本閒。唯人自鬧。且正恁麼時如何。一片定光輝宇宙。赤心密密奉皇恩。

遵義松丘兩生從禪師

蜀永川丁氏子。父母俱夢供養之僧真從來也。當晚室中果生一子。故老幼咸以真從呼之。遂號兩生。自幼不茹酒葷。七歲依胞叔出家。異其常童。少習講。後參雙桂明和尚印可。應恒昭禪寺請。開法上堂。今朝十月初一。到處犁耙事畢。獨有恒澤山中。又是一個則例。且道甚麼則例。新出一羣犢子。今日方纔貫鼻。待伊時節到來。個個耕翻大地。防禦使請上堂。今朝臘月初五。壽星高炤鎮府。部屬官員走似烟。林下道人何所處。一眾雲堂濟濟來。更要山僧打口鼓。試問諸人。還會麼。以拄杖卓一卓云。拈起胡茄十八拍。宮商一韻垂千古。護國寺上堂。今日欣逢上九。驚動人天聚首。四方衲子。歸來于此。正好抖擻。所以道。曠劫來事只在如今。威音那畔全歸掌握。法隨法行。無處不周。心隨心用。無處不徧。到者裡說甚麼。人間一百年。天上一晝夜。驀呈拄杖云。于此委悉。東方妙喜世界。亦不離箇裡。西方極樂世界。亦不離箇裡。乃至袈裟世界。亦不離箇裡。天上瑠璃界。須彌善法堂。總不離箇裡。如是則一處明。千處萬處光輝。一機轉。千機萬機歷落。且不離本有一句。作麼生道。相逢但說三分話。未可全拋一片心。世壽七十二。無恙而終。塋全身于松丘之右。

蓬溪六岫奎禪師

長壽鄭氏子。恪守中和。淵冲坦率參明和尚于雙桂。棒下有省。始承嗣之。後住蓬溪蓮蓬山。上堂。蓮蓬今日新開爐。景運天開氣象舒。道洽聖君彰德化。時和檀信供香廚。龍蟠虎踞安禪定。象去師來作護符。一大因緣殊勝事。同瞻佛日祝皇圖。上堂。前日昨日今日。重重露布家醜。非是舌底喃喃。務要大家知有。上堂。三五元宵。金吾不禁。火樹銀花發輝。煌晃徹于雲霄。星橋鍍鎖開歌。管聲傳于山谷。長街短市。宛然閬苑蓬瀛。柳巷烟邨。番作人間天上。如斯佳節盛世奇觀。林下衲僧如何慶賞。參。

瀘州雲谿禦木章禪師

本郡人。齠年薙髮。因破山老人于江安蟠龍寺開法。遂造法席。略有機緣。具載本錄。解制受其記莛。住雲谿興佛禪院。三十餘稔。康熙癸卯冬。開爐上堂。以拂子作一圓相云。諸人還識者箇麼。此是第一義諦生成。無邊剎海流出。本自清淨。無歉無餘。無生無滅。無得無失。能為萬法之根。亦名一相無相。湛然圓滿。脫體全彰。獨露真常。寂然不二。山野恁麼告報。也是好肉剜瘡。妙語玄言。未免傍觀者哂。者事且置。開爐一句作麼生道。良久云。弘澤方顯先天地。治化熙歸大聖人。上堂。至道不可以有心得。不可以無心求。正恁麼時。于內無心。于外無相。上無佛祖可仰。下無眾生可憐。淨裸裸。絕承當。赤洒洒。無回互。到者裡。揚之不清。澄之不清。須是箇中人始得。所以喚作無事道人。驀豎拂子云。還見麼。莫恁從前多意氣。他家曾踏上頭關。

劍州智積院耕雲鑑禪師

內江吳氏子。乃靈筏和尚之胞弟也。後嗣雙桂老人。上堂。微行密行。劫外橫身。大示靈奇。寰中獨踞。不是空生宴坐。亦非鶩子神通。祇貴堂堂妙用。凜凜威權。直今天魔拱手。外道歸降。永為梵宇干城。長作法門梁棟。是以恢弘祖道。丕贊宗猷。塵世變作祇林。穢土化為淨界。庶使曹源正脈長通。濟北家聲永振。喝一喝。

雙桂雲嶠水禪師

巴州趙氏子。初見明和尚於棲鳳請開示。明云。你少箇甚麼。師曰。無歉無餘。明豎拳云。者箇你未夢見在。師一喝便出。明喚回一掌。更討甚麼碗。從茲疑情愈熾。明赴梁山金城寨。命師作偈。棲鳳今朝散水雲。縱橫逆順任教行。破砂盆盛正法眼。恐逐腥羶污却盆。後于雙桂入室。明和尚問。行不出戶。坐不當堂。師曰。明月庭前桂。松竹引清風。明曰。隔靴搔痒漢。師曰。老老大大與麼說話。明驀頭一棒。師一喝而出。後總院事。明書偈戒曰。曾聞古德輔叢林。逆順機緣無二心。于此任教肝膽碎。終身先繼意深深。遂書正法眼藏四字。法衣一頂。明和尚圓寂。師領住持事。廿有餘稔。上堂。春光明[日/折]。萬象森然。卉木抽條。千機洞徹。鶩織柳而垂翠蓋。時撥穀以徧青田。明明露布陽春脚。歷歷全彰未兆機。須知大道絕奇妙。運用隨方適所宜。上堂。天青地碧。水綠火赤。大地山河古今不易。金烏東昇。玉兔西墜。有句無句衲僧習氣。非因非緣祖佛陳言。惟有梅華爭春。年年此際噴鼻。昨夜天花散彩。今朝霞燦紫室。人天庶類孰不兼叶。喝一喝。上昭覺值佛

誕。法兄丈和尚請上堂。金枝挺秀于毗嵐園內。海印發光于震旦國中。香風奏諸天之樂。梵音訇大地之雷。示現國王身。能為三界主。隨玄樞而運轉。任靈鑑以發揮。蕩蕩乎用大。巍巍乎體堅。男兒未具超方眼。漫道雲門棒喝玄。仍歸雙桂。以優老焉。

雲頂竺意傳禪師

大足胡氏子。廿歲出家。于永康寺圓具。入山樵採。折松枝作聲有省。參雙桂明和尚始印證。後住雲頂。上堂。推居上位。施閃電之機。棒喝交馳。作人天榜樣。龍門萬仞。慣引金鱗。直透玄關。超宗越格。且無上妙道。昭昭然在心目之間。奈何人被物轉。弗能轉物。如何說箇轉物道理。即今山河大地縱橫然。試轉看。如或不然。猛著精采。解制上堂。詣座前打圓相。以脚踏蹴。召眾云。三世諸佛被山野踏殺。眾中還有救得者麼。便請。良久云。如無。山僧自救去也。便登。乃云。超凡越聖。須是其人。打破虛空。不妨好手。衲僧去就。不容走作。絲毫妄動。自傷己命。喝一喝。

不會法禪師

南兗楊氏子。廿歲出塵。抵漢南。圓具于楚詰和尚。徧參半天下。後歸雙桂。于破山明和尚處。針芥相投。明豫知時有不待。以六根吩咐六人。師得明和尚之眼。遂韜跡射洪之清果有年。衲子聞風。堅請開堂。結制上堂。祖印高提。千山一色。宗乘纔舉。是水同源。敲骨打髓。木人眼裏滴血。翻轉面皮。石女腦後垂涎。擘破虛空。單擎古鏡。驅耕夫牛。奪飢人食。向空劫已前。格外吐氣。照用同時。人境俱奪。蹋翻海嶽。別覓知音。到者裏。釋迦老子不敢正眼覷著。且道利害在甚麼處。喝一喝云。莫道無事好。

嘯宗密禪師

渝州蹇氏子。參徧諸方。末後受雙桂明和尚記。云得吾鼻也缺中交。一吸一呼透九霄。帝釋宮中觸碎了。唯香唯臭任飄飄。後住成都十方堂廣集寺。上堂。將心求佛。好肉剜瘡。了妄覓真。潑油救火。機前荷負。平地喫交。直下承當。埋身千尺。總不恁麼。入無間獄。要行便行。要坐便坐。饑來喫飯。困來放參。猶未是衲僧向上事。如何是衲僧向上事。咄。上堂。拈花驚嶺。帶累金色頭陀。面壁九年。賺殺神光二祖。覓妙求玄。煤中添炭。殊不知人人本來具足。祇為諸人自信不及。故此甘沒輪轉。不得自在。如何是自在

去。參。上堂。最初一句。截斷言思。三世諸佛到此。未免結舌亡鋒。末後一句。那容觀聽。言前薦得。未是本分衲僧。喝下翻身。總是野狐見解。還有不落聲前句後底。出來道看。

東川呂大器

遂寧人。持正果決。剛毅勇為。聞闖寇陷蜀。起中興之私。永曆主授以經略督滇。黔兵馬屯于石柱司。坐籌帷握。決勝千里。明和尚亦避秦于司中。公備書請云。時無禪機不孝略有禪心。咫尺崇光瞻挹心切。便擬單騎榻前一瀉夙心。山深道棘。[田/心]滋地方驛騷也。不棄愚忱。惠然一賁。可勝懸企為禱。明拽杖而赴。士出。明云。你是呂居士麼。士曰不敢。明云。父母未生前姓甚麼。士擬開口。明便打。士怒色。明復打。士趨進。明呵呵大笑云。將謂將謂。原來原來。明遂占一偈。無端平地起孤堆。駭得虛空顛倒走。痛打金毛人不識。幾乎翻作跳牆狗。士怒推出掩門。大張威令相勘。明又占一偈。父母未生前句子。等閑棒著發無明。猛然省得非他物。十八女兒不繫裙。遂歸司。主馬嵩山以扭繚拒明。明復占一偈。拄杖芒鞋荊棘路。沾沾滯滯無回互。通身泥水尚未乾。又穿一雙鍬脚褲。士有省。再請焚香。始拜為弟子。明曰。五年未剖荊山玉。忽得渠來秘不住。拄杖麻繩密密通。雷門布鼓明明露。泥猪癩狗打驚樟。跛鼈盲龜生恐怖。獻與楚王仍不識。只當一箇大蘿蔔。公復云。萬丈灘頭橫夜月。一腔宿霧掃晴天。他年合坐三生石。始信因緣弗偶然。明復云。向慕肌骨。而未獲一覲面耶。幸彈丸地上相逢。此奇緣。勢不可不斗膽。果符素心漆桶子快。不然咫尺天涯矣。聊具瓢拂二種機緣偈。記黃檗室中三頓棒。大愚脇下便還拳。老僧撞著呂公縛。祖代冤流如是傳。公後以棒喝接機。而僚寮憚之。

密行忍禪師

滇宜良縣谷氏子。志學之年。禮竹林寺順語老師落髮。十七住雲臺山。偶遇禪客。示以無字話頭。參究無入處。又于濟凡禪師開發。打失鼻孔。得戒于燕居和尚。機投雙桂老人。住衡州開峰南雲禪寺。開爐上堂。僧問。寶幢高豎。爐鞴弘開。煅煉聖凡。斬新條令。四眾圍繞即不問。今日因緣事若何。師云。飲泉水貴地脈。進云。與麼則人歸大國方知貴。水到瀟湘分外清。師云。喫得棒也未。僧便喝。師云。未信汝在。進云。祇如杜居士所薦雙親。未審得何解脫。師揮拂子云。九蓮池畔解翻身。進云。滯魄已蒙標月

指。雙雙得度淨居天。師云。重念陀羅尼。乃云。建法幢立宗旨。釋迦彌勒剗肉成瘡。待其人而後行。德山臨濟作夢未醒。所以道。飲泉水貴地脈。風從虎雲從龍。事是恁麼事。人是恁麼人。若也坐地泛揚州。曹溪一路平沉久矣。昔日趙州示眾云。老僧三十年前。在南方。火爐頭有箇無賓主話。及至如今無人舉著。師云。趙州老人。有年無德。驀拈拄杖畫一畫云。大眾會麼。于斯薦得。便可起死回生烹佛烹祖。其或未委。縱然覓火和烟得。猶恐寒灰燒殺人。喝一喝。靠拄杖下座。

無私元禪師

嘉陽人。偕聖可和尚行脚最久。同得法于雙桂破山和尚。遍歷諸方。旋峩之九龍菴有年。康熙甲子春。買舟東下。抵華岩。與聖和尚寒溫畢云。我此回來者裏死。望你燒我耳。岩戲謂傍僧云。打鼓著。僧云。作甚麼。岩云。送無和尚闍維。無云。多一日不得。少一日不得。及次日早。請知事分割衣鉢訖云。天無私覆。地無私載。人無私存。無私之名今日盡謝。後當止著呼余為界微矣。言訖而寂。

錦江禪燈卷第十

昭覺丈雪 通醉 輯

紹興幻菴 胡昇猷 訂

大鑑下第三十六世

弘覺忞法嗣

寧波府天童山曉哲禪師

長壽縣魏氏子。父國琦。世儒業。母陽氏。夢梵僧授一如意生師。幼見經書佛像。即知敬禮。從邑之定慧寺出家。慕南方禪宗。十九歲出峽。抵金陵聽講。適天童密雲老人至長干。師往請益。於是習參禪。二十一。從三昧和尚受具。遂參報恩玉林和尚打七。時不退首座監香。師以本參扣擊。座便掌。於此有省。復參牛過窓楞公案。如痴者三年。往見木陳和尚於雲門。一日值陞座。垂問。真月不問汝諸人。如何是第二月。眾下語不契。自云。賺殺人。師乃豁然。於古人機緣無不了了。然深自晦默。及木和尚再主天童。師充首座。順治十六年。隨老人赴 召。閱明歲。 上命近侍李國柱。選隆安寺。 賜紫衣。留師開法。於七月初三。師在大內萬善殿。承 旨謝恩畢。奉 勅入寺。近侍王國禧。口傳 睿旨。聖躬違和。未得親幸。特降御香賜帑金。差國禧。同慧善普應禪師等。請師為國開堂。拈香白椎竟。師云。我此法印。為欲利益世間故說。在所遊方勿妄宣傳。今日既遇佛心天子。不敢囊藏被蓋。特為舉揚。惟此法印。在天同天。在人同人。在聖不增。處凡不減。與佛無二致。與眾共生緣。是故天得之以清。地得之以寧。君王得之。而首出庶物。萬國咸寧。臣工得之。而燮理陰陽。調元贊化。士庶得之。而修身齊家。各安生業。衲僧得之。而法隨法行。法幢隨處建立。驀豎拂子云。喚作法印又是拂子。喚作拂子却是法印。於此見得徹去。方能道合君臣。地天交泰。跨象王之獨步。奮獅子之全威。照用同時。拈一機而千機頓赴。權實並用。示一法而萬法全彰。發太古清音。行斬新條令。然則舟車所至。人力所通。天之所覆。地之所載。日月所照。霜露所墜。莫不從此一印印開。且道。結角羅紋一句。落在甚麼處。金輪統御三千界。玉曆延鴻億萬春。復舉臨濟大師。於滹沱河側。建立黃檗宗旨。三日前後打普化克符公案。師云。握閫外威權。據寰中正令。不無臨濟。若是建立黃檗

宗旨。大遠在。何故。既建立宗旨。因甚只要二人成禪。暫山僧。恭奉綸音。於此建立天童宗旨。已賴聖天子出隻手去也。祇如現前大眾。又作麼生成禪。卓拄杖云。潑天門戶同撐起。萬國來賓法海寬。解夏上堂。鳳城春盡。薰風日日南來。奉勅安居。夜夜涼生紫閣。汝諸人還悟去也未。如未悟去。莫道解却布袋頭。便為無事。上堂。驅耕夫牛。奪饑人食。掀翻四大海。捏碎五須彌。未是奇特三昧。攪長河為酥酪。變大地作黃金。拈一莖草。作丈六金身。將丈六金身。作一莖草。未是奇特三昧。且如何是奇特三昧。十個指頭八個叉。一一不從他處得。有時喫飯解把筯。有時洗面摸著鼻。阿呵呵。真奇特。復鼓掌三下。喝一喝。中秋上堂。小時不識月。噉作白玉盤。又疑瑤臺鏡。飛上青雲端。以拂子打○相云。此是月耶。白玉盤耶。瑤臺鏡耶。試定當看。定當得出。心月孤圓。光吞萬象。獨超物外。覲體無依。若總捏目望空。莫道小時不識。直饒活到盡未來際。正好未識月在。祇如燕京城內。四五百條花柳巷。二三千處管絃樓。處處笙歌鼎沸。家家慶賞中秋。且道月在甚處。下弦看到廿三後。樹樹珊瑚掛玉鉤。人日大梅和尚到山。上堂。已未新春節。喜事頗堆疊。好風吹過山。梅子香撲鼻。露柱唱山歌。燈籠笑不徹。笑一日笑二日。呵呵。直笑至人日。且道笑個甚麼。天地人三才。何獨人有日。然則天是何日。地是何日。若也會得。拄杖三十。若也不會。拄杖三十。何故。百年三萬六千朝。日日原來是好日。解制上堂。臘雪消春風來。山僧打開布袋了也。一任翔於枋止於櫟。然則祥麟威鳳。又且如何。漫天網子百千重。示眾。靈雲見桃花。病眼有翳。香巖聞擊竹。老耳不聰。高沙彌拜倒戒臺。略較些子。雖然。若不登高望。焉知滄海寬。化緣將畢。說偈索浴跏趺而逝。世壽六十七。僧臘五十。三自盛京隆安寺。南還兩主杭州之佛日。繼遷蘇州包山。四明天童。凡五坐道場。有奏對錄一卷。全錄十餘卷。手編寶積錄九十三卷行世。窆全身於中峯。與密菴傑祖塔相附焉。戶部侍郎李仙根。撰碑銘。

浮石賢法嗣

嵎樵[汁*(十/甲/寸)]禪師

內江陰氏子。諱來章。于白鹿澹竹和尚落髮。參靜明丈雪和尚。職西堂。後得法于浮石和尚。遂徙山東諸城縣崇寧寺。示眾。左擊拂子云。竺乾四七。震旦二三。右擊云。南嶽石頭。臨濟德山。以拂子中間作拈華勢云。千年滯貨逢春日。和盤托出大家看。恁麼恁麼。花開鍊樹。不恁麼不恁麼。孟春猶寒。恁麼不恁麼。東風難掃

銀千界。不恁麼却恁麼。玉襯梅腮月一天。脫或總不恁麼。離四句絕百非。春秋不涉。節令不收。皇風蕩蕩。帝道平平。且當陽獨露一句。作麼生道。數盡遠山滄海日。一溪流水綠楊煙。

湖州府演教寺退岩泐禪師

井研陳氏子。參徧天下。末後見浮和尚。以印可焉。上堂。即心即佛。無繩而自縛。非心非佛。俊鷄不打籬邊雀。趙州見老南泉。解道鄭州出蘿蔔。即此物非他物。汝等諸人善持護。擬議便為魔眷屬。咄咄。金毛跳入野狐窟。午日上堂。山僧數年來。開個生藥舖。一切川廣藥材。俱已賣盡。單單祇有一味艸頭。至靈至驗。最妙最玄。不從天地之所生。亦非陰陽之所攝。向來不遇其時。不敢拈出。今朝恰值五月五日。不免拈來與諸人應箇時節。若是頂門具眼。肘後有符底。一舉便知偏正。若也一向耽于聲色。未免當面錯過。驀拈拄杖卓一卓云。還會麼。蠱毒之家水莫嘗。後住報恩。示眾。昨日蘇州走一轉。長街頭短巷尾。東來西去。不曾見個甚麼。惟猪肉案頭。塊塊精底。排列盤山面目。茶坊酒肆。句句春風。唱出樓子心肝。幾多觀聽者如風過樹。無限沉酣底似蝶戀花。貪生逐日區區去。喚不回頭爭奈何。示眾。冬至一陽。雪上加霜。山河大地。凍得岩崩石裂。萬象森羅。從教葉落枝傍。蝦蟇蚯蚓。未解翻身。猫兒狗子。焉識短長。諸仁者。有陰陽地上則不問。無陰陽地上又如何商量。良久喝一喝云。不是一番寒徹骨。爭得梅花破雪香。

林野奇法嗣

自閒覺禪師

蜀東合州余氏子。齠年禮太空老師脫白。十五歲遊講肆。備煉三學。參天童密老人。問萬法歸一機緣。被老人一踏有省。時林野和尚。住廣化寺。遂趨其席。而受印證。久之蘇州府嘉定縣羅漢禪寺眾。請主院事。上堂。等閑不欲向人前。何事而今却改轍。祇因狹路驀相逢。難免此回呈醜拙。既而躲避無門。直得著敝垢衣。與諸人葛藤一上。驀拈拂子云。若論此事。輝騰今古。含吐十虛。不可以智知。不可以識識。覷著則雙眼盲。嗅著則腦門裂。直饒三世諸佛。且立下風。歷代祖師。退身有分。若是沒量漢。禪道佛法一齊放下。却較些子。何須三登九上。七破蒲團。明眼人前一場笑具。且道據方就位一句作麼生道。良久云。四海浪平龍睡穩。九天雲靜

鶴飛高。舉臨濟大師初住河北。為普化克符云。我欲于此建立黃檗宗旨。汝二人可成禪我。二人珍重下去。三日後普化上來。問。和尚三日前道甚麼。濟便打。三日後克符上來問。三日前和尚打普化作甚麼。濟亦打。師云。臨濟老漢。恁麼建立黃檗宗旨。可謂斬釘截鉄。普化克符如斯成禪。亦乃千古榜樣。且道新羅漢恁麼舉。意歸于何。從前汗馬無人識。只要重論蓋代功。

華亭二隱謚禪師

榮昌金氏子。髻亂薙染。淵默簡易。從天童密老人。參究有年。一日聞鐘聲打徹。壬午秋。值林和尚繼席。機緣契合。因而印可。初開法于棲真寺。後遷華亭船子。上堂。鎮海明珠時時顯露。靈鋒寶劍日日現前。既爾本自圓成。何須畫地自限。然雖如是。爐鞴之所鈍鉄猶多。良醫之門病夫愈勝。所以久參上士。不必弄影勞形。未悟初機。應須猛著精采。忽爾失脚踏地。撲破娘生面門。直須遇一個咬猪狗手脚底人。東磨西錯。一錯錯得。通身眼露。方可將斷串索。穿天下衲僧鼻孔。到者裏。三世諸佛立在下風。歷代祖師傍觀無分。到恁麼田地。猶未是衲僧本分行履。作麼生是本分行履。松子火燒紅爛爛。炙得耳焦面皮黃。元宵上堂。龍燈鬪額。煙樹飛花。火噴人面。痛徹釋迦。正恁麼時。然燈古佛在甚麼處。交肩搭臂成羣醉。夜半笙歌扶到家。化緣將畢。因事波及。師嘆曰。本自無事。何故如此。乃問侍者曰。日午否。曰已過矣次日復問曰。日午否。曰正午也。遂說偈曰。昨日歸家時未至。今日歸家正午時。夢幻空花留不住。此心能有幾人知。言訖端坐而逝。由是當道莫不欽服。遐邇四眾聞之流涕焉。塔全身于宜興岷山之陽。

風穴雲峩喜禪師

資陽陳氏子。因觀死屍爛臭。乃動諸行無常之感。決志出家。父母難之。即自絕食。久而許之。遂投尊宿披剃。徧參知識。皆蒙策進。晚入天台。參林野奇和尚。問杖頭撥轉罕遇知音。狹路相逢如何通信。奇云。雲霧鎖千山。師曰。未到天台。不妨疑著。奇曰。持蠡酌海。妄測淺深。師曰。不因樵子徑。爭到葛洪家。奇曰。峰巒挺秀。鳥道難通。師便喝。奇打。于是親炙座下。一日侍遊山。奇問。山河大地明暗色空。與你自已是同是別。師曰。同則總同。別則總別。奇正色呵曰。說得道理好。師無對。奇即攔胸把住曰。除却總別異同。速道速道。師佇思。被奇驀向懸崖一推。胸中寶惜。廓爾冰消。回觀從前所得。如大海之一滴耳。即說偈曰。罷罷

罷。休休休。橫眠倒臥在山丘。翻身拶碎虚空骨。萬象森羅笑點頭。書呈方丈。奇乃印可。

大鑒下第三十七世

象崖珽法嗣

石谷慧禪師

合州江氏子。雖操教典。志在宗門。經二十年。疑團方破。既授受于象崖和尚。遂開法于雲獅雷水。上堂。慧燈爍地。文焰燭天。兩色交輝。光彌劫外。試問諸人會麼。會得。鼻孔雙垂。眉毛八字。稱時伸隻手。向無底船上。扶橈把柁。游浪苦海。度盡眾生。更無一生可度。然後與大肚老漢。把手呵呵。始知別有一端富貴。倘或未然。單看山僧拄杖子。腰纏十萬貫。騎鶴上揚州。後居成都佛山松鶴禪院。于庚子四月朔日。示微恙。說偈辭眾。潦倒孤硬石頭漢。返復娑婆千萬遍。來如枯木上春風。去如秋月中閃電。有時諸佛毛孔裏安眠。有時劍樹刀山上出現。萬里雲霄喝一聲。不比尋常[車*度]轢鑽。言訖而逝。

貴陽雲腹智禪師

渠縣人。幼出俗于水月菴。初參雪門。後參象崖和尚印可。上堂。三陽運轉。萬物咸新。春和境秀。已解碧潭之凝冰。處處歌歡。盡賀元旦之新節。只如不涉新舊一句。又作麼生。明明歷歷無今古。乾坤何處不光輝。元宵上堂。孟春猶寒。瑞雪鋪成銀世界。滴水冰生。山川變作玉琉璃。不見道。寒時寒殺闍黎。熱時熱殺闍黎。諸人若向不寒不熱處透得。便能脫羅網超三界。不被寒暑所遷。方為物外閒人。其或未然。處處明燈光爍爍。珍重禪人著眼看。解制上堂。開爐結制九十日。衲僧個個討巴鼻。惡辣鉗鎚不饒伊。擬議開口驀頭劈。娘生鼻孔搭上唇。脚跟下事明如日。今朝解開布袋口。任意縱橫東西去。且道清涼長老又作麼生。橫擔拄杖云。本是山中人。還歸山中去。

曲靖府東山余山瑞禪師

廣安人。賦性冲澹。于世邈焉。嗣法于象崖珽禪師。上堂。乾屎橛。憑空拋出一團鍊。打破諸人熱面皮。只得有口難分說。赤脚波

斯入大唐。東海鯉魚先漏洩。紫羅帳裏散珍珠。笑殺胡僧牙齒缺。顧左右云。無位真人在甚麼處著。上堂。離心意識參。拶碎鍬門關。泥牛咂出海。撞倒須彌山。絕凡聖路學。虚空少隻脚。問取老雲門。惡水當頭潑。眾中有不被惡水者麼。咄。無端終日去貪嗔。棒頭鋒利活人心。恰似紫胡一隻狗。張牙露爪不容情。具眼禪流來看破。高聲大罵野狐精。偷得雲門乾屎橛。不分貴賤要誰吞。家餐不受人間火。煅煉須憑爐鞴砧。銅頭鍬額難下嘴。師子嚙呻跳出羣。雲南常樂院。上堂。千手千眼個大悲。照徹人間是與非。地軸全提超萬象。師絃音韻透須彌。眾中還有當機者麼。顧視左右卓拄杖下座。自贊。覲面無私。遼天拄杖。當機撞著。劈頭一棒。觸背雙關。聖凡不讓。縱奪臨時。打開心量。借問阿誰。余山和尚。法語。轉天關回地軸。擒虎兇辨龍蛇。須是大丈夫漢活潑潑的。始得句句相投。機機相應。且道從上還有甚麼人。承當個事。癸亥夏。寓雲南曲靖府東山寺。世壽七十四。示微恙。塔于本山。

靈筏昌法嗣

紫芝藏禪師

巴縣張氏子。自髻披剃于大峩。參靈筏和尚。巾瓶有年。一日印可。後開法于竹林堂。上堂。坐斷天下人舌頭。平地孤危峻峭。打開如意輪寶藏。無端境智歷然。以一心為無量心。示一法即一切法。頓使人人不昧。原來法法現成。千百年古柏恒新。億萬載流金掩映。雖然如是。抑且罕遇知音。作麼生是知音者。瞎堂去後無相識。誰料圓公今日來。上堂。豎拂子云。高高無外。深深無際。人天根本。祖佛淵流。昆蟲艸木鳥獸龍魚。莫不承此威光。各見本來面目。惟有竹林獨脫一路。迥出眾流。于無言處顯言。向無用中發用。能使魔王拱手。雲水歸心。著著明本來機。頭頭彰奇特事。且如何是奇特事。參。

雪臂巒法嗣

桂陽語嵩裔禪師

巴縣宋氏子。廿歲出家。參破雪和尚。打破漆桶。值雪臂和尚印證。開法于牟尼禪院。上堂。吹毛寶劍久藏匣中。今朝拔出。孰敢當鋒。魔王盡喪。百怪潛踪。三世諸佛總立下風。一花五葉讓誰立宗。十世古今一時流通。正恁麼時。河清海晏。萬國來降。處處村

歌社飲。家家嘯月吟風。且道新長老到院一句。還有唱和者麼。舉頭天外看。誰是我般人。上堂。昨日山前堆白雪。今朝座上起清風。不是有不是空。覲體相呈向上宗。崖畔石女睡初惺。拍手呵呵笑不窮。大眾且道。笑個甚麼。顧左右云。笑山僧不惜眉毛。上堂。祝延今上適拈香。舜日高輝照大荒。只得青天無點翳。冰消瓦解絕商量。石頭瓦礫皆歡喜。艸木昆蟲盡放光。密密流通正法眼。綿綿續焰廣敷揚。當機奮迅能哮吼。始入西山選佛場。不讓丈師親馬祖。還同臨濟個顛狂。據虎頭兮捉虎尾。三玄三要播諸方。上堂。吾年四十七。韶光劈箭急。愧無應世才。却有住山益。茅屋兩三間。穩密更穩密。幸值大金湯。猶添外護力。法令正當行。妖魔皆絕跡。九苞之雛羽翼齊。金毛師子便返躑。鳴者鳴吼者吼。大震乾坤。高輝佛日。天上天下獨稱尊。世出世間誰能敵。正恁麼時。四海謳歌歸聖化。萬邦納表普稱臣。示眾。久雨不晴。巖巒幽陰。白雲在戶。庭艸漸深。林下衲子合作麼生。乃喝云。虛空粉碎。大地平沉。倏然送出一輪紅日。依舊普天匝地光明。且不屬晴雨一句作麼生道。幾片白雲橫世界。個中誰是出頭人。病中示眾。吾年五十七。無補法門益。拜掃上天童。老病相催逼。示病原非病。此意許誰識。氣岸幸不衰。筋骨有餘力。喝破嶺頭雲。迸出當天日。光輝徹四維。烜赫照今昔。莫占眾生塔。何須苦覓地。拋向大江中。魚龍一飽去。擲筆而逝。

敏樹相法嗣

南浦天圓寺耳毒泰禪師

長壽徐氏子。魁偉淵弘。弗諳細務。神凝膽怕。于世邈然。破老人常呼為布袋子。嗣法于敏樹和尚。上堂。太陽溢目。萬里不挂片雲。秋水澄清。一淵能涵眾水。龍吟霧起。虎嘯風生。覷井覷驢。日面月面。栗棘蓬金剛圈。乾屎橛蘼三斤。都盧放在一邊。直向佛頭上著屎。獅頷下解鈴者。是甚麼人。不離當處常湛然。覓則知君不可見。解制上堂。今朝五月十五。和風匝地均普。家家捲幔收簾。戶戶笙歌社舞。五峰總不恁麼。放出衲僧莽鹵。東打西敲兮藏鋒結舌。擊竹指花兮遁跡潛踪。一恁縱橫宇宙。戴角擎頭。不因惡辣鉗鎚。奚具者般作略。以拄杖卓一下云。元宵佳節人人見。此事分明那個知。上堂。瞿曇三大藏。用盡機謀。老子五千言。做盡伎倆。拈來用不著。何必苦思量。若向威音已前薦取。大似銀山鍊壁一鎚擊碎。拋在巨海。不存粟米粒。驚得泥牛吼水面。木馬逐嘶

風。從教浪起船高。風行艸偃。何故。兩岸蘆花渾似雪。一天星月白如銀。

天隱崇禪師

墊江畢氏子。參徧諸方。末後于敏樹和尚處打徹。以嗣法焉。住貴州思南府朗溪司太平禪院。上堂。千聖出世。惟究一心。建立五宗。單傳直指。承言滯句者。埋沒家寶。行棒行喝底。未透根源。與麼吐露。沾唇罣齒。直饒薦得。早是無端。上堂。問如何是臨濟三玄戈甲。師和聲便打。進云。打即不無。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棒下無生忍。臨機放過誰。進云。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自從分破華山後。直至而今讓巨靈。進云。如何是人境兩俱奪。師放下拄杖云。不用展戈矛。歌謠賀太平。進云。如何是人境俱不奪。師云。海晏河清歌舜日。黎民庶子樂堯天。進云。如何是第一玄。師云。拄杖頭上為你言。進云。如何是第二玄。師云。舌條元在齒唇邊。進云。如何是第三玄。師云。臨濟不解意。徒勞話目前。進云如何是第一要。相逢懶開口。棒頭已先到。進云。如何是第二要。師云。一擊頂[寧*頁]開。千聖絕玄妙。進云。如何是第三要。師云。脚瘦艸鞋寬。踏徧長安道。進云。三玄三要蒙師指。向上宗乘事若何。師云。切忌落他圈績。乃云。臨濟嘉聲起河北。太平宗旨建朗溪。莫言此日非他日。嫡骨冤流接上機。遂擲拄杖云。山僧恁麼告報。還知新太平不動鎗旗。演三玄戈甲麼。未舉鉗鎚。融攝洞山五位君臣麼。隨機扣發。撥開雲門一字關麼。俠劍隨身。劃破仰山九十六種圓相麼。了無同異。功超法眼六相義門麼。于此透脫親見老僧。方識五宗之門庭。弗疑千聖之權實。喝一喝下座。

聖壽空谷澄禪師

忠州楊氏子。參徧諸方。回峽嗣敏和尚。初住三聖寺。次徙宸京。順承王迎住白塔真如禪院。上堂。問如何是誕生王子。師云。覲面甚親切。進云。如何是化生王子。師云。橫擔日月行。進云。如何是朝生王子。師云。滿盤羅列。進云。如何是末生王子。師云。隱顯莫測。進云。如何是內生王子。師云。銅符鍊櫛。進云。王子五位蒙師指。即今陞座事若何。師云。瞬目揮心旨。回頭衍正宗。進云。恁麼則說法已竟。師云。至意惟同天地老。清名永共道風香。顧左右云。八荒寧謐。四海清平。佛心天子治世之時。賢王大臣深信三寶。興隆祖道。扶樹宗風。澄上座愚魯。無禪可參。無法可

說。只記得從前于空王山中。有首牧牛歌。今向人天眾前拈出。震威一喝。向者裏薦得。不勞行脚。如或未然。更買艸鞋始得。

黔靈赤松嶺禪師

潼川韓氏子。年十五。每思浮世轉眼成空。遂入山修持。艸衣木食。甘苦自若。嘗閱華嚴。至如來現相品。世尊與諸天說法。諸天常聞天鼓之音。此音非從四維上下來。不生不滅。如我說法亦復如是。不覺失聲有省。遊遵義海龍山。依敏樹和尚。久而記莧。住貴陽府壽世禪院。結制上堂。為因出世緣。隨事立賓主。不落套頭禪。養成戴角虎。珍重脚跟行。中途莫莽鹵。山僧恁麼道。憐兒不覺醜。還有識機宜具正眼者麼。良久喝一喝。上堂。解制機緣。本無言句。抹月披風。隨緣去住。唱出無生曲。打起禾山鼓。個個人圓明。不傍他門戶。恁麼行脚人。盡作師子舞。他日出頭來。定是主中主。

夔州府開元寺繼初尚禪師

湖廣宜都陳氏子。年二十。禮映虛老師披剃。入鳳皇山住靜。誓云。若不發明。永不下山。木食澗飲幾五年。一日困倦危坐。不覺夜半。恍若山崩有聲。駭得通身汗下。豁然無礙。自此不疑天下老和上舌頭也。遂下山。詣雙桂破老人處圓具。後造慈雲敏樹和尚。而受印可。康熙己酉。夔府太守熊公。總戎馬公。請住開元禪寺。上堂。雲從龍風從虎。一道寒光天地普。葵花向日傾。柳絮隨風舞。新長老到來。且應時機。只得順風把柁。見兔放鷹。有時恁麼。人間天上。有時不恁麼。水泄不通。驀拈拄杖云。且道把斷要津一句。作麼生道。喝一喝云。官不容針。私通車馬。

澹竹密法嗣

萬壽曉元濟禪師

隆昌劉氏子。因讀大珠錄。至眼似眉毛道始寧。決志出家。首參破老人契旨。後從澹和尚印可。開法于萬壽禪寺。上堂。拈拄杖云。威音王_已前。有者個消息。大悲千手摸不著。威音王_已後。無者個消息。盡大地人顛躑不起。正恁麼時。擲瞎摩醯眼睛。穿却諸人鼻孔。且如何道得分明去。良久云。山僧罪過。上堂。二月清明天。物物盡爭妍。百花開燦爛。隄柳正拖煙。處處文殊現。頭頭是普

賢。忽遇拄杖子。稽首向其前。一時公驗過。無黨亦無偏。既無黨無偏。如何安置。以杖左指左顧。右指右顧云。家醜不可外揚。小參。天寒人寒。個裏廝挨。現成活計。不用安排。禦饑炊糲飯。助煖著乾柴。物物頭頭自偶諧。農家一等只平懷。呆呆兀坐巉崖下。惹得天花動地來。正恁麼時。且如何與諸人折合。卓拄杖云。杖底一輪紅。雲霧斂長空。烏龜鑽破壁。露柱笑燈籠。呵呵下座。

紫微自徹琛禪師

簡州吳氏子中歲出塵。依白鹿澹和尚削染。深得法要。仍歸紫微山。作偈云。亘古日東出。元歸西崦沒。逢寅但早起。遇亥將肱曲。應用有些子。古今無所屬。他時解翻身。躍出師王窟。

艸堂吼一等禪師

榮昌王氏子。嗣法于白鹿澹和尚。住錦官艸堂寺。上堂。一回春又一回新。漫把家私說向人。眼裏有筋能見色。耳中有誰能得聞。魚行不動水。鳥飛不挂雲。打動禾山鼓。扶起破砂盆。以手作扶勢云。看看。住湔城開講寺。上堂。湔水潭中浪拍天。星星漁火簇漁船。竿頭絲線垂纖餌。破浪金鱗何處潛。以杖作釣勢云。有麼有麼。復住艸堂法席。以優老焉。

充裕印禪師

渝州丁氏子。自幼出塵。淵默嚴肅。機契大隋澹和上。遂印證焉。住新都之慈壽。張趙二居士。送法衣至。上堂。苦志勞形野鶴棲。耨雲鋤月已忘機。慚無氣力揚家醜。篤喜長年著垢衣。拈起衣云。此是新底。如何是舊底。良久云。問取張公與趙公。住成都艸堂。上堂。柳栗橫擔入艸堂。龍驤虎驟正春陽。且無涼德光先祖。引水澆蔬待後郎。元旦上堂。一住艸堂已二春。陽舒陰卷事難評。秉鈞造化誰為主。七尺烏藤與證明。

寶光從谷習禪師

安福人。少混戎馬中。拓落有大志。喜白鹿澹和尚鉗鎚妙密。乃自肯以嗣法焉。四眾迎主新都寶光寺。上堂。正恁麼時絕點塵。阿誰能識舊時人。堂堂覲面無遮護。擬議思惟萬里雲。卓拄杖云。徹底

無依活潑潑。明同杲日耀乾坤。衲僧于此親薦得。眼聲耳色妙難論。

博山來法嗣

獨峰竹山道巖禪師

大竹沈氏子。幼失恃怙。總角染衣。子影南遊。志求心要。因閱楞嚴印心之旨。身心世界頓然忽空。乃云。我來亭上如心處。說與時人未了然。罷講投白門博山來禪師。授西堂職。一日印證云。博山一枝橫出。秘在汝心。即令具戒。授名道巖。後遷江浦獨峰。師易為中定禪院。上堂。元亨利貞乾之德也。威音為諸佛之元。飲光乃諸祖之始。元始要終。授受古今。茲一歲之元日。三際之初辰。皇風啟祚。朝野咸新。拈拄杖云。君王向者裏。安邦定國。垂拱升平。公卿向者裏。輔佐化育。鼎鼐調羹。臨濟之全提玄要。照用同時。洞山之妙叶君臣。玄踪鳥道。為仰之圓機殺活。父子同條。雲門之顧鑒直指。門庭高峻。法眼之色聲密用。心法圓明。五宗異戶。堂奧同登。其合原一句作麼生道。卓拄杖云。三五元和天下麗。一枝梅放嶺頭春。

青龍百愚法嗣

京兆薦福紫谷禪師

左綿廖氏子。嗣法于百愚和尚。上堂。把住乾坤不放鬆。大千爐鞴扇通紅。森羅萬象齊烹煉。要逼生蛇化活龍。驀豎拂子云。上大人。頭上有青天。脚下無寸土。墻壁瓦礫是古佛心。帶水拖泥乃第一義。會麼。就中有一句。能滅千災。成就萬德。有一句。百福莊嚴。纖塵不立。有一句。極盡今時。不居那畔。且道。是那一句。[妳-女+口]。上堂。虛空背上白毛生。拔了一莖又一莖。石女囊中撚玉線。木童天外度金針。織成古錦含春象。不把金針度與人。若薦後天為祖父。便知古佛是兒孫。大眾。還知者個關捩落處麼。只饒是個經天緯地出格英靈。向者裏擔荷正眼。觀來猶是雲居羅漢。舉拂子召眾云。見麼。者一著子。與三世諸佛同參。和法界含靈共壽。釋迦不先。彌勒不後。未涉化門。早以漏逗。是個甚麼。是無上呪。是無等等呪。

錦江禪燈卷第十一

昭覺丈雪 通醉 輯

紹興幻菴 胡昇猷 訂

大鑒下第三十七世

丈雪醉法嗣

溪聲圓禪師

平山人。家以世襲。常為廖中丞營將。因闖寇犯蜀不職。始削染隱于綏陽山中。居無何火菴。參牛山丈和尚圓具。總院事數稔。丈受禹門請。以衣院付之。開法上堂。從上來事。坐不當堂。歷代興慈。行不出戶。不獲已祇得向虛空掘洞。開第二義門。拈椎豎拂。棒喝交馳。或松根掃地。或街頭等人。乃至張弓擎叉。吹毛輓毬。山僧雖是他家種艸。畢竟不向者裏藏身。喝一喝。四威儀。山中行。赤足印泥痕。登石走。驚惶地頭人。山中住。壁上開個戶。人客來。奉敬大蘿蔔。山中坐。蒲團破又破。沒邊攔。不敢從新作。山中臥。紙被落頭裏。翻身來。兩頭俱登破。破衲歌。看者破衲個。破得太索絡。斤兩剛七斤。多少人不作。泥豬癩狗盡該羅。跛鼈盲龜被伊縛。雨也打不溼。風也吹不著。披自塵沙却前。綻則千補百綴。無貴賤與人拈弄。有剪尺與人裁度。從來不晒眼。東擲西拋。一向不洗浣。汗臭氣大。東土衲子禮三拜。寒溫入髓。西天尊者立微笑。擺他不脫。分明蓋覆赤肉團。無位真人盡包裹。山野一生多快活。全憑此領破衲個。後徙平武示寂。收骸襯。塔于昭覺祖塔之左。

安龍府月幢了禪師

江津毛氏子。母夢僧送桃噉之。有娠。年十六。因閱楞嚴。疑情頓發。遂白母薙染。遍參尊宿。忽一夜心境俱空。豁然有省。禮丈和尚于禹門。職維那。師資道契。癸巳冬。開法滇南石寶禪院。永曆帝嚮其道風。請開示求偈。法名真佛。上錫椹服。恩渥甚厚。發帑藏為國祝釐。兩奏表呈偈頌。皇情大悅。上堂。天不能蓋。地不能載。包括五須彌。吐納大千界。釋迦彌勒無地容身。文殊普賢有意難解。生死涅槃劃斷。真如佛性捉敗。雖然如是。為國開堂一句。

作麼生道。頓超諸佛祖師意。仰祝吾皇億萬春。上堂。南明有口也難言。坐斷千差不直錢。今對人天陳絡索。直教切切悟心田。無邊苦海皆甘露。髑髏特地契根源。後徙安龍玉泉寺。于丙午冬示微恙。辭眾。偶有僧二人。謂某某相侍和尚前行。一僧無病而逝。師圓寂後。一僧相繼而終。闍維于玉泉寺之後。侍僧兩塔列左右焉。世壽五十三。僧臘三十七。

長松端鼻萬禪師

內江郭氏子。因聽楞嚴。疑常住真心。屢求決擇。未有所入。上白雲洞。參鑒隨和尚。夜夢異僧。鬚髮如銀。撫掌三下云。急急念佛。寤作偈曰。夢感異僧撫掌來。彌陀歷歷鑄心臺。回思恩愛情塵路。伐性斧斤漫剪裁。遂偕雲峩下江安蟠龍寺。參破老人。制中每叩心要。因甲乙獻逆陷蜀。結茅于桂陽。己丑參丈和尚于白牛山圓具。侍從過禹門寺。閱天童密祖錄。中有進退之語。礙膺三年。一日渾然如夢忽醒。了無凝滯。作頌曰。進退之中兩重關。英雄多少困其間。明明有路通霄漢。不是前三與後三。即蒙印可。識闢長松靈峰寺。眾請陞座。堅辭弗許。志喜遊覽。觸境逢緣輒成偈語。其略云。孤峯鎮夜境寥寥。入戶寒風不暇逃。寓富矜持嫌富少。居貧守素樂貧高。珍饈何似黃精沃。麗服無如百結袍。普應萬機歌雪曲。海天一色快吾曹。

懶生昇禪師

榮昌簡氏子。幼秉淵默。骨力孤騫。矢志參禪。徧訪尊宿。再參禹門丈和尚。機語相扣。後寓金川高峰。上堂。一向抱拙安貧。今朝遮掩不住。雖然露醜萬端。務要諸人照顧。且照顧個甚麼。拂一拂云。山頭老漢強推出。走向人前都不顧。笑殺當年面壁翁。赤窮到底嘴生[撲-口+白]。喝一喝。後省覲丈老人于昭覺。適遇提刑幻菴胡公。松齋宋公。案山張公。以送鴻為題作偈。師躍然曰。子幸生于大有年。縱橫瀟灑雜晴天。飽經一肚桃花雨。撥亂干隄楊柳煙。倦去影隨霄漢盡。健來心在白雲邊。信知物外閒遊客。方寸同乎宇宙寬。又思梅偈云。瘦骨冰肌意未銷。疎狂那復萬山朝。翻他物表真豪傑。勢壓南溟弗寂寥。好鳥啄殘風習習。遊蜂采慕雨瀟瀟。知君舊有瑤臺約。不負初懷辱見招。康熙乙丑正月八日。示微恙。端坐而逝。闍維。收堅固子如菽伯什。似粟者若干。嗣法門人竹友芥腹。賈回雒源高峰。建翠堵波。壽七十四。臘五十二。

昆明香國大憨我禪師

蜀南何氏子。嗣法于禹門丈和尚。祈晴上堂。烈性生橫禿木干。天花亂墜斗牛寒。頻敲雨色千秋祝。撥轉晴輝萬象安。八字打開門兩扇。當陽拋出海來寬。行人莫謂蒼穹苦。剔起眉毛仔細看。佛誕上堂。自從結却龍湫舌。容貌居然天下絕。本是護明初度時。恍如舍脂離金闕。玉樓人見且風流。猶倚紅羅扇遮月。不是男兒不黑心。男兒只恐心無血。縱然洗見骨頭來。其髓何曾及時節。珍重毗藍園裏人。顧絲毫水鑒眉睫。

大慈懶石聆禪師

忠州張氏子。初參雙桂明和尚于石柱司。後侍丈和尚。過漢中開法靜明。一見提唱。胸次豁然。受印可而繼席焉。大名王請上堂。宇宙渾圖一座爐。當陽日月熾然孤。靜明今日重添炭。高舉鉗鎚意自舒。萬象森羅增瑞色。三賢十聖嘴盧都。銅頭鍊額難迴避。煉得通身絕點無。所以道。般若如大火聚。近之則燎却面門。如太阿鋒。觸之則喪身失命。正恁麼時。翻身垂手者。是甚麼人。海底金烏天上日。眼中童子面前人。上堂。一夏以來亡鋒結舌。今日因齋慶贊。向開口不得處。扭轉舌頭。與諸人通個消息。夏末秋初七月天。西風拂綠柳含煙。香同湛水和空碧。迥出木义體相圓。此四句中。有一句包羅萬彙。氣絕諸塵。三世諸佛沒奈何。歷代祖師難摸索。若檢點得出。一生參學事畢。上堂。摩天日月輝今古。大道何曾有異睹。夜半虛空撲落地。萬象歌歡森羅舞。秘魔叉禾山鼓。趙州茶雲門普。甜者甜兮苦者苦。爭似今朝二十五。示禪人法語。索我臨行句。胸中無一字。寫出不成文。念來非有義。弗是妙蓮花。亦非祖師意。持去見諸方。眼底生荊棘。不善打葛藤。慣用吹毛利。若作一句看。失却自家事。文彩未彰前。十有九不契。靜明鍊蒺藜。一恁汝啗啖。忽然啖破時。來與你棒喫。住雲南府商山寺。上堂。八萬四千陀羅尼門。都從者裏建立。新長老到此施設一句。作麼生道。廓徹圓通何所闕。縱橫瀟灑透長安。

彝陵洪山憨月聞禪師

台州黃氏子。嗣法于靜明丈和尚。上堂。塗毒鼓當軒擊。一曲橫吹無孔笛。匝地人天普集來。坐斷十方明歷歷。藤條不比洞山麻穿過陝府鍊牛鼻。嘉州大像痛含冤。裂破元機沒意智。昆蟲艸木遍回春。大地山河歸武庫。山門八字泊天開。凡聖交參誰獨步。應時及

節則不無。且作麼生是殺人刀活人劍。參。結夏上堂。三月安居。九旬禁足。古之今之。倚門傍戶。平地干戈。孫臏賣卜。又何妨播鼓敲鐘。請山僧拈椎豎拂。盡說結制上堂。難瞞人天眼目。咄。上堂。踢倒百億須彌。打翻無量法窟。擔當宇宙直指。按定乾坤肌骨。山川人物有多種。明暗色空無兩般。所以道。大用現前不存軌則。縱然機智弘深。神通廣大。脚跟下猶欠一頓。何故。龍蛇易辨。衲子難瞞。

佛冤綱禪師

內江李氏子。廿齡于禹門丈和尚會下削染。世味邈然。巾瓶甘稔。兩下吳越。寓堯峰費和尚座下。圓具。侍丈和尚歸靜明。始印證。命主昭覺。上堂。通方上士。鑒在機先。靈機密運。情量超然。星持漢地。月落楚天。所以目前消息。非口耳之所傳。看他從上諸聖。千種喻萬般言。用盡機輪徒枉然。若要深深海底立。直雖打破上頭關。且道用何伎倆。良久云。挨落須彌如輥芥。鞦來不礙剎那間。冬至上堂。靈山祖令。頓使人人頂門迸裂。昭覺權衡。總教個個舌頭覆天。可以一語分玄要。一句定綱宗。轉天關回地軸。祇如西天人說話。東土人未諳。又作麼生。以拂子打圓相云。總出者個不得。既出不得。正值日南添一綫。猶然徹骨寒光陰。如薦得。眉毛眼上橫。向此透脫。始可顯大機發大用。縱橫無礙。其或不然。當陽不薦好風光。寒逼無由得解脫。歲旦上堂。今年今日從頭起。社舞村歌隔塢喧。無意氣時增意氣。百艸頭邊消息傳。且道傳個甚麼。豎杖云。青原酒。趙州茶。三杯兩盞。醉臥煙霞。大底風流出當家。好個話端。被先覺盡形吐露了也。然雖如是。猶有個新鮮句子在。元正啟祚萬物亨佳。霜花冰艷風月堪誇。門外讀書人來報。逢酒須酒遇茶即茶。者般豐儉任隨家。祇如新年頭佛法。鏡清道有。明教道無。合作麼生。卓拄杖云。不得心頭空及第。嶺畔梅花解笑人。上堂。住持一稔來。逢冬兩結制。開口泄天機。舉目露真智。不唱言前機。豈談句後意。等閑築著鼻孔頭。銕眼銅睛覷不及。遂豎拄杖云。有定亂劍。四海晏清。放下拄杖云。無白澤圖。千魔斂跡。祇如報恩一句作麼生道。軒昂宇宙當風掛。萬里河山壯帝畿。後回里重闢古字山。丈老人八旬。仍旋昭覺。

雲南半生裏禪師

南隆人。廿歲于給孤寺落髮。聞丈和尚開法興元。躬禮參究。侍隨有年。遂蒙授受。住滇之北勝州開北寺。上堂。棒打石人頭。玄黃

滿面羞。瞠著玲瓏眼。驚起碧天流。橫披千丈月。親登白玉樓。雲煙縹緲處。山水共悠悠。上堂。把住則牢關緊閉。佛祖難窺。放行則北斗藏身。真風遍界。舒之卷之。盡大地撮來。如粟米粒大。瞻之仰之。無處不是諸佛心髓。參。小參。乘槎誤入斗牛橋。壓破虛空不假橈。珍重風雲齊著力。無鑄鎖子兩頭搖。丙辰佛誕日。無恙而逝。荼毗。獲五色舍利數十顆。纍塔于青門寺右。

閬中艸堂禪雲實禪師

本邑楊氏子。髫年落髮。初參費和尚于福嚴。聞丈和尚于艸堂開法。遂歸艸堂。言下契機印證。命繼艸堂法席。上堂。德山棒。臨濟喝。石鞏張弓。道吾舞笏。雪峰毬。普化鐸。驚起楊岐三脚驢。踏倒三山并五嶽。阿呵呵。好大哥。也好現前驀面唾。解制上堂。今朝正月十五。行者搥鐘搥鼓。分咐山門大啟。放出玄沙猛虎。踞地爪牙斑斑。觸發氣吞佛祖。遂震威一喝云。猫兒偏解捉老鼠。

遵義府禹門寺半月涵禪師

鄰水人。廿歲于丈和尚處落髮。後參破老人于雙桂。大死一番。如夢忽醒。仍旋昭覺。印證禹門。四眾請為繼席。上堂。玄機一唱。只貴知音。祖印高提。流通正眼。演無生之真乘。恢彰本有。樹迦文之赤幟。揭示當人。普說學道如登山。直須到頂。猶若行船。直須到淵。至頂方知宇宙之寬廣。到淵始覺湖海之淺深。所謂參須真參。悟須實悟。學者偷心不歇。門外打之遶。反咎禪道不靈驗。寢食俱損。偷心放下。啐地折爆地斷。無量劫來生死根本。一照照破。天下善知識。不奈伊何。正好于涵上座手裏喫棒。何故。不是一番寒徹骨。爭得梅花撲鼻香。

問潮嶼禪師

鄧陵李氏子。齟齬出家。參徧諸方。末見丈和尚于鶴乘。寓書記寮。三十餘稔。侍闕昭覺記荊。丙寅元旦。老人耄齡。命秉拂上堂。一人有慶。八表寧謐。冷暖相參。淡濃吐翠。雍熙振振齊捧日。肄業蒼蒼雨露中。時節既如此。物我悉皆春。不屬陰陽造化。奚假陶鑄功勛。羣荒不藉東皇力。爭得從容吐異香。豎拄杖云。既不屬陰陽造化。又不逐新舊逢迎。畢竟如何趨向。喝一喝云。還知麼。四海揚眉歌舜日。萬靈低首賀堯天。

青城竹浪生禪師

定遠王氏子。廿歲于有餘師處薙染。上瀘陽雲峰體宗和尚座下圓具。參徧諸方。各有機緣。備載本錄。後歸昭覺而嗣法焉。遂入青城。閱周三藏。康熙辛酉。丈和尚命回昭覺繼席。上堂。摩醯正眼。洞徹十虛。嘉陵仙音。徧周沙界。驀拈拄杖打圓相云。者個是摩醯正眼。復卓云。者個是嘉陵仙音。中下之機對境還迷。直饒聞見分明。不無觸途成滯。恁麼則橫揩日月。不恁麼則豎抹乾坤。恁麼中有不恁麼。該羅萬象。不恁麼中却恁麼。山僧口門窄。不能下註脚。三載畢仍歸青城鳳林開法。元旦上堂。心珠朗曜亙古恒明。性海汪洋纖塵不涉。湛寂凝然本無形狀。動靜二相了然不生。光灼灼平帖帖。[妳-女+口]。今乃元旦首期。欲作一家燕賞。請三世諸佛及十二類眾生。以金剛輪際為竈。空輪為釜。水輪為量。三艸二木作薪。風輪為炊。須彌盧作飯。香水海為羹。地輪為桌。于無陰陽地上鋪設。多不加增。少不加減。無言童子出來。吹無孔笛。彈無弦琴。唱無生曲。奏無生樂。拂云。還見麼。擊云。還聞麼。諸佛眾生異口同音道。我適曾供養。今復還親覲。癸酉奉丈和尚命。再下嘉禾。刻錦江禪燈並全錄。附楞嚴藏室流通。

月莖字禪師

江陵雷氏子。十六歲父母俱背。遂禮石巖和尚薙髮。聞昭覺丈和尚禪宗丕振。遂瓢笠躬謁。契機而印可。住綏陽五涯寺。上堂。大道無向背。至理絕言詮。迥出三賢。高超十地。直饒釋迦彌勒到來。不敢承當。文殊普賢。無容擬議。古德道。盡乾坤大地。撮來如粟米粒大。猶未是極則之談。且道。全提正令一句如何。良久云。行到水窮處。坐看雲起時。浴佛上堂。身光熾盛。誰敢動著纖毫。妙相圓明。切忌當頭觸犯。即今不肖兒孫。祇得應個時節。用性空真水。有時波瀾浩渺。有時徹底澄清。敢問大眾。浴即是。不浴即是。以拂子作澆水勢云。盡道水能滌塵垢。水垢元來不二門。

雅安東山佛明清禪師

金堂湯氏子。廿歲出塵。徧參諸方。詣昭覺見丈和尚。相依三十餘祀。遂授受。後住東山。臘八上堂。洪濛未判。世界囷圀。無古無今。無去無來。往復無際。動靜一源。洪濛既判。通暢十方。玲瓏八面。頭頭顯露。法法全彰。放去收來無可不可。喚作向上宗乘。山僧不敢平地起風波。喚作衲僧巴鼻。亦是好肉剜瘡。且道。畢竟

如何行履。良久云。掀翻海嶽和天碧。撥轉機輪見太平。元宵上堂。敲鐘擊鼓。火樹生輝。松煙燦爛。覷破娘生面皮。星橋衍慶。識得本地風光。復舉瀉山在百丈處。侍立次。丈問誰。瀉云某甲。丈云。汝撥爐中。有火否。瀉便撥云無火。丈躬起深撥得少火。拈以示之云。汝道無。者個[妳-女+口]。瀉因此悟入。次日同百丈入山作務。丈云。將得火來麼。瀉曰將得。丈曰。在甚麼處。瀉拈一枝柴。吹兩吹度與丈。丈曰。如蟲禦木。師云。敢問大眾。是有火無火。驀拈拂子作吹勢云。我見燈明佛。本光瑞如此。

竹鏡嵩禪師

內江汪氏子。形聲坦率。慧目淵冲。參徧諸方。後印可于昭覺老人。住眉州中岩。誕日上堂。劫年方外幾曾遊。殊覺今朝五十秋。拄杖顛拈雖艸索。三要三玄一卓收。遂卓拄杖云。努力一番親見得。合水和泥當下周。識得脚跟下面事。百千諸佛是吾儔。諸佛且止。如何是脚跟下事。復卓拄杖喝云。話頭也不識。小參。僧問。和尚今朝毋難且止。如何是未生前事。師云。萬里晴空色。片雲不見遮。進云。如何是學人本來面目。師云。雨滴簷前聲索索。岩高疊落影參參。僧禮拜。師云。本來一個金剛體。此處圓成即覺仙。今日中岩重指示。當天日月等齊年。

不二貴禪師

鳳翔高氏子。廿歲落髮。參徧諸方。入蜀見丈和尚于昭覺。因汲水睹影。因一聲。原來在者裏。而嗣法焉。後至燕京嚴淨寺。除夕上堂。飄蓬落落近天樞。殊意今宵又值除。衲子家私分外別。霜風凜凜扇皇都。神機弗假袪儻子。赤幟高懸法令初。不舊不新無事漢。惟凭拄杖作桃符。以杖作插牌勢云。急急如律令。下座。

松齋中禪師

宜賓朱氏子。諱肄樟。少儒業。丁酉孝廉。三赴燕京未捷。乃自嘆云。功名虛幻。即趨昭覺削染。冬夏一衲。兀然自適。深究玄奧。凡與老人問答機緣。亦箭鋒相觸。當仁不讓。一日問。大地眾生悉皆正覺。因甚有迷有悟。覺云。一等絕安排。覷面猶不薦。中云。聖凡情盡事作麼生。覺袖手。汝實到恁麼田地也未。師于言下豁然。遂印可焉。

玉泉其白富禪師

眉州龔氏子。幼年髻染。參詢事訖。詣昭覺老人鉗鎚下打徹。始紹續焉。上堂。覲面揮開不二門。聖凡情盡絕疎親。勾章棘句惹風雨。塞壑填溝爛葛藤。只如高揖釋迦不拜彌勒。是甚麼人。良久云。九旬禁足今朝始。剝取蟠桃不老仁。

玉螺山希聲徹詠禪師

貴州安順府安平縣宦族陳氏子。幼習儒業。穎悟過人。家供達磨一尊。師贊云。碧眼螺髭。古怪蹊蹊。無凡無聖。若愚若癡。梁王殿上。話不投機。掉身兀坐。作賊膽虛。家業蕩盡。沒點渣滓。訝。剛剛拋下一雙履。東一隻又西一隻。師求出家。父母不許。築菴宅畔。斷葷酒。懶俗務。遇佛眼和尚。參萬法歸一話頭。疑情頓發。隨父宦遊遵義。詣桃源洞。謁丈雪和尚。機語相投。丈異之云。此子是個惡辣獅兒。參敏樹和尚。敏欲開口。師上前。掩敏口。師掩耳而出。敏曰。真利器也。雙親見背。師棄家入山。乃云。從上諸祖各具手眼。或鈴或鐸。或棒或拂。師將木五寸許。為圓頭尖脚。名曰得樂。作得樂歌。日行鞭唱。打得樂。打得樂。你也有一個。我也有一個。一個有一個。個個不加鞭。忙裏都錯過。仔細思量來。放下且快活。朝也得樂。暮也得樂。詘我顛狂我也得樂。笑我癡頑我也得樂。熱鬧場中我也得樂。冷淡林間我也得樂。一鞭打得團團轉。大地山河活潑潑。我也不會修善。不會造惡。不較長短。不分厚薄。耍便耍。說便說。且道說個甚麼。一切有為總是空。不如放下打得樂。有僧來。師揚鞭曰。打打。如此數年。人莫能解。携杖雲遊。徧歷名山大川。見知識甚多。搜括玄奧。窮究宗旨。不甘人下。及入蜀上昭覺。重晤丈雪和尚。丈云。別來久矣。日用事作麼生。師云。打得樂。丈云。將得樂來。師豎拳。丈云。除却者個。師作揚鞭勢。丈連呼得樂得樂。師大徹。遂付法焉。

鹿門徹岩彭居士

江寧人。守益州。拯機之暇。攝念諸緣。嘗通旨趣。數訪求哲匠宗師。聞昭覺門庭孤峻。遂入山瞻禮。咨詢法要。松下符契。一日又上昭覺問。韓愈參大顛。猶是第二見。如何是第一見。覺云。上上根機不假錐。士云。既是機絲一班。因甚趲出首座。覺云。山僧不解打葛藤。士云。諦實之言請師驗的。覺云。正是你放身命處。士

乃釋疑。覺授觀音帽一頂。偈曰。覺音帽子。大如倚蓋。覆幬坤維。冲徧三界。千古法脈如是傳。人天眾前任弄賣。

節度使坤育張居士

諱德地北直京兆人。撫蜀有年。維希向道。教典彌篤。嘗閱金剛經。至凡所有相皆是虛妄。心境豁然。時丈和尚開法漢南。嚮道風。恨不得見。康熙壬寅間。丈和尚策杖還蜀。寓錫錦官之太平。士首謁問道。始滿素心。即請闢昭覺。闡揚宗旨。一日輿蓋入山。問得得入山求指示。請師不悞道將來。覺云。且喜中丞重舉似。己躬下事薦還難。士云。從尚尊宿。有居士分燈否。覺云。阿誰無分。士云。如弟子可有分麼。覺驀拈拂子示云。會麼。士作奪勢。覺云。分明記取。

尚書幻菴胡居士

越之塗山人。曾為蜀臬。一日隨制臺眾官。至昭覺設果桌。士云。請和尚下一語。方敢喫茶。覺云。今日天涼。勿勞重下註脚。士云。再轉一語。覺放下筯子。一日撫琴。覺云。居士只操得有弦者。將無弦底請一曲。士云。請無弦調。覺鳴指。士云。猶屬有。覺云。疑則別參。因見千佛名經。問名在者裏。不知法身居何國土。覺喚胡公。士應諾。覺云會麼。士禮拜了。歸位而立。覺舉三聖再犯不容公案驗之。士即頌云。殺盡猢猻不用尋。千層鍊壁枉勞心。招灾惹禍猶渠力。何必寮房問那僧。覺復舉祖師心印公案再徵之。士連作二頌。春到梅花香自發。江城鍊笛吹殘臘。雪裏尋梅梅不知。春光何處堪圖畫。又大地光明藏。風帆笑殺人。本師無一語。撒手過江城。遂針芥相投。覺記莛焉。兔角杖挑香水海。龜毛繩縛蛾眉山。吾年老大難收拾。且喜君來接一肩。明日奉旨。特陞刑部尚書。

海岸趙居士

諱良璧。為蜀臬入境。聞丈和尚道風孤峻。思一瞻禮。及蒞任時。丈避暑霧中山。士遣使。囊僧帽緞衣請。啟敘竭衷畢。末云。盃一頂甲一身。請速歸來收殘兵。丈閱書便歸院。遂延齋。丈至一見。以拄杖作掙鎗勢。士作怕勢。丈云。降將不斬。士云。久嚮和尚有此機。今日親見。丈云。也不得放過。士躍然設禮。公事之餘。常叩禪關。癸酉長至日。詣昭覺。于丈和尚言下翻身。而印可焉。偈

曰。九萬里鵬纔展翼。百千諸佛醉禪藻。大開海岸金剛臺。留鎮娑婆第一島。

超斯

字南翥。道號鷓鴣菴頭陀。系出濟陽。先世本濠梁人丁氏子。因大父宦遊。遂家於燕市之石橋。生而有文在其手曰開。腦後枕骨凸起。如仰月。襁褓時或悲啼。乳嫗指示所供瞿曇像輒止。迨五歲時。與羣兒戲。即跣趺合掌。口喃喃作佛號。令羣兒羅拜於前。後有黃冠過門。見之驚訝曰。子從嵩山來。乃住此耶。弱冠為諸生。攻舉子業。澹泊寡交。不諧於俗。暇則博綜內典。究竟第一義諦。及長登仕籍。益研窮性相之宗。不問家人生產。所至嘗咨叩知識。傾誠請益。居恒惟灑掃一室。蒲團布衲面壁危坐。脇不貼席。無間寒暑。渾若一老禪和也。先是參趙州庭前柏樹子話頭。歷七晝夜。寢食俱廢。茫無所得。恨不欲死。一日經行池畔。凭闌小立。忽遊魚撥刺一聲。覺平昔礙膺之物。泮然冰釋。作偈曰。池水粼粼徹底清。凭闌獨立見魚行。忽聞撥刺衝波面。使我無心喫一驚。平巖定公。見之笑曰。且喜子大事從此了徹矣。後至益州。謁昭覺丈雪醉和尚。丈問曰。從那邊來。陀曰京師。丈曰。蜀道難於上青天。如何到此。陀曰。慣識路傍驢腳跡。丈曰。還識得老僧麼。陀曰。未入劔門關。早已與和尚相見了也。丈曰。那裏學得者盧頭來。陀曰。寒花飄六出。徧地結成冰。丈休去。一日茶次。丈以手擘黃柑一枚。度與曰。是何滋味。陀曰。老老大大。酸甜也不知。丈曰。年來老僧牙齒缺。陀納一瓣囑圖吞却。丈曰。少賣弄。一日詣先覺堂。見圓悟破山二老人。及丈和尚像。瞻仰次。不禮拜挺身而立。以手一一指點云。者是某。者是某。丈從旁曰。且喜不錯認。陀曰。祖父子孫為何並坐。丈曰。窮漢養兒嬌。陀曰。大家團團頭。商量個甚麼。丈曰。不得妄傳消息。陀曰。果然有下落。丈曰。低聲低聲。丈一日集眾陞座。出手卷拂子付之。陀再四遜謝。不獲已始拜受焉。偈曰。昭覺堂前看明月。大海滔乾祇一瓢。竹杖飛騰九萬里。虛空背上拔龜毛。

心齋徹魯道人

居恒處於富貴之室。觀身世無常。猶如夢幻。但以不遇明眼人指撥為恨。幸遷居成都。詣昭覺。禮丈和尚云。某三生有幸。望和尚究竟。丈云。今日不閒。遲日再來。士云。豈無方便耶。丈云。居士禮拜。老僧舉手。那裏無方便[妳-女+口]。遂命參狗子無佛性話。

不以富貴兒女二其心。力參不輟。久而有省。上昭覺機緣相契。而記荊焉。偈曰。參禪參到無巴鼻。沒巴鼻處正好參。明鏡當臺天氣靜。金剛劍出斗牛寒。

密行忍法嗣

中興嗣燈胤禪師

金川劉氏子。薙染于燕居和尚。依止雙桂破老人有年。開峰密行和尚嗣也。行過金川時。四眾請就興國說法。燈于言下徹法源底。行乃說偈印之。住雒源中興禪院。結制。玄工王居士請。上堂。問達磨面壁。和尚陞座。是同是別。師云。別則不同。同則不別。進云。武帝聖明。因甚不契厥旨。師云。為你道聽途說。問父母未生前。那個是學人本來面目。師打云。瞎漢寐語作麼。僧擬議。師連棒打出。乃云。淑氣催黃鳥。晴光轉綠蘋。若明今日事。不昧本來人。大眾既明今日事。如何是汝等本來人。不見道。天上天下唯我獨尊麼。即是今日玄工居士。父母未生前本命元辰。若也會得。則會人人自己本命元辰。會得人人本命元辰。則會達磨面壁。與中興今日陞座。別則不同。同則不別之旨。驀一喝。一喝時一僧驚倒。師云。俊哉。衲僧一撥便轉。下座。

畫先一禪師

衡州府人。嗣法于密行忍和尚。後見世衰道薄。不喜作者般蟲豸。祇有頌古行世。未離兜率已降王宮。未出母胎度人已畢。(頌)本是一條平坦路。等閑行去便崎嶇。何如歸隱千峰外。臥看雙輪轉太虛。

世尊拈花。(頌)逆水興波意氣賒。掀翻銀漢沒周遮。黃河九折投東海。直至如今滾底沙。正法眼藏兮紅爐片雪。教外別傳兮秋塞胡茄。大迦葉實堪嗟。鵝王擇乳問非鴨。畫足寧知不似蛇。

即心即佛。(頌)口唇兩片皮。牙齒一具骨。江西馬簸箕。放出遼天鷗。

百丈再參馬祖。(頌)雷聲甚大。雨點全無。耳聾吐舌。老婢見奴。謂是江西宗風。不知千差萬錯。

凌行婆訪浮杯及南泉趙州問答。(頌)把髻投衙。自取冤家。南泉趙州。荷杻戴枷。

燕居申法嗣

石琴聞禪師

蜀鄰邑人。生來穎異。舞勺之年。辭親學佛。于銅梁東山自得師脫白。後行脚講筵。參遍禪席。得法燕居和尚貴陽之雍門。凡七座道場。住開州輔德寺。有文刺史請上堂。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北海鄉書消息斷。南山春日雨花香。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夕陽西下山光淡。馬首東來酒興深。如何是人境兩俱奪。師云。魂消崖島孤艫覆。腸斷居庸匹馬嘶。如何是人境俱不奪。師云。歌館樓中客未散。長干道上月來初。乃云。揚眉即去。拂袖猶遲。瞬目而行。人境俱奪。若在衲僧分中。略較些子。若是衲僧向上事。顧左右云。參。

靈隱文法嗣

師林育禪師

蜀人。廿齡薙染。圓具之後。徧參至迴龍。于靈穩和尚喝下知歸。遂受印可。在沅州馬瑙山馬駒苑。上堂。本色道人無孔竅。現成木偶兒。不必問渠重覓要。切忌開口。口門未待魂劈開。艸徑絕人行。機先已被虛空笑。弄虛頭作麼。古今多少明眼人。太殺郎當。不怕羞慙惟絕叫。一片赤心兩片皮。強言一句有三玄。鬚髮全白。又道一玄具三要。全白鬚髮。從前公案既現成。上大人。今日殷勤添艸料。化三千。第一要。蹋著麻繩兩頭翫。波斯疑是赤斑蛇。白日青天把燈照。見怪不怪。第二要。金剛眼上蝦蟆跳。一椎擊碎獻空王。元來却是新羅鷄。捏目生花。第三要。熨斗煎茶不同銚。普賢失却白象王。土地面前來討筭。馬頭覓角。此語諸方耳共聞。東澗水流西澗水。總解透腔並轉調。南山燒火北山紅。直饒伎倆現盡時。海枯終見底。愈失自家真要道。漏逗了也。休將識量立疎親。莫兒戲。肯信靈源無老少。信一半。毗婆尸佛早留心。用意作麼。直至如今不得妙。冤家轉見深。中峯本和尚道。要譌馬駒。今日華擘了也。諸人還會麼。于此會得。提掇權衡全在我。縱橫施設更由誰。其或未能。冷眼看他人富貴。等閑無奈幞頭何。喝一喝。下座。

密印傳禪師

蜀南敘州府李氏子。兒時不茹飲酒葷。觀身世幻化。有出塵之舉。二親見背。詣觀音洞薙染。圓具于語嵩和尚。受記莛于靈隱文禪

師。住湖廣會同迴龍禪院。結制上堂。烟橫渡口自有來由。雪覆蘆花那堪朕兆。轟動地之晴雷。擊翻滯岸。轉迅風之機要。卷盡氛埃。錦雲共散。一輪麗出于性天。繡氣同消萬法全彰于慧海。鉢裏飯桶裏水。頭頭放光。有漏籬無漏杓。物物現瑞。到者般田地。方知不動道場遍十方界。夤緣不挂。體合太虛。千佛開口便錯。萬聖垂手即差。山僧然爾如是。大似虎口橫身。葛藤且止。爐鞴新開一句作麼生道。良久云。情盡見除逃至化。珠回玉轉樂昇平。

錦江禪燈卷第十二

昭覺丈雪 通醉 輯

紹興幻菴 胡昇猷 訂

大鑒下第三十七世

慧覺衣法嗣

嘉定州龍驤寺破峰重禪師

南充岳氏子。進士孟龍之孫。嚴重威恪。徧參歸來。見慧覺和上印證焉。上堂。一條拄杖子。三世諸佛也沒奈何。歷代祖師也沒奈何。山僧今日提在手裏。要向好肉上剜瘡。卓一卓下座。上堂。釋迦老漢。設三期以調心。架紅爐以鍊性。且道心作麼生調。性作麼生鍊。參。上堂。釋迦不說說。毗嵐猛風吹海嶽。迦葉不聞聞。青山只得碾為塵。留下一轉語。舌頭在口裏。上堂。大道坦平。無起無倒。真機演唱。何解何結。上堂。默然據座。忽高聲云。大眾。不得妄生穿鑿。劈口掌云。口是禍門。下座。

渝州香國佛語御禪師

嘉州范氏子。十歲禮慧覺和尚脫白。因觀死屍有省。凡應對機辯峻捷。巾鉞左右。無有惰容。嘗示禪人云。分明句子不誦訛。鼻直眉橫幾錯過。只為現成難辯別。千山萬水走禪和。頌梅花。冰肌雪骨久懷丹。吐出令人仔細看。本色不從桃杏借。一簾星燦玉闌干。以輔弼叢林為任。定省侍師為心。至康熙癸丑秋。慧覺和尚坐化。遂哀毀骨立。食息如疑。是年佛成道日示微恙。不欲服藥。閱七日辭眾囑累畢。亭午瞑目而逝。

大吼傳法嗣

豁靈順禪師

瀘陽李氏子。于崇禎庚午降神。兒時多病。見僧輒喜。年登六歲。因舅氏于通山為僧。遂依為徒。後詣方山雲峰體宗和尚座下圓具。復聞大吼和上。開法滎陽鼎星。瓢笠直造。吼云。山僧少第二座。

道得一語便請。靈曰。請和尚試舉。吼云。昔日世尊拈花。迦葉微笑。是何意旨。靈云。道泰不傳天子令。時清休唱太平歌。吼首肯之。遂職西堂。解制吼和尚印可。偈曰。道泰不傳天子令。騰騰休理是何非。索頭透漏無遮障。大海降龍戴月歸。次住金川靈應靜養。因雲峰嘯虛和尚將順世。出手扎及紳衿。士庶共啟。請主雲峰繼席。不數年間。無恙而終。塋于雲峰之西隴。

雨春智禪師

宜賓黃氏子。十六歲父母俱背。詣峨眉山。禮體融師落髮。遂結伴南遊。習講經論。仍回蜀演教。後遇大吼和尚于渝城。吼問云。座主講何經。師云。法華楞嚴。吼云。教中道。是法不可示。言辭相寂滅。作麼生講。師云。到者裏某甲無啟口處。吼云。恁麼汝做不得法師奴在。即棄教相依。後受記莂。住荊州府桂香閣。上堂。有問有答。好肉剗瘡。無問無答。塞却咽喉。若論語默動靜。揚眉瞬目。捏拳豎指。棒喝交馳。拈向一邊。又作麼生。以拂子敲禪几云。兩岸靜仁山似虎。一溪動智水如龍。海底泥牛翻觔斗。駭煞波斯打破鐘。

三峰半水元禪師

巴縣余氏子。受尸羅于石谷禪師。得印偈于大吼和尚。康熙丙午冬。開爐上堂。豎拄杖云。七尺烏藤驚鼻蛇。能翔宇宙瑞三巴。迢迢穿市人難見。檢點將來未到家。攬下拄杖。喝一喝。上堂。發元結制此心良。三七長連九定香。坐到晨朝並午夜。等閑無事可商量。

易菴師法嗣

涇陽林我鑑禪師

初以三學誘眾。後參易菴和尚。始紹席焉。上堂。攪長河為酥酪。可惜喚鐘作甕。變大地作黃金。何異證龜成鱉。一句眼橫鼻直。馬面不是牛頭。其或顧諟停機。未免守株待兔。復舉南陽忠國師上堂云。人人懷明月珠。箇箇抱荊山璧。有時萬德莊嚴。有時艸衣木食。或現掩室于毗耶城。或示誕生于維衛國。幹旋佛祖權衡。燮理衲僧巴鼻。驀豎拂子云。佛祖權衡則且置。祇如衲僧巴鼻作麼生。下座以杖打散。

聖可玉法嗣

還初佛禪師

華嵒第二世。重慶鎮府度冲王護法。于佛誕日請上堂。世尊鑿開混沌。雲門鍊石補天。雖無毫髮滲漏。猶有經緯星月。彼此汗馬功高。即不無。還見太平麼。且喜今朝無事。擊拂子下座。

南芝靜禪師

萬縣鄧氏子。髫年禮恒修師薙髮。于敏樹和尚座下圓具。聞聖可和尚開法華岩。相依二十餘年。聖和尚入室問。無邊剎海。自他不隔于毫端。因甚菴內人不知菴外事。師云。官不容針。私通車馬。聖云。十世古今。始終不離于當念。因甚今日不知明日事。師云。有水皆含月。無山不帶雲。聖云。雪峰道底。居首座寮。聖和尚命秉拂小參。平白地上。拈起一絲頭。為甚麼盡大地人亡鋒結舌。且道。利害在甚麼處。還委悉麼。大如芥子。細若須彌。軟如鍊。硬似泥。不離四威儀中。惜乎人不識。舉世尊安居。文殊三處過夏。迦葉欲擯出。纔舉椎。乃見百千萬億文殊。世尊云。汝欲擯那個文殊。師云。不會作客。勞煩主人。世尊只見錐頭利。不見鑿頭方。迦葉正令當行。要且寡不敵眾。當時靜上座若在。待世尊問汝欲擯那個文殊。但舉椎云。那個男兒不丈夫。便擊。不惟文殊慚惶無地。管教釋迦無啟口處。還委悉麼。見義不為非勇士。臨危不變始驚羣。

漢州龍興寺子鐘洪禪師

十五歲乃有離塵之舉。禮自明禪師薙染受具。遍參尊宿。聞華嵒聖可和尚宗風大振。遂趨塵下。發明心地。龍興上堂。地冷天寒草木枯。堆堆黃葉滿階除。衲僧林下乘斯際。躍舞揚威證祖圖。有麼有麼。問淨行比丘因何不生天堂。破戒比丘因甚不入地獄。師云。渭北春天樹。江東日暮雲。問如何是無縫塢。師默然。進云。如何是塢中人。師便喝。進云。樹高千丈。葉落歸根去也。師云。脚跟下好與三十。乃云。丹霞燒木佛。只為冷入骨。院主眉鬚墮。病因一念屈。正當移宮換位。寒氣交加。在衲僧分上。又且如何。卓拄杖云。大眾會麼。若也不會。打葛藤去也。舉朱行軍入南際院。自行香云。直者是直者是。時維那云。直者是箇甚麼。行軍便喝。那云。行軍是佛法中人。惡發作麼。軍云。你作惡發會那。那亦喝。

軍連喝兩喝云。鈎在不疑之地。呼左右認取者僧著。師云。大眾。你看者兩人。縱奪雙舉。殺活齊彰。雖然如是。未免一場話墮。爭似今日星斗何。居士運無緣慈。發廣大心。來此飯僧。光揚法化。只如正恁麼時。殺活一句作麼生道。橫按鎢錐全正令。太平寰宇斬癡頑。

法空證禪師

嗣華嵩聖和尚。住瀘州通山來鳳禪院。上堂。問春風徧界難收拾。萬象咸歸一鏡中。如何是清淨法身。師云。地肥冬瓜大。進云。淨穢總成安樂國。聖凡不隔一毫端。如何是圓滿報身。師云。餓漢肚皮寬。進云。處處綠楊堪繫馬。家家有路透長安。如何是千百億化身。師云。鄉裡人看走馬燈。進云。是何意旨。師云。來去分明。乃卓拄杖云。明頭合暗頭合。四方八面任作略。日面佛月面佛。喜怒哀樂是何物。世間多少守株人。盡在中途而退屈。殊不知提起向上鉗錘。用超方手眼。千聖齊立下風。三賢窺覷不破。故云。真淨法界。神明之本。造化之根。鎔冶兩儀。鑪錘萬有。大而無外。細而無內。萬象之所以生。五音之所以成。復卓拄杖云。敢問大眾。畢竟是甚麼身。神頭鬼面從他現。天上人間任爾尊。喝一喝。

犍為龍巖浮石演禪師

受華嵩聖和尚印可。住龍巖。上堂。問如何是向上事。師云。脚跟要點地。進云。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穹窿尋蛇。進云。如何是隻履西歸意。師云。赤足走。乃云。祖意聖意即是凡意。凡夫聖人豈有兩般。但盡凡心。別無聖解。隨緣放曠。任性逍遙。當下解脫。此語中有一理二義。若人辯得。不妨于佛法中有個人處。其或未然。莫道不疑好。卓拄杖下座。

慈雲价南仙禪師

濮陽劉氏子。家世業儒。因甲申之變。混入戎馬中有年。常懷出塵之念。于滇省禮孤月和尚薙染圓具。隨本師歸蜀之渝城。闢白楊訓祖庭。廿有餘年。煥然一新。因本師早去世。康熙丙辰冬。聞聖可和尚創建華嵩寺。躡芒致禮。將住山。所作頌古錄呈。可和尚舉公案辯驗投機。而代孤月和尚記荊焉。有頌古山居行世。茲拈數則。以證所獲。世尊初生。(頌)指天指地欲何圖。傍若無人膽氣麤。將謂鬚鬚天下赤。誰知更有赤鬚鬚。世尊陞座。(頌)上座應知下座

來。元無造作巧安排。就中耐文殊老。百萬人天被活埋。阿難倒剎竿。(頌)傳金襴外復何傳。報道門前倒剎竿。弟應兄呼無別事。陽春一曲和還難。國師三喚侍者。(頌)三喚三呼應了休。陸行車馬水行舟。負汝負吾揚醜拙。也是憐兒不覺羞。心不是佛智不是道。(頌)花溪雨後苔流滑。喜鵲聲餘午夢惺。四顧白雲消散盡。夕陽斜照數峰青。仰山插鋤子話。(頌)試問田中多少人。插鋤叉手已分明。刈茅雖是南山事。幾箇知恩解報恩。擊竹因緣。(頌)潦倒長行粥飯翁。閒拋瓦礫起清風。驀然打著娘生鼻。萬里無雲日正中。雪峰望州亭相見話。(頌)望州烏石與僧堂。物物無私覲面彰。知己乍逢清夜話。月明窗影倒垂楊。

上乘啟禪師

渚宮段氏子。為明末郎將。遂入羊還山冲虛律主處薙染。圓具。遊渝。詣華嵩聖和尚。塵拂之下多所契機。華嵩贈以笠與偈云。老僧頭上之物。不是泛常人情。除是充家之子。不可輕以與人。印心之後。律身猶嚴。後住龜亭金鰲。繼遷崇福。于壬申夏。無恙而終。有得法上首念攝月。建塢于華嵩之東嶺。

不惑興禪師

營山王氏子。值蜀亂出楚。薙染于香嚴宕山和尚座下。圓具。同聖可和尚遍參。言下獲益。尋常橫機不讓。一日可曰。胡言漢語拈置一邊。父母未生前道一句子。惑便掌。可曰。太麤生。惑又掌。可休去。後印以偈曰。木樨中毒堯都發。面上而今猶五痕。含臆十年心未已。冤冤只報有讐人。還蜀住漢州之孝泉。上堂。僧問。父母未生前。那箇是學人本來面目。師云。眼橫鼻直。進云。死了燒了。面目何在。師便打。進云。還許學人別通消息也無。師又打云。綠楊芳艸地。散步任優遊。顧眾云。會麼。其或不會。今日定要與諸人別通消息。拽拄杖下座歸方丈。端坐而逝。眾齋不見師出。入室撼之已寂。一眾方知今日定要別通消息之語。塢于本山。

指雲孝禪師

新津黎氏子。廿歲從華嵩聖和尚薙染。即于座下圓具。參崇華天隱有年。後歸華嵩。綱維眾僧數載。嘗有頌德山托鉢。(頌)搗破虛空枯木花。作者相逢兩會家。雖然各具頂門眼。玉本無瑕却有瑕。十八女子不繫裙。(頌)十八女子不繫裙。赤體條條百煉金。衲僧若作

分外事。何年出得鍊圍城。(又)無價寶珠人不識。繫其衣裏弗相親。洞山覲面當機疾。知解堂堂淨法身。

嘉石亮禪師

長壽熊氏子。髫年祝髮于大瑞禪師。具圓于石頭和尚。參聖和尚于雲峰。令看父母未生前話。久無所入。一日聖和尚開示。無明父。恩愛母。須具殺父殺母手段始得。不覺打失鼻孔。入室次。聖問。如是未生前的句。師云。霽雪峰高冷。問如何是已生後句。師云。梅花噴鼻香。聖遂與偈云。復見天心春日長。嘉平百物自芬芳。不因霽雪峰高冷。爭得梅花噴鼻香。雲峰秉拂小參。舉僧問雪峰。古澗寒泉時如何。峰云。瞪目不見底。僧云。飲者如何。峰云。不從口入。僧後舉似趙州。州云。不可從鼻孔裏入也。僧問趙州。古澗寒泉時如何。州云苦。僧云。飲者如何。州云死。雪峰聞之。從此不答話。師云。性亮檢點將來。雪峰解吞不解吐。趙州解吐不解吞。未免各執一見。亮却不然。設有問古澗寒泉時如何。可以消渴。飲者如何。切忌多貪。且道。雪峰不答話又作麼生。爭之不足。讓之有餘。示眾。道之一字。本無言說。所謂水中鹽味。色裏膠青。決定是有。不見其形。實際理地。纖塵不立。未動脚跟。好與三十。不見趙州道。汝但究理而坐三二十年。若還不會。截取老僧頭去。恁麼為人擔任。信不誣矣。諸師欲于一七二七三四七日中。構副此事。大難大難。直須日用四威儀中。年年此日。歲歲今朝。稍有少分相因。始不負出塵之志。久立。

圓通惟識典禪師

宕渠盧氏子。卅歲禮問知大師薙染。圓具于四峩山菊惟和尚。參徧尊宿。後參華嵩聖可和尚。落堂考工。問三界惟心。萬法惟識。死了燒了。何為心識。師豎起拳。嵩云。死了燒了。阿誰豎拳。師仍豎拳。嵩云。生鐵鑄就即不無。兩片皮交閣在甚處。師便拜。嵩便打。次日復以前話詰之。師亦豎拳。嵩云。昨日道過了也。師云。一回拈出一回新。嵩復打云。放你不過。一日嵩問師。如何是德山末後句。師云。道不出。嵩云。密起其意又作麼生。師云。拽不入。嵩云。因甚師遭徒記。師云。教得孩兒解罵爺。嵩云。不謬華嵩悅眾。遂針芥相投。授以記荊云。一箇拳頭生銕鑄。不從人得誰相付。如斯方便與君通。震旦古今無別路。師偈句頗繁。略收數則。世尊初生。(頌)指天指地起干戈。好尚貪高人幾多。縱有超羣越格者。惡人自有惡人磨。若能轉物即同如來。(頌)一點也無。沒

處著解。包括三才。縱橫無礙。五千餘軸紙墨之害。等閑將出大人境界。女子入定。(頌)空谷傳聲。虛堂寂聽。信之則有。叩之則應。看他大力人。弗假將軍令。混沌未分。(頌)燒不然浸不入。未知名是何物。三世諸佛全體。大地眾生[宋-木+巢]窟。婆子燒庵。(頌)者老婆。多捏怪。伶俐衲僧。未放你在。把火燒菴徒自肥。至今惹下驢年債。

三淵惺禪師

忠州伯氏子。禮覺知師薙染。依止華嵩圓具。並受印偈。康熙癸亥春。住濮陽龍游寺。十餘載嘗頌女子出定。貴者貴如金。賤者賤如土。女子與瞿曇。各自無張主。百丈野狐(頌)不落元來錯。不昧亦皆差。茫茫三界無來去。□□□□□毗茶。

大器成禪師

嘉州人。薙染於貴陽雲歸。圓具於蓮月和尚。機契華嵩。後住隆昌。建正覺禪院。聖和尚住瀘陽之雲峰。師省觀。峰命秉拂小參。呈拄杖云。者箇乃方丈本師底。今落在悟成手中。只得搗虛練實。驗正辨邪。只貴人人向此徹去。卓一卓云。會麼。悟成本是崖穴骨董。今霄逼拶出來。無法可說。借兩句葛藤。聊塞鈞命。世尊道。一切眾生俱有如來智慧德相。趙州道。狗子佛性無。諸上座。世尊道有。趙州道無。是同是別。若道是同。法無同相。若道是別。豈有兩般。還會麼。剎剎塵塵一樣心。奈何人不自推尋。若還直下承當得。弄潮須是弄潮人。喝一喝。

碧露夢禪師

蜀東綦江張氏子。中年于慧覺和尚處薙染。圓具。依華嵩聖和尚座下落節。而受記莂。買舟出峽。住溧陽崇隆寺。解制上堂云。雪壓松梢靜。霜嚴老樹寒。白雲有意常封鎖。幽鳥無心以度關。長安大道。銕蛇橫欄。去去終難去。還還不易還。以拂子打圓相。于中劃破云。諸禪客仔細參。草鞋終被腳頭瞞。

提刑翦暎高居士

初到華嵩。茶次問嵩。古人道。如人在樹。手不攀枝。足不踏枝。口銜樹枝。若問祖師西來意。答則失命。不答違問。如何。嵩以手

指自^己茶鍾了。又指士鍾。士從者即取鍾斟茶。崑云。強將之下無弱兵。士云何也。崑云。居士從者。也會祖師西來意。士云。和尚以手為舌。崑云。居士以何為舌。士云以舌為舌。崑作驚勢。士云何也。崑云。非居士不能放身捨命。士云。無身命可捨。崑云。老僧一時眼花。士云瞎。崑云瞎瞎。士云。如此則成戲論歟。崑云。仁者見之謂之仁。士云。某猶日用不知。乃設禮。後士又同屠居士遊溫泉。士將浴喫餅次。屠云。大家來喫湯餅會。士云。此處可名洗兒泉。崑云。九龍吐水也未。士云。憾不自脇間出也。崑提起槌珠作痛聲。屠云。此老倒會捏恠。崑云。入水求人兩意符。九龍吐水沐金軀。毋云不自脇間出。痛徹山僧一串珠。崑後贈士硯并偈序云。縉山四面逼來。拶碎袈裟。狹路相逢。打開秘藏。觸著磕著。原非等閑。共濟同舟。豈是細事。君肯承當直下。我敢信手拈來。曾經御案頒行。何必生師指點。君若不欲。在此原無。我不將來。于君^已有。偈云。御賜元章的石頭。流傳到我似虛舟。浴雲谿畔拈將出。點化魚龍天際儔。

雲谿明府帝臣王居士

佛成道先一日入山。同雲峰遊山次。士乞峰拄杖。峰便打。士便拜再乞。峰乃與之。未及舉跬。便折即乞偈。峰笑云。氣骨生成也大奇。偶然投合大乘機。輕輕不用纖毫力。折我雲峰杖一枝。士躍然喜。歸便設禮焉。次日請上堂。山僧拄杖子。昨夜覩明星而悟云。吾觀山河大地艸木叢林。皆有如來智慧德相。元無妄想執著。亦不求證。且道。與釋迦悟底是同是別。良久顧左右云。者裏忽有箇漢出來道。五百人善知識。脫空妄語。雲峰拄杖。昨日^已被坦菴王公折却了也。還有甚麼語話分。師笑云。老僧向他道。飛霞觀斗。雪霽回峰。用得多少。以拄杖作釣勢云。還委悉麼。釣竿斫盡重栽竹。不計功程得便休。卓拄杖下座。

體宗寧法嗣

湛一清禪師

蜀南永寧王氏子。廿歲禮本宗律師薙髮。至雲峰體宗和尚座下圓具。參究^己事。因撞露柱有省。投機偈曰。年來何事苦週遮。返覆推窮總是他。了了分明無一物。到頭滋味沒些些。婆子燒菴頌云。信手拈來展赤旗。縱橫予奪有神機。雖然賣俏圖何事。失却娘生貼體衣。峰授以源流。侍巾瓶十六載。辭峰入滇。住會川迎恩寺。結

制上堂。諸方結制安禪。迎恩陞堂戲舞。驚起四海寧龍。撲落九天鳳翥。三乘拱手。十地擎拳。萬象森羅揚眉吐氣。周天星斗燦爛光輝。微塵國土東湧西沒。蠕動蜎飛各揮本有。不是神通妙用。亦非法爾如然。卓拄杖云。會麼。今日也是兵隨印轉。將逐符行。正恁麼時。祝聖開爐一句作麼生道。野士無將酬帝德。須彌聊作一莖香。

兩生從法嗣

藏天宣禪師

蜀東王氏子。童時于護國寺。依不我師脫白。廿歲于師翁旅和尚處圓具。靈隱和尚過護國。得叩機要擊節有省。徧參尊宿。詣牂牁嘉瑞。值兩生和尚機語相投。與偈云。棒頭喝下接全機。電掣星飛較已遲。骨臭衫兒脫却了。因緣到處聽施為。繼席松丘。有錄行世。其略示眾云。參禪要猛烈。不悟不休歇。打起好精神。莫蹉過時節。下個死心腸。豈拘在年月。立得脚跟穩。始不被人惑。甘盡苦中苦。關頭能打徹。古人曾與麼。吾常于此切。作個不羣人。行履須迥別。尅期能取證。當下便超越。透出天外天。迥過白拈賊。纔聞舉著些。洞然自明白。山頂鼓波瀾。海底立枯竭。彌勒釋迦來。亡鋒而結舌。三千陳葛藤。窠臼都剿絕。撞著跣死禪。一刀成兩橛。更擬問如何。白棒驀頭楔。到此田地時。許你稱禪客。伏惟大眾前。莫疑我虛說。

鐵機常禪師

豫章何氏子。卅歲為僧。掩關甕邑。打七有省。投機偈云。圜空一路光明藏。六道含靈亦共之。三世古今無向背。只因執妄故遲疑。執我非人皆是妄。涅槃生死沒高低。光明原未從人得。觸目菩提本不迷。出關聆昭覺老人道風而趨蜀。行至夜郎。遇兩生和尚圓具印可。住靜廿載。有山居芻蕘集流行。後至昭覺丈和尚處。職西堂。命解制上堂。九旬期畢。百日功圓。元霄燈火鬧堂前。爆竹聲催正月半。衲子聞聲悟道。白衣見色談禪。非為海上覓漚。已成尺木支天。若具通方正眼。野花春艸含烟。佛法世法情盡。方能垂手入廬。解制一句作麼生道。拂一拂云。人人緊束腰包去。莫道草鞋脚下寬。

含光真法嗣

瀘陽天竺寺佛先啟禪師

本州朱氏子。齠年禮慈航薙染。首參方山體和尚圓具。後契機于含光和尚。開法天竺禪寺。上堂。今日鉢盂受濕。天竺清香滿地。花卉自然放開。乾坤也須闔闢。檀那營供福田。衲僧來討巴鼻。拄杖機活如龍。一味當頭直劈。打落帝釋花冠。碧眼胡僧不契。三玄三要葛藤。不如萬法歸一。還識一麼。以拄杖畫云。不風流處也風流。有意氣時添意氣。

嘯宗密法嗣

峩雪慧禪師

閬中聶氏子。十四薙染。參問山大師。請益雲門須彌山因緣。言下知歸。嗣法嘯宗和上。保寧海雲寺。上堂。覺海澄清。靈源不二。空三解脫。智慧莊嚴。百千法門示真實義。總向一毫頭上顯示了也。惟要諸人直下見去。其或未然。欲得無為真淨界。雖從此處解翻身。上堂。凜凜朔風徹骨寒。梅花幾點占春先。分明一段真機露。爭奈時人不解看。慧上座與麼告報。也是錦上添花。以杖撥空云。不得春風花不開。花開又被風吹落。

昌昌慧禪師

重慶府盧氏子。遇亂世逃入遵義。廿齡禮先登師脫白。聞破山和尚開法雙桂。遂趨圓具。徧參諸方。歸新都之寶光笑宗和尚處契機。而授以偈。自知德涼行寡。不能有益于法門。守死善道。有山居詩偈行世。其略曰。水雲深處卜幽居。隨分生涯樂有餘。霜冷菊開三徑秀。月明人靜六窗虛。閒來合藥尋醫典。靜復焚香讀佛書。個裏不容獅子座。惟將一默答文殊。掃雙親墓云。清明佳節掃墳臺。片片愁雲漸湧來。雨過目前添舊恨。雷鳴塚上續新哀。香焚嶽嶺千年臭。紙挂長江百世恢。幾詠蓼莪心膽裂。長空望斷若癡呆。

二隱謚法嗣

襄陽梓舟船禪師

潼川人。住襄陽鹿門禪院。上堂。問摩尼寶珠久埋塵土。如何覓得。師云。照破老面皮。問日用尋常。且道作麼生受用。師云。明

月引清風。乃云。鹿門山勢最威雄。瓦礫生輝達本宗。面目儼然成現箇。百艸頭上起雲龍。

牧雨霖禪師

金堂米氏子。幼冲澹純正。靜默寡言。卅歲出家。恒以死生為念。遂買舟南下。見二隱和尚于嘉禾之三塢。獲蒙印可。後歸龍安雪峰院。上堂。隆冬佛法絕商量。萬象盡從雪裏藏。直待一輪紅日出。燈籠露柱盡舒光。上堂。昨夜霜風透膽寒。黃河水結勢如山。凍得泥牛連夜吼。牽連木馬競相看。舉法華經云。唯此一事實。餘二則非真。釋迦老子與麼道。也只道得一半。那一半。待下座來。與你通箇消息。何故。孤掌不浪鳴。獨木不成林。
錦江禪燈卷第十三

昭覺丈雪 通醉 輯

紹興幻菴 胡昇猷 訂

大鑒下第三十七世

自閒賢法嗣

霍山愍余暹禪師

西充王氏子。參徧尊宿。末後入自閒和尚室。始嗣法焉。出住晉之霍山。解制上堂。結却布袋九旬終。今日解開八面通。衲子通身是手眼。拿雲攫霧把清風。諸禪客好奇逢。白雲聚散滿晴空。脚底芒鞋寧似虎。肩頭拄杖活如龍。上堂。結制解制。諸方舊例。佛祖家風。一場特地。九旬把住牢關。勘驗聖凡禁忌。不容走作絲毫。煅煉衲僧巴鼻。剿絕異想偷心。必然脚跟點地。一任吒呀哮吼。管教山搖地震。當報不報之恩。共助無為之化。上堂。紅塵鬧市。全彰古佛心宗。身色堆頭。獨露祖師巴鼻。平泉兩岸。烟籠水月光新。姑射峰頭。彩散白雲影秀。花街柳巷觀音院。酒肆淫房彌勒家。

雲峩喜法嗣

斌雅禪師

潼川人。嗣法于風穴雲峩禪師。住法海寺。上堂。法海自住以來。不肯攙行奪市。列土分茅。將天地作一禪堂。行與諸人同行。住與諸人共住。二六時中著衣喫飯。運水搬柴。舉措施為。了無障礙。乃至明暗色空。森羅萬象。若智若愚。各依本分。然雖如是。更有一人不入保社。淨裸裸絕囊藏。赤洒洒無向背。有時孤峰頂上嘯月吟風。有時鬧市街前神頭鬼面。舌拄梵天。眼空四海。動若行雲。止猶谷神。以拂子打圓相云。還識此人麼。平生肝膽向人傾。相識還如不相識。靈臺寺上堂。一句無私。斬釘截鋏。萬機休罷。迥脫羅籠。隨流得妙。千里同風。大用現前。逢場作戲。玉鑑含秋。水潭落影。龍泉出匣。萬里橫尸。大火聚豈容湊泊。金剛圈不許撮拏。撥著便轉。已墮功勛。提得即行。早成途轍。具如是之妙見。作苦海之舟航。隱顯全彰。文軌一致。封村寺上堂。春深物茂。日

暖風和。燕喜鶯歡。時清道泰。般若流通。法元無隱。擊禪床云。聲不是聲。徒勞側耳。色不是色。難為檢別。海寶寺上堂。披霜躡屨。雲路三千。全身放下。理合瀟然。袖裏金鎚當陽拋出。毗耶丈室八字打開。住其中者。握閫外威權。鉤頭有餌。施佛祖照用。秤衡無星。開人天正眼。驗衲僧巴鼻。若是識機宜別休咎。撩起便行。脚跟下好與三十。何也。海寶門下。令不虛行。

憨休乾禪師

蜀西龍安胡氏子。十九脫白。二十圓戒。徧參諸方。各有會處。康熙丁未。詣少林禮祖塏。過風穴參雲峩和尚。機緣相契。乃授記莧。癸丑開法涇陽興福禪寺。眾請入院上堂。撥艸瞻風二十秋。全機不動信優游。無端扶上華王座。擘破三元接上流。宗乘一唱。三藏絕詮。至道恢弘。千途合轍。眾流截斷。遍塵刹而任運全該。妙轉元樞。括有無而憑垂指注。光超日月。智出聖凡。動靜無私。隱顯不昧。觸體常干世界。鼻孔摩觸家風。綿密安祥。權開洞山五位。暗機圓合。要出為仰三生。一字關大雲門之高古。六相義捫法眼之現成。奪境奪人。直捷痛快。立賓立主。大用天旋。印水印泥印空。匪作家難辨。非心非佛非物。唯證乃知。似地普擎。如天普蓋。真機剖露。萬法全彰。正恁麼時。且道即今開堂祝聖一句。作麼生道。擊壤歌揚忘帝力。由^賡詩詠樂時雍。

宕山法法嗣

孤月朗禪師

合州楊氏子。歷徧諸方。值箬菴和尚打徹。遇宕山禪師印證。住桃源瑞麟院。上堂。只著芒鞋不用舟。脚跟下事愈沉浮。而今渴飲飢餐也。未卜橋流是水流。小參。驀豎拂子云。此是向上第一著。未會之人沒棲泊。權曰此事與君持。細細嚼來味似檠。放下拂子。拍膝一下。

古宿尊禪師

成都胡氏子。嗣法宕山和尚。浴佛上堂。日月兩莖燭。須彌一炷香。以斯成現物。供養法中王。顧眾云。此是山僧窮孝敬。汝等若有奇品異餚。不妨拈出。以報不報之恩。共祝覺皇之壽。供丹霞禪師像上堂。前釋迦不安。後彌勒不奉。單單供養天然老子。一不重

伊智大才高。二不重伊道全德備。今所重者。是伊聽訃而別選。聞授戒而疾退。騎聖僧得號于馬祖。燒木佛禦寒于慧林。諸般去就且置。即今安位一句如何舉揚。拂一拂云。見聞戶牖無遮障。奪却龐公幞頭來。元宵上堂。執拄杖云。今年今月十五。不打尋常破鼓。剔起破暗明燈。且要人人盡覩。忽爾油盡燈殘作麼生。[妳-女+口]。杖頭有眼明如日。凹凸平夷任所之。聖泉除夕上堂。一年周歲三百六。逗到今宵剛數卒。戶戶釘桃符。家家燒爆竹。送舊者慙忙。薦亡者慟哭。好笑世間人。多被時緣逐。祇有聖泉僧。恬然似不覺。擲拄杖下座。

大雄峰法嗣

藪菴願禪師

簡州謝氏子。中歲出家。嗣法大雄。住成都報國菴。昭覺老人設齋。上堂。報國初開法戰場。滿堂雲水破天荒。厨中儋石無儲也。自有高明共助揚。舉大慧杲和尚。至蔣山訪應菴華禪師。上堂舉牛過窗櫺話。者則公案。在蔣山肚內多年。若不是法叔老師抑揚小姪。一生不敢舉著。今日向人天眾前拈出。供養我法叔老師。召眾云。大眾。既是頭角四蹄俱過了。因甚尾巴過不得。謫訛在甚麼處。良久自代云。家家門前火把子。元來事同一家。共相唱和。所謂酒逢知己飲。詩向會人吟。願上座不敢舉古判今。茲是昭覺老人屈尊就卑。助揚法化。以佛法住持。且接物利生一句作麼生道。卓拄杖云。橫塘宿鷺斜飛起。數隻銀瓶挂樹梢。

響谷法嗣

金純寺眉雪宗禪師

射洪謝氏子。嗣法于響谷禪師。上堂。山陰深秀游人少。野水重崑一樣春。山野今日重開祖席。佛日再懸。把住則瓦礫眠雲。放行則燈籠起舞。爭似無生國裏王大博。取性高眠。逍遙快樂。

凝真法嗣

南隆西平寺天然慧禪師

南充柳氏子。因蜀亂。混火隊中。十八歲厭世如幻。有出塵之志。禮如成薙染。圓具。參謁諸方。後依凝真和尚。深錐痛筭。死而復蘇。遂蒙印證。元旦上堂。時當元旦百事新。送去迎來見主賓。驀拈拄杖云。惟有者箇烏律律。不隨節令順人情。有時敲風兼打月。須彌頭裂滄海疼。駭起南山於菟走。株連北斗嚙一驚。且道利害在甚麼處。復卓云。不是沙場經慣戰。怎豎旌旗百尺高。下座。

快雪國法嗣

蓮池聞禪師

宕渠羅氏子。卅歲于含虛師處祝髮。廿歲詣方如和尚座下圓具。徧參歸保寧。建蓮池菴自休。一日快雪和尚過訪。機緣相叩。而記荊焉。仇居士供法衣上堂。法不孤起。仗境方生。六月炎天寒威凜烈。此是境。且道如何是法。提起衣示眾云。會麼。者衣線下事。人人具足。不可思議。阿誰欠少。何必向他家糞草堆頭。覓甚麼碗。所以道。不離當處常湛然。覓則知君不可見。

雲嶠水法嗣

蒼谷桂禪師

湖廣荊州李氏子。卅歲禮幻識大師薙髮。年登廿稔。就本師圓具。徧參諸方。至雙桂與嶠和尚機緣相叩。而記荊焉。康熙丙寅。達州紳衿。請住龍興禪院。上堂。驀呈拄杖召眾云。會麼。者箇上拄天。下拄地。本自無名。誰敢強安。有時動地放光。明如杲日。有時泯跡潛踪。黑似墨漆。不屬青黃。方圓任器。能變能化。能橫能直。畢竟平等。殊堪倫匹。達古通今。豎窮三際。復橫按拄杖云。戒定慧祖師關。恰好都盧一串穿。又卓云。還會麼。于斯薦得。無量法門河沙妙義。從此建立。其或未然。更買草鞋行脚始得。

大鑒下第三十八世

石谷慧法嗣

羅漢雲林地禪師

通江董氏子。禮心田師削染。參石谷和尚。以嗣法。重建什邡羅漢寺。乃馬祖一禪師脫白處也。上堂。問如何是羅漢境。師云。參天蒼竹密。填空古栢稠。進云。如何是境中人。師云。大雄殿一座。頭陀祇十人。進云。人境不立時如何。師云。虧汝到與麼境界。乃云。一棒一喝。一拳一脚。直指臨濟心髓。全彰德山韜略。古之不多一點。今之不少一劃。全得艸偃風行。如虎戴角。撞著磕著。橫機殺活。脫或未然。山僧未免重下註脚。以拄杖卓一卓。喝一喝。也是千錯與萬錯。復卓云。錯錯。

淨居月月初禪師

樂至鄒氏子。卅歲于巴岳寺落髮。參石谷和尚圓具。復受記莚。後住龍門淨居寺。上堂。僧問。如何是龍門境。師云。清風橋下兩池水。進云。如何是境中人。師云。日出而作。日入而歇。進云。人境以蒙師指示。向上宗乘事如何。師便打。進云。瞎棒。師復打云。却有瞎漢喫在。乃云。時開飯店止飢寒。引水龍門且種田。佛法寧教齊爛却。從斯弗說老婆禪。

蒼桐華禪師

綦江封氏子。卅歲出家。廿年于密語和尚處圓具。石谷和尚印證。隱山為常。有山居詩行世。其略曰。山悠悠也水悠悠。一杖雲深任自遊。樹抄松花堪作食。秋迴荷葉可為裘。堂堂佛法消塵鏡。渺渺光陰送客舟。若要頓超如幻景。只須常牧此心牛。又云。溪山一一都成畫。竹樹叢叢畫不成。堪笑住山人性蠢。鑊頭一柄足平生。暮年仍歸本郡石門寺。而臨行偈云。來時黃菊篩金。去時青山鋪白。想起者個骷髏。千回萬回作客。今朝踢倒須彌。拶得虛空出血。涅槃城裏沒相知。笑殺率陀古彌勒。

紫芝藏法嗣

[郫-卑+((白-日+田)/升)]簡護國寺天然貴禪師

上堂。今朝腊月初八。處處闡揚佛法。惟有護國不然。見人只是生罵。驀拈拂子云。向者裡薦得。剎剎塵塵毗盧境界。溪聲鳥語觀音理門。其或未然。依舊鼻孔向下垂。擊拂子下座。元宵上堂。不唱陳年曲調。要打新鮮鼓笛。無言童子口吧吧。無舌人兒能解語。等

閑操動沒絃琴。海水騰波山自起。且道沒絃琴作麼生操。以拄杖作操琴勢云。會麼。若將耳聽終難會。眼底聞聲方始知。

錦官萬福寺瓊目溫禪師

戎州宜賓鄧氏子。十五歲薙染。恒思此身無常。參謁諸方。聞紫芝和尚開堂。杖笠往參。充侍寮十五年。遂印可焉。後住萬福。上堂。昔人聚石說法。今我法說亦空。石火電光。難為湊泊。驀拈拄杖卓云。惟有者個。赤條條。光灼灼。有時和泥合水。社舞村歌。有時孤峰獨立。挂月懸星。動則俾觀音勢至結舌藏鋒。靜則令釋迦老子無本可據。且道利害在甚麼處。良久云。參。護國寺為天然和尚點主。眾請上堂。者曲条木床。是我天然法兄。捏不聚。擘不開的。今朝落在萬福手裏。于中七縱八橫。齊行照用。乃豎拂子召眾云。見麼。茲我然兄。于一毫端。現大人相。與汝諸人。道末後句去也。復擊禪床云。聞麼。復為汝等全身獨露。若或不薦。萬福不免別通消息。拋下拂子云。記取者枚毛拂子。再來號吼震三千。

語嵩裔法嗣

嵩耳住禪師

渝州費氏子。初參破雪和尚。目不識丁。鍊杜多行。後訪牟尼山語嵩和尚。棒下見旨。乃印可焉。後住少峩山慈明寺。上堂。弘機獨唱。千聖潛踪。截斷眾流。棒雲無路。若箇正因衲子。顯大機施大用。于石火閃電光中啐啄。縱奪人天。權衡佛祖。敲唱雙行。殺活齊彰。碎凡聖窠窟。斷生死根苗。猶未是向上事在。作麼生是向上事。王令已行天下徧。將軍塞外絕烟塵。

書雲岳法嗣

舌響訥禪師

定遠龍氏子。參半天下。于林野和尚掌下有省。回蜀見書雲和尚。以印證焉。上堂。向上一句。千聖結舌。覲面一著。隨處現成。折旋俯仰。露布本地風光。咳唾掉臂。全彰衲僧機柄。上根利智。如良驥見鞭影追風千里。中下之流。似韓獪逐塊永忘其返。而今勿論上中下根。直教箇箇氣宇如王。坐斷千差路頭。把定衲僧巴鼻。洞明頂[寧*頁]正眼。覷破祖師關捩。且道如何是祖師關捩。四野嚴

寒無處泊。散髮披襟到畫堂。上堂。打開光明藏。現出本常理。大地絕點翳。四海清如洗。森羅與萬象。都盧在裏許。休言覩明星。誑惑癡男女。上堂。爐鞴弘開。魔佛頓鎔。鉗錘高舉。聖凡情盡。箇箇焦頭爛額。人人皮綻肉鎔。任是百煉精金。到此也須失色。卓拄杖云。拈出紅爐金彈子。箠破諸人鍤面門。

麗眉采禪師

瀘陽人。得法于書雲岳和尚。住金川之中崑。開爐上堂。個事人人本具。何須向外討覓。頭頭頂著青天。步步踏著實地。山僧不是妄言。要且理無二致。所以龐居士云。神通並妙用。運水及搬柴。若于此中透徹。一生參學事畢。其或未然。長連床上豎起脊梁。切莫瞌睡。抖擻精神。只看穿衣喫飯。運水搬柴底。畢竟是個甚麼。參。佛成道上堂。居來十載為叢林。幸爾今朝佛道成。溪山雲月渾閒事。只取金鱗上直繩。先師涅槃後。淒然感興廢。不肖揚家醜。扶起破沙盆。修殘補破屋。先要得其人。啐啄同時節。三生似有因。今欲傳家具。人天共證盟。放出三支箭。相將射一羣。遂召滔然用初朗旭三人過來云。從上機關。千聖同廬。一道圓光。萬靈合轍。驀喝一喝云。且道者個還入其數麼。一輪皓月懸崖畔。幾片殘雲挂嶺頭。卓一卓下座。

大冶法嗣

舒光照禪師

蘄水人。避世入蛾眉絕頂。影不下山者二十餘載。忽一日欲下山。鳴鼓上堂。九旬限滿。巧中藏拙。晝夜殷勤。拙中藏巧。養馴一個水牯牛。頭角崢嶸世上少。今朝肆足印莓苔。笑殺平田黃大老。辭世形本無形。說亦無說。盡大地人難摸索七十九年住娑婆。彈指光陰如夢覺。舉步踢倒蛾眉山。者邊那畔總一箇。喝一喝。擲筆而逝。

耳毒泰法嗣

射洪會靈寺幻住明禪師

瀘州曾氏子。嗣法于耳毒泰。上堂。雨過莓苔淨。陞堂說法時。斯緣誰解會。啼鳥上花枝。小參。初撾塗毒鼓。三舉撲地鐘。敵勝超

羣句。生蛇始化龍。咄。

純備德禪師

鄧都李氏子。中年于幻住大師處鬚染。詣耳毒和尚座下圓具。而嗣法焉。後住彝陵州黃陵禪院。上堂。立教明宗。須張縵天網子。活捉龍蛇。可以直下承當。安邦定國。要展揭世經綸。生擒虎兇。乃能全身擔荷。所以祖師心印。壯似鍊牛之機。去即印住。住即印破。只如不去不住。印即是。不印即是。于斯擬議。錯過千山。少涉思惟。白雲萬里。致使三世諸佛總放不下。歷代祖師全提不起。一大藏教詮註不及。劄脞衲僧自救不了。正恁麼時。作麼生履踐。喝一喝云。振奮吒沙無向背。爍迦羅眼莫能窺。

佛語御法嗣

重慶府香國寺窺堂秀禪師

湖廣辰州府人。幼失恃怙。依湖山慧覺和尚之嗣。佛語會下薙染。十八圓具。深研內外典集。未幾屏去。鐵脊焦團。受佛語記莛。囑之南遊。參徧諸方。已已歸渝就香國。開爐上堂。爐火乍燔。是鍊是銅須經煅。橐籥大煽。若凡若聖盡銷鎔。淬般若之智鋒。礪金剛之神劍。若是躍冶之金。徒勞鍛煉。驀豎拂云。者一星兒火種。自鷲峰發燄。嵩少騰芳。太白山中。標霞天之光彩。錦江江上。闡亙古之宗猷。如如意珠。似帝青寶。可以福國裕民。為祥為瑞。入聖超凡。而今落在香國者裏。只得借曼殊普賢作爐頭。勢至圓通為冶匠。五百聲聞緣覺作散工。扇火扇風。添煤添炭。山僧忍俊不禁。未免助其神用。遂擲拂子云。直下來也。急著眼觀。

吼一等法嗣

唐安曇雲寺文壁福禪師

眉州陳氏子。幼冲覃訐。染指釋門。參徧諸方。後入吼和尚之室。秉拂上堂。柳舒金。梅正白。幾經霜凌幾經雪。寒枝傲骨占春先。却把清香輕漏泄。惟佛與佛無分別。揮拂子云。筍過東家作竹林。藕穿池面為荷葉。臘八上堂。積劫深懷疑彈子。實難吞吐出皇宮。六年雪嶺時無懈。驀地擡眸見己躬。此是大覺老人。在霜天月下悟得底。今日福上座。向情與無情煥然等現處。舉似大眾。還會麼。

若會得。天地虛空生汝心內。人物殿堂皆汝元常。若或未然。捨家出家本屬何因。緇衣披度當為何事。正恁麼時。且道大覺老人。畢竟悟箇甚麼。良久云。泥牛掣斷黃金鎖。鐵馬衝開碧玉關。改見月菴為曇雲寺。上堂。一點一畫涅槃妙心。一字一言真實勝義。不是九重隆下。親從刺史頒來。顯示佛祖真機。開發人天眼目。所以道。若以眼見。乃文殊境界。若以耳聞。實觀音妙體。若以心思。普賢牀榻。且道。毗盧遮那即今在甚麼處。顧左右云。不擬議時全體現。涉思惟處隔關山。

瑞林蓮法嗣

玉諾昌禪師

蜀南人。齠齡于瑞林和尚處薙染。至年圓具。初遊講肆。頗通經論。因看圓覺經。四大各離。始覺忙然。遂徧參。歸來徧困于淡竹老人。受記荊于本師瑞林和尚。康熙戊午。住成都府德元寺。上堂。吾年三十四。佛法總不識。張登曲条牀。渾無些子伎。全提臨濟宗。惟憑斯箇力。頭頭絕覆藏。處處無踪跡。活潑潑耀古騰今。峭巍巍輝天鑑地。當陽露出端倪。揚眉已落第二。且如何是全提意旨。卓拄杖云。青天也皺眉。住南關外草堂寺。上堂。兩度相催住草堂。且無佛法可商量。烏藤拈出全收放。殺活臨機觀體彰。呈拄杖召眾云。者木上座。在臨濟德山。有意氣時添意氣。在文殊普賢。不風流處也風流。落在昌上座手裏。放行則萬象生輝。把住則乾坤失色。空王殿上。一任簸土揚塵。糞掃堆頭。徧現紫金光聚。有時為天中之天。有時作聖中之聖。胎卵濕化。鱗甲羽毛。承斯恩力。齊彰本地風光。各顯神通妙用。與凡聖同源。千差一致。復卓一卓云。還委悉麼。離相離名人不稟。吹毛用了急須磨。

曉元濟法嗣

大旭宗禪師

蜀南建昌李氏子。齠年祝髮。詣成都草堂寺。參曉元和尚座下圓具。巾餅六稔。元痛以鉗錘。契機之後。住窩山鎮疆寺。至節上堂。心珠燦燦絕纖塵。盡淨常靈脫體新。無物與伊堪比并。略侔日月合其明。眾中有恁麼人麼。問月朗當空時如何。師云。光映前街連後巷。進云。月落後如何。師云。剔起殘燈閱簡編。進云。如何是窩山境。師云。雨晴松竹翠。山寺木[木*魚]聲。進云。如何是

境中人。師云。樓頭歌舞後。猶味樂賓儔。進云。人境雙忘豈如何。師云。籬邊葉落無聲響。嶺上雲歸絕點痕。乃云。六花亂墜。寒氣逼人。日南長至。百卉萌生。山僧裹頭大睡。誰管他人屋上霜凝。以拄杖作圓相云。會麼。于中薦得。百千三昧一時證得。神通妙用無越此宗。人人向文殊眉睫上往來。個個于普賢行門中出入。高揖釋迦。不拜彌勒。到恁麼田地。有無不立。凡聖亦如。隨緣放曠。任運逍遙。石頭土塊動地放光。蒼松翠竹吾人本體。何必要山僧重叨咀也。如或未委。不惜唇皮再下註脚。驀拈拄杖卓云。久立。

佛冤綱法嗣

嘉州九頂子開乾禪師

本州辜氏子。生而有異。孤勁淵冲。志慕上乘。年十九。往洪椿坪。禮祖正師削染。後遊成都昭覺。依師翁操策機辯。日究奧旨。圓具禮辭。歷謁尊宿。提撕心要。洞然無滯。時師翁謝事。冤領昭覺。復造其席。覺垂語云。牛過窻櫺。頭角四蹄俱過。因甚尾巴過不得。師應聲云。明破即不堪。拂袖便出。即頌。渾身獨步千峰外。無限風光意莫窮。揭石耕雲橫宇宙。尾巴尖上活渠儂。覺又問。萬法歸一。一歸何處。師云。誰家店內無宿客。覺云。未在更道。師立頌。一法凜然萬法虛。山河大地一芙蕖。電光石火猶嫌鈍。妙體堂堂位不居。覺徵云。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個甚麼。師云。不敢妄生穿鑿。連頌二偈。心佛俱非不是物。神頭鬼面絕譌訛。等閑放出遼天鶻。舒掌擎拳較不多。又相逢不識名和姓。伊向東西我自南。莫道長安風月好。到頭終是自羞慚。覺可之。其徵徹直捷。迥絕見知。扣問咨參。了無憍念。覺解制。授以衣拂。癸酉十月。師翁丈老人結制。命秉拂上堂。若論個事。一味尋常。騎聲蓋色。法法全彰。縱奪殺活。不犯鋒鋦。清風明月。不坐玉堂。快須擲瞎娘生眼。炯炯寒光照大唐。靈利衲僧聊聞舉著。直下承當。雖然如是。脚跟下與伊三十拄杖。且道。利害在甚處。卓拄杖云。鴛鴦綉出從君看。不把金針度與人。

天湛熾禪師

漢之古洋州李氏子。夙植迥別。不類常童。九歲于興元淨明。禮佛冤和尚削染。聽事服勞。痛與鞭策。甲寅冤領昭覺院務。制中同眾打七。面觸露柱。忽爾暢然。呈偈曰。無參參處却參參。三脚驢兒

苦著鞭。骨碎皮穿肝膽露。血淋淋地染長安。覺可之。壬申結制。師翁老人命秉拂。拈拂子云。法不孤起。仗境方生。時當秋末。萬卉潛榮。或抑或揚。觸目現成。豈不見。置山河大地于一毫端。透頂透底。絕羅絕籠。顯大機明大用。觸處普賢境界。發揮佛祖機籌。有時拋三放兩。拈尾作頭。有時充塞虛空。擘開華嶽。麻三斤。庭前栢。青州衫。天下老和尚家私。一時打貼。拂一拂云。咦。步步登高易。平地喫交難。擊禪床下座。

籌室燦禪師

秦州王氏子。廿歲禮普門端宗師鬚染。法名勝燦。次年就本邑護國圓應和尚座下圓具。腰包趨蜀。依昭覺佛冤和尚。巾瓶有年。覺嘗拈馬祖一喝百丈耳聾公案。師纔聞舉便掩耳。一日又問。毛吞巨海。芥納須彌。且道是神通妙用。法爾如然。師禮拜了歸位。覺便歸方丈。機緣相契。而受印可。甲戌冬。職維那。結制。命秉拂。上堂云。赤體條條絕所依。生平莽鹵沒思惟。一椎打就無今古。途路行人誰個知。是日陞堂重漏逗。且喜當陽母自欺。燦上座。昔年向者裏打失眼睛。珠沉滄海。即今劍露丘墟。光射牛斗。人人具頂門正眼。個個超佛祖宗猷。耀古騰今。離見絕聞。當此之際。虛空倒卓。大海颶塵。應時及節即不無。且道結角羅紋一句。作麼生道。驀呈拄杖云。到者裏。不惟踏不著佛祖關鍵。管教覷之不及。卓拄杖下座。

錦江禪燈卷第十四

昭覺丈雪 通醉 輯

紹興幻菴 胡昇猷 訂

大鑒下第三十八世

竹浪生法嗣

翼雲鵬禪師

蜀西漢安馮氏子。母預夢一僧入舍。覺而有娠。及誕之後齠齡間。父携上般若。見佛像儼然。即願出家。父母不聽。又二載不樂俗務。父送禮不虛禪師薙髮。讀楞嚴呪。恍如舊識。將日課經典讀畢。送入學館三年。頗通儒。十九歲。上昭覺丈師翁處圓具。辛酉夏。師翁手筭。命竹浪和尚。回昭覺繼席。入院上堂。師出問。如何是第一義。覺云。鐘鼓分明。進云。恁麼則金聲振出千松碧。祖庭春動起潛龍。覺云。頂門上再亞一隻。覺當晚小參云。諸佛說不著。祖師提不起。于中有一物。無頭一無尾。且道是甚麼物。[口*尔]。師答云。一聲天際外。非將物可比。覺作聽勢云。依稀似曲纔堪聽。又被風吹別調中。後覺命頌趙州石礪公案驗之。師立頌。衲僧不見石礪。且喜親聞略約。原來覲面相承。等閑眨眼蹉過。覺又以百丈野鴨公案徵之。師輟頌云。野鴨冲霄過。無端生殃禍。百丈不識機。鼻頭都扭破。一日覺示眾。舉崦溪水聲公案考工。師仍頌千里迢迢忙未歇。溪聲聞舉心中瞥。猛然觸碎從前底。無奈家貧遇劫賊。覺首肯之。遂書偈而薈焉。壬申春出峽徧參。

義喆純禪師

蜀南洪州李氏子。誕而奇偉。六歲時。父携上天香院。見佛便禮。眾異嘆曰。此子疑是再來人也。父母遂送智光印大師座下薙髮。嘗所出言。實而不華。詣霧中綠雲關心一律師處圓具。聞竹浪和尚開法青城。結伴造席。值上堂。出問。未進步時如何。浪云。且居門外。進云。已進步時如何。浪云。堂高數仞。地濶八埏。進云。未進已進蒙師指。向上宗乘事如何。浪云。一棒一條痕。師便禮拜。通身汗下。若夢初覺。寸絲不挂。心境一如。自此投機。塵拂之

下。多受其益。印以偈云。目前無法可相傳。萬象森羅理事圓。且喜闍黎親薦得。從教收放在毫端。後束裝南遊。乃遍參耳。

義奇一禪師

唐安陳氏子。幼時羣而不黨。終日粥粥自娛。設問你在此作甚麼。于地拈瓦礫示之。或曰。此兒夙植有因。熟習不忘。齟齬。父母送禮菩田佛尊宿出家。凡所誦習。如識舊章。詣崇寧萬壽曉元和尚處圓具。後覺而嘆曰。身世無常。此心安寄。聞竹浪和尚開法鳳林。瓢笠往參。遂充記室。值浪和尚上堂。垂語云。三十餘年坐釣磯。而今方得展雙眉。汀花水滸非他物。觸處元來佛祖機之句。不覺觸碎鼻孔。披雲見日。乃曰。應物現形如水中月者。此也。從今不受天下老和尚舌頭瞞。遂放身自肯。面受記莚云。急水灘頭好放舟。波濤雖險妙隨流。絲綸直透蒼龍窟。信有鯢鯨上釣鈎。癸酉秋。買舟出峽東下。

懶石聆法嗣

非指明禪師

江津熊氏子。嗣懶石聆和尚。依止華嵒數載。隱逸江津之靜慈有年。嘗有頌古行世。道眼精明。學探深蹟。今略拈數則。以著師心。丹霞燒木佛(頌)離宮勅令降將來。簇錦攢花當下灰。驚起牛兒渾不見。行人得去邑人災。石霜橫刀水盆上傍置艸鞋。(頌)空把瑤琴月下彈。無生曲調自超然。子期不諳何處去。孤負渠儂意一翻。十八女子不繫裙。(頌)衲僧鼻孔。活活鱗鱗。不繫裙兒。灑灑落落。婆子燒菴。(頌)正恁麼時。如貧得寶。然却葷子。一了百了。日面佛月面佛。(頌)日面佛兮月面佛。一條拄杖兩頭禿。敲風打雨人不知。拄地撐天光煜煜。

耨雲實法嗣

古湟印心寺佛敏訥禪師

秦州天水姜氏子。卅歲出塵。參徧天下。末入閬中草堂。參耨雲禪師。俄於掌下領旨。始紹其裔。西寧緇素。迎住古湟院。依本據令。闡揚雙桂宗旨。上堂。山野一向以來。白[嘆-口+白]生於嘴邊。青艸長于舌上。遂按膝咦一聲。錯下註脚。佛成道日上堂。活

驚殺活笑殺。山頭老漢沒徧[仁-二+(天/韭)]。無端夜半覩明星。兩眼明明都填瞎。卓拄杖云。瞎瞎。上堂。拈拄杖云。木上座。于黑漆桶裏住著。未敢輕示其人。以杖置右手云。今日出來指東話西。似與鉢盂安柄也。雖然如是。且不得辜負拄杖子。何也。為伊頂門上有眼。

竹鏡嵩法嗣

眉州燈壁寺文衡權禪師

資陽呂氏子。生而質異。因父早喪。七歲依胞叔玄樞薙染。次造先知和尚受具。服勞三載。辭謁諸方。後入中崑室。因緣相契。遂印可焉。佛成道日秉拂上堂。佳景時逢臘月天。嚴寒凝凍雪為簾。頓分一線回春令。却放梅花一著先。即今苾芻納戒之日。乃叢林鍛鍊之時。本師三月遺規。九旬期會。人人于汲水拾薪邊薦取。個個于穿衣喫飯處承當。命不肖登此座轉無上乘。卓拄杖云。者個是無上乘。那個是拄杖子。參。舉世尊覩明星悟道。一切眾生俱有如來智慧德相。皆因妄想執著而不證得。師云。老瞿曇。須是頂天立地。到頭知尾。不妨漏逗。只如遠孫。又作麼生行履。視左右云。切須仔細。

其白富法嗣

融徹頂禪師

蜀南人。幼歲禮其白禪師髻髮。廿齡圓具。究心不輟。嘗看六祖風旛因緣有省。遂受本師鉢袋。繼席玉泉寺。康熙壬申冬結制。正修毛居士請上堂。今朝十月十五。行者考鐘伐鼓。玉泉結制上堂。驚起魚龍躍舞。只將白棒提持。大地山河莽鹵。坐斷諸佛關鍵。綱維從尚列祖。衲僧擬議思量。一棒打折驢腰。莫言不道。上堂。諸佛本無說。祖師未曾聞。留下一轉語。千古鎮乾坤。且道是甚麼語。[口*尔]。喝一喝云。今日冬月一。萬卉俱凋悉。玉泉爐增燄。山門輝佛日。驀召眾云。是何朕兆。良久云。庭前生瑞草。好事不如無。復喝一喝下座。

指雲孝法嗣

勤正進禪師

陝西華州吳氏子。廿有七齡。觀身世無常。詣四川重慶府華嵒禪院。禮指雲禪師薙染。痛念生死。脇不至蓆者數年。就本堂圓具。侍師翁聖老人。至瀘陽雲峰寺。值上堂。問如何是父母未生前本來面目。翁驀頭一棒昏死。少頃漸甦。乃說偈云。者迴喫棒不尋常。始覺毗盧解脫場。萬象森羅皆拱手。拈來盡是返魂香。雲因而印證。後有頌慈明榜文云。輪捶是誰搬弄。打破千年鐵甕。頻頻呼喚無他。不離自己作用。阿呵呵。總是一場大夢。

浮石演法嗣

嵩雲秀禪師

長安明州譚氏子。韶年禮于一禪師落髮。廿三歲。遂起身世無常之感。初參不會和尚。命看指月錄。至大道祇在目前。要且目前難覩。有個入處。于昭覺丈雪和尚座下圓具。後至方山雲峰。依聖可和尚。推拂久之。一日舉世尊觀明星公案示眾。師信口頌。獨坐寒山意氣賒。明星點眼絕周遮。掀翻海嶽平如掌。情與無情共一家。時浮石禪師為首座。聖老人命師送歸院。機緣相契。而記荊云。獅子羣中出隊來。等閑哮吼震山隈。烏藤兩手親相付。頓使人天夢眼開。復至雲峰職監寺。聖師翁命小參。僧問。如何是世尊不說說。師云。有說即錯。進云。如何是迦葉不聞聞。師云。有聞即差。乃卓拄杖。云者是德山大機。喝一喝云。者是臨濟大用。今日落在嵩上座手裡。又作麼生施設。復卓一卓喝一喝云。若將耳聽終難會。眼底聞聲方始知。

大器成法嗣

濟得正禪師

蜀南隆昌張氏子。幼歲于本邑正覺寺大器和尚座下脫白。圓具于雲峰聖師翁處。結伴南遊徧參。歸來受本師印可。嘗有頌世尊初生。初出母胎迥不同。指天指地讓渠儂。雲門須具超方眼。賊過張弓未是雄。頌庭前栢樹子。信手拈來了弗疑。龜毛兔角豁當機。眼中若是停金屑。辜負蒼蒼兩道眉。

法空證法嗣

素如珮禪師

陝西寧夏劉氏子。齠年禮順和禪師薙染。廿二歲圓具于劍刃和尚。初參不二禪師請益。命看萬法歸一。後結伴入川。至方山雲峰。參聖可和尚。值上堂。師出問。趙州道萬法歸一。畢竟一歸何處。聖云。面南看北斗。于機下有省。法空禪師。辭聖和尚。往住漢州開元年。師隨從。空曰。古人道。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二。且道。一如何舉。師云。急水灘頭牢把柁。空云。將柁來看。師便喝。空云。却是個棹子。師云。切莫壓茛為賤。于是印可。偈云。金毛獅子出林間。大地風生百獸潛。獨步上方超異類。佳聲丕振太無端。嘗頌產難因緣。積雪凝冰結未消。一枝寒玉寄梅梢。靈苗不借東皇令。一段清香向外飄。達磨會武帝。(頌)朔風凜凜入樓臺。春意潛舒雪上梅。縷縷暗香浮嶺外。相思無計勢難回。

赤松嶺法嗣

乾御源禪師

蜀人。受印偈于赤松和尚。久住黔西。有錄行世。後江浙歸觀本師。命秉拂小參。神機密運。觸類傍通。廓爾圓明。不落諸數。所以南詢五十。鋒鋌初露于妙峰。樓閣門開。大機終涵于海藏。百千妙義。無量法門。總在一毛頭上。彰顯現前。一一無非受用。大眾。既爾受用十分現前。因甚彌勒大士。却從遠方歸來。若向者裡見得徹。黔天風月一團和氣。脚跟不動華藏週遊。其或未然。不免曲引傍資。拂一拂云。七載離師海上遊。歸來時節正逢秋。籬邊菊露三玄句。桂萼香浮意外幽。獅峰如畫。勝景凝眸。碧水潭中龍奮迅。奪得雲霞滿袖頭。喝一喝。

嗣燈胤法嗣

隱南廣禪師

金川沈氏子。廿歲禮嗣燈和尚薙染。侍關三載。日益深奧。燈出關。乃與圓具。久獲印證。燈入寂滅定後。遍參諸方。復歸興國守師塋。遂有終焉之志。一日中崑麗眉大士。同德善居士。供法衣請上堂。大庾嶺頭曾拈提不起。德善居士和盤托出。牧野禪人覲體承當。正所謂于食等者于法亦等。且因齋讚一句作麼生道。靠拄杖云。到江吳地盡。隔岸越山多。復召眾云。幸我中崑麗眉法兄和尚。開方便門。示真實相。普攝人天。各具本有。此段因緣。出善

財一頭地也。不涉烟水。登彌勒樓閣。不假修證。次補千佛位中。還委悉麼。鴛鴦綉出從君看。不把金針度與人。

大鑒下第三十九世

舌響訥法嗣

圓通大朗璽禪師

渝城楊氏子。印可住三聖寺虎溪。寢食之餘。織[尸@僑]施四來。住圓通。法衣至上堂。拈衣云。二十餘年學個猓。無端禍事上身來。冤沉海底重重結。此日人天推不開。住新繁龍藏寺。上堂。今朝七月一。衲僧討巴鼻。夏暑猶未退。秋景又追逼。到家人自由。途中多涉力。拂一拂顧左右云。途中且置。到家一句作麼生道。能為萬象主。不逐四時凋。解制上堂。開欄釋鑰。放出羣牛。既無拘束。任爾優游。是則是。切忌東觸西觸。犯人苗稼。咦。明年更有新條在。一聲鋏笛喚回頭。晚參。鏡清有六刮。衲僧怯路滑。若要兩相應。深錐須痛筍。書記問。如何是就毛刮塵。師云。風行草偃。如何是就皮刮毛。師云。赤刀烙錫。如何是就肉刮皮。師云。滾湯沃雪。如何是就骨刮肉。師云。庖丁解牛。云只如髓又如何刮。師曰。撒手到家人不識。翻嫌脚瘦草鞋寬。己巳年十月一日晚。見法堂前草芊。以方便鏟除之。倏釋鏟云。來生又做些。罷入方丈。明晨行者趨進。**已**坐脫矣。涕洟雙垂。顏色如生。臘三十三。壽七十四。塋于本山。

祖鼻法嗣

滄溪月禪師

保寧滄溪李氏子。幼失恃怙。見壁間偈云。此身不向今生度。更向何生度此身之語。遂有出塵之志。不得自由。遇一尊宿請益。令參栢樹子話。無入處。矢志脫塵。聞月幢和尚開法。往參三載。一日聞鼓聲有省。值祖鼻和尚作座元。而印可。住滇南曲靖府天王寺。佛誕上堂。第一義諦。世尊未離兜率。露布了也。天下老和尚。未出方丈。露布了也。月上座未拈拄杖。露布了也。若待登曲条木床。**已**是落二落三。更要山僧口吧吧地。轉沒交涉。雖然如是。沒量大人情性辣。滿裝一杓潑悉達。指天指地漫稱尊。却被雲門欲打

殺。未審眾中還有不甘者麼。良久以拄杖橫按云。青山只愛磨今古。淥水何曾洗是非。

純備德法嗣

法幢遠禪師

蜀東萬縣宋氏子。得法于純備德和尚。住彝陵州黃陵禪院。示安石慧禪人法語云。從上古人。親近真善知識。勤勞刻苦。廢寢忘餐。必將衣線下事究明。透頂透底。出羅籠離窠臼。洒洒落落。無束無拘。等閑拈一語示一機。動地驚天。為千百世之標準。方不姑負參學之志。珍重。

錦江禪燈卷第十五(終)

跋

原夫。真常者。本無形狀。元非比擬。放則萬行圓滿。收則千機寢削。菩提涅槃。真如佛性。金剛圈栗棘蓬。光明幢日月燈。種種異域。皆從此中流動充滿。附物立名。難越其閭奧也。然而附天自高。附地自寧。附日月代明。雖云物無私映。尚不能灼盡昏衢。附之于燈。能破千年暗室。言體孤明獨照。言用續燄聯輝。所謂冥者皆明。而明終無盡。此書不曰禪錄。而名禪燈者。俾傳之無窮也。豈非佛祖慧命之燈乎。自世尊拈華迦葉微笑。乃至斷臂安心。明鏡非臺。染污不得。即心即佛。一喝耳聾。顯大機用。脅下還拳。于中卓樹光明幢。如寶絲網。因而光光相羅。徧攝寰區也。本師丈老人。初蒙雙桂師翁印心已來。七坐道場。播揚宗旨。末後還蜀。節度使坤育張公。偕見任寮案。請闢圓悟祖庭。三十餘載。應機接物之暇。于劫灰堆裏。拮拾殘篇斷簡。蒐羅諸家語要。合集一書。名曰錦江禪燈。癸酉秋。命徹生負藁東下。楞嚴災棗。弟將古今知識。從真常體中。印明大事因緣。共相敷陳一段光明幢。聯絲一盞無盡燈。雖云去聖時遙。且靈山一會儼然未散。乃吾師衛法之苦心也。慨久遠之無徵。待傳述之有自。間有挂漏。收攝未備。不能無望其同志高明者。尋討補入云爾。

岿

康熙癸酉冬長至日青城嗣祖沙門徹生熏沐敬跋

昭覺丈雪 釋通醉 輯

紹興幻菴 胡昇猷 訂

青城竹浪 徹生 編

道因

濮陽侯氏子。稟祐居醇。含章縱哲。覃訏之歲粹采多奇。髻鬣之辰殊姿特茂。孝愛之節。慈順之風。卒志于斯。年甫七歲。丁于內艱。溢粒絕漿。殆乎滅性。成人之德。見稱州里。免喪之後。思疇罔極。出家之志。人莫移之。便詣靈巖寺。求師落髮。誦習。曾不浹旬。通涅槃經二帙。舉眾驚駭調為神童。宿齒名流咸所歎服。旋學律儀。又于彭城嵩法師所傳攝大乘。遂依科戒而為節文。年少沙門且令習律。曉四分者方許入聽。師夏臘雖幼。業行攸高。獨于眾中迴見推重。每敷攝論。義理精通。後隱泰嶽。凡經四秋。于是杖錫出山。子焉超邁。徧參歸蜀。居于多寶寺。緇素聞道譽。乃命開筵攝論維摩。時有寶暹法師。東海人也。殖藝該洽。尤善大乘。昔在隋朝。英塵久播。暹公傲爾其間。仰之彌峻。每至師之論席。肅然改容。師抗音馳辯。盡妙窮微。益州總管鄧國公竇璡。行臺左僕射贊國公竇軌。長史申國公高士廉。范陽公盧承慶。及前後首僚。西南嶽牧。並國華朝秀重望崇班。共籍芳聲。俱申虔仰。謝筵之後。乃于彭門山寺。往經廢毀。院宇凋弊。師慨然營緝。未移再稔。蔚成覺苑。又以九部微言。三界式仰。緬惟法盡將翳龍宮。遂于寺之北巖。刻多羅之秘表。并毗尼之正文。縱堯世之洪水襄陵。任趙簡之北山燎狩。必無他慮。與劫齊休。既而清猷遠暢。峻業遐昭。遂簡宸衷。乃紆天綽。追赴京邑。止大慈恩寺。與玄奘法師翻譯。校定梵本。兼充證義。每有難文。同加參酌。慧日寺主楷法師者。聰爽溫瞻。聲藹鴻都。首建法筵。請開奧義。帝城緇俗具來諮稟。欣焉相顧。得所未聞。師研幾史籍。尤好老莊。咀其菁華。含其腴潤。包四始于風律。綜五聲于文緒。故所講訓。內外該通。其專業者。涅槃華嚴大品維摩法華楞伽等經。十地地持毗曇智度攝大乘對法佛地等論。及四分等律。其攝論維摩。仍著章疏已。而能事畢矣。

靖邁

梓潼人。少孺矜持。長高志操。特于經論研覈造微。氣性沉厚。不妄交結。遊必擇方。抵于京輔。貞觀中。屬玄奘西迴。勅奉為太穆太和。于京造廣福寺。就彼翻譯。所須與力。悉與玄齡商量。務令優給。遂召證義大德。諳練大小乘經論。為時所尊尚者。得一十一人。師預其精選。居慈恩寺。同棲玄明濬辯機。終南山道宣。同執筆綴文。翻譯本事經七卷。師後與神昉筆受。于玉華宮及慈恩寺翻經院。皆推適變故。得經心矣。後著譯經圖紀四卷。銓序古今經目。譯人名位。單譯重翻。疑偽等科。一皆條理。見編于藏。開元中。智昇又續其題目焉。

神清

字靈庾。絳州彰明章氏子。昆季三人。皆有名望。師居乎仲。處胎之際。母頓惡葷羶。及為兒時。雖隨戲弄。遇像即禮。逢僧稽顙。年十三。受學于絳州開元寺辯智法師。其法師嚴峻。限念經千紙。方許落髮。師即誦法華維摩楞伽佛頂等經。時喬琳為絳郡太守。驚其幼俊。躬自降禮請削染焉。至年十七。聽習羈通。即講法華經于慧義寺。依如律師圓具。尋達大宗。乃詣上都。後以優文瞻學。入內應奉。暮年鍾其茶蓼。歸慧義寺。講導著述。略無閒日。以元和中。終于本寺。遷神于白門蘭若。師平昔好為著述。喜作編聯。巨富其才。鑿深于學。三教俱曉。該玄鑒。極彝倫。咸敘前後。撰法華玄箋十卷。釋氏年志三十卷。新律疏要訣十卷。鈔二眾初學儀一卷。有宗七十五法疏一卷。亦名法源記。解小乘所計五位色心心所不相應無為等法。體性業用。一皆詳括。故云法源也。識心論。澄觀論。俱舍義鈔數卷。北山參玄語錄十卷。都計百餘軸。並行于世。其語錄博該三教。取為南北鴻儒名僧高士之所披翫。寺居鄴城之北長平山陰。故云北山。統三教玄旨。故云參玄也。東川序真贊云。與奘三藏道顏。同攝物異時一體耳。海內學人望風而至。開成中。北山俱舍宗不泯者。師之餘素乎。東川涌潭僧正顏公。著碑本寺。講律臨壇光肇。別附語錄。略記師言行矣。

靈著

絳州劉氏子。年始志學。方遂出家登戒。年四十。精毗尼。講涅槃。一律一經勤于付授。晚歲請問大照禪師。領悟宗風。守志彌篤。後詣長安。大敷禪法。其慕師道者。若魚龍之會淵澤也。以天寶五年四月十日。于安國寺。趺坐怡然而化。塔于佛陀波利塔左。

帝女媧墳右。內侍上柱國天水趙思侃撰塔銘。命弟子善運豎碑于塔所。享壽五十六。僧夏三十六。

神會

本西域石氏子。祖父徙居于岐之鳳翔。師至性玄解。明智內發。大璞不耀。時人未知。年三十。方入蜀。謁無相大師。利根頓悟。冥契心印。無相歎曰。吾道在汝矣。後德充慧廣。鬱為禪宗。寂照滅境。超證離念。即心是佛。不見有身。當其凝閉。則土木其質。及夫妙用默濟。雲行雨施。蚩蚩羣眈。陶然知化。睹貌遷善。聞言革非。至于廓蕩昭洗執縛。上中下性隨分令人。以貞元十年十一月十二日示疾。儼然加趺坐滅。春秋七十五。法臘三十六。沙門那提。得師之道。傳授將來。時南康王韋公臯。歸心于師。得其禪要。為立碑自撰文并書。禪宗榮之。

南印

姓張氏。明寤之性。得曹溪深旨。無以為證。見淨眾寺神會禪師。始契心焉。所謂落機之錦。濯以增妍。銜燭之龍。行而破暗。師遂出峽徧參。自江陵入蜀。于蜀南江壩。薙艸結茆。眾皆歸仰。漸成佛宇。貞元初年。高司空崇文平劉闢之。後改此寺為聖壽。初名寶應。師化緣將畢。于長慶初示寂入滅。營塔塋于寺右。會昌中毀塔。大中復于江北寶應舊基。仍建此寺。還名聖壽。師有弟子義俛。復興禪法焉。

有緣

東川梓潼馮氏子。至學之年。往成都福感寺。事定蘭開士。即宣宗師也。一日帝以筆書其衫云。此童子與朕有緣。由茲得名。大中九年。遇白公敏中出鎮益部。請師開戒壇于淨眾寺。應召京輦。講傳經律。五臘後海內遊行。參見小馬神照禪師。開悟契機。後居滁州華山數夏。復遊武夷山。時廉使李誨。為築禪室。乾符三年。至縉雲龍泉大賽山立院。因奏祠部給額。號龍安。住十八載。後遷連雲院。太守盧約。請入州開元寺別院。四事供施。天祐丁卯歲四月八日。示疾而終于廨署。報齡七十三。臘五十二。宣宗遺旨。囑制置揚習司空主喪。于寺南園茶毗。捨舍利數百粒。後收四十九粒。并遺骨一瓶。瘞于石塔。晉開運三年乙巳歲。文泰律師。撰塔銘焉。

鑑源

不知何許人。素行甄明。範圍律道。苾芻表率。形直影端。後講華嚴經。號為勝集。日供千人。其米粟常盈倉庫。取之不竭。汧夏涉秋。未嘗告匱。其冥感如此。其山寺越多徵應。有慧觀禪師。見三百餘僧。持蓮燈凌空而去。歷如流星。開元中。崔冀公寧。疑其妖妄。躬自入山。預禁山四方各三十里。不得燃火。至第三夜。有百餘支燈現。兼紅光千尺。冀公蹶然作禮。歎未曾有。時松間出金色手。長六七尺許。有二菩薩。黃白二色閃爍。然復庭前柏樹梢。晝現一燈。其明如日。橫布玻瓈山三里許。有寶珠一顆。約有丈餘。熠燿可愛。西嶺懸大虹橋。橋上梵僧老幼間出。有二炬爛然空中。如相迎送。下有四菩薩。兩兩偶立。俱放身光。高六七丈。復見前松林間。忽現梵字。額篆書三學二字。下垂繡帶二條。東林之間。夜出金山。月當于午。金銀二燈。列于知鉉法師墳側。韋南康臯。每三月就寺設三百菩薩大齋。菩薩現形捧燈持香。引挹插于山門爐中。白中敏中皆睹其瑞。重興此寺。大中八年。改額開照。其源律師道化。與地俱靈。弟子傳講。東川所宗也。

知玄

字後覺。嘉州洪雅陳氏子。曾祖圖南。任梓州射洪縣令。母魏氏。夢月入懷。因而載誕。乳哺時。凡見佛像僧形。必含喜色。五歲。祖令詠花。便云。花開滿樹紅。花落萬枝空。唯餘一朵在。明日定隨風。祖吟歎不懌。曰。吾育此孫。望其登第。以雪二代之耻。今見孺子志矣。非貽厥也。必從空門。乖所望也。七歲。果遇法泰法師。在寧夷寺講涅槃經。寺與居隣。師日就講肆。一聆法語。若睹前因。是夕夢佛手摩頂。寤啟祖父。乞為出家。親黨觀其志必不可奪。故聽許之。年十一削髮。乃隨師詣唐興邑四安寺。授大經四十二卷。遠公義疏。辯空師圓旨。共一百二十五萬言。皆囊括深奧。方年十三。指撝緇徒。露老成之氣。時丞相杜公元穎。作鎮西蜀。聞師名。命升堂講談于大慈寺普賢閣。黑白二眾日記數萬指。注聽傾心。駭歎無已。自此蜀人弗斥其名。號陳菩薩耳。傳云。師前身名知鉉。漢州三學山講十地經。感地變瑠璃。師于淨眾寺辯貞律師處圓具。纔聽毗尼。續通俱舍。則長十山固律師之付授。復從本師下三峽。歷荆襄。抵神京資聖寺。乃四海三學之人會要之地。師敷演經論。僧俗仰觀。戶外之屨。日其駢填。文宗皇帝聞之。宣入顧問。甚愜皇情。復習唯識論于安國信法師。又研習外典經籍。百家之言無不該綜。師每恨鄉音不堪講貫。乃于象耳山誦大悲呪。夢神

僧截舌換之。明日俄變秦語矣。有楊茂孝。乃鴻儒也。就師尋究內典。直欲效謝康樂。注涅槃經。多執卷質疑。隨為剖判。致書云。方今海內龍象。非師而誰。次楊刑部汝士高。左丞元裕。長安揚魯士。咸造門擬結蓮社。嘗一日師宴坐。見茂孝披紫服戴碧冠。三禮畢乘空而去。玄令人偵問茂孝。其夕誡其子曰。吾常欲落髮披緇。汲瓶挈屨侍玄公。所累者簪冕也。吾蓋棺時。殮以紫袈裟碧芙蓉冠。至是方驗先見矣。武宗御宇。初尚欽釋氏。後納蠱惑者議。望祀蓬萊山。築高臺以祈羽化。雖諫官抗疏。宰臣屢言。終不迴上意。因德陽節。緇黃會麟德殿。獨詔師與道門敵言。神仙為可學不可學耶。帝叉手付老氏中理大國。若烹小鮮。義共黃冠往復。師陳。帝王理道教化根本。言神仙之術。乃山林間匹夫獨擅高尚之事業。而又必資宿因。非王者所宜。辭河下傾。辯海橫注。凡數千言。聞者為之股慄。大忤上旨。左右莫不色沮。左護軍仇士良。內樞密楊欽義。惜其才辯。恐將有斥逐之命。乃密諷貢祝堯詩。師立成五篇。末章云。生天本自生天業。未必求仙便得仙。鶴背傾危龍脊滑。君王且住一千年。帝覽詩微解。帝雖不納忠諫。而嘉其識見口給也。師即歸巴岷舊山。例施巾櫛。而存戒檢愈更甄明。方扁舟入湖湘間。時楊給事漢公。廉問桂嶺。延止開元佛寺。屬宣宗龍飛。楊公自內樞。統左禁軍。以冊定功高。請復興天竺教。奏乞訪師聲迹。師復挂壞衣。歸上國寶應寺。屬壽昌節講贊。賜紫袈裟。署為三教首座。帝以舊藩邸造法乾寺。詔師居寺之玉虛亭。大中三年誕節。詔諫議李貽孫。給事楊漢公。緇黃鼎列論義。大悅帝情。因奏天下廢寺。各勅重建。大興梵剎。師有力焉。命畫工圖形于禁中。其優重如是。與相國裴公休友善。同激揚中興佛教。大行利濟。廣明二年春。僖宗遘難西蜀。後遣郭遵泰。齎璽書。肩輿詔赴行在。帝接談論。頗解上心。左軍容田令孜。與諸達官問道勤重。帝欲旌其美。令諸學士撰師號。皆未愜旨。乃揮御翰云。朕蒙師以開示悟入法華之旨。悟者覺也明也。悟達大道。悟佛知見。又云悟者一剎那。不悟河沙劫。所以悟者。真乘了然成佛之義。今賜悟達國師為號。用表朕意。師陳讓不遂。乃乞歸九龍舊廬。

無相大師

乃新羅國王第三子。于本國郡南寺。落髮登戒。以開元十六年。泛東溟至于中國。唐玄宗召見。隸于禪定寺。後入蜀資中。謁智詵禪師。有處寂異人。武則天曾召入宮。賜磨納九條衣。事必懸知。且無差跌。師未至之前。寂曰。外來之賓。明當相見。師一日至。寂公問曰何號。師曰無相。是夜授與摩納衣。師遂入深溪巖谷坐禪。

有黑犢二頭。交角盤礴。近身甚急。毛手入其袖。其冷如水。捫摸至腹。師殊不傾動。每入定五日為度。忽雪深丈餘。有二猛獸來。師自洗拭裸臥其前。願以身施其食。二獸從頭至足。嗅帀而去。山居稍久。衣破髮長。獵者疑是異獸。將射之。師曰。吾乃修道人。獵者遂止。後入城市。晝在冢間。夜坐樹下。行杜多行。人漸見重。為構精舍于墓前。長史章仇兼瓊俱來禮謁。屬明皇遑難入蜀。迎師入內殿供養。時成都縣令楊翌。疑其妖惑。乃帖追出境外。仍命二十餘人曳之。及近師身。一皆戰慄。頃刻大風卒起。沙石飛颺。直入廳內。飄簾卷幕。楊翌拜伏。懺畢風止。奉送舊所。由是遂勸檀越。造淨眾大慈菩提寧國等寺。外邑蘭若鐘塔不可悉數。先居淨眾本院。有一力士。稱捨力。伐柴供僧廚用。不知何許人也。忽一日至夜。持刀挾席。于禪座之側逡巡。覺壁上似有物下。遂躍起以刀一揮。巨独身首分于地矣。乃曳去瘞之。復以土拌滅其跡而去。質明師召伐柴者謝之。已不見矣。嘗指其浮圖前柏樹曰。此樹與塔齊。寺當毀矣。至會昌廢毀。樹正與塔等。又言寺前二小池。左羹右飯。齋施若少。則令淘浚自足。果孚其言。而神異多如此類也。以至德元年。無疾示滅。春秋七十七。

待駕

金水縣王氏子。冲孺出家。常作詭異。其父立名待駕。當天寶末年。練行精進。自號頭陀。及玄宗巡幸。削髮為僧。去縣二十里。開逕芟茅。獨居山澤。後成梵宇。此山靈跡頗多。初名石城山。迨明皇至劍門。山神見形迎駕。稱姓李氏。勅賜與玄孫之稱。後陟武擔東臺。遠望祥雲紫氣。盤結空界。問左右曰。此是何處。對曰。乃石城山。遂悟山神扈衛之意。遂改雲頂為慈雲寺。師後卒于此寺。

惟忠

出家于[郫-卑+((白-日+田)/升)]縣法定寺。乃後漢永平中。佛法始流中國。便有置德淨伽藍。神光屢現。至宋釋惠持。自廬阜辭遠公法兄。誓化岷蜀。屬譙縱不道。令數輩操刃欲屠持。持乃彈指。其眾驚奔僵仆。隋開皇四年。改名法定寺。有彌勒聖像。唐武德中。忽有枯渣。沿江而至。夜發光明。因雕作像首。貞觀中。竇軌為長史。劍門佛首光見。引達于府。竇公令人迎取。數百人亦不能勝。乃令祝之。可就法定寺否。乃一人能舉。竇遂造佛身。長史高士廉。蓋殿以安之。後有僧汎愛。樹其浮圖。而獲一巨蟹。身足二

足餘。是塔頗多靈異。人或將酒肉乘醉詣佛前。立見災禍。師于天寶中。于寺愈加精苦。無何塔為霆震。拔其塔心柱出外。忽有小木承代。眾咸怪之。罔測厥由。師乃叩搥于聖彌勒像。告訴天龍。合加畏重。何輒震擊奪塔心柱邪。是知庶女叫。而雷擊景公臺。誠有所感。一日迅雷烈風。還同前震。覆睹之。乃龍神送舊柱安置如故。當其易柱。陰雲四合。有四神人。以身扶翼。立與塔齊。其感物若此。會昌坼寺之前。舍利七粒。出相輪上。白光滿空。向西飛去。蜀皆所睹。將倒之時。赤光見于半天。再置其棗重榮也。師後終寺焉。

處寂

蜀西周氏子。師事寶修禪師。服勤寡慾。與物無競。雅通玄奧。居山北。行杜多行。天后聞名。詔入內。賜摩納僧伽黎。辭乞歸山。涉四十年。足不蹈聚落。常坐宴默不寐。有虎伏座下。資民所重。學其道者臻萃。由是頗形奇異。如無相大師。自新羅國。將來謁洗禪師。師預誡眾曰。外來之賓。明日當見。宜灑掃以待之。明日果有海東賓。至開元初。新除太守王曄。本黃冠也。景雲中。曾立少功刺。于是郡終。于釋子苞藏禍心。上任處分。令境內應是沙門追集。唯師不下山。或勸師往參。免為厲階。師謂弟子曰。汝雖出家。猶未識業。吾之未死。王曄其如吾何。迨乎王公上官。三日緇徒畢至。或曰唯處寂蔑視藩侯。弗來致賀。曄微怒。屈諸僧升廳坐已。將啟怒端。問師違拒之由。慍色悖興。僧皆股慄。曄俄然仆地。左右扶掖歸宅。至廳後屏樹。如被擣頰之聲。禹中氣絕。自此僉謂。罪加無辜之道人。而至于此。師于開元二十二年正月示滅。享年八十七。資中至今崇仰焉。

大川

不知何許人。沉默自居。節操彌厲。戒無竊穴。言不浪施。于漢州棲賢寺。行四聖種法。克苦既增。緜竹之人皆宗奉之。及乎終也。臥于寺外。白衣具牀榻相率。舁歸寺中。務營喪禮。方當屍舉。無何雙鹿引前。若騶導焉。始履門閥。寺額奮然隕地。遠近驚歎。又此山靈異。不容羶鄙。有僧法藏。不謹戒行。多所違犯。神人擲于山下七里許。唯傷足指。從此無不悛革守戒。大曆初。北山變成黃金色。上有樓閣。菩薩行道。斯須之間乘雲遠舉。師素居此寺。與地俱靈。留影供養。如事靈祠焉。

梵僧難陀

華言曰喜。未詳種姓。其為人詭異不倫恭。慢無定。當建中年間。至于岷蜀。時張魏公延賞之任成都。師自言我得如幻三昧。嘗入水不濡。投火無灼。能變金石。化現無窮。初入蜀。與三少尼俱行。或。大醉狂歌。或聚眾說法。戍將惡之令擒捉。師被捉隨至。乃曰。貧道寄迹僧門。別有藥術。因指三尼曰。此皆妙于歌舞。戍將乃重之。遂留為置酒肉夜宴。與之飲唱。乃假襦袴巾櫛。三尼各施粉黛。並皆列坐。含睇調笑。逸態絕世。飲欲半酣。師謂尼曰。可為押衙蹋舞。因徐進對舞。曳練迴雪。迅起摩趺。伎亦絕倫。及至曲終。而舞不已。師乃咄曰。婦女風邪。師忽起取戍將刀。眾謂酒狂。悉皆驚走。遂斫三尼頭。皆踏于地。血及數丈。戍將大驚。呼左右縛師。師笑曰。無艸艸也。徐舉三尼。乃筇竹杖也。血乃所飲之酒耳。師仍坐飲宴。使人斷其頭。釘兩耳于柱上。皆無血。身坐于席上。酒巡到。即瀉入斷處。面色亦赤。而口能歌。手能擊掌應節。及宴散。其身自起。就柱取頭安之。輒無癍痕。或言人吉凶事。多是謎語。過後方悟。成都有人。供養數日。師忽不欲住。乃閉關留之。師即入壁縫中。及牽之漸入。唯餘袈裟角。逡巡不見。來日見壁畫僧影。其狀如師。隔日漸落。經七日。空有墨迹。至八日墨迹已滅。有人早見師已在彭州界。後不知所之。

懷空

閬州梁氏子。幼適本州耆闍山廣福院削染。得戒之後遊方。參學于大寂禪師。洗然明暢。後至彭城安豐山。挂錫宴默。不數載成大伽藍。嘗有一僧。乘空而至。遶垣墻不息。或躡蓮華。或時履地。人或瞻睹。數日之後禮辭師。且曰。我三五稔却來依附。言訖不見。師于興元元年滅度。春秋八十八。長慶元年二月。方遷入塔。

定光

不知何許人。爰從入法。厥性弗拘。糲食斷中。羸襦卒歲。方于庸蜀化導有緣。俄遭武宗毀廢。例反儒宗。及乎佛日重暉。僧倫咸序。師同締構寺宇。因鑄大鐘。計赤金萬餘斤。爾日鼓鑪灰飛。投爐火熾。有祥烟兩道。自浮圖相輪。冉冉射上。若虹蜺焉。眾皆引望。五色騰凌相感如然。信鼓斯應。乃阿育王藏佛舍利之塔。太和初。南蠻蒙傜顛。剽掠入益城。分蠻卒居于寺內。廊廡皆烹炙熏

灼。僧皆奔迸。時塔頂出四道濃烟。直上虛空。至夜蠻蜚覩此奇異。乃禁止汙穢。

智廣

姓崔氏。不知何許人。德瓶素完。道根惟固。化行洪雅。特顯奇踪。凡百病者造之。則以片竹為杖。指其痛端。或一撲之。無不立愈。至有癰者則起。跛者則奔。乾寧初。王氏始定成都。雅郡守羅(亡名)罷任。携師來謁蜀主。王氏素知奇術。呼為聖師。先是咸通中。南蠻王及坦綽。來圍成都。幾陷。時天王現沙門形。高五丈許。眼射流光。蠻兵即退。故蜀人于城北寶曆寺。立五丈僧相。後為牛尚書預毀次。兵火相仍。唯懼毗沙門之頽圯耳。王氏乃語師曰。公之異術道德動人。可寶曆天王否。尚書行魯曾。夢天王曰。令修吾像。方事經營。持書忽到。請法力成之。師唯其命。徙就天王閣下。居一隅小榻。每日病者填噎其門。日收所施二三十萬錢。又發言勸人出材木。浹旬皆運堆積。令三綱掌管。初師在雅郡本寺羯帝神堂內。居其半室。低門苦辱。不許女人到門。唯有一竹篋子。每齋受餽二十文。必投篋內。滿則置之佛殿。聲鐘集眾。自他平等分之。凡請齋者。師意止受二十文。餽多不取。食畢而去。亦無辭告。其後益加神驗。或遇病者。一擲一叱皆起。或令燒紙繒。掇散飲食。或遇甚痛惱者。捩紙蘸水貼之。亦差。光化元年。修天王閣工畢。乃循江瀆池。呪食飼魚經夜。其魚不啗萬億許。皆浮水面而殞。其魚俱生忉利天。復來報謝師恩。

圓相

蜀人也。七歲出家。博綜內外典籍。善屬其文。時號奇童。內修律範。時無間然。龍朔元年。有疾而終。將啟手足時。房內有虹若練。而直上虛空。寺角之鈴。無風自鳴。每夜有鼓角聲。經百餘日方息。從此鳥雀不棲其屋。咸亨四年。甘露降于講堂。師終。弟子收文集三十餘卷。刊行于世。

法融

閬州嚴氏子。穉齒好朴。素惡華楚之服。父訓令秉筆。便畫佛形像。至于聚戲搏沙為塔。所作無非佛事。年甫十三。見僧儀表表苦求出家。依長樂寺慧休法師薙染。經誦偕通。乃霑戒品。習講南山律鈔。後遊雲水。見嵩嶽普寂禪師。道峰孤峻。密付心印。往弋陽

福寧寺。丕振宗風。學者麇至。以太和九年。示疾而終。春秋八十九。門人奉神座入塔焉。

貫休

字德隱。金華蘭溪登高姜氏子。七歲父母雅愛。投本縣和安寺圓貞禪師出家。為童時。日誦法華經一千字。耳所聽聞不忘。與處默同削染。鄰院而居。每隔籬論詩互吟。有僧見之皆驚異。受具之後。詩名聳動于時。乃往豫章。習法華經起信論。皆精奧義。講訓且勤。本郡太守王慥篤重。次太守蔣瓌。開洗懺戒壇。命師為監壇。乾寧初。賈志謁吳越武肅王錢氏。因獻詩五章。章八句。甚愜旨。遺贈亦豐。王立去偽功。朝廷旌為功臣。乃別樹堂立碑。記同力平越將校姓名。遂刊師詩于碑陰。見重如此。善小筆。得六法。長于水墨。可觀。受眾安橋強氏藥肆請。出羅漢一堂云。每畫一尊。必祈夢得應真貌方成之。與常體不同。自此遊黟歙。與唐安寺蘭闍黎道合。後思登南嶽。北謁荊帥成汭。初甚禮。于龍興寺安置。時內翰吳融謫官。相遇往來。論道論詩。融為師作集序。則乾寧三年也。尋被誣譖于荊帥。黜師于功安。鬱悒中題硯子曰。入匡始身安。弟子勸師入蜀。時王氏將圖僭偽。邀四方賢士。得師甚喜。盛被禮遇。賜賚隆洽。署號禪月大師。蜀主常呼為得得來和尚。時韋藹舉其美號。所長者歌吟諷刺。微隱存于教化。體調不下二李白賀也。至梁乾化二年。終于所居。春秋八十一。

錦江禪燈卷第十六

錦江禪燈卷第十七

永安

嘉州洪雅人。身裁么麼。面色黧黧。言音鄙惡。而識量寬舒。大抵不可貲也。大中八年間詣成都。造謁府帥。白公敏中。請奏寺額。以其足跛。肩輿而至。人皆未嘗見其登圓而旋溺也。故時呼為無漏師。安置聖壽寺且十日。白中。令僧五六。晝夜互守。而伺察之。內外飲食。亦略同常人。而無解衣去二行之意。詳其十辰之積。便旋何所。畢不可知。司徒白公奏額。到日便辭歸。眉郡判官盧求見之。謂為小沙彌耳。人云。此師年已八十餘矣。

亡名者

不知何許人。居褒城西數十里中梁山。數峰迴負。翠碧凝空。處于厥中。行事詭異。言語不常。恒見者弗驚。乍親者可怪。平常酷嗜酒肉。羶重公行。又綱任眾事。且多折中。號師上座。時羣緇伍一皆倣習。師知而歎曰。未淨心地。何敢逆行。逆行非諸人境界。諺云。金以火試。待吾試過。開成中。忽作大餅。招集徒眾曰。與汝曹遊尸陀林去。蓋城外山野多墳塚。人所棄屍于此。師踞地舒餅。裹腐爛死屍。向口便啖。俊快之極。同遊諸僧。皆掩鼻唾地而走。師大叫曰。汝等能餒此肉。方可餒他肉也。自此緇徒警悟。化成精苦。遠近歸信。時右僕射柳仲郢。任梁府。親往禮重。終時。年可八九十。真影存于山寺。至今梁益三輔間。止呼為興元上座。奇踪異迹。未及詳也。

法江

江東人。遊岷蜀。居于法聚寺。即隋蜀王秀所造也。內有仁壽中文帝樹舍利塔。師以慈憫為懷。多逆知其來。言無少悞。嘗在房中謂門人曰。外有萬餘人。盡載帽。形且攣蹣。從吾乞救。汝速出寺外求之。不見人物。弟子怪師之言。何其倒亂。徙倚之間。有數十人。荷擔竹器中螺子至。師曰。此之是歟。命取錢贖之。投于水中矣。

羅僧

蜀聖壽寺得果位人也。嘗寢疾于五臺山。同會僧俱不可測。而瞻眎之。曾無怠慢。將及九旬而病愈。臨訣之際曰。深感所苦。而煩看眎。今遂平復。由師之力。我住在劍外九隴郡之茶籠山爾。異日遊方。無忘相訪也。暮歲而至蜀。歷訪羣峰。徧詢老樵輩。且曰。未嘗聞茲山名。乃歎曰。噫病禪之妄也。將迴。遇山童曰。某是彼巖之聚沙者。即前導而去。俄睹殿塔儼空。房廊環肅。果值昔之臥病者。迎門敘故。日將暮矣。而謂之曰。茲寺非得漏盡通。不能至此。以我宿緣。一諧邁止。曰可寄一宵乎。答曰。為未可爾。其克勤修證。至此何難。乃命舊童送師歸去。其僧迴望。但見巖壁峭峻。杉檜莽蒼而已。則開成中也。時悟達國師知玄。著傳之次。得僧可思。尤閑地理。命為玄作他日安塋兆之地。得丹景前峰。其山若雉堞狀。雖高低起伏。而中砥平。俄有里人耆老曰。古相傳云。茶籠山矣。

行遵

福州閩王王氏之仲子。後唐莊宗即位。入洛進方物。因留京邸。同光末。會明宗將入。兵亂相仍。乃自翦飾。變服為僧。竄身巴蜀。逮晉開運中。狀貌若七十餘。然壯力不衰。或詢其年臘。則必杜默。于閬中寓光國禪院。徒以律法住持。人不知之師之能否。有李氏子家命齋。飲噉之次。歛起出門叫噪。若有所責。謂李曰。今夜有火。自東南至于西北。街坊鄰居咸令備之。是夕果然煨燼無遺。眾聚問其故。曰昨一婦女。衣紅秉炬而過。老僧恨追不及耳。

僧緘者

姓王氏。京兆人。少而察慧。辭氣絕羣。大中十一年。杜審權下對策成事。祕書監馮涓。即同年也。乾符中。巢寇充斥。隨流避亂。至渚宮投中令成汭。汭攻淮海不利。遂削髮出家。屬雷滿據荊襄。趙凝攻破之。梁祖遣高季昌誅滅也。江陵遂屬高氏。師避地夔峽間。後唐同光三季。入蜀尋訪馮涓。已死矣。遂居淨眾寺。而髭髮皓然。且面色紅潤。逍遙然。人不測其情偽焉。

點點師

不知何許人也。孟氏。廣政中。隱邛南大邑山寺。多遊廛肆中。雖事削染。恒若風狂。或與人接。必指點而言。故目是稱焉。有命齋食者。酒肉不間。率以為常。俚人亦不厭也。日之夕矣。乃市黃白

麻紙筆墨。寔懷袖以歸。行數里。沈酣而至暝矣。所居之室。雖有外戶。且無四壁。入後闔扉。人不得造。初隣僧小童。躡足伺之。見秉燭箕踞。陳紙筆于前。訶責大書。莫曉其文字。往往咄嗟。如決斷處置。久之明闇間熟視。閃爍若有人森列。狀如曹吏。則襦裳非世之服飾。觀者怖懼而退。詰旦微詢其事。怒而弗答。居數載。叩筭之人咸神異之。後不知其終。

定蘭

成都楊氏子。本闍闔間兇惡屠沽類。天與厥性。悔往前非。誓預六和。化行三蜀。當爾時咸歸信焉。造伽藍一。號聖壽。與其緣未發。乃藏于傭保中。而父母早亡。無資可以追往。每遇諱辰。師悲哭咽絕。輒裸露入青城山。縱蚊蚋蝥蠅。咬咋膚體。且云。捨內財也。用答劬勞。刺血寫經。後則煉臂。至于拔耳剜目。餒飼鷲鳥猛獸。既而行步非扶導。而觸物顛躓。後有異人掌擎物。若珠顆然。內空皆中。斯須瞻矚如故。冥告曰。南天王還師眼珠矣。遠近驚駭。常謂人曰。吾聞善戒經中。名為無上施。吾願勤行速要上果矣。大中三年。宣宗詔入內供養。仰其感應之故。以優禮奉之。弟子有緣。恒執事左右。六年二月中。又願焚然肩膊。帝累勸勉。年耆且務久長修煉。師不奉詔。遂焚而絕。有緣表請。易名建塔。勅諡覺性。塔號悟真。蜀都止呼定蘭塔院。于今香火不絕云。

洪正

姓常氏。未詳何許人也。居于岷蜀間蘭若。往因有疾。所苦沉綿。從復平寧。發誓恒誦金剛般若經。日以二十過為準。精持靡曠。時鄰僧守賢夜坐。見二鬼使。手操文牒。私相謂曰。取攝僧洪正。一使曰。為其默念般若。傍有大奇荷護。無計近得。又患責限遲延。今別得計。見有直府東門者姓常。又與僧同名。亦曾為僧來。共你攝去。以塞違殿也。守賢聞之驚異。且志其事。明日密問門子常。洪正已死。守賢先持彌陀經。後改業也。師後不測其終。

雄俊

成都周氏子。善講說。無戒行。所受檀信。非法而用。且多狡詐。唯事疎狂。又經反易服入軍壘。而因逃難。還入緇門。大曆中暴亡。入冥見王。訶責畢引入獄去。俊抗聲大呼曰。雄俊倘入地獄。三世諸佛即成妄語矣。曾讀觀經。下品下生者。造五逆罪。臨終十

念。尚得往生。俊雖造罪。不犯五逆。若論念佛。莫知其數。有一人。乃雄俊居鄰。錯取。頻日念佛。亦暴死。却合得迴。與雄俊傳語云。若見城中道俗告之。我_已得往生西方。言畢。承寶臺直西而去。

清虛

梓州唐氏子。立性剛決。桀黠難防。忽迴心。長誦金剛般若。三業偕齊。無有懈怠。嘗于山林持諷。有七鹿馴擾。若傾聽焉。聲息而去。又鄰居失火。連薨灰燼。唯師之屋颺燄飛過。略無焦灼。長安二年。獨遊藍田悟真寺。上方北院。舊無井泉。人力不及。遠取于澗。挈餅荷甕。運致極勞。時華嚴大師法藏。聞師持經靈驗。乃請祈泉。即入彌勒閣內。焚香經聲達旦者三。恍忽若見三玉女。在閣西北山腹。以刀子剗地。隨便有水。師熟記其處。遂趨起掘之。果獲甘泉。用之不竭。四年從少林寺。山下有佛室。甚寬敞。人無敢到。云鬼神居宅。嘗有律師。恃其戒行。夜往念律。見一巨人。以矛_刺之。狼狽下山。逡巡氣絕。又持火頭金剛呪僧。時所宗重。眾謂之曰。君呪力無雙。能宿彼否。曰斯焉足懼。于是賣香火入坐持呪。俄而神出。以手擊足投之澗下。七日不語。精神昏倒。師聞之曰。下趣鬼物敢爾。即往彼如常誦經。夜聞堂東有聲甚厲。即念十一面觀音呪。又聞堂中似有兩牛鬪。佛像皆振。呪既亡效。還持本經一契。帖然相次影響皆絕。自此居者無患。神遂移去。神龍二年。準詔入內祈雨。絕二七日雪降。中宗以為未濟時望。令就寺更祈請。即于佛殿內精禱。并煉一指。纔及一宵。雨周千里。指復如舊。纔遇大水。寺屋皆墊溺。其院無苦。若無滂沒。凡諸異驗。皆如此也。

漢州開化寺亡名

先因入寺。見瑞應交現。遂誓捨身剗苦為期。忽于殿中焚香次。俄覩地屋皆為琉璃色。有菩薩乘五色雲下庭中。曰汝極堅至。必當得道。吾來證汝。亡名叩頭禮拜。斯須不見。寺僧至云。學院內皆變琉璃色。歎嗟不_已。其僧復勤節行焉。

成都費長房

本預緇衣。周朝從廢因俗。博通妙精玄理。開皇之譯。即預搜揚。敕召入京。從例修緝。以列代經錄散落難收。佛法肇興。年載蕪

沒。乃撰三寶錄一十五卷。始于周莊之初。上編甲子。下錄年號。并諸代所翻經。部卷目軸。別陳敘得在通行闕于甄異。錄成陳奏。下敕行之。所在流傳。

慧詔

陳氏子。本潁川太丘之後。避亂居于丹陽之田里。性恬虛寡嗜慾。沉毅少言。童幼早孤。依兄而長。梯友之至聞于閭閻。十二厭世。出家具戒。便遊京揚。聽莊嚴旻公講釋成論。弘音歷耳。記注略盡。謂同學慧峰曰。吾沐道日少。聊知旨趣。似有夙緣。將非所聞義淺。為是善教使然乎。乃識聽開善藏法師講。遂覺理與言玄。便盡心鑽仰。當夕感夢。往開善寺。採得李子數斛。撮欲噉之。先得枝葉。覺而悟曰。吾正應從學。必淺深極矣。尋爾藏公遷化。有龍光寺綽公。繼踵傳業。便迴聽。既闕論本。制不許住。惟有一被。又屬嚴冬。便撒之用充寫論。忍寒連噤。方得預聽。文義兼善。獨見之明。卓高眾表。辯滅諦為本有。用麤細而折心。時以為穿鑿。有神思也。梁武陵王。出鎮西蜀。聞彼多參義學。必須碩解弘望。方可聞宣。眾議薦舉。皆不合意。王曰。憶往年法集。有僧韶法師者。乃堪此選耳。若得同行。想能振起邊服。便邀之至蜀。于諸寺講論開導如川流。嘗于龍淵寺披講。將訖靜坐。房中感見一神。青衣恰服。致敬曰。願法師常在此弘法。當相擁衛。言訖而隱。遂接席數遍。清悟繁結。昔在楊都。苦氣疾。綴慮恒勤。及至蜀講。眾病皆除。識者以為寺神之所護矣。于時成都法席。恒並置三四法鼓齊振。競敞玄門。而師聽徒濟濟。莫斯為盛。

寶淵

閬中陳氏子。年二十三。于成都出家。居羅天宮。欲學成實論。為弘通之主。州鄉術淺。不愜憑懷。齊建武元年。下都住龍光寺。從僧旻法師稟受五聚。經涉數載。義頗染神。旻曰。此君任性儁警。智慮過人。但恨迴忽不倫。動靜險躁。若值通人優接。當成一世名士。若不遇時。不得其死。必當損辱大法矣。師酷好蒲撲。使酒挾氣。終日狼忙。無所推下。旻累諫曉喻。反以為讐。因爾改塗。復從智藏。採孺先業。自建講筵。貨財周瞻。篤勵辛勤。有倍恒日。每言。大丈夫當使人事我。何能久侍人。乃廣寫義疏。貴市王征南書。緘封一籬。有意西歸。同寺慧濟謔之曰。昔謝氏青箱不至。不得作文章。今卿白籬未來。判無講理。師曰。殊不然。此乃打狗杖耳。因帶帙西返。還住舊寺。標定義府。道俗懷欽。于是論筵頻

建。聽眾數百。自重名行。少賓知己。沙門智訓。遊學京華。數論通敏。同還本壤。投分與交。師弗許也。後寺庫犯官。師自恃名高一州。為物所讓。以身代當。強悍不弭。至于事成。知當必敗。因爾出郭。于路以刃自刎。時年六十一矣。即普通七年也。

寶象

安漢趙氏子。後居絳州昌隆之蘇溪。天性仁讓。慧心俊朗。嬰孩有異。二親欲試其度。以諸綵帛花果弓矢書疏。羅置其前。師便撥除餅果。而取書疏。眾共歎異。咸知必有成濟也。及年七歲。有緣至巴西。郡太守楊眺問云。承兒大讀書。因何名為老子。師曰。始生頭白故也。眺密異之。十六事梁平西王。初為道士童子。未學佛法。平西識其機鑒。使知營功德事。因見佛經。欣其文名。重其義旨。就檢讀誦。迷悟轉分。恒求佛法用祛昏漠。年二十有四。方得出家。即受具戒。先聽律典。首尾數年。略通持犯。迴聽成實。傳授忘倦。不恡私記。須便輒給。研心所指。科科別致。末又聽韶法師講。偏窮旨趣。武陵王聞師大集摩訶堂。令講請觀音。初未綴心。本無文疏。始役情思。抽帖句理。詞義洞合。聽者盈席。私記其言。因成疏本。廣行于世。後還涪川。開化道俗。外典佛經相續訓導。引邪歸正。十室而九。又鈔集醫方。療諸集苦。或報以金帛者。一無所受。便有銜義懷德者。捨俗出家。或緣障未諧者。盡形八戒。師雖道張井絡。風播岷峩。而志意頽然。唯在通于正法。誠心標樹。不競人物。見大集一經。未弘蜀境。欲為之疏記。使後學有歸。乃付著經律。就山修纘。而眾復尋之。致有煩擾。再稔方就。一無留難。初至虛空藏品。于義不達。閉目思之。不覺身上空中。離牀三四尺許。欻然大悟。竟文慧發。寫不供宣。據此為言。志力難擬矣。

實海

閬中龔氏子。少出家。有遠志。承揚都佛法崇盛。便決誓下峽。既至金陵。依雲法師聽習成實。旁經諸席。亟發清譽。乃引眾別講。徒屬兼多。于時梁高重法。自講涅槃。命師論佛性義。便昇論榻。雖往返言晤。而執鑰鈇香爐。帝曰。法師雖斷慳貪。香爐非鑰鈇不執。師應聲曰。陛下位居宸極。帽簪非纛不戴。帝大悅。眾咸驚嘆。及後還蜀。住謝寺。大弘講肆。武陵王紀作鎮井絡。敬愛無已。每就師宿。請談玄理。乃忘晝夜。至旦王將盥手。日影初出。王曰。日暉粉壁。狀似城中。風動剎鈴。方知寺裏。其晨車蓋迎

王。馬復嘶鳴。師曰。遙看蓋動。喜遇陳思。忽聽馬鳴。慶逢龍樹。相與欣笑而出。王昇車謂御從曰。聽海法師言詞。令我盤桓而不能去。其辨給無方。為此例也。周氏跨躡梁益。庸公鎮方。彌加深敬。越于恒伍。時年八十。謂門人法明曰。吾將逝矣。一無前慮。但悲去後圖塔湮滅耳。當露屍以遺鳥獸。及建德之年。果被除屏。今院宇荒毀。唯餘一堂。容像存焉。

智方

資中人。其先東吳。遠祖宦于西蜀。遂乃成家。童稚出家。依州郭龍淵寺輪法師處。早與寶海周旋。同往揚都雲法師座下。而機辯爽利。播名揚越。每講商略詞義。清雅泉飛。故使士俗執紙抄撮者。常數百人。初講法華。至寶塔品高妙。遂序王釋義了。乃曰。何必昔佛國土有此高妙。即楊都福地亦甚莊嚴。至如彌天七級。共日月爭光。同泰九層。與煙霞競色。方井則倒垂荷葉。圓桷則側布蓮花。似安住之居南。類尼佉之鎮北。耳聞目見。庶可聯衡。錄得者秘以賈歸。益部嗚呼嗟嘆。為驚絕。故其語出成章。狀如宿構。寶海頻來擊難。發其聲采。故海問曰。三變此方。改穢成淨。亦能變凡成聖否。答曰。化佛甚多。狹故須廣。凡聖自爾。何勞改變。又難。若爾則六十小劫。謂如食頃。但是聖睹。凡不能睹。凡聖俱睹。凡望俱聖。師笑曰。高座何曾道此。乃是自道自難耳。海覺言失。乃調曰。三隅木斗。何謂智方。尋聲報曰。瓦礫洿池。那稱寶海。眾大笑而散。及疾甚。海恒來看慰。乃謝曰。智方不能攝養。致此沉痾。仰勞仁者數來垂問。願生善見。常與同遊。俄而異香滿室。中夜卒于益部。年九十餘。

玄續

姓桑。成都人。出家既久。經綸道業。涅槃成實。所學之宗。常講法華。導引蒙曉。然風彩高峻。容止方複。言談之際。機候變通。達外書。工艸隸。時吐篇什。繼美前修。又能折節下人。僮少道俗有才調者。命來與語。愛而狎之。至于侯王雄伯。名儒大德。便傲然特立。不以介意。而神爽更高。辯洽電疾。有梓州東曹掾蕭平仲者。梁高之孫也。博學機關。當時絕偶。往參談敘。文集相示。平仲尚之。從容曰。仰承高懷。蔑略諸貴等。今蒙禮顧。深愧非人。師曰。諸貴驕蹇。須以驕蹇對之。明公汎愛。故以汎愛相答。仲曰。法師從來不爾。今日忽然。疑是虛談。恐非實錄。答曰。貧道待公之虛實。亦如公遇續之實虛耳。相與驩笑。嘗為寶園寺製碑

銘。中有彈老莊曰。老稱聖者。莊號哲人。持螢比日。用岳方塵。屬有祭江道士馮善英。過寺禮拜。見而惡之。謂師曰。文章各談其美。苦相誹毀。未識所懷。若不除改。我是敕使。當即奏聞。師曰。文章體勢。非爾所知。若稱敕使。欲相威懾者。我寺內年別差人當莊。此是敕許。亦是敕使。卿欲奏我。我當莊人亦能奏卿。英雖大恨。無如之。

道基

姓呂氏。河南東平人也。素挺生知。譽標岐嶷。年甫十四。負帙遊于彭城。博聽眾師。隨聞成德。討論奧旨。則解悟言前。披析新奇。則思超文外。故徐許騰其明略。河海重其義方。致使儕等高推。前修仰上。隋太尉尚書令楊素。負材經國。任總權衡。嘗奉清猷。躬申禮敬。敘言命理。噫歎而旋。顧諸宰伯曰。基法師佛法之後寄也。自見名僧。罕儔其匹。即請于東都。講揚心論。既夙承風駕。體預當衢。遊刃眾部。玄機秀舉。遂能談瀉河傾。響對雷動。于時大業初歲。隋運會昌。義學高于風雲。縉紳峙于山岳。皆擁經講肆。問道知歸。踵武相趨。遐邇鱗萃。乃纘雜心玄章。并抄八卷。共傳于世。咸得諸門。自昔相導。皆經緯剖裂。詞飛戾天。控敘抑揚。範超前古。自爾四海標領。盛結慧日道場。皆望氣相師指途知返。以師榮冠望表。韻逸寰中。大業五年。敕召來止。遂即對揚玄論。允塞天心。隋后解統玄儒。將觀釋府。總集義學。躬臨論場。鑾駕徐移鳴笳。滿于馳道。御筵暫止駐驛。清于教門。自大法東流。斯席為壯觀也。時披辯之徒。俱開令譽。及將登法座。各擅英雄。而解有所歸。並揖師而為玄宰。名居眾望。德展經綸。先創宏綱。次光帝德。百辟卿士咸異希聲。有隋墜歷。寇蕩中原。求禮四夷。宣尼有旨。乃鼓錫南鄭。張教西岷。于是巴蜀奔飛。望煙來萃。莫不廓清遊霧。邪正分焉。教閱大乘。弘揚攝論。釐改先徹。緝纘亡遺。道邁往初。名高宇內。以聽徒難襲。承業易迷。乃又綴大乘章抄八卷。並詞致清遠。風教倫通。故覽卷履軾者。若登龍門。信鴻漸之有日矣。故貞觀帝里。宇內知名之僧。傳寫流輝。實為符契。但以世接無常。生涯有寄。將修論疏。溘爾而終。以貞觀十一年二月。卒于益部福感寺。春秋六十有餘。

靈睿

姓陳。本惟潁川。流寓蜀部益昌之陳鄉。祖宗信于李氏。其母以二月八日。道觀設齋。因乞有子。還家夢在松林下坐。有七寶鉢。于

樹顛飛來入口。便覺有娠。不喜五辛。及其誕後。設或食葷。母子頭痛。于是持齋。八歲。二親携至道士處。令誦步虛詞。面孔血出。還家入田。遇智勝法師。便曰。家門奉道。自欲奉佛。隨師出家。即將往益州勝業寺為沙彌。一夏之中。大品暗通。開皇之始。高麗印公。入蜀講三論。又為印之弟子。常業大乘。後隨入京。流聽諸法。大業之末。又返蜀部。住法聚寺。武德二年。安州曷公上蜀。在大建昌寺講開大乘。師止法筵三年。後還本住。常弘此經。又二年許。寺有異學。成實朋流。嫌此空論。常破吾心。將興害意。師在房中北壁而止。初夜還床。栖遑不定。身毛自豎。移往南床。坐至三更。忽聞北壁外有物撞度。達于臥處。就而看之。乃漆竹筍槩。長二丈許。向若在床。身即穿度。既害不果。又以銀鋌雇賊入房。師坐案邊。覓終不獲。但有一領甲。在常坐處。師知相害之為惡也。即移貫。還絳州益昌之隆寂寺。身相黑短。止長五尺。言令所及。通悟為先。常講大乘以為正業。貞觀元年。通州騫禪師。作檀越。盡形供給。至七年八月二十五日夜。師夢衣冠來迎。騫往西方去。徒眾盆中皆空無物。至三十日。寺內鐘磬一時皆鳴。騫至三更。據繩床跏坐而終。師周流講唱。傳化不絕。至二十年八月二十四日三更。大風忽起。眾聞聲曰。靈睿法師。來年十月。往南海大國。光明山西阿。觀世音菩薩所受生也。至期十月三日。合寺長幼道俗。見旛華從空而下。菩薩滿寺。師猶坐房中看經。外有僧告師曰。旛花異香充寺。師聞捉經出看。斂容立終。堅住不倒。扶臥房中。三更忽起跏坐如生。刺史躬手付香供養。道俗相送歸東度山。設大會。時年八十三矣。然其潔清。自童稚不飲葷辛。獲如是報云。

僧副

太原祁縣王氏子。弱冠清苦。鑒徹絕羣。年過小學。識成大量。鄉黨稱奇。不仁者遠。而性愛靜。遊無遠近。裹糧尋師。訪所不逮。有達磨禪師。善明觀行。循擾巖穴。言問深博。從而出家。義無再問。一貫懷抱。尋端極緒。為定學宗。後乃周歷講座。經論並知。學唯為己。聖人無言。齊建武年。南遊揚輦。止于鍾山定林寺。師美其林藪。得栖心之勝壤也。行逾冰霜。言而有信。三衣六物。外無盈長。應時入里。道俗式瞻。加以王侯請道。頽然不忤。咫尺宮闈。未嘗謁覲。既行為物覽。道俗攸屬。梁高素仰清風。雅為嗟賞。乃命匠人。考其室宇于開善寺以待之。恐有山林之思。師每逍遙于門。負杖而歎曰。環堵之室。蓬戶甕牖。匡坐其間。尚足為樂。寧貴廣廈而賤茅茨乎。且安而能遷。古人所尚。何必滯此。用

賞耳目之好耶。乃有心岷嶺。觀彼峨眉。會西昌侯蕭淵藻。出鎮蜀部。即拂衣附之。爰至井絡。雖途經九折。無忘三念。又以少好經籍。執卷緘默。動移晨晷。遂使庸蜀禪法。自此大行。久之還返金陵。復住開善。先是胡翼之山。有神人現。以慧印三昧。授與野人何規曰。可以此經與南平王。觀為病行齋三七日也。若不曉此法。問之于副時以訪之。果是其曾所行法。南平遂行齋祀。疾便康復。豈非內因外構。更相起予。不久卒于開善寺。春秋六十有一。即普通五年也。窆于下定林之都門外。天子哀焉。下敕流贈。初有勸修福者。師厲聲曰。貨財延命。去道遠矣。房中什物。並施招提僧。予歿之後。但棄山谷。飽于鳥獸。勿營棺槨。以乖我意。門徒涕淚不忍從之。將為勒碑旌德。而永興公主。素有歸信。進啟東宮。請著其文。有令。遣湘東王繹。為之樹碑于寺。

曇詢

楊氏。弘農華陰人。後遷宅于河東郡。弱年樂道。久滯樊籠。年二十二。方捨俗事。遠訪巖隱。遊至白鹿山北霖落泉寺。逢曇准禪師而蒙剃髮。又經一載圓具。謹攝自修。宗稟心學。而專志決烈。同侶先之。圓備戒律。又誦法華。初夏既登。還師定業。承僧稠據于蒼谷。遂往問律。稠亦定山郢匠。前傳所敘。師以聲光所被。遙相揖敬。住既異林。精融理極。思展言造。每因致隔。但為路罕人蹤。岡饒野獸。栖幽既久。性不狎塵。來往質疑。未由樵逕。直望蒼谷以為行表。荊棘砂礫。披跨不難。巖豁幽阻。攀緣登陟。志存正觀。不以邪道自通。又以旁垂利道。由曲前而通滯。吾今漂指雖艱。必直進以程業。用斯微意。隨境附心。不亦善乎。每云。與其失道而幸通。寧合道不幸而窮耳。故履踐重阻。不難塗窮。後經三夏。移住鹿土谷修禪。屬枯泉重出。鹿麋繞院。故得美水馴獸。日濟道隣。從學之徒。相慶茲瑞。時因請法。暫往雲門。值徑陰霧昏。便成失道。賴山神示路。方會本途。此乃化感幽冥。神明翊衛。時有盜者來竊蔬菜。將欲出園。乃為羣蜂所螫。師聞來救。慈心將治。得全餘命。嘗有趙人遠至。殷勤致禮。陳云。因病死鮓。故蒙恩澤。往見閻王詰問。罪當就獄。賴有曇詢禪師。來為請命。王因放免。生來未委。訪尋方究。又山行值二虎相鬪。累時不歇。師乃執錫分之。以身為翳。語云。同居林藪。計無大乖。幸各分路。虎低頭受命。便飲氣而散。屢逢熊虎交爭。事略同此。而或廓居榛梗。唯師一蹤。入鳥不亂。獸見如偶。斯又陰德感物。顯用成仁。何以嘉焉。每入禪定。七日為期。白虎入房。仍為窟宅。獨處靜院。不出十年。自有禪蹤。斯人罕擬。自爾化流河朔。盛闡禪

門。杖策裹糧。鱗歸霧結。隋文重其德音。致誠虔敬。勅儀同三司元壽。親送璽書。兼以香供。以開皇十九年。風疹忽增。卒于柏尖山寺。春秋八十。五十五夏矣。

錦江禪燈卷第十七

錦江禪燈卷第十八

僧淵

姓李。鄴人。家本巨富。為巴蜀所稱。及師初誕。天雨銅錢于庭。家內合運。處處皆滿。父運錢疲勞。噓唱云止。錢不復下。倉內貯米。但及于半。忽滿溢出。親姻外內。莫不驚嘆其福。自少至長。志幹殊人。行則安徐。坐必跏趺。眼光外射。燄燄發越。容色玉潤。狀若赤銅。聲若洪鐘。響發林動。兩足輪相十角分明。二手九井紋理如畫。年十八。身長七尺。其父異之。稟命出家。二親送至城西康興寺落髮。今福緣寺是也。博尋明師。凡讀經論。經耳不忘。蘊括懷抱。奉戒守素。大布為衣。瓶鉢之外無所蓄積。與同寺毅法師交遊。二人乃蜀郡僧中英傑也。相隨入京。博採新異。有陟岵寺沙門僧寶。禪道幽深。帝王所重。便依學定。豁爾知津。經涉炎涼。詳覈詞義。師研精定道。毅博通經術。丘索艸隸。靡不留心。周武廢教。便還故寺。割東行房以為私宅。餘者供官。隋氏運開。更新締構。領匠伐木。連雨兩月。師執爐祈請。隨語便晴。造塔須金盤。又請地府。隨言即掘。應命藏開。用足餘金還歸本窟。詳斯福力。今古未聞。常給孤獨。不逆人意。遠近隨助。泉布若流。又以錦水江波沒溺者眾。便于南路欲架飛橋。纔扣此機。眾事咸集。昔諸葛武侯。指二江內。造七星橋。造三鍬鋤。長八九尺。徑三尺許。人號鍬槍。擬打橋柱。用訖投江。須便祈祠。方可出水。師造新橋。將行豎柱。其鍬自然浮水來至橋津。及橋成也。又自投水。道俗歌謠。于今逸耳。淵毅二師並為物軌。晨夕問法。無虧遺寄。毅以仁壽二年十二月十二日寅時。告弟子曰。三界無常。吾將逝矣。言終神謝福緣本住。春秋六十有九。師聞之憫然曰。毅師已往。我豈獨留。俄而遭疾。遺與同瘞。即以其月十四日亦化。春秋八十有四。至十七日。並窆于九里堂。刊石紀之于寺堂。陳子良為文。

法進

住益州緜竹縣響應山玉女寺。為輝禪師弟子。後于定法師所。受十戒。恭謹精誠。謙恪為務。唯業坐禪。寺後竹林。常于彼坐。有四獠虎。繞于左右。師語勿泄其機。後習水觀。家人取柴。見繩牀上有好清水。拾兩白石安著水中。師暮還寺。彌覺背痛。問其家人。汝安石子。師令明往可除此石。及旦。師仍禪定。家人還見清水如初。即除石子。其痛即愈。因爾習定。不出此山。

慧熙

益州[郫-卑+((白-日+田)/升)]人。姓趙。童稚出家。善明篇韻。文筆宛而成章。與絳州震響寺榮智齊名。俱為沙彌。卓異翹秀。後與成都大石寺沙彌道微。連韻賦詩。微有言隙。因即屏絕人事。栖心禪業。年登受具。周聞經律。摘採英華。用為賞要。攝論雜心精搜至理。尤耽三論。是所觀門。嘗難基法師塵識義。初問以小乘。基以大乘通之。師笑曰。大無不攝。但失小宗。晚住州南空慧寺。立性孤貞。不羣諸偶。弊于食息。專想虛玄。一坐掩關二十餘日。眾以不食既久。恐損身命。假以餘詞曰。國家搜訪藝能甚急。今不食閉門。世人謂聖。願息流言。可時處眾。師懼矯飾。便開門進食。由是迄今將三十載。一身獨立。不畜侍人。一食而止。不受人施。有講便聽。夜宿本房。但坐牀心。兩頭塵合。自餘房地惟有一蹤餘並莓苔青絮。衣服弊惡。僅免風寒。冬則加衲。夏則布衣。以冬破衲。懸置梁上。有聞師名。就房參拜。迎逆接候。累日方見。時發幽問。吐言高迴。預有元席。皆共憚之。年九十卒。

世瑜

姓陳氏。住台州。父母早亡。傭作取濟。身形偉壯。長八尺三寸。希向佛理。無由而達。大業十二年。往絳州震響寺倫法師處出家。一食頭陀。勤苦如常。次往利州籍住寺。後至益州絳竹縣響應山。獨住多年。四猿供給。山果有信士姓母。過山。驚訝深山常燒薰陸沉水等香。行至山半。見兩人形青色。狀貌希奇。各負蓮華蔗芋而上。遂問其所往。云我供給禪師去。然居山三年。食米一石餘。六時行道。以猿鳥為侶。初唯一泉。後有三泉并出。貞觀元年。夢有四龍入懷。既覺大悟三論宗旨。遂往靈睿法師講下。所聞詞理。宛若舊識。尋則而覆述。便往絳州。住大施寺。後往崇樂寺。言欲遊方去。或曰。此即諸方也。復還大施。香氣滿室。坐處涌三金錢。師乃跏坐。手執爐而逝。有刺史劉德威。喜所未聞。作龕安之。三年不倒。春秋六十三矣。

惠寬

絳竹孝水楊氏子。父名瑋。係三洞先生五經博士。崇信道法。無敦釋教。絳梓益三州之人。每歲率送租米。投于瑋家。令保一年安吉。皆與符章而去。初瑋妻懷孕。而忽改易惡厭五辛。乃生一女。名為信相。性好閒靜。無緣嗜慾。瑋妻復懷妊。身極安隱。恒有異

相。及其生時。母都不覺。如羊始達。尋有異香。總不啼叫。臂垂過膝。身恒香潔。不近腥臊。年五六歲。與姊信相。于靜處兀坐。二親怪問。答曰。佛來為說般若聖智法門。共姊評論法相。父是異道。不解其言。附口錄得二百餘紙。近有龍懷寺會法師。聞有奇相。至其家。父以示之。會曰。並合佛經。無所參錯。有異禪師。不知何來。于淨慧寺入火光三昧。召信相來。入此三昧。及至不入。云是火聚。禪師曰。何不以水滅之。信相即作水觀滅火而入。禪師驗知可為法器。勸令出家。父母婿家俱不許可。諸道俗宰官。出財贖之。因爾得度。姊與師同時出家。隨蜀王秀在益。請入城內。妃主為造精舍。鎮恒供養。有造功德須物者。燒香祈請。掘地獲金。無不充足。斯事非一。至于食飲。或一日三食。或經歲序不食。時人目之為聖尼。即今猶號聖尼寺也。師年十三。常樂獨坐。面無怒相。言常謙下。依空慧寺胤禪師。龍懷寺會闍黎座下。隨聞經律。一覽無遺。未聞之經。有難問者。皆為通之。初造龍懷寺。會有徒屬二百餘人。並令在役。唯放于師。有怨及者。會曰。斯人是吾本師。何得使作。昔周滅法。依相禪師隱于南山。

智詵

字惠成。徐州徐氏子。炫法師之弟也。少聰敏。有志節。在蜀遊學。務勤律肆。會周武陵法。因事入關。不果所期。遂隱南嶺。終南太白。形影相弔。有隋革命。光啟正法。招賁碩德。率先僧首。即于長安敷揚律藏。時益州蜀王秀。請師還蜀。及至之日。王自出迎。住法聚寺。道俗歸崇。寺設大齋。遐邇俱赴。師屏氣寂然。性不受施。不妄干物。後以人事甚繁。不時誼擾。乃辭入龍居山寺。幽栖深阻。軌迹不通。王數延出。師稱疾不起。時王意欲登劍閣。廓清井絡。王與師書。師答書請歸國化。便略答云。辱使至止。并以誠言。披閱循環。一言三復。文清淥水。理破秋毫。貧道戒行多闕。化術無方。宅身荒谷四十餘載。狎魚鳥以樵歌。習禪那思般若。以此卒歲。分填溝壑。不謂耆年有幸。運屬休明。伏惟相王殿下。德隆三古。道振百王。公可攘臂而歸舊里。衣錦而旋本邑。百姓有再生之期。萬物起息肩之望。縉紳君子。捧玉帛而來儀。慷慨丈夫。委干戈而伏道。昔長卿返蜀。徒擅清文。鄧艾前來。未能偃武。公華陽甲族。井絡名家。捧日登朝。懷金問道。劍南長幼並俟來甦。豈藉微風。自然艸靡。其諸首領越境參迎。王得書示。返轡還蜀。軍眾先作禮曰。人物爭歸。律師之力也。以武德元年十月一日卒。而逝年八十矣。

智炫

成都徐氏子。初生。室有異光。少小出家。入京聽學數年。遂擅名京洛。學眾推崇。請令覆講。瓶瀉無遺。會周武帝廢佛乘。欲存道教。于是詔華野高僧。方岳道士。大集京師。于太極殿。陳設高座。帝自躬臨。勅道士先登。道士張賓為首。登高唱言曰。原夫大道清虛。淳一無雜。祈恩請福。上通天曹。白日昇仙。壽與天地同畢。風教先被中夏。無始無終。含生賴之以得長生。洪恩厚利。不可校量。豈知佛法虛幻。言過其實。不容本土。客寓中華。百姓無知。信其詭說。今日欲定臧否。可出頭來看。襄城公何妥。自行如意。座首少林寺等行禪師。發憤而起。諸僧止之曰。今日事大。天帝在此。不可造次。知禪師為佛法大海。然應對之間。復須機辯。眾共謀議。若非蜀炫。無以對揚。共推如意。以將付炫。炫既為眾所推。又忿張賓浪語。安庠而起。徐昇論座。坐定。執如意謂張賓曰。先生向者所陳。大道清虛。淳一無雜。又云風教先被中夏者。未知風教起自何時。道教于何處說。又言佛法不容本土客寓中華。可辯道是何時生。佛是何時出。賓曰。聖人出世。有何定時。說教興行。有何定處。道教舊來本有。佛法近自西來。炫曰。若言無時。亦應無出。若無定處。亦應無說。舊來本有。非復清虛。上請天曹。豈得無雜。壽與天地同畢。豈得無始無終。賓曰。道人浪語。為前王無識。留汝等輩。得至于今。今日聖帝。盡須殺却。帝惡其理屈。令舍人謂之曰。賓師且下。賓既退。帝自昇高座言曰。佛法中有三種不淨。納耶輪陀羅。生羅喉羅。此主不淨。一也。經律中。許僧受食三種淨肉。此教不淨。二也。僧多造罪過。好行姪洩。佛在世時。徒眾不和。遞相攻伐。此眾不淨。三也。主法眾俱不淨。朕意將除之。以息虛幻。道法中無此事。朕將留之。以助國化。顧謂炫法師曰。能解此三難。真是好人。炫應聲謂曰。陛下所陳。並引經論。誠非謬言。但見道法之中三種不淨。又甚于此。按天尊處紫微宮。恒侍五百童女。此主不淨。甚于耶輪陀羅之一人。道士教中。章醮請福之時。必須鹿脯百朶。清酒十斛。此教不淨。又甚于三種淨肉。道士罪過。代代皆有。千古亂常。姜斌犯法。此又甚于眾僧。僧眾自造罪過。乃言佛法可除。猶如至尊享國。嚴設科條。不妨逆子叛臣相繼而出。豈以臣逆子叛。遂欲空于大寶之位耶。大寶之位。固不可以臣子叛逆而空。佛法正真。豈得以眾僧犯罪而廢。炫雅調抑揚。言音朗潤。雖處大節。曾無懼顏。帝愕然。良久謂炫曰。所言天尊侍五百童女。出何經。炫曰。出道三皇經。帝曰。三皇經何曾有此語。炫曰。陛下自不見。非是經上無文。今欲廢佛存道。猶如以庶代嫡。帝動色而下。因入內。羣臣僧眾皆驚。

曰。語觸天帝。何以自保。(以周武非嫡故)炫曰。主辱臣死。就戮如歸。有何可懼。乍可早亡遊神淨土。豈與無道之君。同生于世乎。眾皆壯其言。明旦出敕。二教俱廢。仍相器重。許以婚姻。期以共政。法師志操逾厲。與同學三人。走赴齊都。時周齊之界。皆被槍布棘。彼有富老。姓張。鋪氈三十里。令炫得過至齊。盛為三藏。名振東國。武帝破鄴。先遣追求。帝弟越王。宿與法師厚善。恐帝肆怒。橫加異責。乃鞭背成痕。俗服將見。越王先為言曰。臣恨其逃命。已杖六十。令脫衣見帝。帝變色曰。恐其懷慚遠逝。以至死亡。所以急追元無害意。責越王曰。大丈夫。何得以杖捶相辱。待遇彌厚。與還京師。武帝崩。隋文作相。大弘佛法。兩都歸趣一人而已。歲景將秋。懷土興念。又以蜀川迴遠。奧義未宣。援首西歸。心存敷暢。蜀王秀未之知也。時長史周宣明。入朝赴考。隋文帝謂之曰。炫法師安和耶。宣明驚惶。莫知所對。文帝曰。一國名僧。卿遂不識。何成檢校。宣明稽首陳謝死罪。及還。先往寺參禮。寺舊在東。逼于苑囿。又是鄱陽王塋母之所。其王至孝。故名孝愛寺。宣明供養無闕。至大鄴改為福勝寺。法師宣揚覺倦。入隱三學山。觸目多感。遂遊山詩曰。秀嶺接重煙。嶽岑上半天。絕巖低更舉。危峯斷復連。側石傾斜澗。迴流瀉曲泉。野紅知艸凍。春來鳥自傳。樹錦無機織。猿鳴詎假弦。葉密風難度。枝疎影易穿。抱裘依閑沼。策杖戲荒田。遊心清漢表。置想白雲邊。榮名非我顧。息意且蕭然。年一百二歲。不病而卒。

道會

犍為武陽史氏子。初出家。住益州嚴遠寺。氣宇高簡。雅調逸羣。四方道俗旦夕參候。猶以蜀門小陋。聞見非廣。乃入京詢訪。經十餘年。經論史籍。博究宗領。還蜀欲大開釋教。導引後銳。時屬亂離。不果心行。會皇運初興。率先招撫。詹俊李袞首途巴蜀。師上疏曰。會弟性不肖。家風失墜。封爵雖除。詔敕猶在。門生故吏。子孫成列。並奮臂切齒。思効力用。即日劍門雖啟。巫峽負固。師請躬率徒隸。振錫啟途。折簡宣威。開懷納款。軍無矢石之勞。主有待成之逸。此亦一時之利也。惟公圖之。為使淹留。遂不行于時。國初僧尼道士。所在多度。有道士宋冀。是彼梁棟。于隆山縣。新立道觀。屋宇成就。置三十人。師經總管段倫陳牒。改觀為寺。其郭內住者。並是道宗。不伏移改。囑安撫大使李襲譽。巡察州縣。師以事達。乃引兵過城。四面鳴鼓。一時驅出。舉宗怨訴。噂譖街衢。師曰。未能令天下改觀為寺。此之一所終不可奪。遂依立寺。至今不毀。武皇登遐。入京朝觀。因與琳師。同修辨正。有

安州髡師。在蜀弘講。人有嫉者。表奏云反。又述法會覘候消息。遂被拘執。身雖在獄。言笑如常。為諸在獄講釋經論。經春至冬。諸僧十數。衣服縑縷。不勝寒酷。京師有無盡藏。恒施為事。師致書曰。自如來潛影西國。千有餘年。正法東流五百許載。雖復赤髭青眼。大開方便之門。白脚漆身。廣示歸依之路。猶未出于苦海。尚陸沉于險道。況五眾名僧。四禪教首。頭陀聚落。唯事一餐。宴坐林中。但披三納。加以無緣之慈。想升錘以代鵠。履不輕之行。思振錫以避蟲。今有精勤法子。清淨沙門。橫被囚拘。實非其罪。遂使重關早落。睹獄吏而魂飛。清室晚開。見刑官而思盡。嚴風旦洒。穿襟與中露俱飄。繁霜夜零。寒心與死灰同殮。若竟不免溝壑。抑亦仁者所恥。書達。即送裘鞋給之。及事釋還鄉。三輔名僧。送出郭門。師與諸遠僧別詩曰。去住俱為客。分悲損性情。共作無期別。豈能訪死生。道俗聞者。皆墮淚。

植相

梓潼涪。郝氏子。嘗任巴西郡吏。太守鄭貞。令師賣獻物。下揚都見梁祖。王公崇敬三寶。便願出家。及還上蜀。決誓。家屬并同妻子。既同師志。一皆翦落出家。于梁大同中。專習苦行。一食常坐。正心佛理。以命自期。南武都。今孝水縣也。有法愛道人。高術道術。師往觀之。愛于夕中。以呪力現大神。身著衣冠。容相瑰偉。來舉繩床。離地四五尺。便誦戒。神即馳去。斯須復來舉床。僅動一角。如前復去。俄爾又來在師前立。師正意貞白。初無微動。尋爾復去。于屋頭現面。舍棟破裂。其聲甚大。師亦無懼。神見不動。便來禮拜。求哀懺悔。至旦語愛曰。汝所重者。此是邪術。非正法也。可捨之。師往益聽講。以生在邊鄙。言頗涉俗。雖遭輕謔。亡懷在道。都不忤意。又因行路寄宿道館。道士素聞師名。恐化徒屬。拒不延之。其夜羣虎遶院相吼。道士等通夕不安。及明追之。從受菩薩戒焉。又曾行弘農。水側見人垂釣。師勸止之不從。即唾水中。忽有大蛇。擎頭四顧。來趣釣者。因即歸命。投師出家。豈梁道漸衰。而涪土軍動。與彖法師。分飛異域。彖入靜林山。師入青城山。聚徒集業。梁王蕭撝素相欽重。供給獠民。以為營理。未暇經始。便感重疾。知命不救。謂弟子曰。常願生淨土。而無勝業。雖不生三塗。亦不生天堂。還生涪土作沙門也。汝等努力行道。方與吾會。跏坐儼然奄便遷化。時年三十有四。

僧林

吳人。深有德素。行能動物。梁大同中。上蜀至潼。州城西北百四十里。有豆圖山。上有神祠。土民敬之。每往祭謁。師往居之。禪默累日。忽有大蟒。縈繩床前。舉頭如揖讓者。師為授三歸。受已便去。自爾安恬。卒無災異。其山北涪水之陽。素來無猿。師自栖託已來。便有兩頭。依師而住。有見度水而來。及師出門。猿還泅渡而去。如此非一。年月淹久。孚乳產生。乃有數十。有時送師至龍門口。佇望而返。後往赤水巖。有敝寺。屋宇並摧。祇有基址。便即露坐。有虎蹲于師前。低目而視。師乃為說法。良久便去。爾後孤遊雄悍。不避惡獸。常行仁濟。感化者多。末卒于潼郡。

道仙

一名僧仙。康居國人。以遊賈為業。梁周之際。往來吳蜀。江海上。下。集積珠寶。故其所獲貨。乃滿兩船。時或計者云。直錢數十萬貫。既懷寶填委。貪附彌深。唯恨不多取驗吞海。行賈達于梓州新城郡牛頭山。值僧達禪師說法曰。生死長久。無愛不離。自身尚爾。況復財物。師初聞之。欣勇內發。深思惟曰。吾于生多貪。志慕積聚。向聞正法。此說極乎。若失若離。要必當爾。不如沉寶江中。出家離著。索然無擾。豈不樂哉。即沉一船深江之中。又欲更沉。眾共止之。令修福業。師曰。終為紛擾。勞苦自他。即又沉之。便辭妻子。又見達房。凝水滉漾。知入定。信心更重。投灌口山竹林寺而出家。初髮落日。對眾誓曰。如不得道。不出此山。即迴絕人蹤。結宇巖曲。禪學之侶。相次屯焉。每覽經卷。始開見佛在某處。無不哽咽。我何不值。但見遺文。如是挺卓不羣。或有造問學。皆以善權答對。冥符正法。自初入定。一坐四五日。率以為恒。有時預告。明有客至。皆如其說。梁始興王澹。褰帷三蜀。禮以師敬。携至陝服沮曲。以天監十六年。至青溪山。有終焉之志。便薙艸止容繩床。于時道館崇敞。巾褐紛盛。屢相呵斥。甚寄憂心。師乃宴如。曾無屑屑之意。一夕道士忽見東岡火發。恐野火焚害師。各執水器來救。見師方坐。大火猛燄洞然。咸歎火光神德。道士李學祖等。捨田造像。寺塔歛成。遠近歸信。十室而九。州刺史鄱陽王恢。躬禮敬而受其法。天監末。始興王冥感。于梁泰寺。造四天王。每六齋晨。常設淨供。師後赴會。四王頂上放五色光。師所執爐自然煙發。太尉陸法和。昔微賤日。數載在山。供師給使。僧有肆責者。師曰。此乃三台貴公。何緣罵辱。俱不測其貴也。和果遂昇袞服。師或勞疾。見縹衣童子。從青溪水出。碗盛妙藥。跪而進服。無幾便愈。居山二十八年。復遊井絡。化道大行。嘗遭酷旱。百姓請祈。師即往龍穴。以杖扣門。數曰眾生何為嗜睡

如此。語已登遐。即玄雲四合。大雨滂注。民賴斯澤。咸來禱賽。欽若天神。有須舍利。即為祈請。應念即至。如其所須。

香閣黎者

莫測其來。以梁初至益州青城山飛赴寺。欣然有終志。時俗每至三月三日。必往山遊賞。多將酒肉共相酣樂。師常勸喻。竟無改移。次年三月亦如前集。例坐已了。師令人于座穿坑方丈。人莫知意。謂人曰。檀越等恒自飲噉。未曾與我。今日為眾須食一頓。諸人爭奉肴酒。隨得隨盡。若填巨壑。識者怪之。至晚曰。我大醉飽。扶我就坑。不爾污地。及至坑所。張口大吐。雞肉出口即能飛鳴。羊肉出口即馳走。酒食亂出。將欲滿坑。魚鰕鵝鴨游泳交錯。眾咸驚嗟。誓斷辛殺。迄今酒肉永絕上山。此師之德風猶存。益州別駕羅研。朝梁。誌公謂曰。益州香貴賤。答曰甚賤。初不知是人也。誌曰。既為人所賤。何為久留。研亦不測此語。或曰。想是青城香閣黎也。遂往山具述。師曰。檀越遠來。固非虛說。其夜便化弟子等。營墓將殯。怪棺太輕。及開。止見几杖而已。

益州多寶寺猷禪師

[林/心]道人楊氏子。勤讀誦。四十餘年。日夕不捨。房後院壁。圖九想變。露置繩床。櫻被覆上。晝依僧例。夜則寢中。亘一日方出一食。如是漸增七日方食。僧以為常。弗之怪也。如此又經二十餘年。忽經一月而不出者。不畜侍人。僉議。不出祇是入定。不勞看之。忽一夜風雨盛。畫壁廊倒。及旦。眾往視之。試撥櫻被。一無所見。唯繩床坐褥存焉。

僧度

不知何人。去來邑野。略無定所。時人號為狂人。周趙王在益州。有[郢-卑+((白-日+田)/升)]民。與王厚便欲反。或有告者。王未之信。至旦。[郢-卑+((白-日+田)/升)]兵果至。王厚者為主。在城西大街。方床大坐。時師乃戴皮靴一隻。從城西遺糞而走。至盤陀塔。棄靴而迴。眾怪之。而莫測也。又復將反者。以紙筆請師定吉凶。便操筆作州度兩字。反者喜曰。州度與我。斯為吉也。擇曰。彼往我亡。我往彼亡。重必剋之。時趙王據西門樓。令精兵三千騎往。始交即退。隨後殺之。至盤陀。斬[郢-卑+((白-日+田)/升)]兵千餘人。今塔東特高者是。于後方驗師戴皮相。皮[郢-卑+

((白-日+田)/升)]聲同。遺糞而走。散于塔地。所言州度(徒各切)反即斫頭。目前取驗。定後人聞于王。遣人四追。遂失所在。

衛元嵩

益州成都人。少出家。為亡名法師弟子。聰穎不偶。嘗以夜靜侍傍曰。世人洵洵。貴耳賤目。即知皁白。其可德哉。名曰。汝欲名聲。若不佯狂。不可德也。師心然之。遂佯狂漫走。人逐成羣。觸物擒詠。周歷二十餘年。亡名入關。移住野安。自制琴聲。為天女怨心風弄。有傳其聲者。嘗謂兄曰。蜀土狹小。不足展懷。欲遊上京。與國土抗對。兄意如何。兄曰。當今王褒庾信。名振四海。汝何所知。自取折辱。答曰。彼多讀書。自為文什。至于天才大略。非其分也。兄但聽看。即輕爾造關。為無過所。乃著俗服。關中却迴。防者執之。師詐曰。我是長安于長公家人。欲逃往蜀耳。關家迭送至京。于公曾在蜀。與師交遊。而忽得相見。不勝其優。高貴名士靡所不詣。即上廢佛教。自此還俗。周祖納其言。又與道士張賓。密加扇惑。帝信而不猜。便行屏削。師制千字詩。略云。龍首青煙起。長安一代丘。是也。並符讖緯。事後曉之。隋開皇八年。京兆杜祈死。三日而穌云。見閻羅王。問曰。卿父曾作何官。曰臣父在周。為司命上士。王曰。若然錯追。可速放去。然卿識周武帝不。答曰。曾任左武侯司法。恒在階陛。甚識。王曰。可往看汝武帝去。一吏引至一處。門牕椽瓦。並是鍤作。於鍤牕中。見一人極瘦。身作鍤色。著鍤枷鎖。祈見泣曰。大家何因苦困乃爾。答曰。我大遭苦困。汝不見耳。今得至此。大是快樂。祈曰。作何罪業。受此苦困。答曰。汝不知耶。我以信衛元嵩言。毀廢佛法。故受此苦。祈曰。大家何不注引衛元嵩來。帝曰。我尋注之。然曹司處處搜求。乃遍三界。云總不見。若伊朝來。我暮得脫。何所更論。卿還語世間人。為元嵩作福。早來相救。如其不至。解脫無期。祈穌不忘冥事。勸起福助云。

尚圓

姓陳。廣漢雒人。出家以呪術救物。梁武陵王蕭紀。宮中鬼怪。魅諸嫖女。或歌或哭。紛然亂舉。王乃令善射者控弦擬之。鬼乃現形。即放箭射鬼。便遙接還返擲人。久而不已。聞師持呪。請入宮中。諸鬼競前作諸變現。龍蛇百獸。倏忽前後。在空在地。怪變多端。師安坐告曰。汝小家鬼。何因敢入王宮。能變我身。饒變萬種。祇是小鬼。爾等住聽我一言。諸鬼合掌住立。師始發云南無佛

陀。鬼皆失所。自爾安靜。武帝聞召。大蒙賞遇。值梁覆擾。師行至蜀。所有痛惱因之護衛。年八十一。終所住治城。

涪州想思寺無相禪師

不知何來。忽至山寺。不異恒人。其寺在涪州上流大江水北崖側。有銘方五尺許。字如掌大。都不可識。下有佛迹。相去九尺。長三尺許。蹈石如泥。道俗敬重。相以一時渡水無船。乃以鉢安水中曰。何為常擎汝。汝可自渡。便取芭蕉葉搭水。立上而渡。鉢隨後來。須臾達岸。時採樵者。見之相語。師覺便辭去。徒眾苦留不住。至水邊入船。諸人禮請。不與篙楫。乃捉船舷直渡。不顧而去。莫測所往。

童進

絳州李氏子。出家之後。不拘禮度。唯樂飲酒。謂人曰。將瓶等身而灌滿。師猶未醉。嘗以酣醉狂歌。遺尿裊穢。眾共非之。有識者曰。凡聖難測。會周武東征。云須毒藥。敕瀘州營造置監吏力科獠採藥。蝮頭銕狸鬻根大蜂野葛鳩羽等數十種。釀以銕瓮。藥成。著皮衣。琉璃障眼。方得近之。不爾。氣衝成瘡致死。藥著人畜。肉穿便死。師聞之往彼監所。官人弄曰。能飲一盃。豈非酒士。師曰。得一升解醒。官曰。任飲多少。何論一升。便取銕杓于藥瓮中。取一杓飲之。言謔自若。都不為患。道士等聞皆來看。師又舉一杓以勸之。皆遠走避。或曰。此乃故殺人。何得無罪。師曰。無所苦。藥進自飲。有誰相勸。乃噫曰。今日得一醉。臥方石上。俄爾遺尿。所著石皆碎。良久睡覺。精爽如常。隋初無疾而終。弟子檢校。衣服床褥。皆香潔非常。

富上者

莫測何許人。恒依益州淨德寺宿。埋一大笠在路。晝日兀坐讀經。人雖去來。不喚令施。有擲錢者。亦不呪願。每于靜路。不入鬧中。狀如五十。雖在多年。過無所獲。有信心者曰。城西北。人稠施多。在此何為。答曰。一錢兩錢。足養身命。復用多為。陵州刺史趙仲舒。乃三代之酷吏也。甚無信敬。聞故往試。騎馬直過。佯墮貫錢。師但讀經。目未曾顧。去遠。舒令取錢。師亦不顧。舒乃返來曰。你見我錢墮地以不。曰見。問曰。錢今何在。曰見一人拾將去。舒曰。你終日在路。唯乞一錢。豈有貫錢在地。而不取

耶。見人將去。何不止之。答曰。非貧道物。何為浪認。仲舒曰。我欲須你身上袈裟。師曰。公能將去。復有與者。即疊授與。仲舒下馬禮謝曰。弟子周朝人。官歷三代。大與眾僧往還。少有不貪者。聞名故謁。本非惡意。請往陵州。師曰大善。然貧道廣欲結緣。願公助國安撫。即是長見受供養也。舒辭歎曰。僧中有人。不可輕慢。爾後不見。益州人薊相者。從揚州還見之。亦埋笠路側。顏狀如常。

德山

不知何許人。一日厭世。棄妻子入山修道。鬚髮不暇削。衣食不暇給。唯息緣靜念。為悟自性。人莫知其觀行。視其相狀。如得定者。時遊化竹林龍池。開悟道俗。以清簡為本。每云。煩亂之法。道俗同弊。故政煩則國亂。心煩則意亂。水清則魚石可見。神清則想倒可識。學清簡者。尚自誼煩。況在亂使。焉可道哉。

慧琳

絳州神泉薛氏子。以隋初。隱于建明寺。清虛守靜。與物不羣。寺有塑像。常勤供養。像為生鬚三十六莖。大業末年。掃一古墳。豎二竹竿。云是天眼。後忽拔一云。弘農楊為魔所拔也。不久義寧嗣曆。有時著複衣。夏坐墳上。日雖炎赫。身無熱狀。口雖涉道。形同于俗。言談之次。以理居先。雒縣先有育王浮圖。師忽一時歷村。借車三百乘云。欲向雒縣迎浮圖于此安置。未經旬日。遂被火燒。武德年中。潛伏艸野。人莫知也。彼有楊祐師。不測何人。直往艸中相見。曾生未面。宛若舊朋。各云。別來八百年矣。曾為人呪病得差。病者令女賣裙以施。女遂留衣送直。師遙見謂曰。但將裙來。我不須錢。女驚其聖。以貞觀四年。示從物故。

錦江禪燈卷第十八

錦江禪燈卷第十九

慧聰

姓王。出家已後。遊行齋講。手不釋卷。尋經旨趣。心自欣躍。苦形節食。行知足行。自云。法華經常不輕菩薩。不專讀誦經典。但行禮拜四眾。尚得六根清淨。我何為不禮諸佛世尊。即于別院閉門。常禮萬五千佛。依經自唱。一一禮之。寺僧怪其所作。于壁隙伺之。見禮拜頭下。天龍八部等亦頭下。數數非一。諸人來其院者。無不心戰走出。恒聞異香蔚蔚。及爾終後。貞觀年中。院無人往。每夜常聞彈指禮拜行道等聲。

智隱

貝州李氏子。即華嚴藏公之弟子。薙染之後。遵弘道業。慧解所傳。受無再請。而神氣俊卓。雅尚清虛。談吐佛乘。聽者忘倦。開皇七年。敕召藏公。師與入京。住大興善寺。通練智度論。阿毗曇論。及金剛般若論。明其窟穴。解兼倫例。眾舉紹隆。下敕補充講論。于經藏寺。仍揚前部。微恙而終。敕送舍利于益州之法聚寺。即蜀王秀之所造也。道貫西蜀。開化彌昌。傾其金貝。無不興從。不接旬而塔成就矣。及將下瘞。天雨銀花。放白色光。如此非一。正入塔時。感五色雲覆于函上。團圓如蓋。大鳥六隻旋遶雲間。閉訖俱散。人以事聞。蜀王大悅。

法凝

會州人。姓龐氏。初齊武帝。夢遊齊山。不知在何州縣。散頒天下覓之。時師之父老奏稱。去州城北七里。有臣人山。舊號齊山。武帝遣于上立精舍。度僧給田業。師以童子。在先得度。專心持戒。道德日新。兼以究心。時則誦經。後習禪定。或三日出定。或七日出。眾往于牕中窺見。容或禪定。便經一月出。猶不飲食。眾往勸之。雖復進食。漸取少分。年至七十。于佛像前。置座而坐。初燒一指。晝夜不動。火然及臂。弟子輩欲往撲滅。師禁之不許。臂然火焰彌熾。遂及身支。七日七夜。眾皆頂禮贊嘆。至身煉盡。唯有聚灰。眾共起塔。今精舍猶在。

僧崖

涪陵牟氏子。晉義熙九年。朱齡石伐蜀。涪陵獠三百家。隨軍平討。因止千廣漢金淵山谷。師即其後也。而童幼少言。每遊山泉。必先禮而後飲。或諦觀不瞬。坐以終日。人問其故。答曰。是身可惡。我思之耳。後必燒之。及年長從戎。毅然剛正。嘗隨伴捕魚。得_已分者。用投諸水。謂伴曰。殺非好業。我今舉體皆同眾生。遂捨家出家。而修禪觀。時獠首領數百人。共築池塞。資以養魚。師往彼觀望。忽有異蛇長尺許。頭尾皆赤。須臾長大。乃至丈餘。圍五六尺。獠眾奔散。蛇便趣水。舉尾入雲。赤光遍野。久之乃滅。尋爾眾聚。具論前事。師曰。此無憂也。但斷殺業。蛇不害人。又勸停池堰。眾未之許。俄而隄防決壞。時依悉禪師。施力供侍。雖充驅使。而言語訥澀。舉動若癡。然一對一言而合大理。經留數載。無所異焉。

紹闍黎

梓州玄武蒲氏子。未出家前。山行見一大蟲甚瘦。又將一子。于澗中取蝦為食。師歎曰。此蟲應在深山。飢之甚矣。等是一死。不如充此之飢。乃脫衣往臥蟲前。蟲乃避去。後方出家。唯誦經行道。更無異行。大業之初。汝州界蟲暴非常。三五十人持杖而行。傷人既多。師往其處。立茅蓬而坐。蟲並遠去。道路清夷。年一百九歲。乃見疾而終。弟子收舍利。豎塔藏之阿原。

法建

廣漢雒縣朱氏子。誦經千卷。閑暇遨遊。俗無所測。或閉門數日不出。亦無所食。唯聞誦經。然小聲吟諷。音不外徹。有人倚壁竊聽臨響。但聞齶齶溜溜。似伏流之吐波。豈乃一出。追從無聞。武陵王東下。令弟規守益州。魏遣將軍尉遲迥伐蜀。規既降欵。城內大有名僧。皆被拘禁。至夜忽有光明。迥遣人尋光。乃見諸僧並睡。唯師端坐誦經。光從口出。迥聞自到師座。頂禮坐聽。至旦。迥問曰。法師昨夜所誦何經。答曰。華嚴經下卷十卷。迥曰。何不從頭誦之。答曰。貧道誦次到此耳。迥曰。法師誦得幾許。答曰。貧道發心欲誦一藏。情多懈怠。今始得千卷。迥驚疑不信。將欲試之。曰屈總誦一遍。應不勞損耶。師曰。讀誦經典。沙門常事。豈憚勞苦。乃設高座。令諸僧眾並執本聽。法師登座為誦。成似急流之注峻壑。其吐納音句呼噏氣息。或類清風之入高松。眾聞其餘音。情疎意逸。空望塵躅。七日七夜。數_已滿千。猶故不止。迥起謝曰。弟子兵將。不得久停。請從此辭。諸僧因並釋放。迥出嘆曰。自如

來稱滅之後。阿難號為總持。豈能過此。蜀中乃有如此僧。所以常保安樂。奇哉奇哉。師年八十終。

慧恭

成都周氏子。周武未廢佛教之時。與同寺惠遠。結契勤學。遠直詣長安聽採。師長往荊揚訪道。遊于京師。聽得阿毗曇論。迦延。拘舍。地時。成實。毗婆沙。攝大乘。並皆精熟。還益州講授。卓爾絕羣。道俗欽重。醵施盈積。師從江左來還。二人相遇欣歡。共敘離別三十餘年。而同信宿。其言談。遠如泉涌。師竟無所道。遠問師曰。離別多時。今得相見。慶此歡會。伊何可論。但覺仁者無說。無所得耶。師對曰。為性闇劣。都無所解。遠曰。大無所解。可不誦一部經乎。師答曰。唯誦得觀世音經一卷。遠厲色曰。觀世音經。童子皆能誦之。且仁者童子出家。與遠立誓。望證道果。豈復三十餘年。唯誦一卷經。如指許大。是非闇鈍。懶惰所為。請與斷交。願法師早去。無增遠之煩惱也。師曰。經卷雖小。佛口所說。遵敬者得無量福。輕慢者得無量罪。仰願暫息瞋心。當為法師誦一遍。即與長別。遠大笑曰。觀世音經。是法華經普門品。遠已講之。數過百遍。如何始欲聞人耳乎。師曰。外書云。人能弘道。非道弘人。但至心聽佛語。豈得以人棄法。乃于庭前結壇。安高座。繞壇數匝。頂禮昇高座。遠不得已。于簷下據胡牀坐聽。師始發聲唱經題。異香氤氳。遍滿房宇。及入文。空中作樂。天雨四華。樂則嘹亮振空。華則霏霏滿地。念經訖下座。華樂方歇。惠遠接足頂禮。淚下交流。謝曰。惠遠之量。一篝燈耳。敢行天日之下。乞暫留賜見教誨。師曰。非恭所能。諸佛加被之力也。即日拂衣長揖。沿流而去。爾後訪問。竟不知其所之。

法泰

眉州隆山縣呂氏子。初為道士十餘年。一日忽自悟其非。迴心正覺。因即剃除。始誦法華經。尋即通利。乃精勤寫法華經一部。數有靈瑞。欲將向益州裝潢。令一人擔負。行至笮橋。橋忽斷。師在後。負擔人俱墜水中。人浮得出。擔沒不見。師于岸上搥胸號哭曰。其餘俱是閑事。何忍溺經。即高聲唱言。如能為漚得者。賞錢兩貫。豈有一人聞之。脫衣入水求之數度。祇得錢與衣襪。而不得經。師轉悲泣。巡岸上下。望小洲上有一襪。命人取之。乃是經也。艸木擎之。宛無溼處。師不勝歡喜。即以三千錢。償所漚人。曰法師悲號劇喪父母。故為代覓。非是貪錢。弟子雖庸夫。亦知福

報。請以此錢。充莊嚴之直。言訖遁去。更欲與言。不知何往。師至成都裝潢。以檀香為軸。表帶及裘并函。將還本寺。別處安置。夜有異香。師勤誦持。晝夜無間。時彪法師為隣。夜欲看讀。恒嫌師鬧亂其心。曲自往請令低聲。乃見師前大有人眾。皆胡跪合掌。彪退流汗。即移所住。師年八十終矣。

寶瓊

益州縣竹馬氏子。少年出家。清貞儉素。讀誦大品。率以為常。歷遊邑落。但勸尊敬佛法。晚移州治。住福壽寺。率勵坊郭邑義為先。每結一邑。必三十人。合誦大品。人各一卷。月營齋集。依次而誦。如此義邑。乃盈千計。四遠聞者。皆蒙造欸。師乘機授化。望風靡服。而卑弱自持。先仁後德。經行擁[二/丙]。下道相避。言問酬對。怡聲謙敬。不媚于時。本邑連比什邡諸縣。並是道民。尤不奉佛。僧有投寄。無容施者。致使老幼之徒。于沙門像不識者眾。師雖桑梓。習俗難改。徒有開悟。莫之能受。李氏諸族。正作道會。邀師赴之。不禮而坐。僉謂。不禮天尊。非法也。師曰。邪正道殊。所事各異。天尚不禮。何況老君。眾議紆紆。頗相陵侮。師曰。吾禮非所禮。恐貽辱也。遂禮一拜。道像并座動搖不安。又禮一拜。連座返倒摧殘在地。道民相視。謂是風鼓。競來周正。師曰。斯吾所為。勿妄怨也。初未之信。既安又禮。依前崩倒。合眾驚懼。舉堂禮師。一時迴信。從受歸戒。傍縣道黨。相將歎訝。咸復奉法。不敢故違。皆受菩薩戒也。縣令高達。素有誠敬。承風敷道。更于州寺。召僧弘講。闔境傾味。自此而繁。以貞觀八年。終于所住。

明達

康居康氏子。童稚出家。嚴持戒律。受戒之後。便護五根。年及具足。行業彌峻。脇不著席。日無再飯。外儀軌則。內樹道因。廣濟為懷。遊行在務。以梁天監初。來自西戎。至于益部。時巴峽蠻夷。鼓行抄劫。州郡徵兵。克期誅討。師愍其將苦。志存拯拔。獨行詣賊。登其堡壘。慰喻招引。未狎其情。俄而風雨晦冥。雷霆震擊。羣賊驚駭。惻爾求哀。師乃教具千燈。祈誠三寶。營辦始就。昏霾立霽。山澤通氣。天地開朗。翕然望國。並從王化。襁負排藪。獼獸前趨。其徒充澤。遂使江路肅清。往還無阻。兵威不設。而萬里坦然。師之力也。後因行役。中路逢有人縛狔在地。聲作人語曰。願上聖救我。師即解衣贖而放之。嘗于夜中索水洗脚。弟子

如言。而泥竟不脫。重以湯洗。如前不去。乃自以水灌之。其脚便淨。師曰。此魚膏也。莫測其所從。行至梓州牛頭山。欲構浮圖。不訪材石。直覓匠工。道俗莫不怪其言。于時三月水竭。即下求水。乃于水中得一長材。正堪剝柱。長短合度。僉用欣然。仍引而豎。至四月中。涪水大溢。水流翳江。自泊村岸。都無溜者。師率合緇素。通皆接取。從橫山積。創修堂宇。架塔九層。遠近併力。一時繕造。役不逾時。欵然成就。而躬襲三衣。並是羶布。寒暑無革。有時在定。據于繩床。赫然火起。眾往撲滅。唯覺清涼。有沙門僧救。疾患攣蹙。來從乞瘥。師便授杖令行。不移晷景。驟步而返。斯陰德顯濟。功不可識。其例甚矣。又布薩時。身先眾坐。因有盜者。穿牆負物。既出在外。迷悶方所。還來投寺。喻而遣之。化行楚蜀。德服如風。故使三蜀氓流。或執爐請供。或散華布衣。或捨俗歸懺。或翦落從法。日積歲計。而不可紀。

僧晃

絳州涪城南昌馮氏子。形長八尺。顏貌瑰偉。威容整肅。動中規矩。而鷹眼虎身。鵝行象步。聲音雄亮。志略宏遠。志學之年。文才博達。時共聲譽。嘗夢手擎日月。太虛中坐。便晃然厭俗。欣慕出家。私即立名為僧晃也。父母未許。拘械兩足。繫于屋柱。矢意絕命。誓心無改。鎖自開解。乃歎曰。夫志之所及。山岳以之轉。江河以之絕。城臺以之崩。瀛海以之竭。日月為之潛。光。須彌為之崩頽。星辰為之改度。嘉樹為之折摧。況復金木之與桎梏。奚足繫吾心哉。二親顧其決志。遂依彖法師出家。受業學通。綱維法任。乃岷巴之領袖。而咸所推仰焉。

智通

梓州陳氏子。八歲出家。為正道法師弟子。後誦法華。并習講業。善持威儀。奉戒貞苦。常有雙鵝依時。聽講。每日兩度放光。至唐貞觀年間。陞座告眾曰。吾今永別。言訖而逝。春秋九十七矣。

悟詮

號覺海。有慧性。峽州有富人程夷伯者。年二十九。一夕夢其父曰。汝今年當死。可問覺海。其人茫然不曉。一日有僧說相。負覺海字。程請一相。問云。我壽幾何。覺海曰。老僧皆無求。但覓水一杯。呵氣入水中。令程飲之。曰今夜有吉夢可相報。即夜夢至一

官府。左廊男婦。衣冠嚴整。皆相忻悅。右廊男婦。盡枷鎖縲紲。哀號涕泗。傍有人云。左廊是修捨橋路人。右廊是毀壞橋路人。若爾要福壽。可自擇取。程即夢覺。發心。凡百里之內。橋梁路道。一一修整。工畢。覺海復來云。汝作此事。可延十年。程自是于道路上。用工不倦。壽九十二。五世昌盛。

僧稠

姓孫氏。元出昌黎。末居鉅鹿之瘿陶。性度純懿。一覽佛經。渙然神解。幼落髮為沙彌。時輩每暇常角力為戲。而師以劣弱見凌侮。遂羞之。乃入殿中閉戶。抱金剛足而誓曰。我以羸弱。為等輩輕侮。汝以力聞。汝當相祐。我捧汝足七日。當與我力。如不與。必死無還。至第六日將曙。金剛形現。手執一盃筋。謂師曰。小子欲力。當食此筋。師辭以齋。故不欲食。神乃怖以杵。師懼遂食。神曰。汝已多力。然善持教勉旃。神去。達曉乃還。同列復戲侮。師曰。吾有力矣。恐汝不能堪。眾試引其臂。筋骨強勁。殆非尋常。眾方驚疑。師曰。吾與汝試之。因入殿中。橫蹋壁行。自西至東。凡數百步。又躍首至于梁數四。仍引重千鈞。拳捷驍趨。眾皆驚服。嘗住嵩岳寺。僧有百人。泉水纔足。忽見婦人弊衣挾帚。却坐階上。聽僧誦經。眾不測為神人。便訶遣之。婦有慍色。以足蹋泉。水立枯竭。身亦不現。眾以告師。遂呼優婆夷。三呼乃出。便為神曰。眾僧行道。宜加擁護。婦人以足撥于故泉。水即上涌。眾歎異之。後詣懷州西王屋山。修習前法。聞兩虎交鬪。咆響震巖。乃以錫杖中解。各散而去。一時忽有仙經兩卷。在于床上。師曰。我本修佛道。豈拘域中長生者乎。言已。須臾自失。後移止青羅山。凡為入定。每以七日為期。聞有勅召。俱無承命。苦相敦喻。方遂允請。即日拂衣將出。山闕兩岫忽然驚震。響聲悲切。駭擾人畜。禽獸飛走三日。師顧曰。慕道懷仁。觸類斯在。豈非愛情易守。放蕩難持耶。乃不約事留。杖策漳滏。

僧羣

清貧守節。蔬食持經。居羅江縣之霍山。構立茅室。孤在海中。上有石盂。水深六尺。常有清流。古老相傳。是羣仙所宅。師因絕粒。其菴舍與石盂隔一小澗。常以木為梁。由之汲水。年至一百三十。忽見一折翅鴨當梁頭。師將舉錫撥之。恐其轉傷。因此回歸。遂絕水數日而終。臨終謂左右曰。我少時曾折一鴨翅。驗此以為報也。

沙門邵碩

康居國人。與誌公最善。出入經行。不問夜旦。後遊益州。以滑稽言。能發人懽笑。因勸以善。家家喜之。若至人家眠地。必有人死。就人求細席。必有小兒亡。時咸以此為讖。至四月八日。成都行化。于眾中作師子形。即曰[郫-卑+((白-日+田)/升)]縣亦言見師作師子形。乃悟其分身也。刺史蕭慧開。及劉孟明。皆挹事之。孟明以男子衣與二妾穿。試師云。將此二人給公為左右。可乎。師好韻語。乃謂明曰。寧自乞食以清讌。不能與阿夫竟殘年。後忽著布帽詣明。少時明卒。先是孟明長史沈仲玉。改鞭杖之格。嚴重常科。師謂玉曰。天地嗷嗷從此起。若除鞭格得刺史。玉除之。及明卒。仲玉果行州事。是年九月將亡。謂沙門法進曰。願露骸松下。然脚須著屐。進諾之。已而化。昇其尸露之。明日往視。失所在。俄有自[郫-卑+((白-日+田)/升)]縣來者曰。昨見碩公著一屐行市中。曰為我語進公。小兒見欺。止為我隻屐。進驚問之沙彌。答曰。昇尸時一屐墮地。行急。不及繫也。

惠主

始州永歸縣賈氏子。六歲出家。為斌法師弟子。于黃安縣造七寺。梓潼縣造十寺。武連縣造三寺。初年登冠。欲受具足。當境無人。乃入京于甘露寺受戒。唯聽四分。餘義傍通。夢三日三夜天地闇冥。眾生無眼。過此忽明。眼還明淨。覺已汗流。一百日後。周武帝毀教。方知徵應。即返故鄉南山藏伏。唯食松葉。異類禽獸同集無聲。或有山神。送伏苓甘松香。獲此供養。六時行道。禽獸隨行。禮佛誦經。似如聽仰。仍為幽顯受菩薩戒。後有獼猴羣共治道。師曰。汝性躁擾。作此何為。曰時君異也。佛日通也。深怪其言。尋爾更有異祥龍飛獸集。香氣充山。其類眾矣。

慧璿

姓董氏。少出家。在襄州。周武帝滅法後。南往陳轉。入茅山。聽明師三論。又入栖霞。聽懸布法師四論大品涅槃等。晚往安州大林寺。聽圓法師釋論。凡所游刃。並契幽極。又返鄉梓。住光福寺。居其山頂。以引汲為勞。將移他寺。夜見神人。身長一丈。衣以紫袍。頂禮師曰。奉請住此當講大乘。勿說小乘。其小乘者。亦如高山無水。不能利人。其大乘者。猶如大海。此山多佛出世。一人讀誦講說大乘。能令所住珍寶光明。眷屬榮勝。飲食豐饒。惟願弘

持。勿孤所望。法師須水。此易得耳。來月八日定當有水。小神自往劍南慈母山大泉。請龍王去。言已不見。恰至來月七日初夜。大風卒起。從西南來。雷震雨注。在寺北漢高廟下佛堂後百步許。通夜相續。至明方住。惟見清泉香美。合眾同懽。

道昭

簡州康氏子。少時因得疾不悟。云至冥司。見善惡報應之事。遂出家。住太行山四十年。戒行精苦。往往言人將來事。初若隱晦。後皆明驗。嘗有二客來。一曰姚邈。舉明經。一曰張氏。以資蔭。師謂張曰。君授官四政。慎不可食祿范陽。四月八日得疾當不救。次謂邈曰。君不利簪笏。如能從戎。亦當三十年無乏。有疾勿令胡人療之。其年張官于襄鄧間。後累選。嘗求南州。亦皆得之。後又選。果授虢州盧氏縣令。到任。兩日而卒。果四月八日也。後方悟。范陽即盧氏望也。邈舉不第。從知于容州假軍守之名三十年。累轉右職。後因別娶婦。求為僕者。因得疾。服嫗黃氏藥而終。後訪黃氏本末。乃洞主所放出婢。是胡女也。

嘉州僧常羅漢

頻勸人設羅漢齋會。故得其名。楊氏媼嗜食雞。平生所殺不知其數。既死。家人修冥福。道士方拜章。師忽至。告其子曰。吾為汝懺悔。楊家甚喜。設座延入。師顧其僕曰。去街東第幾家。買花雌雞一隻來。如言得之。命殺以具饌。楊氏泣請曰。尊者見臨。非有所愛惜。今日啟醺筵。舉家內外。久絕葷饌。乞以付隣家。師曰。不可。必欲就羹食。既熟。就廳踞坐。折肉滿盤。分置上真九位。乃食其餘。齋罷。不揖而去。是夕賣雞家。及楊氏悉夢。媼至謝曰。在生豈罪業。見責為雞。賴羅漢悔謝之賜。今既脫矣。自是郡人作佛事薦亡。幸其來以為冥塗得助。紹興末年卒。肉身久而不壞。

道汪

長樂潘氏子。幼隨叔在京。年十三。投廬山遠公出家。研綜經律。雅善涅槃。行道數十餘年。嘗行梁州。師為羌賊所圍。垂失衣鉢。與弟子數人。誓心共念觀世音。有頃覺如雲霧覆身。羣盜推索不見。于是獲免。後聞河間玄高法師。禪慧深廣。欲往從之。中路值吐谷渾之難。遂不果行。于是旋于成都。徵士費文淵。初從受業。

乃立寺于州城西北。名曰祇洹。化行巴蜀。譽洽朝野。梁州刺史申坦。與師有舊知。坦後致故。師將往省之。仍欲停彼。費文淵乃上書刺史張悅曰。道汪法師。識行清白。風霜彌峻。卓爾不羣。確乎難拔。近聞梁州遣迎。承教旨許去。闔境之論。僉曰非宜。鄙州邊荒。僧尼出萬。禪戒所資是賴。豈可水失其珠。山亡其玉。願鑒道俗之誠。令四輩有憑也。悅即敦留。遂不果行。悅還都。具向宋孝武。述師德行。帝即敕令迎接。為中興寺主。師乃因悅固辭以疾。遂獲免。于是謝病下帷。絕窺人世。後劉思考臨州。大設法祀。請師講經。乃應請。或問法師常誓守靜。何以虧節。答曰。劉公篤信。方欲大法憑之。何辭小勞耶。

惠持法師

遊峩眉山。遂于嘉州道傍大樹內入定。政和三年四月。風雨暴作。樹為摧折。捕盜官經歷。見其鬚髮蓋體。甲冑遶身。頗異之。遂奏于朝廷。有旨。令肩輿至京。峩西天總持。以金磬出其定。乃問何代僧。法師曰。我東林遠法師弟也。因遊峩眉。不記峩代幾何。仍問。遠法師在否。總持曰。今問遞代。約七百年矣。安得在耶。遂不復語。再問曰。欲歸何方。師曰。陳留縣。復入定矣。

慧叡

冀州人。少出家。執節清峻。常遊方而學經。行蜀之西界。為人所略。常使牧羊。有商客信敬者。見而異之。疑是沙門。請問經義。無不綜達。商人即以金贖之。既還襲染衣。篤學彌至。遊歷諸國。乃至南天竺界。音譯詰訓。殊方異義。無不必曉。

瀘州羅貫山和尚(即建文皇帝)

詩云。流落江湖數十秋。歸來不覺雪盈頭。乾坤有恨家何在。江漢無情水自流。長樂宮中雲氣盡。朝陽閣外雨聲愁。新蒲細柳年年綠。野老吞聲笑未休。書壁。閱罷楞嚴磬懶敲。笑看茅屋與團標。南遊漳海千層迴。北望天門萬里遙。金鋤削下青絲髮。袈裟換却袞龍袍。百官未審歸何處。惟有羣鴉早晚朝。

希夷陳先生

諱搏。普州崇龕鄉人。因遊學至華山。見山巒嶮巖。于絕巘人難措足處。一臥數十載。宋太祖嚮其高風。詔不出山者三。大清十一年甲午。有僧徹綱。侍丈雪和尚。客邸臥石。作詩以贊之。丈夫步驟沒來由。日把華山當枕頭。臥去歷今五百載。局殘殊覺幾千秋。燒還風雨天為屋。食服雲霞氣若牛。十二時輪君使用。不知誰是我同流。

嘉興府楞嚴寺達觀法師

寓閩中太平寺。禮大悲菩薩像贊。峇萬曆戊子長至日。稽首圓滿自在尊。塵刹恒飛無礙輪。碾破一切諸極苦。普令眾生獲悲智。智則對境了無情。悲則逆順咸拔濟。此智在眼洞十方。此悲在心益三世。三世十方量無量。手眼是須千萬種。如是妙用等水月。昭然可見不可捉。分身散影初無常。慈視萬物皆芻狗。若人于是見菩薩。是人即是菩薩子。離此別求奇特事。是則魔鬼壞正法。

德昇

號頑菴。漢州何氏子。幼溺塵滓。稍長夢醒。二十得度。游心講席。四眾以義虎推焉。忽以知解白謙。翻然易轍。更衣頂笠。謁文殊道和尚。懇示佛法省要之旨。道說偈曰。契丹打破波斯寨。奪得寶珠村裏賣。十字街頭窮乞兒。腰間挂個風流袋。師將擬對。道叱曰。莫錯。于是退參三年。方領前旨。入閩鼓山。禮觀竹菴。問國師不跨石門句。意旨如何。竹菴應聲曰。閒言語。言下頓悟。後有僧問。如何是無位真人。師曰。聞時富貴。見後貧窮。

犍為陳道人

示趙鄉紳偈。食飽無憂樂以哉。者場春夢幾豈回。君欲醒豈連忙醒。莫教藤枯樹倒來。杖履尋幽日徑斜。天風吹我入煙霞。雲高法界三千丈。春滿檀那百萬家。祖佛遞相傳密印。明僧次第授袈裟。西來大意頭頭現。鳥嘯猿啼轉法華。

瓦屋山角端

此山從無虎豹。僧壽安語楊升菴曰。而今有獸。不知其名。類畫圖中之角端。食虎豹。而不傷人僧護之。以衛此山。菴曰。予聞角端止殺。今又聞除害。其瑞在麟之上矣。

開元寺張三丰

夔州開元寺。國初張三丰。與手僧廣海。嘗贈詩云。深入浮屠斷世情。舍摩他行恰相應。天花隱隱呈微瑞。風葉琅琅詠大乘。密室晝閒雲作蓋。空亭夜靜月為燈。魂銷影散無何有。到此誰能見老僧。別畚留艸履一雙。沉香三片而去。後海以詩及二物獻之。文皇答賜玉環一枚。千佛袈裟一領。

嘉州凌雲寺

元畚為戰場。至正德間。僧千峰。曾為獄卒。囚徒甚夥。峰曰。世亂刑繁。多不當罪。吾憐汝釋之。我亦從此逝矣。遂削髮為僧。結茅九峰山。其建豎功勳頗多。茲不繁錄。千峰肉身。現存釋迦舍利塔。舍利泉前。攷碑。乃九頂清素禪師十一世孫也。清守道諱楫傳公。夢感從建塔房新金衣焉。塔主心通。請聖可禪師。安居于此。嘗書贊于壁云。石可爛兮鍊可銷。何如色體更堅牢。法身有相還知否。入眼舟從萬里橋。有刮胸驗真偽。輒發癰。懺謝愈。因而人無敢侮矣。

古寺楊關主悟空洪仁禪師

縣竹楊氏子。結茅于青城山。蜀王獻過江聞風。發帑藏以供給。剏龍樓寶閣。顏曰光嚴寺。以淨因寺經藏。蜀板宋箋牙籤錦蓋。莫與京者設于中。為四眾俱瞻之地。劫運雖緒。而寶範猶存。關主肉軀衣金翠堵波無恙。戊辰春。昭覺八十叟丈雪醉老人。率眾繙繹。乃師之願海也。左有嵯峨寺。同畚亦有蜀板藏經。劫火黍離。被風雨所蠹。淨因大伽藍所藏經板。亦隨灰燼。今錦官西關外之萬福寺也。

峩眉道者

蜀人。戒律精嚴。不下山者二十載。一日有布衣青裘昂然一偉人來。與語良久。期以明年是日復相見。待明年是日。道者沐浴端坐而逝。迨暮偉人果來。問道者安在。曰亡矣。偉人嘆息良久。書數語壁間。語曰。落日斜。西風冷。幽人今夜來不來。教人立盡梧桐影。字畫飛動。如翔鸞舞鳳。非世間筆也(或謂呂洞賓)。

錦江禪燈卷第十九

錦江禪燈卷第二十

賢護

涼州孫氏子。來止廣漢閭興寺。常習禪定為業。兼嚴律行。纖毫無犯。以晉隆安五年卒。臨亡。口出五色光明。照滿寺內。遺言使燒身。既而肢節都盡。唯手一指不然。

法緒

高昌人。德行清謹。矢志修禪。後入蜀。于劉師塚間頭陀山谷。虎兇不傷。誦法華維摩金光明。常處石室中。率以為常。盛夏于室中圓寂。七日不臭。有異香。經句不散。每夕放光。照徹數里。村人即于室傍。為起塔焉。

法成

涼州人。十六出家。學通經律。不餌五穀。唯食松柏脂。孤居巖穴。習禪為務。元嘉中。東海王懷素。出守巴西。聞風遣迎。會于涪城夏坐講律。事竟辭反。因停廣漢。復弘禪法。後小疾。便告眾云。法成常誦寶積經。于是自力誦之。始得半卷。氣劣不堪。乃令人讀之。一遍方竟。合掌而卒。侍疾十餘人。咸見空中有紺馬。背負金棺。升空而逝。

法期

[郢-卑+((白-日+田)/升)]縣向氏子。早喪二親。事兄如父。十四出家。從智猛諮受禪業。與靈期寺法林。共習禪觀。猛所諳知。皆已證得。後遇玄暢。復從進業。及暢下江陵。師亦隨從。十住觀門。所得已九。有師子奪迅三昧。唯此未盡。暢歎曰。吾自西涉流沙。北履幽漠。東探禹穴。南盡衡羅。唯見此一子。特有禪分。後卒于長沙寺。春秋六十有二。神光映徹數里。體更香潔。

道法

燉煌曹氏子。棄家人道。專精禪業。亦嘗行神呪。後遊成都。為王休之費鏗之請。于興樂香積二寺主。訓眾有法。常行分衛。不受別請。及僧乞食。所得常減其分。以施蟲鳥。每夕輒脫衣露坐。以飼

蚊蟲。後入定。見彌勒放臍中光。照三塗果報。于是深加篤勵。常坐不臥。元徽二年。于定中滅度。平坐繩牀。貌如恒日。

普恒

成都郭氏子。為兒童時。嘗于日光中。見聖僧在空中說法。向家人敘之。並未之信。後苦求出家。依止安樂寺。獨處一房。不立眷屬。習靜業禪。善入出住。與蜀韜律師為同意。自說入火光三昧。光從眉直下至金剛際。于光中見諸色像。先身業報。頗亦明了。宋昇明三年卒。春秋七十有八。

法淋

晉原臨邛樂氏子。少出家。止蜀郡裴寺。專好戒品。研心十誦。常恨蜀中無好師宗。俄而隱公至蜀。師乃剋己。握錫自刺。晝夜如常。及隱還陝西。隨從數載。諸部毗尼。洞盡心曲。後還蜀。住靈建寺。益部僧尼。無不宗奉。常祈心安養。每誦無量壽及觀音經。輒見一沙門。形甚姝大。常在師前。至齊建武二年。寢疾不愈。注念西方。禮懺不息。見諸賢聖皆集目前。乃向弟子述其所見。令死後焚身。言訖合掌而卒。即于新繁路口。積木燔屍。煙炎衝天。三日乃盡。收斂遺骨。即于其處而起塔焉。

僧慶

巴西安漢陳氏子。家世業儒。慶生有異瑞。十三出家。依義興寺淨修梵行。願求見佛。先捨三指。末誓燒身。漸絕糧粒。唯服香油。到大明三年二月八日。于蜀武擔寺西。對其所造淨名像前。焚身供養。刺史張悅。躬出臨視。道俗僑舊。觀者傾邑。行雲結蓋。苦雨悲零。俄而晴景開明。天色澄淨。見一物如龍。從[卅/積]升天。時年二十三。天水太守裴方明。為收設利起塔。

僧生

[郫-卑+((白-日+田)/卅)]縣袁氏子。少齡出家。以苦行致稱。成都宋豐等。請住三賢寺。誦法華經為業。嘗于山中誦經。有虎來蹲其前。誦竟乃去。後每至諷詠。輒見左右四人為侍衛。年雖衰老。而翹勤彌厲。後微疾。便語侍僧云。吾將去矣。遂怡然取疾。

顯嵩

西蜀重慶銅梁李氏子。飽參倦遊。出世住巴川之宣密院。三十年跡不出閩。紹興中。集眾說偈曰。八十年中嘗浩浩。宏開肆貨摩尼寶。也無一個共商量。不是山僧收鋪早。言訖端坐而逝。茶毗舍利無算。時有淨業和尚。石照文氏子。少業屠。有羊方乳二羔。將殺之。二羔銜其刀。跪伏于門。若乞母命。師感歎。棄家為僧。力參宗匠。忽大悟。作偈曰。昨日羅刹心。今朝菩薩面。羅刹與菩薩。不隔一條線。

禪惠

名山人。家世業儒。屢舉不第。元符間。郡守呂由誠。見以僧勅戲之。遂棄儒從釋。力參祖道。得大開悟。初住本邑天寧寺。出入必策馬乘輿。諸耆宿言。以佛法貴乎苦行。固不宜乘輿馬服綺繡。師答以偈曰。文殊駕獅子。普賢跨象王。新來一個佛。騎馬也無妨。凡所說法。機鋒敏捷。有語錄行世。

寶崖

涪陵人。幼寡言不嬉戲。棄家為僧。以布裹五指燒之曰。信佛如此可也。人以為風。何不治之。答曰。身在空耳。四大五肢復何有耶。投火滅身。而心不壞。

石巖崑法師

江陵人。住涪州方廣寺。家世業儒。累舉不第。遂棄遊釋門。精嚴戒律。澄心禪觀。雖探蹟大乘諸部。而專事緘默。臨終預知時至。集眾說偈曰。幻軀因妄動。藏法為伊演。有念有形遷。無心無垢染。塵塵盡法身。剎剎皆天眼。來去等空華。死生誰宛轉。言訖端坐而逝。世壽六十有九。臘二十八夏。

唐阿世多尊者

天竺人。唐嘗入中國。止灌口靈崖山。常令白牛下山。募糧取水。神異變幻甚多。今靈崖有石刻像存。

道慧

資縣人。與德陽令樊鼎遇。為方外交。萬曆癸丑夏。樊病甚。因亢日夢帝命作桐柏山神。以書問之。師謂之曰。諸業由心造。諸果由心證。帝命由心改。公平日見地。作麼生于此著念。樊又問。病痛甚奈何。師曰。提起主人公。樊問。誰為主。師曰。覺痛者是。樊曰。四大解散。痛亦不知。誰為覺者。師曰。覺原無痛。痛亦非知。知覺無痛。痛痛即離。豈待四大解散。若必解散。如何有呼痛求針之鬼。覺體無邊際。四大浮漚耳。樊大有省。

明采

崇慶州人。少度為僧。及長精止觀法門。不立文字。萬曆四十五年示寂。其夜僧徒百許人。見有紫氣投西南而去。有偈云。念滅滅亦滅。更有何不滅。本來原無說。皎月當空徹。

明本

漢州人。少依于姊丈高晟家。伐薪執爨。一日山中載薪回。驢不行。怒砍其耳。血流被地。心即悔悟。遂祝髮為僧。入阯邠高山寺有年。功行極苦。坐化之日。人有朝蓋華山來者。見本隻履入山云。失一履于禪榻下。可令吾徒寄送。見者至。方知其已化矣。

空菴

彰明縣香水寺僧。得悟禪宗。每歲買藥以濟病者。以穀粟飼鳥。至千百下食環集肩背。善吟咏。有語錄行世。百有餘歲。方坐化。

德愛

號印心。華陽人。生而失恃怙。乳媼不飲茹酒葷。方咽乳。七歲出家。聰慧好道。通儒佛。兼知醫。歷閱山水。遇病輒施藥救之。壬子歲荒。飯僧及流民。獲濟者眾。晚年歸剎止觀栖禪。乙卯十二月。忽示徒眾曰。吾于十四日。復歸造化。至期西嚮說偈而終。鼻下雙珠尺餘。面色如生。茶毗夜。西上紅光。竟夕不散。有徒克紹宗風。大中丞吳公。題曰蓮華淨域。

萬竹講師

名紹乾。號一清。性恬淡篤學。向峩嶺雪巖葺茅茨。僅可容膝。茹菜三年。神氣和暢。還成都。與道友犀泉。結廬百花潭上。直究心宗。更號萬竹。一日幡然若醒。嚮道甚力。遂入南都講肆。聽法者如市。復挂席五臺。刺血研金。書法華經九載。旋入燕京。栖普賢菴。刊行彌陀箋註。日講諸經。陳李二聖母。遙授紫衣敬禮之。岢嵐峰寺有栴檀像。人皆莫知其源。師一見識之曰。乃世尊天宮為母說法岢。優填王思之刻像。既成上昇虛空。佛即摩頂記云。千年後當往震旦。利益有緣。故今千年。像自出現。後還蜀卓錫浣花。都門紳衿贈送詩章。太史黃公劉公。皆有詩送。見續補藝文。師既歸里。有紳何觀察及士大夫。日與談宗門中事。蜀王施木。構講堂于浣花溪之側。一日登堂集眾。端坐而逝。

妙琴

字無絃。華陽人。母高氏有娠。每見異像。生而姿貌奇古。內外典籍。過目成誦。善詩工書畫。或得其篇章者。珍重如寶。後入楚以畫牛得名。俗稱牛和尚。返蜀住艸堂。構室桴東。有梅萼千株。畫梅入妙。自號梅屋老人。學憲五岳陳公。嘉而重之。遂與學琴賡詠。萬曆九年。跌坐道偈而終。

雪菴樂靜禪師

安縣譚氏子。嘉靖壬辰。祝髮南參。還蜀嗣海藏。住道峰院。靜修悟真。萬曆十一年元旦。索筆書偈曰。只此漚泡幻影。相隨六十餘年。橫眠三界剎那。無處顛倒人間。皎然空花影絕。見聞寂寂虛閒。問取雪菴面目。處處綠水青山。書畢跏趺而逝。

無遐

不知何許人。居九峰山絕頂修行。嘗往來村落中。見村民馬忠女甫週歲有病。以破布繻餌之。立愈。又曰。此女當貴。後適庠生趙之辛。果封恭人。常至縣詣邊氏家。一徒羨其侈麗。曰汝樂之。何不遂來。後三日徒死。邊氏舉一子。哭不食乳。師往探摩其頂曰。既來何須哭耶。子遂輟哭。一日語弟子曰。吾將逝矣。可為我治齋。邀諸山一別。諸僧至陪。齋畢。一笑而逝。

真容

榮昌徐氏子。自幼詣觀音寺。禮佛守薙髮。受戒後卒。便生于壁山魏伯祿家。年十七不能言。一日謂其家曰。吾生前乃觀音寺僧。今當還寺。尋往。僧徒參見。即知其名。隨令取原收舍利古畫次第拜其父祖墳墓。乃譚生前。事皆不爽。眾往謁者。意之誠否。悉皆先知。邑令周俊。秘使人往觀。師先夜令徒一人。具茶往候于途。人皆異之。號為神僧。後無恙跏趺而化。

實相

豫章人。萬曆壬辰。卓錫廣元之雪峰。解文字。嘗游戲詩畫。諸經典籍。翻刻七百則公案。評唱若干卷。達官士人多採藏焉。臨終種種異瑞。太史黃輝。為作塔銘。

曉宗

昭化僧。南遊三十餘年。萬曆丙申。歸居縣之梵天院。跪誦法華。禁步不出五載。後結室于人頭山麓。戊午秋。集緇素。告以將別。眾以為他往。懇留之。曰未也。嗣當辭謝。茲山狼虎縱橫。人不敢出戶。是夜諸人夢寐中。俱聞叩門作謝聲。待旦往視。則跏趺逝矣。鼻垂玉筍至膝。眾修塔以藏焉。

知慧菩薩

古城周曉師女。生而不食葷。喜誦經典。年十九。有問字者。慧輒自面壁經句不起。嘗絕粒。食柏葉。成化五年。辭父母。遊至江利口白馬寺經樓上。自焚香結跏坐入滅。正歷酷暑無臭不朽。神顯靈異。彼都人士。遂以沙築其身。裝塑成像。號知慧菩薩。眾皆爭事之。靈異響應。

孤舟禪師

不知何許人。萬曆初。至真安磻溪寺。面壁數年。一日謂主僧曰。明日予逝矣。寺外二樹將折。一折有聲。即主僧長老。一折無聲。即予也。次日二樹果折。說偈曰。勘破無無世界。了然何物心頭。自性已歸圓寂。清風明月自然。端坐而逝。

福湛

號天淵。楚人。居蓬溪智林。勤苦修行。解悟空寂。為耑禪宗。所著。有天淵錄二卷。及卒。有偈云。七十七年一笑終。倒騎木馬吼西風。我今脫殼飛騰去。明月清風一樣同。

了用

號雪機。遂寧張氏子。少善應赴。偶聞有向上事感悟。靜坐數年。深有所得。印證于天淵和尚。嘗作山居詩。有云。傍樹修菴倚翠岑。煙霞繚繞白雲嶽。愚痴自合棲泉壑。潦倒何妨論古今。怪石溪邊塗去跡。浮嵐巖下絕來痕。始因入道藏幽谷。截斷攀援更莫尋。年七十二卒。其日彩霞覆寺。人咸異之。

玄暢

河西金城趙氏子。少耑。家門為胡虜所滅。禍將及師。虜帥見師顏古清奇。而止之曰。此兒目光外射。非凡童也。遂獲免。後往涼州出家。本名慧智。遇玄高事為弟子。高每奇之。因改名玄暢。以表付囑之旨。其後虐虜剪滅佛法。害諸沙門。唯師得脫。元嘉二十二年閏五月間。發自平城。路由代郡上谷。東跨太行。北經幽冀。南轉將至孟津。唯手把一束楊枝。一扼葱葉。虜騎追逐。將欲及之。乃以楊枝擊沙。陡然天闇。人馬不能前進。有頃沙息。騎已復至。于是投身河中。唯以葱葉內鼻孔中通氣度水。于八月達于揚州。洞曉經律。深入禪要。占記吉凶靡不誠驗。墳索子氏多所該涉。至于世技雜能。罕不畢備。初華嚴大部。文旨浩博。終古以來未有宣釋。師乃竭思幽尋。提章比句。傳講無匹。又善三論。為學者之宗。宋文帝深加欽重。請為太子師。再三固讓。弟子謂之曰。法師方欲弘道濟物。廣宣名教。今帝王虐已相延。皇儲蓄禮思敬。若道揚聖躬。則四海歸德。今矯然高讓。將非聲聞耶。師曰。此可與智者說。難與俗人言也。及太初事故。方知先覺。自爾遷憩荊州。止長沙寺。時沙門功德直。出念佛三昧經等。師刊正文字。辭旨婉切。又舒手出香。掌中流水。莫之測也。迄宋之季年。乃飛舟遠舉。乃適成都。初止大石寺。乃手畫金剛密迹等十六神像。至昇明三年。又遊西界。觀矚岷嶺。乃于岷山郡北部廣陽縣界齊后山。遂有終焉之志。仍倚巖傍谷。結艸為菴。弟子法期。見神人乘馬。著青衣繞山一帀。還示造塔之處。以齊建元元年四月二十三日終也。

普岸

漢東蔡氏子。得法于百丈。太和年中謂眾曰。吾山水之遊未厭。諸人勿相留滯。天台赤城。道猷曾止。華頂石梁。智者降魔。將遊之也。自襄陽迤邐。從沃州天姥。入天台西門。得平川谷中一大舍峰名平田。結茅居之。未幾見虎乳子。瞪目眎師。遂以杖按其頭曰。貧道聞。此山神仙窟宅。羅漢隱居。今欲寄此安禪。檀越勿相驚撓。經宿虎領子而去。癸丑。眾力營構丈室。成平田院。示眾。大道虛曠。惟一真心。善惡勿思。神清物表。隨緣飲啄。更復何為。

慧永

內江潘氏子。與慧遠同師道安。相期結屋羅浮。及遠為安所留。師乃先至潯陽。刺史陶範。留憩廬山舍宅。為西林寺以居之。峰嶺別立茅室。嘗有一虎馴伏。入其室者。輒聞異香。因號香谷。

懷州靈燦

遠公之門人。稟性淳直。寬柔著稱。遊學鄴研蘊正理。深明十地涅槃。備經講授。隨遠入關。十數之一也。住大興善寺。因遠公去世。眾侶無依。開皇十七年。奉勅補次為眾主。于淨影寺。傳揚故業。積經年稔。仁壽興塔。降勅令送舍利于懷州之長壽寺。初建塔將下。感一雄雉集于函上。載飛載止。曾無驚懼。與授三歸。便近人馳遶。似如聽受。迴頭鼓舞。欣躍自娛。覆勘其形。實非其雉。乃彩鳳也。

楚琦

蜀人。篤信西方。因抵燕京。聞樓鼓聲大徹。洪武初。三詔說法京都。皇情大悅。後築室號西齋。一意淨業。常見大蓮華充滿世界。彌陀在中。眾聖圍繞。將示寂。書偈曰。吾行矣。人問何往。答曰西方。又問。西方有佛。東方無佛耶。乃厲聲一喝。泊然而逝。

牟羅漢

眉山人。名安。以廂公隸卒。如岷山。涉上清坂。忽遇髯者。顧笑曰。汝飢何不食柏子耶。摘子投其口。顧髯者不復見矣。遂不火食。大雪埋室。庭有大甕貯水。解衣就浴。江水暴漲。舟不可行。

或戲指其笠曰。乘此渡可乎。師遂置笠水面。跌坐其上。亂流以濟。人呼為牟羅漢耳。

印滿

大千江安人。初不知書。因讀觀音經有悟。遂能文。有僧云。及八角磨盤七重行樹于室中。渠演之曰。大道原空。八角磨盤何處轉。本來非有。七重行樹不須栽。題水際觀音閣。曇影一江。兜率院天凝水月。身香五分。婆羅門女散栴檀。題懺筵。旋懺旋為。若是不為何用懺。非空非色。但凡有色總成空。題佛殿。皇朝大一統。三教敷崇。天子壽萬年。億兆稱頌。僧舍云。補衲迎紅日。開牕推白雲。題佛閣。白日住虛空。千古慧光彌宇宙。金身來淨土。三乘苾芻遍河沙。題文昌祠。半壁拱天心。開北極圖書洞府。六星明斗上。應人間豪傑昌期。開口皆佳句也。

壽聖院僧冲

古主于詩。其挽光獻太后云。昔補一天成大業。晚扶雙日耀重離。有詩五百餘篇。題曰錦屏集。又僧推聰能詩。曾賦春陰云。好花分日少。閒艸占春多。亦佳句也。

法師承遠

始學于成都。唐公至荊州。進學于王泉真公。真公授師以衡山。乃為教魁。相從而化者眾。有弟子法照。初居廬山。由正定聚。夢趣安樂國。見蒙惡衣侍佛者。師問為何人。佛曰。衡山承遠也。覺而見之相肖。乃從而學。傳教天下。法照在代宗時為國師。乃言。其師有異德。天子南嚮而禮焉。度其道不可徵。乃名其院。額曰般舟道場。用尊其位。師始居山西南岩石窟。人饋之食則食。不饋則食土泥茹艸木。後策杖騰空。不知何往也。

裴氏鸚鵡

成都尹韋臯記曰。人有獻鸚鵡者。河東裴氏謂。此鳥名載梵經。智殊常類。常狎而敬之。始告以六齋之禁。及午後非時終夕不食。或教以持佛名號。仰首奮翼。若善承聽。每清景永夜發和雅音。阿彌陀佛聲聲相續。一日有憔悴容。訓養者鳴磬而告之曰。將去此而西歸乎。每一擊磬一稱佛。十擊磬而十念成。斂翼委足揜然而絕。案

釋典。十念成往生西方。又云。得佛惠者。歿有舍利。遂命火焚之。得舍利十餘粒。貞元十九年九月記。

成都有僧。誦法華經

甚功。一日有山僕。來請入溪。見跨溪一閣。僕入報。出謂僧曰。先生請師誦經。誦至寶塔品。先生野服藜杖。兩眉垂肩。揖入焚香而聽。設飯[木*巳]稭菊若甘露。飢一醵。僕送至中途。師問。先生何姓名。僕曰。姓孫。復于僧掌書思邈字。僧方嗟駭。僕忽不見。復回尋索三日。竟迷路。歸視醵。乃金錢一百。由茲一饌。身輕無疾。唐史言百五十歲。野錄請誦經時在國初。則又三百年矣。

沙門海通

于嘉州大江之濱。鑿石為佛。高三百六十尺。覆以九層之閣。顏曰凌雲。

梵僧西天三藏益怛羅

至蜀。自言從摩伽陀國至益州。途經九萬九千三百八十里。時建光天元年也。三藏自言。已二百七十歲。

成都沙門光遠

遊西天。還詣闕。進西天竺王子歿徒曩表。佛頂印。及舍利若干。貝多葉。菩提樹葉。詔三藏施護譯其表。曰伏聞支那國有大天子。至聖至神。富貴自在。自慚福薄。無由朝謁。遠蒙皇恩。賜金剛座釋迦如來袈裟一領。即已披挂供養。伏願支那皇帝。福慧圓滿。壽命延長。一切有情度諸沈溺。謹以釋迦舍利。附沙門光遠以進。

明槩表

決對傳奕廢佛僧事。師聞三皇統天。五帝御寓。道含弘而遠大。德普覆而平均。敷善教以訓民。布慈心而育物。逮乎中古。其道弗虧。故漢武欽明。見善而弗及。顯宗睿哲。體道而弗居。遂能紆屈尊儀。甘泉禮金人之瑞。翹想夢寐。德陽降銅像之徵。于是秦景西遊。越流沙而訪道。摩騰東入。跨葱嶺而傳真。遂得化漸漢朝。寺

興白馬之號。道流晉世。剎建青龍之名。其間盛寫尊儀。競崇寺塔。騰慧雲于落仞。涌法水于窮源。文富萬言。第略記耳。

通天禪師

諱明徹。京兆同州潘氏子。嗣法于鋏山禪師。乃臨濟二十五世孫也。弔影孤單。歷半天下。後遊峩眉。隙地為菴。名曰圓覺。兀坐終日。熊猿作伍。煙霞為鄰。丁亥歲。神宗聞之。賜紫衣龍藏。顏曰護國艸菴寺。迨辛丑十一月十二日。示微恙。書偈。七十六年幻化身。東西南北苦勞生。今朝惹得虛空笑。大地原來不是塵。塔全身于千佛頂。

得心律師

巴東人。因禮普賢值大椿。憩于下。常修淨業。晝夜六時弗間。日居月諸。雲輪霞委。忽成叢席。以樹名曰洪椿坪也。劫運斯逢。秋毫無犯。兩川共尊。實師之願海淵弘矣。

渝州木棟可尊古法師

持正嚴行。威德逼人。嘗講法華。至唯佛與佛乃能知之。遂執卷召眾曰。還知麼。眾答不恰。自代云。向下文長。付在來日。因以兩川稱為義虎也。

澄江宗主

內江復覺寺僧。三學該煉。唱提千七百則公案。如青雲吐月。精操玄文。似遠客還鄉。出入劫雲中。匡徒劍戟裏。暮年折一足。世稱雲門再來。後示寂于峩眉山。塔標伏虎寺。世壽八十三。坐臘五十九夏。

輔慈沙門。高原昱蓬溪人

廿歲猶粥粥然。似無能者。偶友人激曰。終南山多異人。可往叩焉。師至終南。寓窺基法師遺址。果值異人。授以唯識論。淬礪九載。後抵燕都。值肯堂王公。論唯識義。師曰。大覺湛然。識于何生。佛智歷然。識向何滅。若執唯識真實有者。遮唯識也。如是則天親不得已以有頌。護法等不得已以有論。師于萬曆辛亥。挂搭于

江寧南屏。不得已操觚詮註。務顯永明宗鏡。攝性相以雙圓。彌勒闡宗。依一真而摹相。心空識空。則三十為綴。識滅論滅。即九大焉依。本如吳公見以助喜。即捐金壽梓。師曰。乍尋茲義。文隋齟齬。竭思羣經。窮研眾論。支頤瞪目。振逸忘勞。更訊大方。漸通線徑。剖厥既就。海內強學。無不沾濡。密雲悟和尚過南屏。師以藁示之。密閱數紙。批云。瘦狗過沙溪。擲之而去。師回蓬溪青蓮寺示寂焉。骨櫬白如雪。堅石硬如鋼。塔于本寺之菴峰。世壽九十。坐六十四夏。

長壽東山寺無為律師

前身即本寺楊關主也。臨終曰。我二十年後再來。遂將方丈鎖封而逝。迨廿載。緇素夢師祖回山。翌日設香恭迎。見一僧年將二十。且笑且言曰。吾來矣。汝等可將我封號開了。便入方丈。坐談往事。歷歷指陳。緇素莫不驚異。後又上山欠水。自往鶴遊坪龍王洞。兀坐七日。募一小龍携回。入滅時。門弟子。恐後龍難制伏。遂白師遣下山矣。師不善詩對。有涪郡冢宰夏公訪師。因猫兒往過。夏即出對曰。小小猫兒拖虎尾。師應聲對曰。細細蝦子帶龍鬚。其靈異聰利。不止如此。兩川深慕其道德焉。

鈞天

廣樂內江石氏子。神清侏儒。戒月孤圓。嘗題接引佛壁曰。久立地等世上人。一齊同路。長伸手接娑婆客。打夥共行。崇禎丙戌。聞闖寇陷宸京。而獻賊亦叛蜀。携徒宗巨。遁跡於然燈寺之絕頂。不粒而終。壽七十二。塔于本山。

昭覺惟一真常禪師

未詳法嗣。嘗作牧牛頌曰。崢嶸頭角出常流。踏遍溪山得自由。一朝摸著牛兒鼻。牽向人間賣不休。

遼陽

三韓人。邊鎮之幼子也。以失守。問罪當在死數。父以錢贖之。得避俗為僧。精勤慍厲。苦行標節。不畜錢帛。隨得隨施。居江安土橋。惡染風疹。于康熙庚戌冬。密有燒身之意。嘗自[什/積]薪高丈餘。中開一龕。足容己身。弟子德法苦諫不從。傾囊設大施會

訖。入龕自焚。遺命。碎骨和粉棄江中。遂遵之。後徒德玉南還。為師作忌。有云。持鋤上法堂。為覓先師骨。先師臨終時。分付塋魚腹。何哉要如斯。喜唱船子曲。咄。善漁父和實難齊。欸乃一聲山水綠。

遵義禹門策眉禪師

黎氏子。幼為郵吏。而桂子蘭孫。縑素百有餘人。因甲乙之。革依本師丈雪和尚削染。金湯法社。敞建叢林。乙卯冬杪過昭覺。省覲本師。行至渝州。偶問門徒。此去成都遠近。眾曰。半月程。師曰。祇可半途。命莊香遙禮畢。端坐而逝。世壽八十八。僧臘三十。塔于內江般若寺也。

諱號雷同傳

兩楊雄。兩李膺。兩王褒。兩文與可。楊雄成都人。作大元經者。漢王褒資中人。作賢臣頌者。晉李膺涪城人。作益州記者。漢李膺為益州太守。褒字記云。城西三里有李膺宅。後周王褒。同庾信從益州趙王。出鎮之蜀。褒有奉賀詩。楊雄持節入蜀。迎梁主蕭歸者。文與可鹽亭人。與東坡先生同時。善寫竹。已上皆宦遊人也。今涪州有文姓者。亦號與可。深可慨歎。宋孫明復曰。太鉉一書。乃明天人始終之理。君臣上下之分。蓋疾莽而作也。王介甫諸家。以年數考之。謂子雲與莽不相及。上符命投閣。恐係谷子雲事。鑿鑿有據。是何人忍于污衊賢者于史中。

攀高傳

凡別名更號。萬不可犯。前輩如憨山老人。時人喜憨字。效而稱之。憨松憨石憨月憨浪。本師破老人。時人亦效而喜焉。破浪破雪破峰破石。牧雲叔住嘗熟縣破山寺。拈古內謂。破山則不然。末學聆之。疑翳載胸。又如木陳浮石。亦先輩號也。高僧傳備具。蒼頡造字如河沙。何故篤羨此音之美。如天皇天王兩道悟參錯。費盡後昆脚手。

後跋

昔如來在世。預以末法。囑累帝釋及諸國王。良由天力可摧萬邪。王威可率兆庶。而遺法付囑者。意在仗庇流通。以四眾之微弱。恐

三寶之廢毀。藉王者之威力。令有不肖者寢其紕紊。助大猷以維新。扇皇風以遐暢。所以歷朝地主。公卿士庶。一聆分衛。無不傾心呵護也。故眾生非佛法不能自度。佛法非眾生不能弘宣。佛又自記囑累流通。惓惓有以。知世尊慈悲法施。設使無量國土。有一人不聞是法者。未滿如來本懷。今吾南洲。有一夥男子。頗稱猛利。一聆玄誨。即豎起眉毛。徹悟根源。真常獨露。語嘿動靜為天下法。斯乃折蘆導世之徒也。又有一類操白業底。足跡徧天下。詩名滿世間。便謂已證已得。從而呵佛罵祖。放曠無檢。聲色貨利。居然常人。而高談濶論。明欺一世。豈欺世乎。乃自欺也。又有一種。洋洋焉形影相弔。言于未來。乃靜極光通。神清可挹。俗之所謂神僧者此也。又有一般操黑業人。鈍根樂小法。不自信作佛。仁者彼既丈夫我亦爾。怯弱于誰。此一放過。不知打向何方何道裏去。且目擊耳聞。同牕之輩。多少英俊。精靈剝盡。惶惶焉。又一生了。觀古之尊宿。幾十年點胸自許後。為明眼人煅煉方始省悟。及其悟後。奉戒愈精。檢過愈密。甚至向折脚鐺下。入山磨煉真去就。豈非識法者懼。邇來學者。順則喜。逆則悲。皆大法不明之咎。故宋受子罕之言。囚于墨翟。魯信季孫之說。逐于尼丘。二子之賢。弗能自保。況蠢蠢之徒耶。爰佛法弘化。貴乎時節因緣。緣與時違。化將焉托。且巴蜀未蔡。何緣千年九易。土石俱焦。聞昔染指法味時。即有稗官野史之志。自戊午入蜀省勤。恨兵戈擾攘。典籍蕩廢。而有無徵不信之失。本師于己酉秋。遂發大藏。攷驗傳燈。取其師承有據者筆之。不敢以影響參合疑誤。後人顏其名。曰錦江禪燈。越己未七旬大年。雖老且病。未嘗不手披目閱。以訂其譌。聞等幸集康衢。忝序班首。勸諸同志。悟自本心。見自本性。受用自家境界。為大導師。作人天眼。于此三有大城。隨機應化。令彼十二類生。與我無異。則住荊楚弘山崇慧寺徹聞謹跋。

錦江禪燈卷第二十(終)

[CBETA 贊助資訊](#)

[.\(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自 2001 年 2 月 1 日起，CBETA 帳務由「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承辦，並成立「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CBETA 專戶，所有捐款至 CBETA 專戶皆為專款專用，歡迎各界捐款贊助。

您的捐款本協會皆會開立收據，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

信用卡線上捐款

本線上捐款與聯合信用卡中心合作，資料傳送採用 SSL (Secure Socket Layer) 傳輸加密，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

[前往捐款](#)

信用卡（單次 / 定期定額）捐款

本授權書可提供單次捐款或定期定額捐款之用途。

請於下載並填妥捐款授權書後，請傳真至 02-2383-0649，並請來電 02-2383-2182 確認。

或掛號寄至 10044 台灣台北市中正區延平南路 77 號 8 樓 R812 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收。

請在此下載 [授權書](#) (MS Word 格式)

劃撥捐款

郵政劃撥帳號: 1 9 5 3 8 8 1 1

戶名: 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欲指定特殊用途者, 請特別註明, 我們會專款專用。

線上信用卡 / PayPal 捐款

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 CBETA 引用其服務, 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相關收據開立事宜, 由於付款幣別為美元, 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 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 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

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

[線上信用卡 / PayPal 贊助](#)

支票捐款

支票抬頭請填寫「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CBETA is part of Seeland Educational projects, any donation (ex- cheques, remittance, etc.,) please entitle to "The Seeland Education Foundation".
